

건축사

1998 **08** vol. 352

칼럼 이느 건축적 공무원의 죽음과 우리 건축의 현실

작품리뷰 서울시립대 종합문화관

테마기획 지역건축탐방기 - 수원

기획연재 한국의 건축가 ③ - 홍순인(2)



21세기를 준비하는 대한건축사협회- 회원의 권익과 발전을 위해 뛰고 있습니다

건축사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대한건축사협회는 다양한 지원시스템을 갖추고
우리 건축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문으로 새어나가는 달러 해강 수퍼사시가 막아드립니다



에너지 절약형 독일식 시스템 창호 해강 수퍼사시는 다년간의 연구와 노력 끝에 국내최초로 100% 국산화를 실현,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시스템 창호를 최고의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 여러분께 한발 더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다격실 구조와 밀폐성 높은 EPDM 가스켓, 복층유리를 사용하는 해강 수퍼사시는 단열, 방음효과가 탁월하며 윗열기 개폐방식의 도입으로 공기의 자연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는 과학적인 환기방식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연구개발로 에너지 절약에 앞장설 것을 약속 드립니다.

해강 수퍼사시 구입 및 문의처

■서울 사무소 및 전시장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8-2 남경빌딩 2층 TEL : (02)548-4041(대) · FAX : (02)543-3647
 ■본사 : 충남 천안시 목천면 지산리 236번지 TEL : (0417)557-9687 · FAX : (0417)557-9689 ■울산 : (052)248-0900
 ■부산 : (051)501-9006 ■강남 : (02)3442-0657 ■강북 : (02)264-5400 ■대구 : (053)551-1770 ■송파 : (02)3401-8262
 ■인천 : (032)431-6732 ■의정부 : (0351)877-3808 ■안성 : (0333)656-7504 ■천안 : (0417)575-8196 ■대전 : (042)633-5591
 ■강릉 : (02)474-1661 ■리안 : (02)552-3530 ■마산 : (0551)51-0011 ■제주 : (064)48-4811 ■성북 : (02)914-36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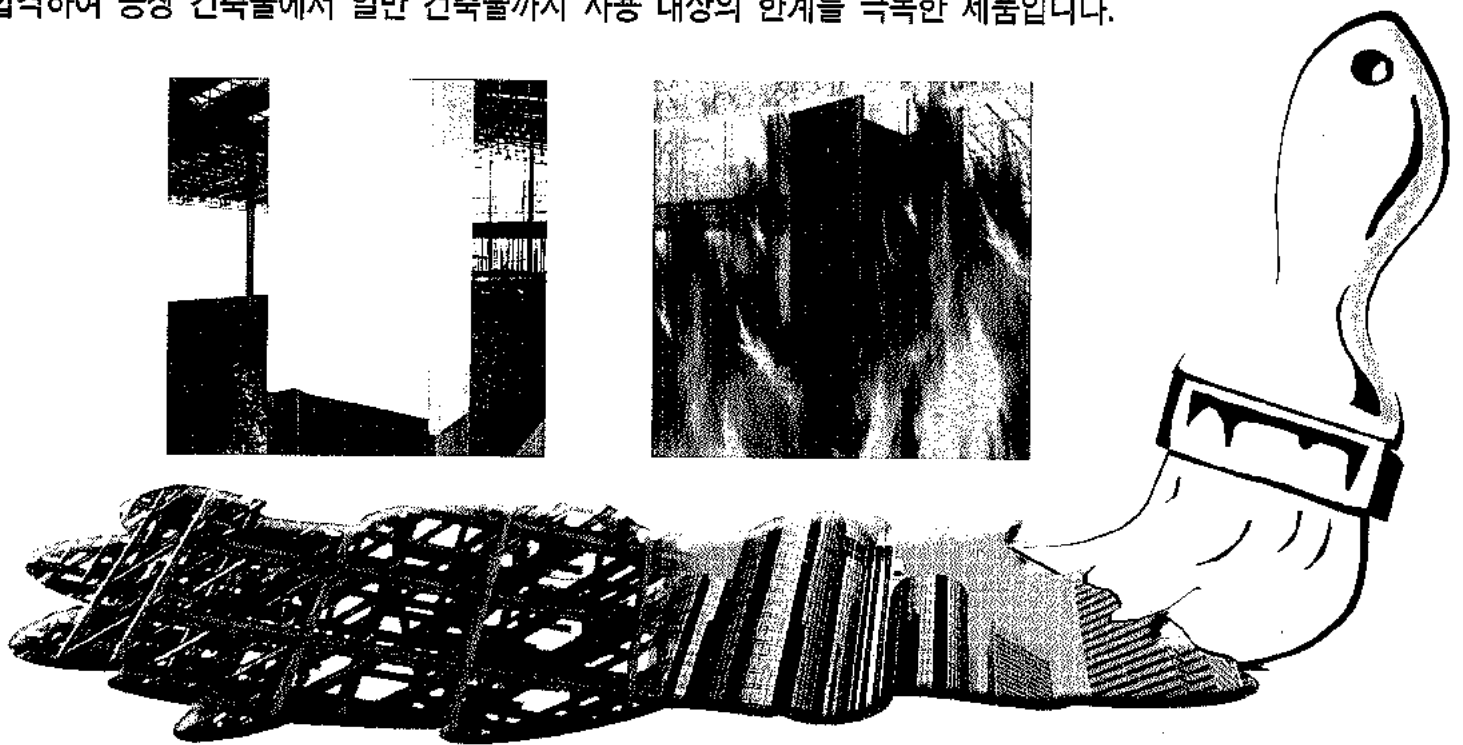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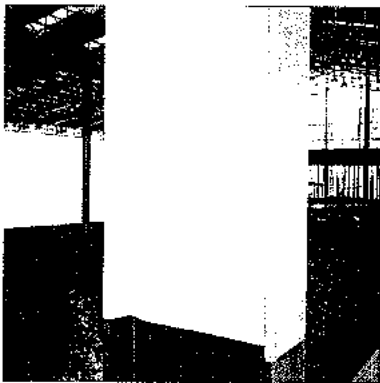
침단 철골내화 페인트



FIRE CONTROL 국립건설시험소 고시 제 1996-33호

공장 건축물에서 일반 건축물까지 ...

취급, 보관, 시공, 화재등 어떠한 단계에서도 냄새, 분진, 가스등의 유해 위험요소가 전혀 없는 청정내화재 FIRE CONTROL은 페인트 타입으로는 국내 최초로 일반 건축물용 시험에 합격하여 공장 건축물에서 일반 건축물까지 사용 대상의 한계를 극복한 제품입니다.



용도

철골 구조의 건축물 / 철골 구조의 공장 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창고 물류센터 / 근린 생활시설 / 발전소 선박, 프랜차이즈, 산업시설

특성

- 자체 독성이 전혀 없는 무해 재료이다.
- 화재시 유독한 연기를 방출하는 기존의 제품과 달리 발포성형체가 그대로 유지되는 완전 불연체이다.
- 시공시 페인트 타입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안전상 문제점이 전혀없다.
- 시공후 깨끗하고 미려한 외관을 유지하며 자체강도, 부착강도가 강하여 변형, 변질이 발생하지 않는다.

성능

	대 상	내화시간	사용부위	도막두께
내 화 구 조 지 정	일반건축물 공장(2층이상) 창고, 물류센터 등	1시간	철골 (기둥,보)	하도:0.05mm 중도:2.95mm 상도:3.20mm
	공장(1층,중2층)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	1시간	철골 (기둥,보)	하도:0.05mm 중도:1.95mm 상도:2.20mm

FIRE CONTROL은

건축법 제2조 제7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화성능을 갖춘것"으로써 내화구조 의무화 건축물의 준공검사시 필수적인 내화성능도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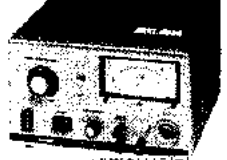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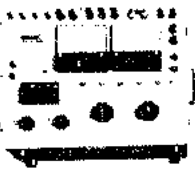
H 하이템주식회사
HITEM CO., LTD.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4동 92-4
남성 B/D 4F
TEL:(02)535-7230(대) · FAX:(02)535-6503
공장: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묵리 861
TEL:(0335)33-6074~5

계측기 및 전설공구

MULTI 누설전류계로 절연저항 비교측정, 누전사고예방, 10,000V 절연저항계 **KYORITSU**

전기감리 · 소방감리 장비 판매중

 누설전류계 M-40 40 m/m 0.01mA~1mA 누전사고예방	 유압식 단자 압착기 9H-150(14°~150°)	 전선압착기(유압식) EP 430(Y-35)	 유압식 철판천공기 SH-10(2"3"4")		 접지 저항계 타자형 41050~2000Ω
 누설전류계 M-80 80 m/m 0.01mA~1.000A 누전사고예방	 유압 압착기 12호 A (14°~325°)	 유압 수동 펌프 HP 700A	 특고저압검전기		 접지저항계 41020~1,000Ω
 COS MOS 가스 측정기 LNG LPG x P 702SA	 DIGITAL 소음계(1350) 35~130db	 DIGITAL 온도계(1330) 0.1~20.000	 비접촉식 온도계 ST-2P-18~400°C ST-6L-20~500°C		 비접촉식 온도계 PM 30L-18~870°C R31L RL 30~30°~1200°C
 절연저항계 3213A 500V 1,000M 1,000V 2,000	 DIGITAL 크로노미터 234301 650V 1,000A	 접지저항계 3235	 다기능계측기 MET500		 절연저항계 3165 500V 1,000M 3166 1,000V~2,000M
 005 Alms 레온 가스 측정기 R134a R22 R12	 절연장갑	 50,000V 내전압시험기	 후크온식 접지저항계		 절연저항계(3123) 10,000V
 DC Hydrot tester 60kV 5mA	 절연유선기 측정기(HD 101)	 절연유 시험기(HOSS)	 계전기 시험기(8510)	 접지공구	 온도기록계 SR 1,000 UR 1,000 UR 1,800

취급회사 제품



KYORITSU

MULTI 누설전류계

IZUMI 압착기

KIKUSUI 내전압 시험기

MUSASH O.T 테스트

HIOKI 계측기

국산

메가 후크메타 아쓰테스타 소방장비 차압계

YOKOGAWA

기록계

내전압 시험기 제작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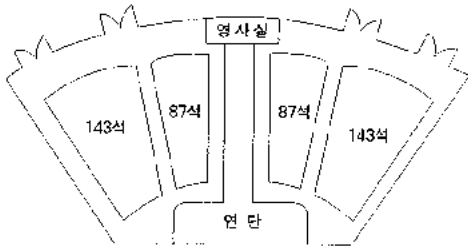
현대전기

서울시 종로구 장사동 199-1

TEL : (02)279-0427, 278-3944

FAX : (02)273-8758

대한건축사협회 회관 대관안내



대강당(460석)

대강당

- 기업 및 단체의 정기총회/세미나/강연회/교육·연수 등 대규모 회의 장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면적 : 143평(계단식)
- 수용인원 : 460(좌석수)
- 부대시설 : 녹음/음악/영사실/무대/무대영사막/흑판/OHP/VPM/SP

회의실 임대료 및 기자재 사용료 기준

1. 회의실 임대료

(단위 : 원, VAT별도)

구분	좌석수	임 대 료	
		기본요금(3시간)	초과시간(시간당)
대강당	460석	330,000	66,000

- 사용시간 : 하절기(3월~10월)/09 : 00~18 : 00, 동절기(11월~2월)/09 : 00~17 : 00

※ 회원 및 관련단체와 장기사용(년10회 이상)의 경우 상가금액의 30% 할인.

2. 기자재 사용료

(단위 : 원, VAT별도)

장 비 명	사 용 료(1일 1회 기준)
비디오	30,000
OHP(오버헤드 프로젝트)	20,000
VPM(비디오 프로젝션모니터)	100,000(비디오 포함)
S/P(슬라이드 프로젝트)	2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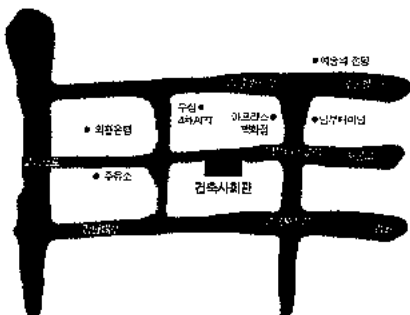
3.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 제출시 예약금으로 임대료의 10% 이상을 납부

- 현수막 규격

- 대강당 : (가로) 900cm×(세로) 90cm

약도



대관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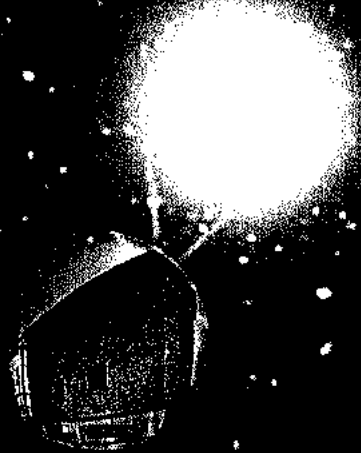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건축사회관 대한건축사협회 총무부
상담·예약실(전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서 동쪽방향 150m 좌측지점)

TEX : 581-5711~4

FAX : 586-8823 / 585-4958

'98 우리건축문화대상

자
L
P
E
R
T
I
O
N



한국건축문화대상은 우리건축의 본질과 이 시대의 정서 그리고 기능성이 구현된 역작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한국건축의 미래를 열어가고자 마련된 건축제전입니다. 기성건축인의 창작의욕 고취와 신인등용의 장으로써 한국건축의 정통성과 맥을 이어나갈 '98한국건축문화대상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참여를 바랍니다.

● 응모부문 및 대상

▶ 준공건축물부문

- 응모대상 : 97년 9월부터 98년 8월 기간중 준공된 국내건축물
- 응모자격 : 건축사, 시공자, 건축주

▶ 계획건축물부문

- 응모대상 : 임의 선정된 실체의 대지와 용도에 구체적인 적용한 창작작품으로 이질 국·내외 공모전이 응모하지 않은 작품에 한함
- 응모자격 : 제한없음

● 응모방법

▶ 준공건축물부문

- 작품개요, 작품설명, 건축물사진(6" × 10" 사이즈 10매내외), 설계도면이 수록된 B4규격의 사진첩 2부 제출(건축사, 시공자, 건축주에 대한 길이초거석 첨부)
- 1차 사진첩 심사결과 통과한 작품에 한해 2차 현장심사를 실시하며 폐렴자를 시일 별도 통보

▶ 계획건축물부문

- 폐렴(가로 90cm × 세로 120cm) 1부 및 작품설명서(A4용지 1매 분량) 1부 제출
- 모형(가로 × 세로 규격이 75cm × 90cm 또는 90cm × 75cm, 높이 75cm 이하) 1점 제출
- 1일 1작품에 한함(공공작품 응모 불가)
- 작품주제 : 도시의 혼적
- 주제설명

우리들 도시의 역사가 그리 짧지, 양음에도 불구하고 그 풍경은 마치 급조된 것처럼 어설픈 원리들이 난무해 있다. 이는 우리의 도시현대화가 개발의 논리에 주도 당하여 그 평형성을 잃어버리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적응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도시는 기억과 욕망이 서로 더럽히고 긴장하면서 건강하게 자란다. 옛 것이 있는가하면 새 것도 있고, 아름다운과 추함이 같이 있고, 성곽 속, 높음과 낮음 등이 어울려 오랜 시간 속에서 그 정체성을 만들어 나간다. 그러나 우리의 도시들에 강제된 개발은 지난 수 십년동안 새 것, 큰 것, 유용한 것, 마

른 것 등만을 도시속에 담고자 하여 우리의 기억과 흔적을 점점 사라지게 하였으며 그 결과 우리들 고유의 도시성은 이미 대부분 상실되었다.

드디어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난 절대미문의 어려운 경제적 난국은 이 개발의 허성과 무관하지 않으며 우리는 우리가 추구해온 모든 가치를 다시 절충한 것을 요구받고 있다.

과연 우리의 근거는 어디인가.

우리가 개발의 미명으로 지우려 했던 우리의 흔적이 남은 도시의 한 조각을 재발견하고 여기에서 우리의 건축을 시작하려 한다. 그것은 우리의 귀중하였던 삶이 시간 속에 각인한 자국이며 그래서 소홀히 할 수 없는 우리의 리얼리티이다. 이로써 우리의 도시는 근거있게 보며 또한 미래와 연결될 것이다.

※ 주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대한건축사협회 발행 '건축사' 7월호 참조.

● 작품접수

▶ 접수기간

- 준공건축물부문 : 98. 8. 17(월) ~ 8. 20(목) 09:00 ~ 18:00
- 계획건축물부문 : 98. 9. 21(월) 09:00 ~ 18:00

▶ 접수장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803-55 대한건축사협회 기획조정실
※ 별도의 참가비(출품료)는 없으며 출품권시는 작품접수자에 한해 접수당일 현장에서 교부함

● 심사위원

▶ 준공건축물부문

- 장석원(前한국건축가협회장, 건축사사무소 그룹가 대표)
- 장광훈(한양대 건축공학부 교수)
- 김익명(실경시운행인 정신과학)
- 변 용(종합건축사사무소 인도건축 대표)
- 신현식(前대한건축학회장 겸양대 명예교수)
- 오문동(前대한건축사협회장 겸종합건축사사무소 한림건축건설 대표)
- 정 홍(서울경제신문사 논설위원)

▶ 계획건축물부분

김기철(대한건축사협회 이사, 동명건축 대표)
 동정근(인하대 건축공학과 교수)
 방원립(인·토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송호삼(중환건축사사무소 이르게 대표)
 심영선(호서대 건축학부 교수)
 양남철(양남철건축사사무소 대표)
 이장만(한양대 건축공학부 교수)

▶ 수상작발표 및 시상·전시

- 수상작 발표: 1998년 10월 26일자 서울경제신문(임상자에
 시 인쇄 개별 통보)
- 수상작 전시회: 1998년 10월 27일(화)~11월 2일(월)
 /장소: 포스코센터 석관 2층 다목적홀
- 시상식: 1998년 10월 27일(화)/장소: 포스코센터 아트홀

▶ 기타 출품규정

- 계획건축물부분은 패밀레작사 유리, 플라스틱, 키네틱 등 판사정
 재료의 사용을 금함
- 작품제출 당일 접수장내에서의 패밀레제작작업은 금함
- 준공건축물부분의 제출 사진첩중 1부는 사후보존용으로 반환
 하지 않음
- 준공건축물부분 우수상 이상의 패밀레는 행사후 상설전시를 위해
 반환이 불가함

▶ 시상내용

▶ 준공건축물부분

	건축사	시공자	건축주	비고
대상(1점)	트로피 해와건축합방	트로피 해와건축합방	트로피 동 판	-공로상(5점) -대통령표창 *공로상 수상 시 건축사 정부와 건축주에게 증서 수여
은상(2점)	트로피 해와건축합방	트로피 동명건축합방	트로피 동 판	-주거용건축물 3점 비주거용건축물 3점 철거자·건설교통부장관표창 건축주·대한건축사협회장상 시공자·서울경제신문·상업성 신진자·대한건축사협회장상 시공자·서울경제신문·상업성
입선(다수)	상회			건축문화 발전에 공이 큰 개인 또는 단체
공로상	트로피			

▶ 계획건축물 부분

- 금상(1점): 상금 500만원 및 상장
- 은상(2점): 상금 각 250만원 및 상장
- 동상(5점): 상금 각 100만원 및 상장
- 입선(다수): 상금 각 30만원 및 상장
- ※ 동상이상 수상자중 대학자 학생에 한해 영어 인터뷰시를
 거쳐 2인을 선발, 98년 11월중 श्री랑에서 개최될 예정
 인 ARCASIA(아시아건축사협회) 학생챔피언대회 프전
 특전 부여

한국건축문화대상시행위원회

주최 / 대한건축사협회, 건설교통부, 서울경제신문사

후원 /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대한주택공사, 주택공제조합, 한국주택협회

문의 / 대한건축사협회 기획조정실(Tel. 581-5711~4)

포스코센터▶
 (95년 제4회 대상수상작)



대법원청사▶
 (96년 제5회 대상수상작)



민청학원▶
 (94년 제3회 대상수상작)



LG화학 기술인구원
 (97년 제8회 대상수상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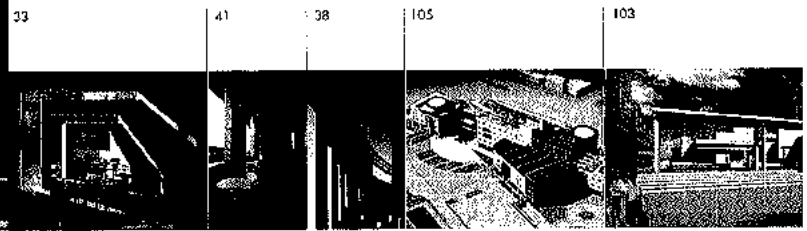
법원재판소
 (93년 제2회 대상수상작)



차례 1998 08 352호



서울시립대 종합문화관(우시용작)



발행인: 김영수
 편찬위원: 방철련(위원장), 송효상, 동정근, 심영삼, 양남철
 편집·취재: 정효상, 조한국, 윤태일, 진현경
 발행처: 대한건축사협회
 (협회창립일: 1965년10월23일)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우편번호: 137-070
 전화: 대표 (02)581-5711~4
 팩시밀리: (02)586-8823
 인터넷주소: <http://www.kira.or.kr>
 (천리안 ID: kirahead)
 U. D. C: 69/72(054-2) : 0612(519)
 인쇄인: 이봉수/정문사 (02)266-4556

Publisher: Kim Young-Soo
 Editorial Member: Bang Chu-Lin, Seung Hchich-Sang, Dong Jung-Geun, Shim Young-Sub, Yang Nam-Chul
 Assistant Editor: Editorial Team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http://www.kira.or.kr>)
 Address: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070
 Tel: (02)581-5711~4
 Fax: (02)586-8823
 U. D. C: 69/72(054-2) : 0612(519)
 Printer: Lee Bong-Soo(Cheong Moon Printing Co.)

칼럼	어느 건축적 공무원의 죽음과 우리 건축의 현실	김기환	12
작품리뷰 / 서울시립대 종합문화관		우시용	14
	대담: 건축적 경험의 내재된 즐거움	최윤경	23
	비평: 우시용의 건축과 한국근대주의	김성홍	27
회원작품	김옥길 기념관	김안철	32
	정규현	김낙중	34
	한국교회 이기종선교기념 훈련센터	정림건축	36
	이태원 다가구 주택	조주환·황한구	38
	프로시스(주) 본사 및 공장	김상길	40
	부산시립미술관	이용흠	42
	목산정형외과	문철수	44
	수원 인계동 빌딩	이종철	46
	한솔사옥	이상국·박문기	48
기획연재	한국의 건축가 ⑬ - 홍순업(2)	최완호	50
태마기획 / 지역건축탐방 ⑦ : 수원		편집디렉터/윤인석	57
	성곽도시 화성에서 수원 현대도시로의 발전	엄태웅	58
	역사도시의 방향: 화성	한동수	62
	사진에세이 - 오늘의 수원 모습	윤인석	66
	좌담: 수원 - 도시와 건축의 미래에 대하여		73
기고	테마를 중심으로 한 헐리웃의 오락건축산업	박태형	80
	건축의 개방형시스템을 위한 표준화(2)	박준영	84
연구	OECD 가입 29개 국가의 건축사제도 분석	본협회건축연구소	89
건축마당	협회소식		95
	건축계소식		97
	현상설계		102
	통계(설계도서신고현황)		110
	회원 현황		112
	게시판		113

Column

The Death of Official of Architecture, the Death of Architecture

Kim Ki-Hwan 12

Review / Culture Center of Seoul City University

Interview The Inherent Pleasure in Experiencing Architecture

Woo Shi-Yong 14

Critique The Architectural Works

Choi Yoon-Kyeong 23

by Woo Shi-Yong and Korean Modernism

Kim Sung-Hong 27

Works

Kim Ok-Gil Memorial Hall

Kim In-Cheul 32

Jace - III

Kim Nak-Jung 34

Lee Kee-Pyung Missionary Training Center

Junglim Architecture 36

Etaewon Residence

Cho Chu-Hwan & Hwang Han-Gu 38

Prosys Inc. Building

Kim Sang-Gil 40

Pusan Metropolitan Art Museum

Lee Yong-Heum 42

Moksan Orthopedic Surgery

Moon Chul-Su 44

Suwon Ingyedong Office

Lee Jong-Chul 46

Hansol Corporate Office

Lee Sang-Kook & Park Moon-Kie 48

Serial

Korean Architect, Hong Soon-In(2)

Choi Wan-Ho 50

Theme Study / Visiting Regional Architecture [7]: Suwon

From the Ancient to Today: The Rise and Development of Suwon

Yoon In-Suk 57

Suwon, The Historical City

Aum Tai-Woong 58

Landscape of the Contemporary Architecture of Suwon

Han Dong-Soo 62

Conversation: The Present and Future of the Urban Architecture

Yoon In-Suk 66

Feature

Entertainment Architecture Industry of Hollywood with Specialized Themes

Arthur T. Park 80

The Standardization for Open System Building

Park Joon-Young 84

Study

Analysis of Registered Architects System of 29 OECD Members

89

Architects' Plaza

KIRA News

95

Archi-net

97

Competition

102

Statistics

110

Member

112

Bulletin Board

113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강남구건축사회/(517-3071) · 강동구건축사회/(484-6340) · 강북구건축사회/(903-3425) · 강서구건축사회/(604-7188) · 관악구건축사회/(824-0048) · 광진구건축사회/(446-5244) · 구로구건축사회/(652-2275) · 노원구건축사회/(933-6076) · 동대문구건축사회/(923-6213) · 동작구건축사회/(815-3026) · 마포구건축사회/(333-5251) · 서대문구건축사회/(333-6411) · 서초구건축사회/(3474-6101) · 성북구건축사회/(922-5117) · 송파구건축사회/(423-6158) · 양천구건축사회/(653-2892) · 영등포구건축사회/(632-2143) · 용산구건축사회/(717-6607) · 은평구건축사회/(368-1488) · 종로구건축사회/(735-0905) · 중구건축사회/(231-5748) · 중랑구건축사회/(437-7356)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880~5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74-8838 66 5851, 7930

■ 경기도건축사회/(031)47-6129~30

고양지역건축사회/(034)63-8802 · 광명건축사회/(02)684-5845 · 구리지역건축사회/(0346)63-2337 · 부천지역건축사회/(332)864-1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42)755-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1)41-7987 · 시흥지역건축사회/(032)634-4121 · 안산건축사회/(0345)80-9130 · 안양지역건축사회/(0343)48-2698 · 의정부지역건축사회/(0351)876-0458 · 미천지역건축사회/(0333)835-0545 · 평택지역건축사회/(0333)657-6149 · 오산건축사회/(0339)375-8848 · 용인지역건축사회/(0335)36-0110

■ 강원도건축사회/(0361)54-2442

강릉지역건축사회/(0391)635-7371 · 삼척지역건축사회/(0394)81-8708 · 속초지역건축사회/(0392)33 5091 · 영월지역건축사회/(0373)374-2659 · 원주지역건축사회/(0371)43-7230 · 춘천지역건축사회/(54 2442)

■ 충청북도건축사회/(0431)223-3084~6

옥천지역건축사회/(0475)32-5752 · 제천지역건축사회/(0443)43-6253 · 홍천지역건축사회/(0441)847-3082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6-4088

공주지역건축사회/(0416)54-3355 · 보령지역건축사회/(0452)34-3367 · 부여지역건축사회/(0463)835-2217 · 서산지역건축사회/(0455)681-4295 · 천안지역건축사회/(0417)51-4651 · 홍성지역건축사회/(0541)32-2755

■ 전라북도건축사회/(0652)251-6040

군산지역건축사회/(0654)452-3815 · 남원지역건축사회/(0671)33-2000 · 익산지역건축사회/(0653)52-3798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567

목포지역건축사회/(0631)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861)743-2457 · 여수지역건축사회/(0652)33-2000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600~2

경산지역건축사회/(053)812-6721 · 경주지역건축사회/(0581)772-4710 · 구미지역건축사회/(0546)51-1537 ~ 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7)32-3688 · 문경지역건축사회/(0581)53-6677 · 삼주지역건축사회/(0582)535-8975 · 안동지역건축사회/(0571)57-7464 · 영주지역건축사회/(0572)34-5560 · 영천지역건축사회/(0536)34 8256 · 칠곡지역건축사회/(0545)974-7025 · 포항지역건축사회/(0532)44-6029

■ 경상남도건축사회/(0551)46-4530~3

거제지역건축사회/(0558)636-6870 · 거창지역건축사회/(0539)43-6090 · 김해시건축사회/(0525)34-6644 · 마창지역건축사회/(0551)45-3737 · 밀양지역건축사회/(0527)355-1323 · 사천지역건축사회/(0569)333-8779 · 양산시건축사회/(0523)84-3050 · 진주지역건축사회/(0551)41-6403 · 진해시건축사회/(0553)44-7744 · 통영지역건축사회/(0557)41-4530 · 하동지역건축사회/(0586)83-4612

■ 제주도건축사회/(064)52-3248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62-2233

어느 건축직공무원의 죽음과 우리 건축의 현실

The Death of Official of Architecture, the Death of Architecture

김기환 / 부경대학교 건축과 교수

by Kim Ki-Hwan

며칠전 한 장의 부고를 받았다. 부산시 종합건설본부장을 역임한 전직 건축직공무원 한 분의 죽음을 알리는 부고였다. 그의 갑작스런 죽음, 가슴에 이는 파문이 나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이었다. 작년 뇌물수수로 해임을 당한 뒤 갑작스레 병을 얻었다는 말은 들었지만 평상시 건강하던 모습을 상기해 볼 때 결국 이렇게 끝이 났구나 하는 서늘한 바람같은 희한이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이글에서 해임당한 공무원을 언급한 것은 그의 명예를 복권시키자거나 동정을 보내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다. 한 건축직공무원의 죽음을 통해 우리 건축계를 되짚어보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다. 지나가는 몇가지 생각을 정리해 본다.

12년전 부산과는 전혀 연고가 없던 내가 부산공업대학으로 발령을 받고 알게 된 건축인 중에 한 사람이 그였다. 그 당시 건축법규 출강을 하였는데 공무원으로 꽤나 학구적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리고 건축이나 도시계획의 새로운 정보를 얻고자, 시도하고자 하는 욕심이 대단했다. 성격이 모질지 않아 유연한 듯 보였지만 별로 흔들림이 없는 것도 장점이었다. 그후 진급을 계속하여 부산시 주택국장을 거쳐 건축직공무원으로는 최고직인 건설본부장을 역임하였다. 그러던 그가 독직사건으로 명예롭지 못하게 해직을 당하고 마음의 병으로부터 몸의 병을 얻어 세상을 달리한 것이다. 장례식이 지나고 며칠간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의 죽음은 누구라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똑같이 격었어야 할 우리 사회의 모순이 만든 구조적 죽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죽음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이다. 그러나 최소한 해임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던 다음과 같은 것들은 우리 건축계에서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건설본부장 해임의 직접 원인은 여러 곳에서 업무수행시 받은 뇌물수수가 문제였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현상설계심사시 받은 뇌물수수였다. 직접적으로는 부산고속철도역사 심사시 받은 돈이 문제가 되었다. 현상설계심사시 요가는 불량한 사례금. 지금도 이러한 불공정한 행위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축계의 희망을 앗아가는 극히 불량한 거래이다. 모즈음 건축경기가 얼어붙어 있어서인지 현상설계에 작품이 몰린다. 심한 경우 작년에 비해 일곱 여덟배의 출품이 되는 경우가 있다. 모두 희망을 가지고 출품한다. 어느 누가 떨어지려고 출품하겠는가. 모두 붙고자 하니 열정과 욕심이 생긴다. 그 열

정과 욕심으로 작품을 열심히 만들면 얼마나 좋은가. 그러나 숨쉴 쯤기로 소문난 몇몇 사무실에서 물을 흐려 놓으면 현상설계의 침묵은 여지없이 깨지고 만다. 많은 젊은 건축가들이 흐려진 물에 그들의 꿈을 포기한다.

작년 여름, 현상설계에 심사를 나가며 받은 뇌물 때문에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고위직공무원은 해임되었다. 그러나 뇌물을 준 건축설계사무실이나 회사대표는 금액이 작아서인지 그대로 넘어갔다. 또 그 당선작도 그대로 당선이 인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나는 모든 책임을 공무원만이 지는 현재의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한 현상설계의 어두운 면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공무원해임에 준하는 법칙이 뇌물을 준 설계사무실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그리고 최소한 현상설계에 출품하는 사람들이라면 건축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부탁인데 돈으로 표를 사서 당선이 되겠다는 모두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삼가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그 고위직공무원이 해임된 뇌물수수의 또 다른 혐의는 평상시 건축허가와 관련된 자잘한 뇌물이 많았다는 것이다. 지금도 정부에서 사정작업을 했다하면 건축허가가 담당부서가 첫순위에 꼽힌다. 실제로 부산만 하더라도 요 몇년 사이에 사무관급을 비롯하여 무척 많은 건축직공무원이 웃을 벗는다. 주로 인허가에 관련된 뇌물이었다. 대학교수인 내가 비리공무원을 두둔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이나 우리가 모두 건축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일진대 우리의 한부분이 계속 사회의 비리분야로 인식되고, 그들이 계속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다면 이게 어찌 바람직한 현상이겠는가. 나의 제자들 중에 기대를 하던 젊은 공무원이 쫓겨나갈 때는 가슴이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었다. 어떻게 교육시키고 어떻게 만들어왔는데 한번에 그들의 인생과 교육의 결과와 투자된 기술이 단절되는가. 이것은 흡사 전쟁터에서 자신의 소대원을 잃어버리는 느낌이었다. 분명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번 사건으로 돌아가신 분의 장례식장에서 우리학교를 졸업한 공무원들을 보았고 그중 작년 봄 사무관으로 진급한 한 공무원에게 있는 곳을 물어보지 말을 못하였다. 옆에 친구가 집에서 쉬다고 말했다. 작년 진급 후에 모구청 건축과장으로 발령받은 후 하던 말이 생각난다. '저는 백도 힘도 없어서 이리 왔습니다. 요즈음 속칭 좋은 자리에는 안올려고 힘써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나 역시 그의 예상대로 그는 1년만에 웃을 벗었다. 전쟁터도 아닌데 왜이리 험난한지. 아니면 건축직공무원은 일회용 총알받이인지.

그의 죽음과 더불어 또다른 회한이 하나 있다. 그가 주택국장시절 회의를 마치고 은근한 고민을 말하였다. 부산의 모주거단지의 건축허가가 들어왔는데 여론뿐 아니라 자신의 양심으로도 허가하면 안될 것 같은 건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자신이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가고 싶을 정도로 시달린다고 했다. 그건 지금도 부산의 수서사건으로 선거에서 핫이슈가 되던 일인데, 본인이 거절하기 어려운 부탁들이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허가를 하지 않고 그 자리를 그만두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건축의 일을 건축공무원이 결정내릴 수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라는 말을 하였다. 심한 경우 담당자를 바꾸어서라도 일은 추진된다는 것이다. 건축직공무원은 그야말로 건축의 시녀라는 표현이었다. 여기서 당사자보고 너는 왜 끝까지 양심을 지키지 못하였는가하고 말할 수 있는가. 바람부는 언덕에 세워놓고 그들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그들이 버틸 수 있는 디딤목이 있는가하고 자문해 보고 싶다. 체제상에서 행정조직상에서 그들의 고유업무는 보장받아야 한다. 또한 건축제도 그들의 버팀목이 되도록 우리의 고유분야에 대한 영역성을 확보해야 한다. 건축의 모든 항위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우리가 질바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대학교수로서 공무원의 죽음과 그들의 생애를 말한다는 것은 어려운 주제의 선택이었다. 그러나 실무를 해 본 사람은 건축계에 미치는 공무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나는 지금 우리가 처한 극심한 한계상황의 여건을 헤쳐나 가는데 경제적인 환경변화와 더불어 행정적인 환경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역할과 그들의 안정적 활동이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지금처럼 계속 자르기만 한다면 누가 오히려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일본이나 기타 다른 나라의 건축직공무원의 역할과 조직을 연구하여 우리의 구령탕이 같은 건축행정체제를 획기적으로 바꾸고 시작해야 한다. 계속 고급인력의 해임을 방패 삼아 인허가를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뇌물을 주고 인허가를 변칙적으로 처리하는 건축사는 사법처리 이전에 건축계에서 추방되어야 한다. 건축계에서 비리라는 편법의 뿌리를 자르는 일을 건축사협회에서 해 주어야 한다.

우시용 / 건축사사무소 시공
Designed by Woo Shi-Yong

건축개요

위치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8-3
지역지구	주거지역, 학교시설용지
대지면적	270,600㎡중 5,660㎡
건축면적	2,080㎡
연면적	6,929㎡
규모	지하1층, 지상5층
구조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
주요용도	공연장, 국제회의장, 전시장, 식당, 강 의실, 연구실, 실험실
외부마감	붉은벽돌, H형강 인방, 유리 블록
내부마감	붉은벽돌, 화강석, 인코트

Location 8-3 Chunnung-dong, Dongdaemun-gu, Seoul
Area Classification Residence Area, Reserved for
Educational Facilities

Site Area 5,660㎡

Building Area 2,080㎡

Total Floor Area 6,929㎡

Stories 5 Stores, 1 Basement Flo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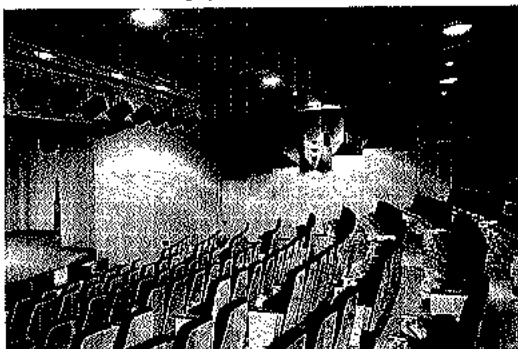
Structure Reinforced Concrete

Major Functions Performance hall, International
Conference Center, Exhibition Hall,
Cafeteria, Lecture Hall, Research
laboratory

Exterior Finishings Red Brick, h-beam, Glass Block

Interior Finishings Red Brick, Granite

본관사진 : 박영체, Photographer : Park Young-Che



대강의실

서울시립대학교는 서울시가 설립운영하고 있는 국내 최초의 공립 종합 대학교이다. 따라서 연구 및 교육영역에 있어 국가적 목표 달성에 공헌하여야 하며 상당한 많은 부분을 도시의 발전과 기능의 효율성에 필요한 영역에도 충실하여야 할 것이다. 서울시립대학교는 서울시의 교육, 문화, 연구의 중심체로서 육성되어야 할 것이며, 서울 시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하여 대학의 연구 결과와 문화적 생산품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대학은 연구와 교육의 기능을 통해 이 분야의 기능 제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합목적 필요성에 의해 그 매개체로서 대학내에 종합문화관 설립이 요구되며, 종합문화관은 도시 문화기능의 연구, 문화공간, 전시, 공연, 발표, 국제 교류 등의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되었다. 계획대지는 서울시립대 내의 남단에 위치한 삼각형 형태로서 대지 북쪽에 동서로 연결되는 6m도로에 접하고, 북측은 잔디광장, 대강당이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남측은 전농중학교가 대지밖에 근접하고 있다. 주전망은 북측잔디광장을 통하여 멀리 학교내의 건물과 녹지공간으로 시선이 개방되고 있다. 주진입도로는 대지 북쪽의 동서로 연결되는 6m 간선 도로에서, 서측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시민 및 외부인의 진입 도로로, 동측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교내의 학생들 진입 도로로 보았다. 기능의 배치는 전망이 좋은 북측에 강의실, 연구실 등을 두어 학교 전체를 조망할 수 있도록 하고, 전망이 좋지 않은 전농중학교측의 삼각형 부분에 공연장, 국제회의장, 전시장, 박물관 등을 두어 소음 및 시선차단을 하였다.

시민과 학생의 출입구는 1층에 구분하여 등으로서 문화공간과 교육 연구 공간을 분리 시키되 적절한 연관 관계를 갖게 하며 저층부에는 전시장, 식당, 휴게실, 공연장, 국제회의장, 세미나실을 두어 시민의 이용도를 높이고, 국제교류 활동이 원활하게 하며 고층부에는 강의실, 연구실을 두어 이용 동선을 구분하였다. 대학 건축의 특수성(기념성, 편리성, 안전성, 유지 관리 용이)을 고려하면, 상업적 건축에서와는 달리 외형적으로 오랜 수명을 유지하는 즉 비유형성 외관을 가져야 하며 경제적으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건축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존 대학의 마스터플랜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전체 조형은 광장에서 시각적으로 막히지 않는 적절한 크기의 변화있는 매스로 표현하며 인접한 학생회관, 대강당과 자연스럽게 조화될 수 있도록 외장재는 주변의 기존 건물과 같은 재료인 붉은 벽돌을 사용하여 동질성을 주며, 서측에서 시민들이 문화관으로 진입시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원형 사프트의 계단실을 두고, 이를 중심으로 전시장 외벽은 원형으로 변화있게 처리하여 시민의 접근시 변화있는 조형감을 느끼게 하였다.

이 종합 문화관은 도시관련 문헌, 자료유산이 종합·정리되어 효율성있게 활용될 것이며 관련 연구 활동이 활성화될 것이다. 또한 서울시 공무원이나 관련 사업체 종사자가 시립대의 연구 결과에 접하게 되고 스스로 연마한 기예의 전시, 발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시민의 출입, 활용도가 증가하게 되어 산학 협동이 촉진될과 아울러 대학 발전, 대학 홍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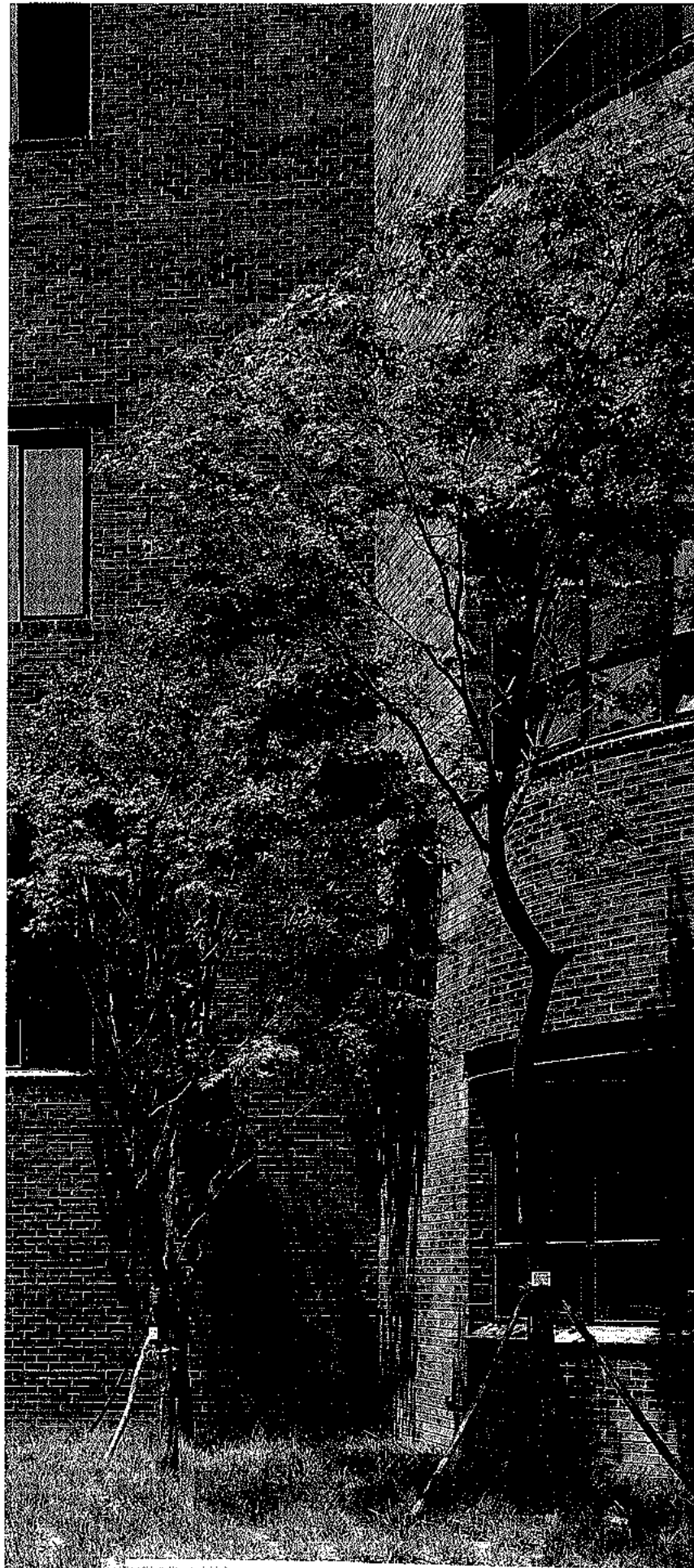
Seoul City University is the first educational institute, established and managed by the City of Seoul. Since it is a governmental establishment, its objectives of research and education should be in coherence with those of the nation, sharing its programmes and achievements with the City. For this positive role, a medium between the University and the City became necessary, which will implement cultural observations and become a multi-useful field for performances, lectures, exhibitions and international activities. Thus came the opportunity to design a Culture Center for Seoul City University. Its location was in the southern end of the Campus, a triangular site adjacent to a 6m-wide road on the northern border. To the north of the site was the green plaza, student's hall and the auditorium, which provided a good vista, and to the south a middle school outside the University. The main approach was from the 6m-wide road, whereas the path connected to the west was for the citizens and that linked to the east was for the University's students. The layout of major functional spaces depended heavily upon the availability of good views. The north side, where a rather pleasant view was present, was occupied by lecture halls and research labs. Inner-oriented spaces such as the performance hall, international conference room, exhibition hall and museum were placed on the south to block the noise and unwanted views from the outside. The entrance for the students and citizens were made separately in the first floor, where educational, research spaces and public cultural spaces were divided with necessary connections. The lower part of the building houses the exhibition hall, cafeteria, resting area, performance hall, international conference hall and seminar rooms, which could encourage the active use of the citizens. The upper portion was secluded from this volume, where the lecture halls and research labs are located.

Considering the unique features of a University facility, different from those of regular commercial buildings, it needed a facade that was indifferent to ephemeral fads and instead held timeless value. It had to be maintained within tight budget, and the envelope should be in harmony with the rest of the Camp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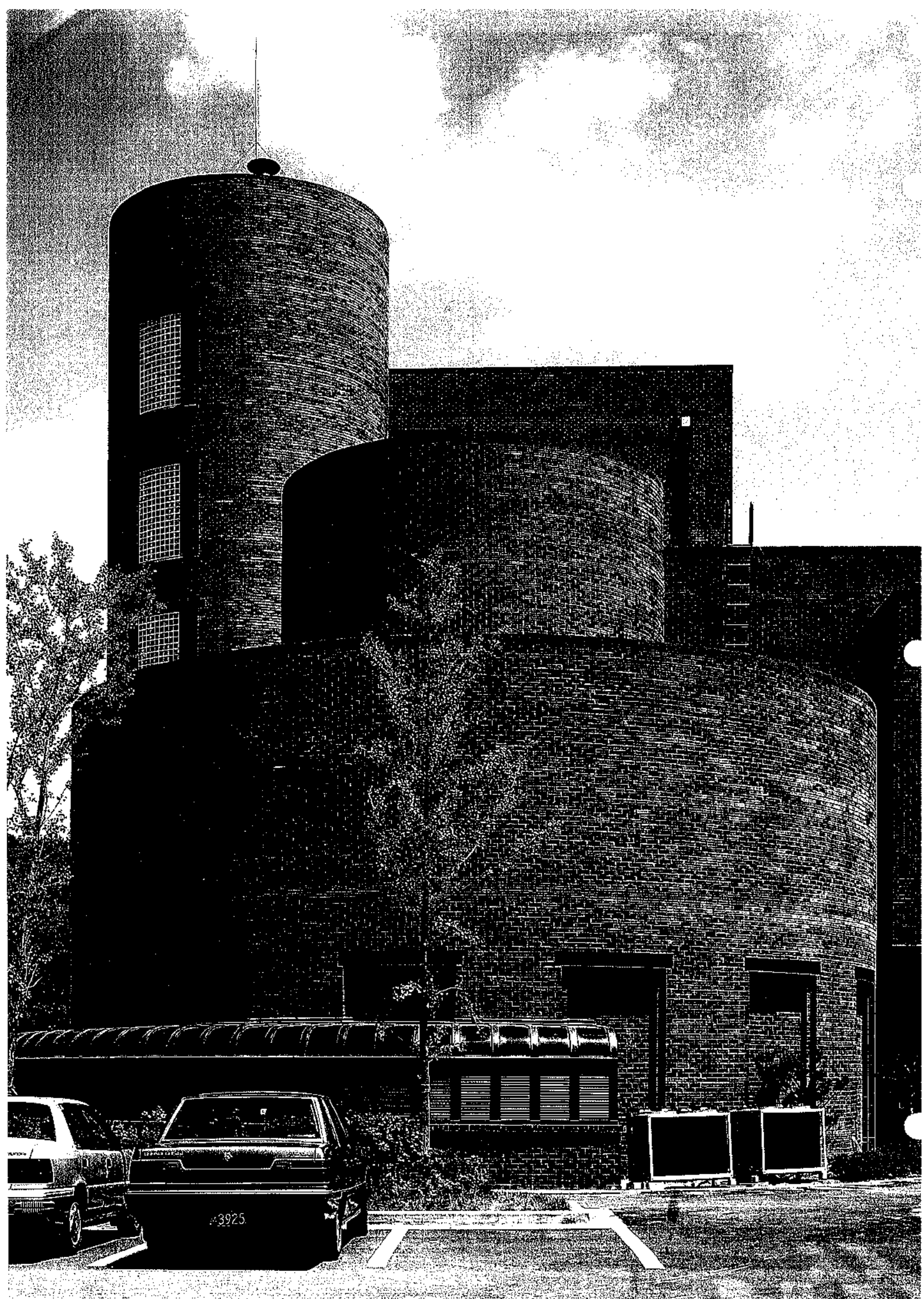
The overall mass was designed in a way that would not obstruct the view from the green plaza, and its surface was covered with red bricks that coincides with those of other neighboring buildings. For the citizen's entrance of the west, a stairway in the form of a circular shaft was provided, which acted as a pole against the wavering wall that stood behind 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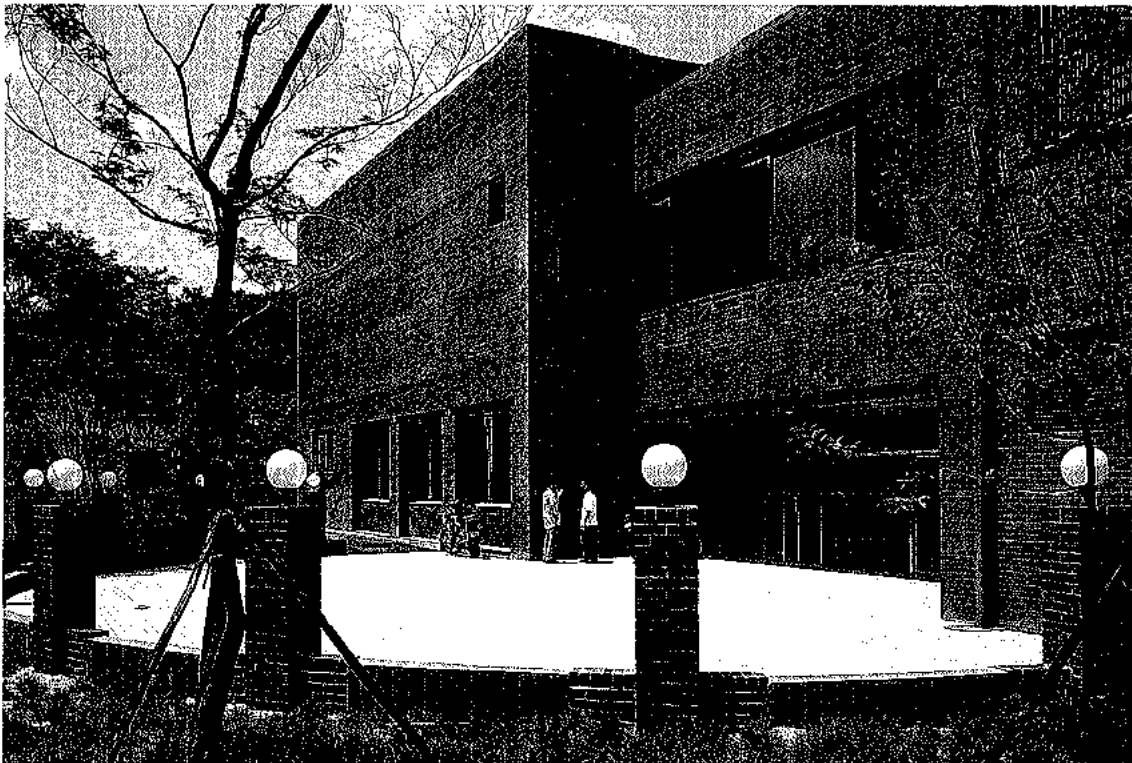
The walls of the first floor's hall, where a great number of citizen's usage is expected, was finished by red bricks like its outside. The entrance and the hall is directly connected to the outdoor resting area, which together in sequence presents a sense of openness. The third floor, connected to the first and second floors, was provided with a side window that invited the bright sunlight which fills the indoor space. The ceilings of the fifth floor also has openings that heightens the effects of lighting and ventilation.

This Culture Center will be endowed with various meaningful data of the City and its cultures. Its arranged cultural heritage will in turn aspire new researches in related fields. The City officials and company managers will have better command of these academic results, and return important achievements of their own. A interrelational cooperation between the students, professors, citizens, companies and the government will surely produce satisfactory outcomes for every participants, and add to the proud record of the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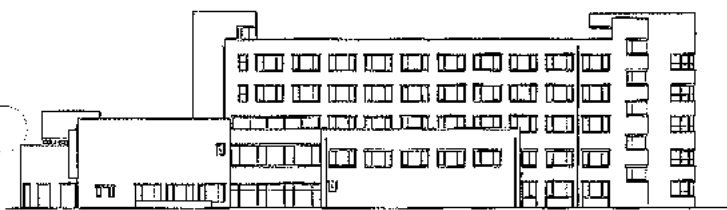


동측 벽면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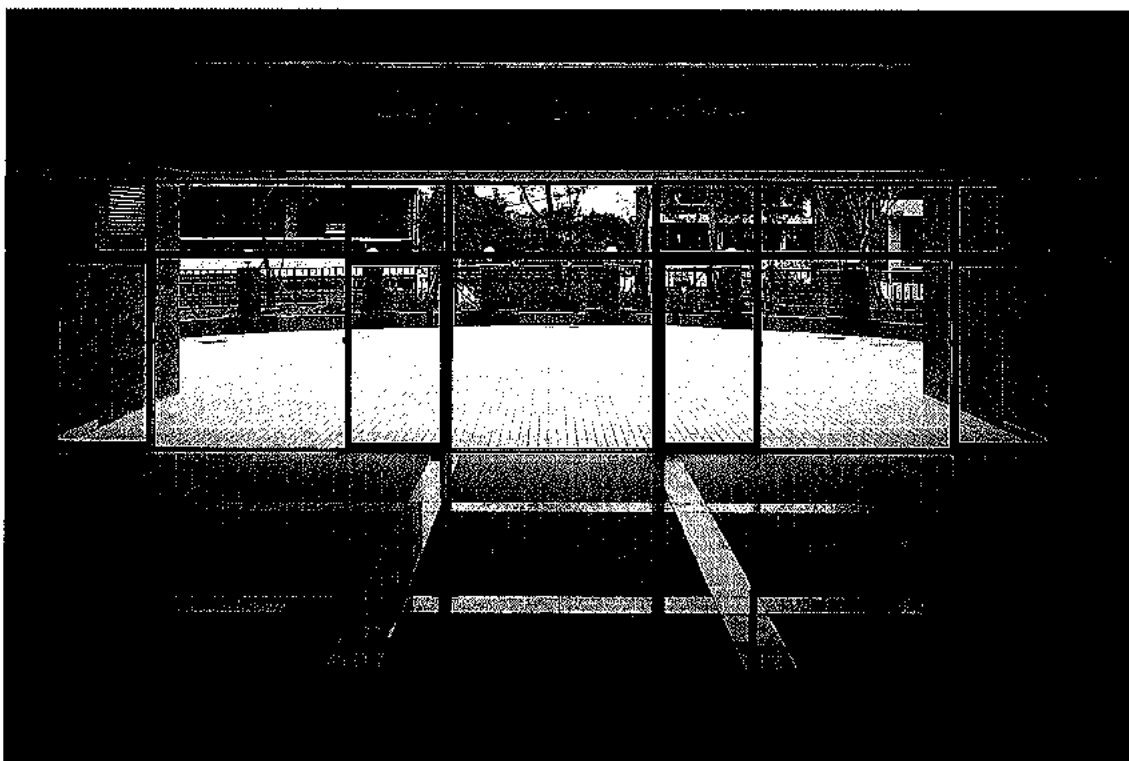
남측 후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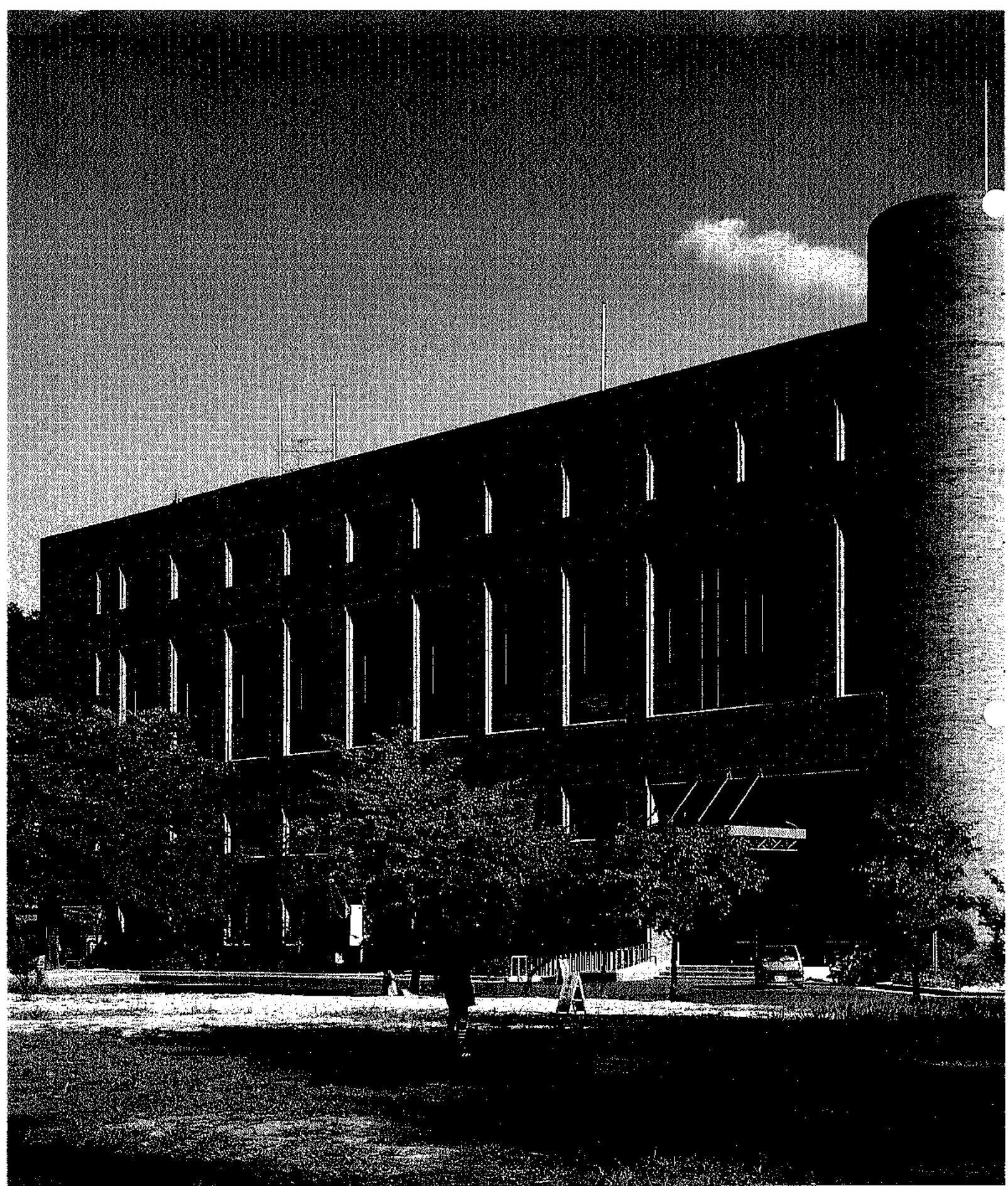
남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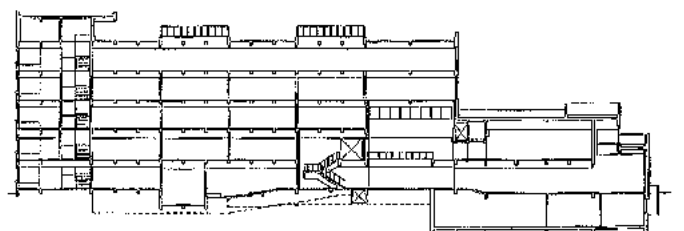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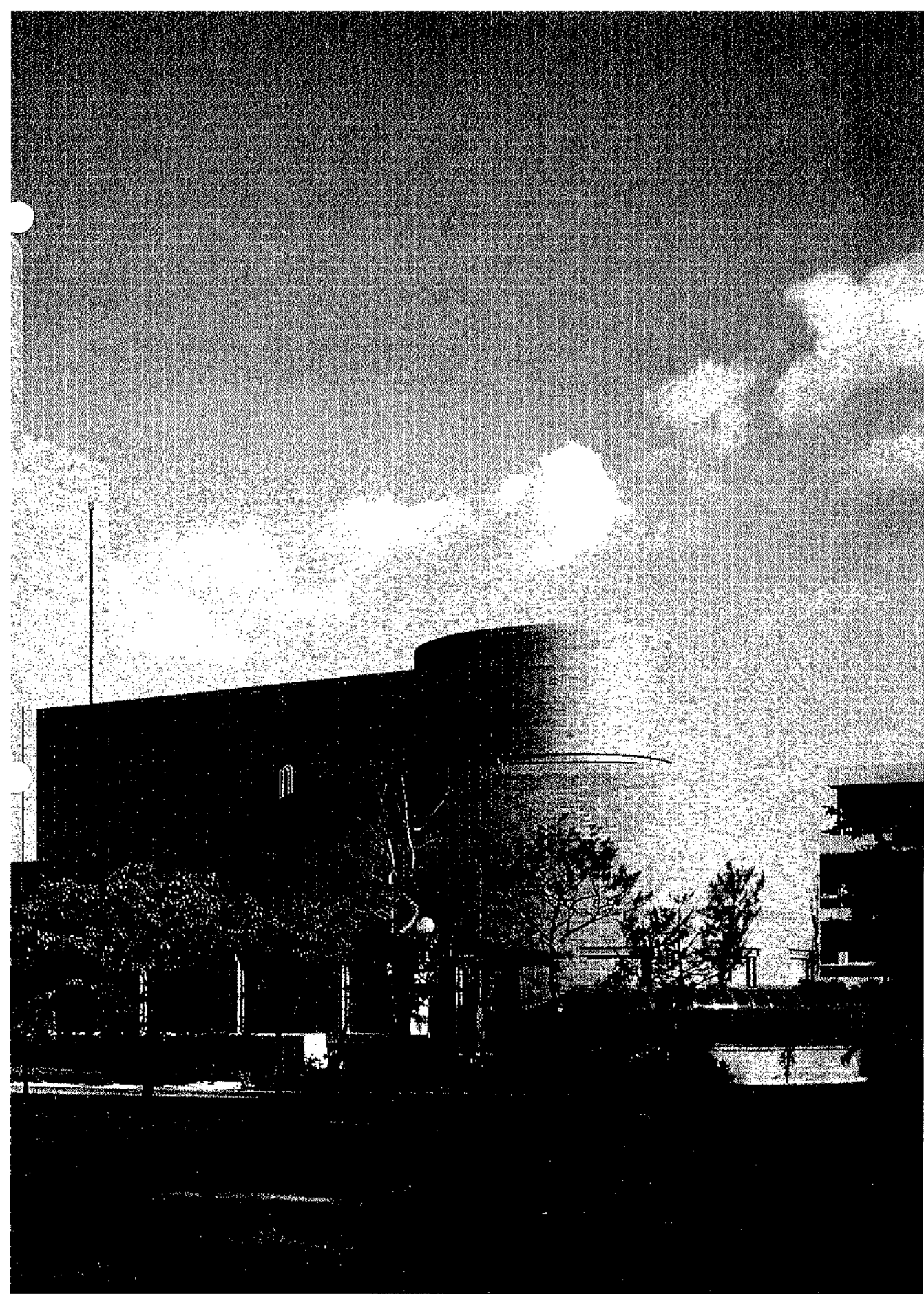


북측입면도



북측 주출입구에서 본 후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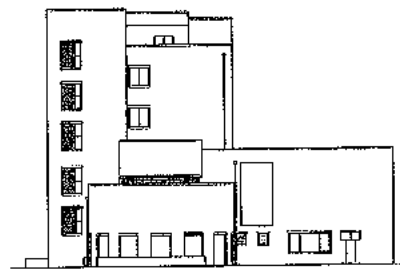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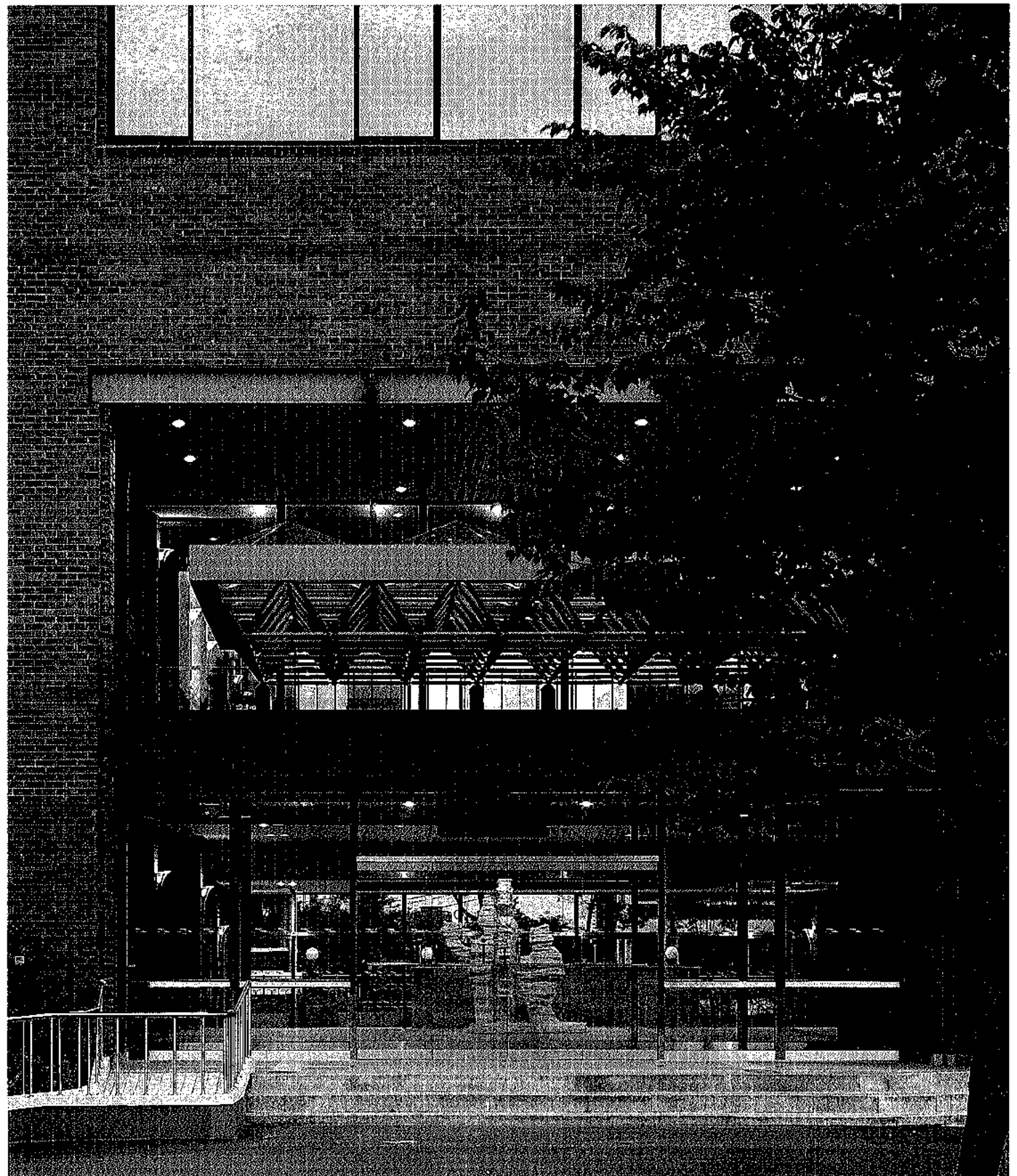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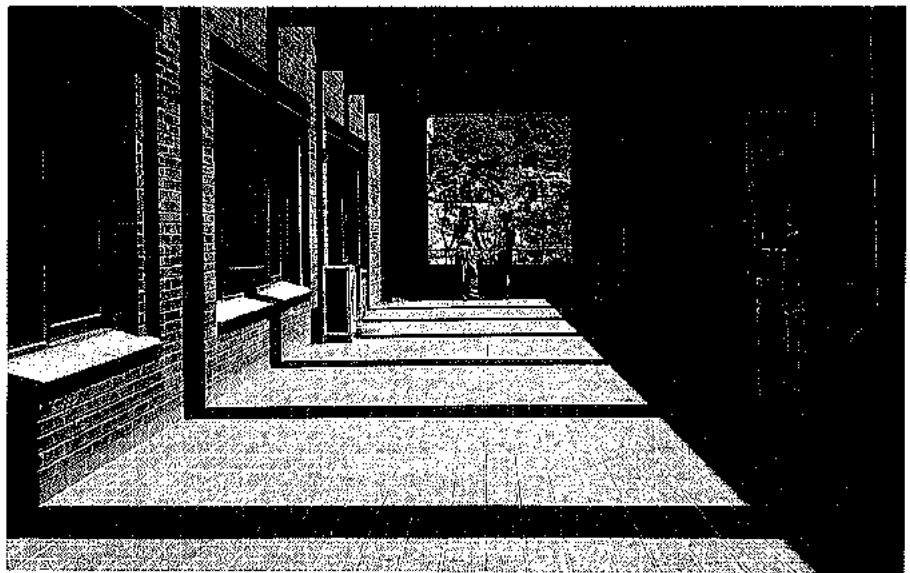


동측입면도



서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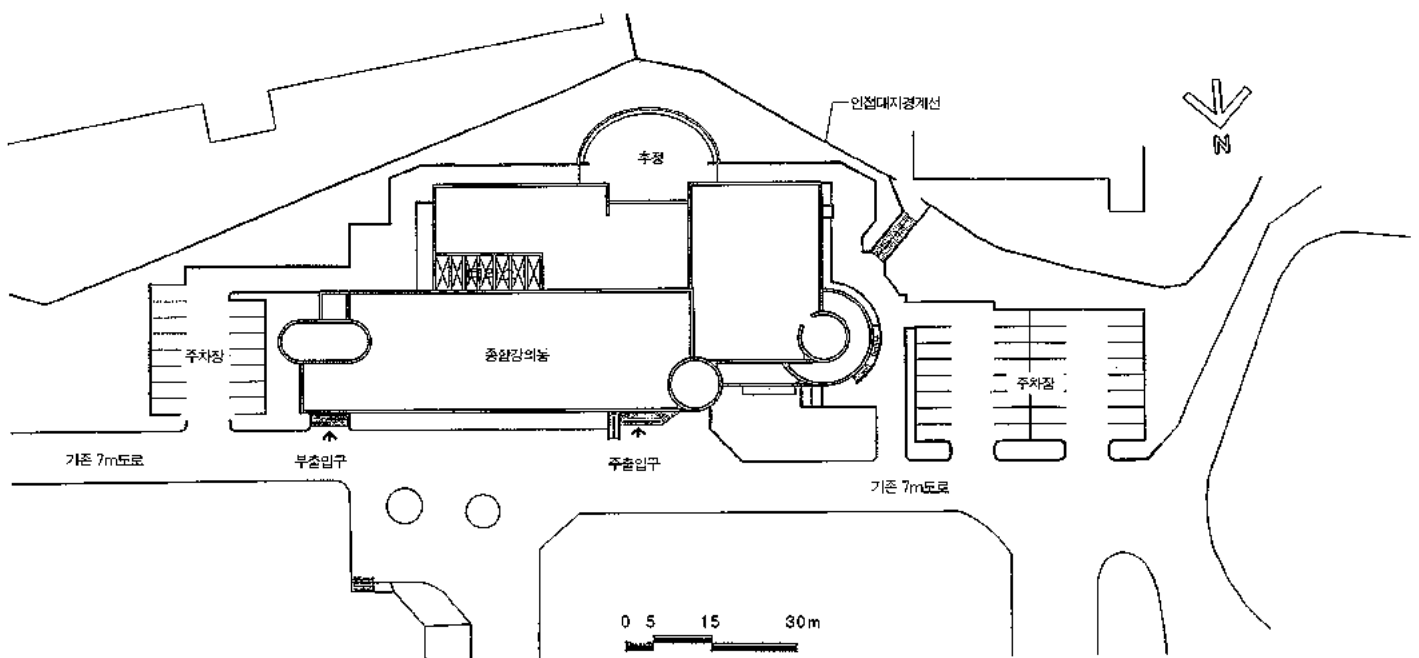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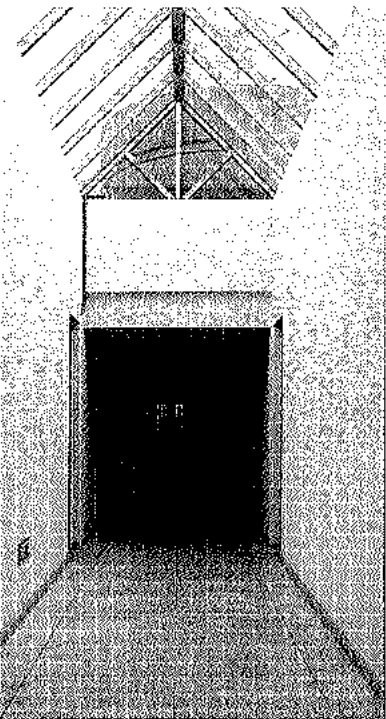
2층 테라스



2층 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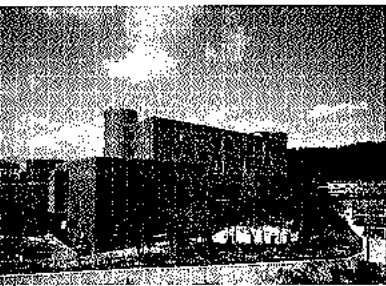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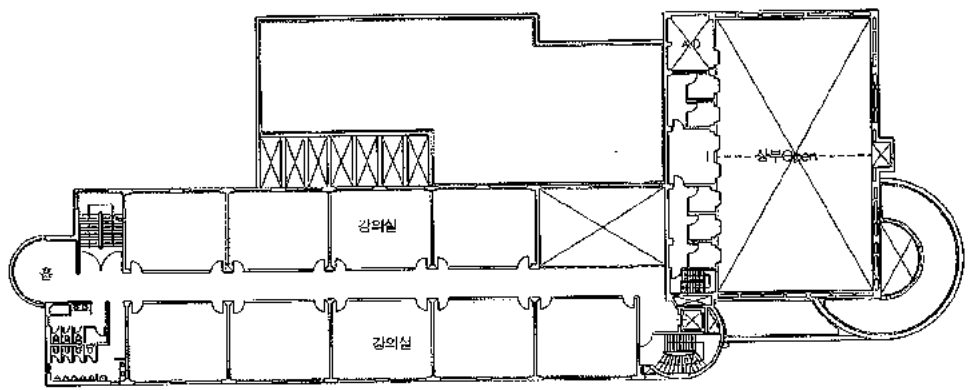
5층 복도(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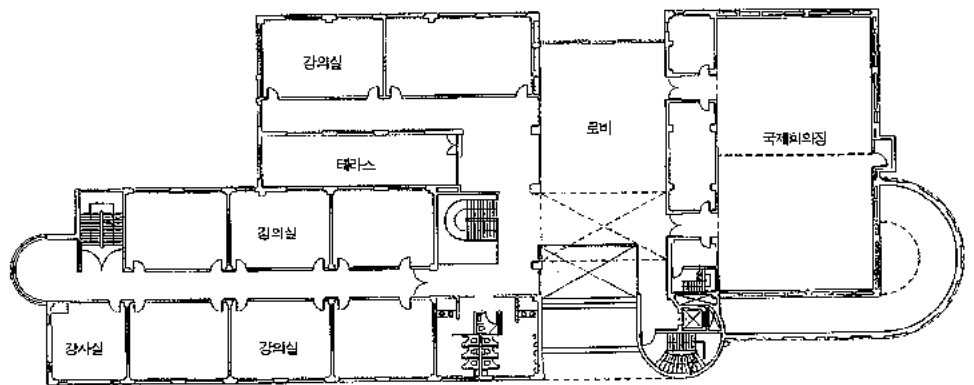
1층 식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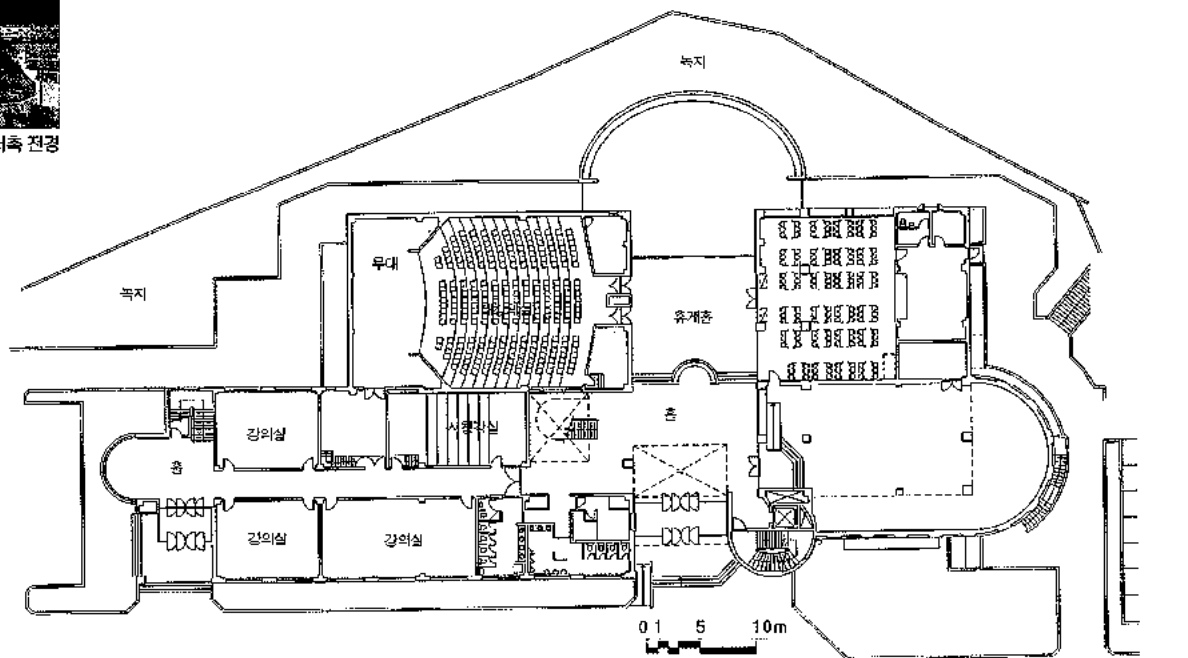
남서쪽 전경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건축적 경험의 내재된 즐거움

The Inherent Pleasure in Experiencing Architecture

대담자 / 최윤경(중앙대 건축공학과 교수)

설계자 / 우시용(시공건축)

by Woo Shi-Yong & Choi Yoon-Kyeong

일 시 / 98. 7. 13(월) 11:00~

장 소 / 서울시립대 종합문화관



대담장면(왼쪽: 우시용, 가운데: 최윤경, 오른쪽: 김성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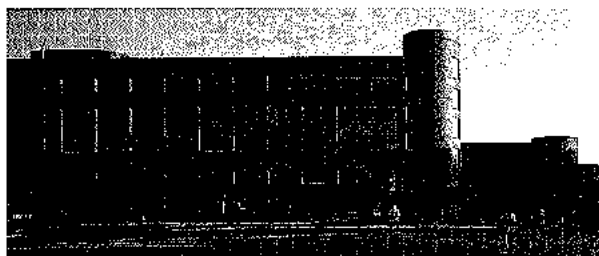
최윤경 반갑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종합문화관의 성공적인 완성을 축하드립니다. 우선 이 건물의 기본적인 성격과 개요에 대해 간략히 말씀해 주시지요.

우시용 서울시립대학교는 서울시가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립대학입니다. 따라서 연구 및 교육 영역에 있어서 국가적 목표 달성에 공헌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는 서울시의 교육, 문화, 연구의 중심체로 육성되어야 할 것이며, 대학 연구의 결과와 문화적 생산품이 서울시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하여 그 매개체로서 대학 내에 종합문화관을 설립하여, 이 종합문화관이 도시문화 기능의 연구, 전시, 공연, 발표, 국제교류 등의 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전시장, 박물관, 공연장, 국제회의장, 식당, 서울시 정연구소, 강의실 등이 있는 복합건물로 신축하여 서울시 공무원이나 관련 산업체 종사자가 이 건물을 이용하여 시립대의 연구 결과를 접하게 되고, 스스로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여 산학 협동이 이루어져 대학발전 및 시민 생활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종합문화관 설립의 목적이었습니다.

최윤경 종합문화관 건물이 초기에 가

지고 있었던 프로그램과 완성될 시점의 프로그램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과가 있었는지요.

우시용 종합문화관은 초기에 기본적인 성격대로 전시, 공연, 발표, 국제교류, 연구 등의 프로그램이 대학 관계자와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서 충실하게 계획되었습니다. 저층부와 고층부로 구분하여 1층에는 전시장, 식당, 공연장을 두고, 2층에는 박물관, 국제회의장을 두었습니다. 1층에 전시장을 둔 것은 1층 휴게홀이 전시장으로도 쓰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또 이 전시공간은 후정으로까지 연결되어 야외조각장이 됩니다. 식당은 학생회관에도 있지만 국제회의장에서 회의를 마치고 2층 로비에서 다과회나 회식을 할 경우 이를 서브하기 위한 것입니다. 2층에는 박물관, 국제회의장 및 이를 위한 넓은 로비를 두었습니다. 1층 홀에서 바로 계단을 이용하면 연결됩니다. 고층부인 3, 4층에는 강의실, 5층에는 연구소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공사 발주전에 교내 강의실의 부족으로 박물관 기능이 강의실로 바뀌어 그 부분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현재 2층 로비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후 공사가 발주되어 마감공사 완료 시점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시장이 서울시에 초청되어 명예박사학위를 시립대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한 리셉션장



시립대 종합문화관



시립대 종합문화관 2층 국제회의장

소의 부족으로 1층 전시장이 식당으로, 식당이 휴게실로 바뀌게 되어 전시장 기능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과계열의 실험실이 4층, 5층에 위치하게 되어 명칭이 자연과학관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최윤경 _____ 그렇다면 이러한 변덕스러운 프로그램의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시용 _____ 박물관이 강의실로 바뀌게 되면서 공연장위에 새로 생긴 강의실에 채광 및 환기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테라스를 두고 상부에 보를 노출시켜 강의실과 강의실 사이에 창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해결하였습니다. 식당은 당초에 전시장으로 설계되어 외부 마감공사후에 용도가 바뀌게 되어 외벽에 창이 없습니다. 전시장의 용도에 맞게 낮고 높은 변화있는 공간과 유리벽력으로 된 천창이 있었기 때문에 창이 없는 공간에서의 폐쇄감은 덜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외부 마감공사전에 용도가 결정되었다면 광장 쪽으로 창을 내어 광장의 전망을 식당내로 끌어들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당초 실험실은 계획에 없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수직 피트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수직 피트의 부분적인 해결로 외부로의 노출 배관을 피함으로써 현재와 같은 외관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최윤경 _____ 대학교 캠퍼스에 위치하는 건물이 다른 일반적인 건물들과 달라야 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여쭙어 보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대학의 건물이 가져야 하는 특징과 설계 방향이 있다면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우시용 _____ 대학 건물은 일반 상업건물과는 달리 외형적으로 오랜 수명이 유지되도록 건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건물이 비유형성 외관을 가져야 하며, 이용이 편리하고 경제적인 유지관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학이라는 하나의 소도시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적절한 외장 재료의 선택과 주위 건물과 조화되면서 어느 정도의 차별을 두어 인식성을 높이고 특히 이용

자들에게 내부공간이 기억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순우 선생님의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에 기대서서」에서 건축에 관해서 쓴 글중에는 “건축의 아름다움이나 즐거움에 대하여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 하나는 멀리서 바라보는 운치의 멋이요, 하나는 그 속에서 몸을 담고 느끼는 즐거움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고건축을 접할 때의 느낌을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모든 건축에 적용될 수 있는 적절한 표현입니다. 대학 건축이라고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배봉산에서 이어지는 낮은 능선을 따라 대학건물들이 들어서 있고 세월이 흘러 잘 가꾸어진 나무들 사이로 훑듯 훑듯 보이는 건물들이 조화를 이룰 때 시각적인 즐거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윤경 _____ 일반적인 도시의 컨텍스트 내에 위치하는 다른 건물들과 마찬가지로 캠퍼스 내에도 주변에 많은 다른 건물들이 있습니다. 종합문화관을 설계하실 때 주변의 다른 건물들과의 관계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하셨는지요.

우시용 _____ 시립대의 캠퍼스 내에는 많은 건물들이 들어서 있습니다만 종합문화관이 건립되는 대지는 시립대 동남단의 삼각형 대지입니다. 이 대지는 시립대 경계선에 위치하여 대지 내외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 대지의 북측에는 운동장과 녹지 공간이 위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건물들이 마주보며 둘러싸고 있어 시립대의 중심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남측에는 전농중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전망이 막히며 중학교 휴식시간에는 꽤 시끄럽습니다. 북측으로 강의실 및 연구실을 두어 좋은 전망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북측의 전망은 항상 햇빛을 받기 때문에 그늘진 곳이 많은 남측 전망보다 항상 밝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종합문화관 북측에 면한 실들은 잔디광장을 통하여 멀리 학교내의 전망이 한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5층에 연구소를 두었다면 아주 좋은 전망을 갖는 연구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전망 및 소음으로 좋지 않은 전농중학교측의 삼각형 부분에는 창이 필요하지 않은 공연장, 국제회의장 등을 두어 소음 및 시선차단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종합문화관과 인



시립대 종합문화관



시립대 종합문화관



잠실교회

접한 학생회관과 대강당은 외장재가 붉은 벽돌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들이 이루는 스카이라인은 종합문화관과 연결되어 서측 언덕의 수립대로 계속됩니다. 이 연결되는 건물들을 붉은 벽돌로 마감하여 동질성을 주며, 시립대란 하나의 소도시 속에 자기를 과시하지 않고 융해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최윤경 _____ 종합문화관의 주출입구에서 홀과 휴게홀을 거쳐 후정으로 연결되는 강한 축, 그리고 3개층까지 오픈된 공간처리가 상당히 인상적이고 특이합니다. 이 부분의 공간적 개념에 대해 설명해 주시지요.

우시용 _____ 종합문화관은 지금 말씀한대로 주출입구에서 홀, 휴게홀을 거쳐 후정으로 연결되는 시선축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선축의 흐름은 내부에서 이동되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이 길에는 식당, 휴게실, 공연장,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붙어 있습니다. 또 이 길은 공연장에서 나오는 사람들로 채워지기도 하며 전시공간, 휴게공간 등 우리의 마당처럼 여러가지 용도로 쓰일 수 있습니다. 1층 전시장의 용도가 식당으로 바뀐후 이 길은 쓰임새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3층까지 오픈된 공간은 이 건물의 이용자에게 내부 홀에서 시각적인 폐쇄감을 덜고 2층, 3층으로 연결된 공간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3층 상부의 축창은 이 건물의 이용자에게 출입구 홀에서 시간에 따라 변화되는 빛을 느끼게 해 줍니다. 외부에서 내부를 상상치 못하고 내부에 들어섰을 때의 공간의 확산은 방문자에게 하나의 기억으로 남고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최윤경 _____ 연계되는 질문입니다만 건물의 정면 주출입구가 캠퍼스내의 도시적 가로축과 의도적으로 맞추어져 있지 않는데, 특별한 의도가 있으셨는지 알고 싶군요.

우시용 _____ 종합문화관의 주출입은 시립대 정문에서 연결되는 두 개의 진입도로중 남쪽 도로로 연결됩니다. 북쪽 도로는 대학본부를 지나서 각 건물로 연결됩니다. 당초 계획시 남측 도로를 종합문화관 방문자가 이용할 수 있는 도로로 보았습니다. 이 도로는 광장을 지나 배봉산 기슭으로

하여 캠퍼스를 순환하고 있습니다. 종합문화관은 성격상 외부인과 학생의 이용을 고려할 때 출입구가 2개 필요합니다. 건물울 동서로 연결되는 세로축에 맞추어 전면에 광장을 면하게 하여 정문과 연결되는 가까운 곳에 주차장을 두고 이 주차장과 인접한 곳에 주출입구를 두어 외부인의 이용이 편하게 하였습니다. 고층부 동측의 부출입구는 가로축에 맞추어 학생들이 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광장의 외부공간은 주출입구 홀을 통하여 후정으로까지 시선축으로 연결됩니다. 이 시선축은 이 건물의 내부 길이며 이 길에 각 공간들이 연결됩니다. 가로축에 주출입구를 맞추지 않은 것도 광장이란 외부공간을 내부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융해시켜 후정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의도이기도 합니다.

최윤경 _____ 종합문화관이 품기는 이미지가 상당히 복합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선 외관과 입면의 경우, 초록색 H형강을 이용한 인방 혹은 건물 끝부분의 원형처리 등으로 인해 상당히 화려할 수 있는 요소를 사용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절제된 느낌입니다. 물론 이러한 느낌은 앞서 말씀드린 내부공간에서도 나타나는데, 주출입구 홀의 경우에서도 수평적 수직적 개방으로 인해 마치 호텔이나 컨벤션 센터를 연상시키는 화려한 공간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절제된 느낌을 받습니다. 이 건물만을 위한 특정의 의도가 있으셨는지요 아니면 소장님의 일상적인 스타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지요.

우시용 _____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건축에는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김수근 선생님은 건축을 "건물 + α "라고 말씀하면서 α 를 맛, 멋 등으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의미는 건축이 단지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외관이나 내부 공간에서도 멋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여유가 있어 사용하는 사람들이 즐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적으로 마감하는 건물에서는 창문상부에 어떤 형태로든 벽돌의 하중을 받아주기 위한 인방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인방을 노출시키거나 L형강을 사용하여 외부에 붉은 벽돌을 얹어 놓습니다. 종합문화관의 경우 H형강을 노출시



광명 시민회관



일신방직(주) 청원공장 기숙사, 사택



삼호침례교회

켜 인방 역할을 하게 하고 녹청페인트로 마감하여 철골프레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계단실이 있는 붉은 벽돌로 된 원형 샤프트는 벽돌이 갖는 각진 형태를 원으로 처리하여 벽돌로 된 건물은 사각형이라는 고정관념을 부분적으로 바뀌게 합니다. 원형으로 된 계단실 부분은 종합문화관으로 진입시 제일 먼저 건물에서 접하는 부분이 됩니다. 계단실을 원형으로 하고 전시장 외부도 원형으로 같이 처리한 것도 진입시 각진 부분이 부드럽게 느껴지도록 한 것입니다. 고층부의 학생 출입구 부분의 휴게실을 반원형으로 처리한 것도 외관에서 모서리를 부드럽게 하고 휴게실 내에서의 외부로의 조망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한 것입니다. 대학건물이라고 해서 출입구를 통해 들어가면 바로 계단실, 화장실이 있거나 복도 등이 위치하는 것보다는 내부에 좋은 공간을 만들어 이용자에게 즐거움을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제 스타일이라고 부르기 보다는 이용자를 생각하면서 설계를 한다면 누구든지 넉넉하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가능하다면 제가 설계하는 건물에는 변화있고 좋은 공간을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윤경 _____ 건물의 외관과 공간에서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건축가들의 바람이겠으나, 소장님의 경우에는 이를 길으로 드러내기 보다는 내재된 차원에서 처리하고자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군요. 부가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소장님을 비롯해서 김수근 선생의 공간시절에 일하던 많은 건축가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부르기 쉽게 '공간출신'들이라고 통칭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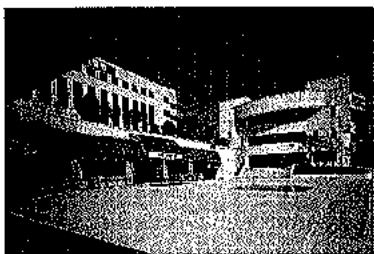
우시용 _____ "공간출신"이란 말은 건축가로서 확실한 뿌리가 있다는 생각을 심어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김수근 선생님은 제 입사초기에 프랭크로이드 라이트, 일본에서 활약하던 라이트의 제자 안토닌 레이몬드(제국호텔을 마무리 함), 요시무라 준조(동경예대 교수), 김수근으로 이어지는 우리들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기억됩니다. 김수근 선생님도 자기의 뿌리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었던

거지요. 공간에 몸을 담고 있었던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 하는 말은 공간출신이 이렇게 밖에 못하느냐 하는 말을 들을 때 일 것입니다. "공간출신"이라고 하면 무엇인가 다르겠다고 일반인들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1971년부터 1986년 김수근 선생님이 돌아가신 후까지 공간에 몸을 담고 있었는데 정확히 말하면 김수근 문하생들이란 말이 더 적합할지 모릅니다. 제가 공간에 있는 동안 백오십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간을 거쳐간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들 중에는 십년이 넘게 김수근 선생님과 같이 작업을 한 분들도 많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김수근 문하생이었음을 긍지로 삼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김수근 선생 별세 후에 모두 각기 그때 생활하던 것을 기본으로 각기 자신의 세계를 보고 해석하는 방법들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경 _____ 끝으로 건축계의 전망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되도록 너무 어둡지 않게(?) 말씀해 주시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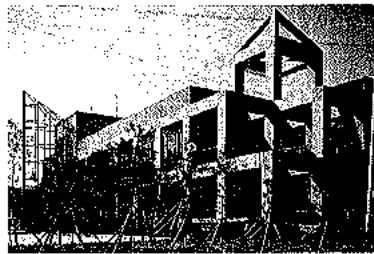
우시용 _____ 지금은 참으로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설계사무소의 구조조정, 통폐합, 졸업생의 취직의 어려움 등 그 좋았던 시절이 언제였던가 싶습니다. 배가 고플 때 좋은 작품이 나온다는 말도 있지요. 건축가도 예술가에 속한다면 이 어려운 시기가 더 좋은 작품을 만들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기는 인간성의 상실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더욱 모든 면에서 인간을 중심으로 한 디자인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스타일이나 특화된 건축도 좋지만 건축의 기본적인 것을 찾는 노력이 더욱 필요합니다. 건축가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의 것을 지탱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신념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개의치 않고 이 신념으로 끊임없이 현실에 도전하여야 합니다. 지금은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좋은 시기로 이 시기를 잘 이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리시청사



원서동 주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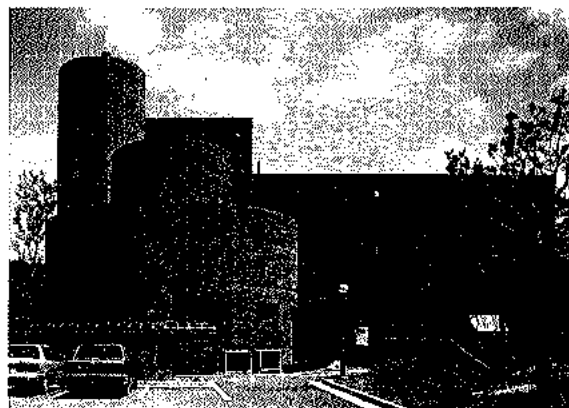
북부장애인 복지관

우시용의 건축과 한국근대주의

The Architectural Works by
Woo Shi-Yong and Korean Modernism

김성홍 / 서울시립대 교수

by Kim Sung-H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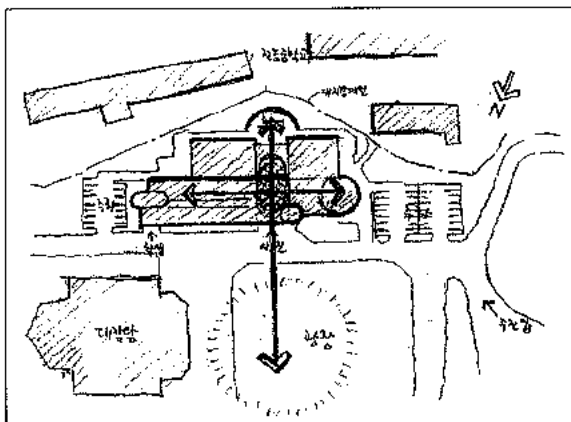
시립대 종합문화관

우시용은 두 가지 점에서 한국의 중견건축가이다. 첫째는 건축을 수학한 후 27년 동안 “건축설계”라는 영역을 벗어나지 않고 작업을 해온 건축가이다. 특히 그의 경력중 전반기 15년을 “공간”과 “김수근”과의 관계로 규정지을 수 있다면 후반 12년은 “홀로서기”라고 할 수 있는데 1970년 이후의 한국 건축계의 변화와 기록에 비한다면 그의 일관된 경력은 그에게 “중견”이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충분한 이유가 된다. 우시용의 경력은 한국건축계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공간계보”에 속한 건축가들의 일반적인 행보라고 할 수 있다. 우시용 스스로도 자신의 경력 전반기를 뿌리에, 후반기를 가지에 비유하는 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1980년대 이후 한국건축가에게 찾을 수 있는 “自己言議構築” 경향에서 우시용은 비교적 거리를 두고 있는데 이는 그의 건축이 실험을 통한 “자기차별화”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1970년대의 적어도 “공간”이 공유하였던 건축관에 대한 확인과 조정에 의미를 두고있기 때문이다. “공간”과 “김수근”을 한국건축의 근대주의에 비유한다면 우시용의 건축 역시 한국 근대주의의 틀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시용을 중견 건축가라고 부를 수 있는 둘째 이유는 그의 작품이 지니는 성격이다. 1986년 홀로서기를 시도한 이후 우시용은 비교적 많은 공공건축을 설계해 왔다. 광명시민회관(1986), 송탄시민회관(1988), 지하철6, 7호선 역사(1990, 1992), 광명시 제2별관(1991), 구리시청(1993), 북부장애인 복지관(1998)에 이은 서울시립대 종합문화관(1998)은 그가 악명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건축에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공공건축의 설계는 형태의 도출과정 이외에 對觀청 업무가 지니는 어려움이나 비합리성 때문에 건축가에게 그리 매력 있는 소재는 아니다. 더구나 1980년대의 한국건축계의 상황에 미루어 볼 때 우시용의 공공건축 작품비중은 그에게 “중견”의 이름을 붙이기에 합당한 이유가 된다.

우시용이 중견건축가라는 점은 서울시립대 종합문화관에 관한 비평의 성격을 설정하는 데에도 중요하다. 한국 건축계에서 “비평”은 적어도 두 가지의 경향을 지니고 있는

데, 첫째는 작가의 新作을 소개하는 저널리즘의 형식을 띄고 있는 “報道的 비평”이고, 둘째는 건축물이라는 물리적 대상의 범주를 넘어 사회적 통념, 건축과 관련된 기관과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비판하는 “건축물 외적인 비평”으로 나타난다. 이점에서 이 글은 우선 전자에 속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전자에서 건축물은 건축가의 작가혼이 투사된 산물이라는 “건축물=건축가” 등식으로 종종 귀결되고 있는데, 주로 작가의 개성이나 특질이 잘 드러나는 주택이나 소형건물에 중점을 두는 비평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 경우 비평의 목적은 작가의 의지와 그 과정을 해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점에서 이 글은 비록 전자의 “報道的 비평”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건축물=건축가”라는 이론적 틀은 배제하고 있음을 밝힌다. 롤랑 바르트는 문학비평의 대상을 작품(work)에서 텍스트(text)로 전환하면서 독자의 자율성을 주장한 바 있다. 이를 건축에 적용하면 건축물은 작가나 어떤 집단의 의도가 구상화된 최종 완성품이 아니라 삶을 담아 가는 자기생성(self-generating)의 場이 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작품에서 텍스트로의 전환은 건축형태 및 공간이 지니는 表象(Representation) 기능도 변화됨을 의미한다. 십자가를 머리에 이고 있는 교회건물이 극장으로 개조되면 십자가는 더 이상 신에 대한 인간의 경외를 표상하지 않는다. 반대로 상업복합시설의 한 층을 임대한 교회가 옥상에 십자가를 설치하더라도 그 건물은 결코 고딕성당의 침탑이 지니는 의미를 복원하지는 못한다. 1980년대 이후 한국의 신진건축가에게서도 이러한 형태의 관습적 의미를 거부하는 두드러진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탈근대주의에 대한 냉소와 동시에 건축형태의 자율성을 주장하였던 근대주의 원칙을 재수용하려는 의지로 읽을 수 있다. 우시용의 종합문화관의 형태에서 보여지는 非表象性은 이점에서 탈근대주의 이후의 신진건축가들과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우시용은 자신이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재확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료와 구조의 물성 및 결합 방법에서 새로운 형태를 찾으려고 시도하는 일부 신진건축가들

**종합문화관 배치개념도**

과는 근본적으로 방법론을 달리하고 있다.

종합문화관은 서울시립대 내의 남동쪽 끝에 자리잡고 있는 지하1층, 지상5층의 건물이다. 일반적으로 평활한 대지에 놓여진 대학 캠퍼스에 들어서면 본관이나 도서관을 향한 넓은 도로를 마주하게 되는 것이 보통인데 서울시립대에 들어선 방문객은 강한 축선이 없음을 발견하게된다. 캠퍼스의 심장부는 건물이 에워싸고 있는 장방형의 녹지이다. 종합문화관은 녹지공간의 남측에 위치하고 있어서 정문에서는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는 셈이다. 녹지공간 남쪽에 동서로 연결된 도로를 따라 들어서면 앞에는 붉은 벽돌의 無窓의 곡면 벽이 그 뒤에는 역시 모서리가 곡면으로 처리된 직육면체가 시야에 들어온다. 초록색의 H형강 인방을 제외한다면 건물은 작위적인 의도가 느껴지지 않는 절제된 건물이다. 입구는 북측 면의 중심부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대칭의 구도를 지우려한 의도가 읽혀진다. 건물은 크게 전시장, 식당, 국제회의장을 포함하는 제1의 매스, 강의실과 연구실을 포함하는 제2의 매스, 공연장, 박물관의 제3의 매스로 분절된다. 제1과 제3의 매스는 서울시민을 위한 문화기능, 제2의 매스는 강의와 연구기능으로 계획되었다.

우시용의 형태구성 원리는 두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평면과 외형을 비교해보면 선, 면, 혹은 특정한 요소보다는 매스를 형태를 구성하는 기준(Datum)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 뚜렷해진다. 그리고 매스를 구성하는 논리는 방의 기능과 방들이 모여 이루는 단위체의 성격이다. 단위체의 성격이 규정되면 이는 그대로 외형으로 표출된다. 둘째, 계단, 홀, 샤프트, 샤프트의 공간은 독자적인 형태로 표출되면서 분절된 매스를 결합하거나 부분을 강조하는 요소로 사용된다. 매스의 분절은 그의 공간 시적 작품인 서울클럽(1978)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데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1984), 송탄시민회관(1988), 일신방직 가속사(1991)에서 동일한 수법이 확인된다. 계단, 홀, 샤프트의 표출은 지방행정회관(1979), 광명시청사(1983), 국립과학수사연구소(1986), 광명시민회관(1986)에서 나타난다. 두 가지의 원칙은 그의 건축 형태가 지향하는 표상대상이나 목적

과 연결된다. 즉 매스는 우리시대의 관습, 문화, 의식을 지칭하는 상징성을 가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우시옹은 원통형의 매스가 한국건축의 어떤 요소를 지칭한다거나, 여성스러움의 표현이라거나 하는 식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것이다. 원통기둥은 상징의 기능보다는 觀者에게 날카로운 직육면체를 시각적으로 원화시켜주는 지각기능을 하고 있다는 해석이 더 정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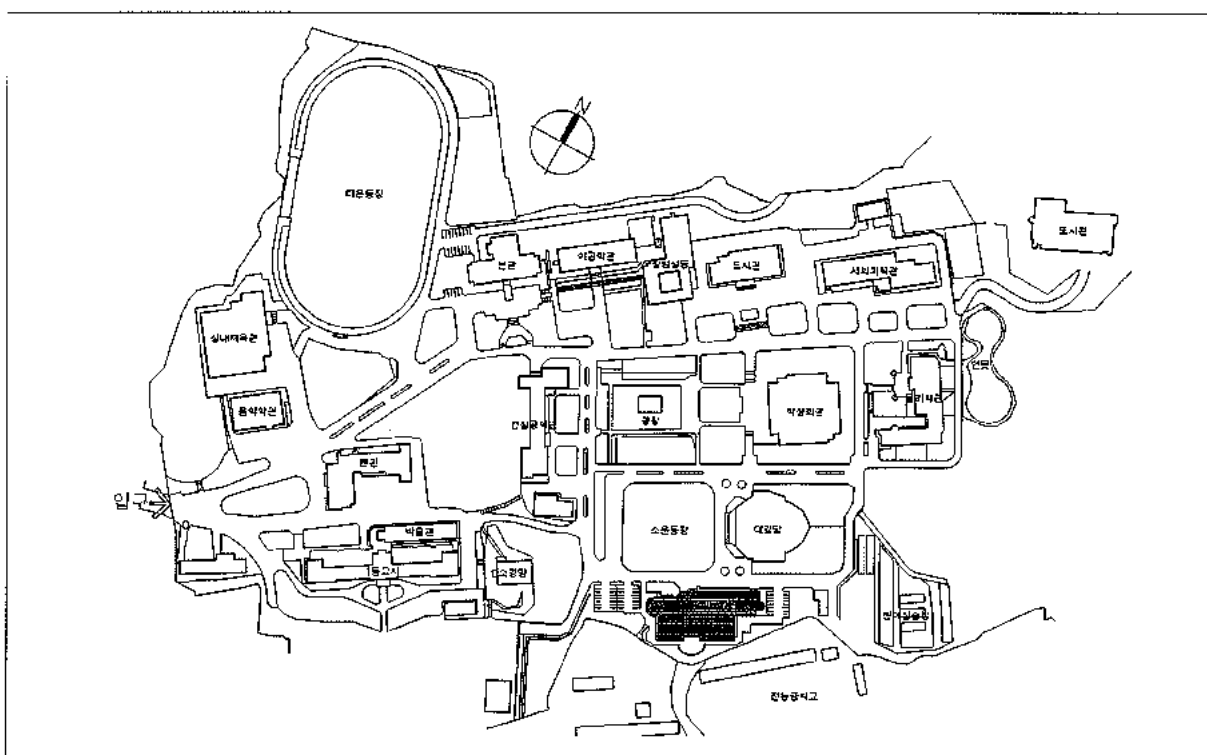
알란 쿨쿠호은 문화에 의해 주어진 관습적 의미를 내포하는 비유적 형태(Figure)와 건축외적인 대상을 지칭하지 않고 그 자체의 자율적 의미를 지닌 구성적 형태(Form)를 규정한 바 있다. 전자의 의미가 그것이 전달하는 시대의 가치관, 사상, 통념에 있다면 후자의 의미는 구성을 지배하는 내적 법칙 혹은 질서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탈근대주의의 태동은 근대주의가 소멸시켰던 비유적 형태를 복원을 시도라고 쿨쿠호은 주장한다. 이 점에서 우시옹의 건축은 1980년대 한국의 현대건축에 깊숙한 영향을 끼친 탈근대주의에서 한 발자국 떨어져 있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이점은 그가 아직도 “공간” 시대의 건축관 더 나아가 김수근의 건축관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근대주의의 양대 산맥인 김수근과 김중업이 뚜렷이 다른 줄기를 내리고 있는 것은 두 사람이 건축형태의 표상성에 상반된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김중업은 배, 비행기 등 근대문명의 산물에 심취하고 이를 건축형태를 도출하는 출처로 사용하였던 르코르뷔지에의 영향을 받았음에 틀림없다. 김중업에게 형태는 무엇인가를 지칭하는 다의성 때문에 힘을 지니는 것이다. 觀者에게 중요한 것은 지각적 경험 자체보다 그 경험으로 인식되는 대상물인 것이다. 반면 서구의 근대주의를 일본이라는 여과과정을 통해 배웠던 김수근은 형태가 지니는 사회, 문화적 “혹”을 제거하려고 노력했음을 틀림없다. 특히 “왜색” 시비에 스스로 휩싸였던 그에게는 형태가 무엇을 지칭한다기보다는 그 자체로서 자기생성기능을 지녀야 한다는 논리를 추구해야 했을 것이다. 많은 “공간계보”의 건축가들이 홀로서기를 시도하면서 독자적인 언어를 구축하고 있지만 이러한 건축관은 견지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다만 우시옹이 공간계보의 다른 건축가들과 다른 점은 공간과 자신의 작업 흔적을 재확인하는 일관성인 점이다.

그러나 종합문화관을 포함한 그의 건축은 반근대주의자에게는 기능주의의 산물로 비춰질 결점을 지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기능의 성격화가 매스로 이어지는 과정은 형태의 전체성을 지배하는 법칙이 상대적으로 취약함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초록색 H형강 인방과 난간의 띠는 이점에서 매스와 결합된 필요 불가결한 요소라기보다는 부차적인 요소로 느껴진다. 광명시청사(1983)의 외벽을 두르는 수평 띠도 같은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종합문화관 1층, 2층, 3층의 오픈된 로비 부분이 수직으로 연결되지 못한 것이 2층 국제회의장의 입구 처리 문제 때문이라는 점은 외형에서처럼 내부공간을 조율하는 원

칙이 부분적인 기능논리에 의해 흐트러짐을 보여준다. 2층과 3층의 창을 내부공간이 통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자의 시각인 식기능을 강조한 나머지 커튼월처럼 처리한 것 역시 그가 추구하는 매스의 힘을 시각적, 논리적으로 약화시켰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물성 자체에 존재론적 의미를 부여하는 최근의 흐름에서 종합강의동의 붉은 벽돌은 공간시대로부터 홀로 서기를 시도한 지 십여년이 지난 그의 건축세계에 재료의 항상성 이상의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질문을 던지고 싶다.

서울시민의 문화공간과 학생의 교육공간의 결합으로 시작된 종합문화관은 문화공간이 없어진 가정 “종합강의동”으로 불리어 지다가 교수연구실 및 실험실의 비중이 커진 “자연과학관”으로 개관되었다. “종합문화관”에서 “종합강의동”으로 바뀌면서 역명의 사용자인 서울시민의 향의는 당연히 없었지만 “종합강의동”에서 “자연과학관”으로 바뀐 사실은 대학 내의 학생들에게는 더 없이 좋은 비판거리였다. 이 건물이 건축가의 작품이기에 앞서서 자신들의 권익과 자치권을 빼앗긴 하

나의 사건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자연과학관으로 바뀐 종합문화관은 이제 입주가 완료되면서 건축가 우시용의 의지와 손을 떠나 자기생성의 장소로 바뀌어 가고 있다. 전시실은 교직원 식당으로 바뀌고 서울시민의 박물관은 복도와 방으로 바뀌었다. 5층 복도에는 대형 실험장비들이 들어서고 있다. 형태가 지닌 표상이나 인식의 문제보다 공간이 지니는 역동적인 기능은 어쩌면 우시용 건축의 진정한 모습이 아닌가 한다. 건축물은 건축가나 가상의 觀者보다는 사용자에게로 귀결된다는 우시용의 건축관은 형태논리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거나 논리화하는데 대한 부정이라기보다는 휴머니스트로서의 그의 면모를 진솔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이십오년 이상의 그의 궤적을 후배들이 추적할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한국 건축계에 있어서 그의 존재는 매우 중요하다. 1990년대 이후 건축계에 불고있는 다양한 실험과 변화의 물결 속에서 그의 역할은 그래서 더욱 필요하다고 느껴진다.



서울대 종합배치도

Woo Shi-yong may be called one of the principle architects of Korea in two respects. For one, he has been a practicing architect for the last 27 years, since his graduation from college, continuously devoting himself to the design of architectural works. While his first 15 years of practice is in close relation to the late renowned architect Kim Soo-Keun and his office Space, the latter part may be called the period of self-establishment. Putting by the many trends and changes in Korean architecture since the 1970s, the constant style of Woo is no less a reason to earn him the name

of a principle architect. His professional record is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 paths of architects from Space, which is one of the strong forces of this country's field of architecture. It is not surprising that he himself has compared the two periods of his career to the root and branches of a tree. While most architects from the 80s began to construct architectural languages of their own, Woo has distanced himself from this fad of discriminative experiments. He instead exerted himself to the task of valuing and modifying the principles of the 70's architecture, which was dominant at least to the people

of Space. Considering Korean Modernism through Kim Soo-Keun and Space, it is inevitable to view Woo in the same critical frame. Another reason why Woo's work occupy the status among this country's principle work can be found in its characteristic itself. After departing from Space in 1986, he has independently produced a good number of works: the Civic Center of Kwangmyung(86) and Songtan(88), the stations for Seoul Subways No.6 and No.7(90, 92, respectively), the Second Outbuilding of Kwangmyung(91), the City Hall of Kuri(93), and the Northern Welfare Center for the Disabled(98). The most recent work is the now-open Cultural Center of Seoul City University. A body of his architectural works has been public centers, open to the use of various people. This recent work also lies in connection to this path, once again proving the architect's knowledge and experiences in this specific type of architecture, which, due to its formal features, irrational aspects, and difficulties in dealing with the government offices, is not such an attractive project for an architect.

It is important to recollect, in the criticism of the Culture Center, the status of Woo as one of the principle architects of Korea. In Korean architecture, criticism usually has two tendencies: the first is a journalistic one, which is focused on presenting an architect's new work; the second criticism broadens its object, from a work of architecture to a field that includes that work and the architectural institution, the social backgrounds that create such work. In the latter case, the criticism is not so much an intrinsic critique but a exterior one to architecture. This criticism belongs to the former case, but whereas most of this kind, especially those concerned with housing projects and small-scale buildings, end up viewing the work as a direct equivalent to the architect, considering it as a mere projection of his artistic spirits, here the center of analysis is the intention of the architect and its working process into an actual material form. Roland Barthes has replaced the object of literary criticism, from a work to a text, emphasizing the creative and independent role of the critic or the reader. Applying this to architecture, a building no longer functions as a reification of intentions by some or some peoples: it is a field of self-generating, containing various forms of life through time.

The transition from a work to a text signifies a change of function in the representations of architectural form and space. When a church is reformed into a theater, its cross ceases to represent the reverence of man to God. On the other hand, a small cross on a commercial building, laid by the people of the church which occupies one of its floors, does not revive the meaning of a cross on the tower of a Gothic church. Since the 80s, emerging Korean architects began to discard the meanings inherited in architectural forms. It was an attitude sarcastically scorning the Postmodern tendencies, and returning to the belief of Modern period on the autonomy of architectural forms. The negative stance toward representation in Woo's Culture Center shares this opinion, but with a difference: while the other architects seek new forms through material, structural and tectonic aspects, Woo remains constantly faithful to his own architectural language.

The Culture Center is located in the Southeast end of the Campus of Seoul City University, 5 stories high, with a basement floor. The usual entrance in a

campus layout displays a broad road towards its core, which is the main hall or the library. What strikes the sight of the visitor to Seoul City University, however, is the curious absence of a string axis. The heart of the campus is a rectangular plaza surrounded by buildings, whose southern edge is where the Culture Center sits. Following the road in the south of the plaza, extended in the east-west direction, a wavering brick wall without any openings appears, which is followed by a block with smooth angles. This is the Culture Center, whose features are erased of any signs of authorial expression, except for green H-beams used as window frames. Its entrance is made on the north facade, in slightly decentralized position, which can be read as an intention to avoid symmetry. The Center is largely divided into 3 parts: the first volume includes the exhibition hall, the cafeteria, and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room; the second has the lecture halls and research laboratories; and the performance hall and the museum are housed in the third. While the first and third masses function as a cultural public space for the citizens of Seoul, the second one is preserved for educational and research purposes.

The principles of composition in Woo's works can be summarized in two. The first comes from a comparative analysis of its plan and exteriors, which leads to a conclusion that it is the mass itself, rather than lines and planes, that acts as a datum for the composition of forms. The logic behind the structuring of masses is found in the functions of each room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units formed by the joining of rooms. The determination of the unit's features are directly projected to its envelope. Secondly, the spaces of stairways, halls, installation shafts are manifested as an autonomous form, connecting the articulated volumes or emphasizing certain parts. The breaking down of the overall volume is apparent in the works from his days at Space, such as the Seoul Club(78), and is found through out his career: for instance, Ramada Renaissance Hotel(84), the Civic Center of Songtan, and the Dormitory for Ilisan Textile Manufactures(91). The method of exposing of stairways and other elements can be seen in the Regional Administration Center(79), the City Hall of Kwangmyung, the National Scientific Investigation Research Center(86), and the Civic Center of Kwangmyung. These two principles are linked to the object of representation or the intention itself, that his architectural forms direct to. In other words, the volumes are not containers of symbols, producing meanings through the cultural conventions. He does not insist that certain forms correspond to some elements of traditional architecture. Neither would he define a form with values such as femininity. A round column does not approach the viewer through symbols but rather in a perceptual way: it eases the edginess of a rectangular fo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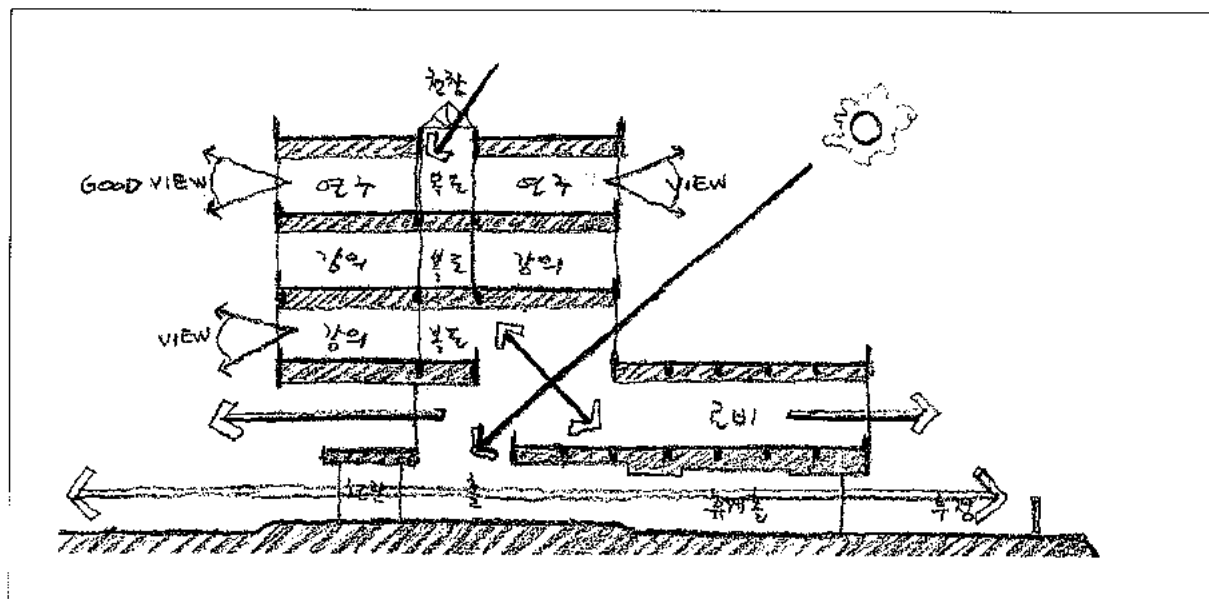
Alan Colquhoun has defined a distinction between figure and form: the former refers to a shape whose meaning is suggested by cultural codes and ideas, while the latter is an autonomous one free from analogies to objects outside of architecture. In form, meanings stem from the intrinsic principles and order of architectural composition. Colquhoun goes on to suggest that Postmodern architecture sought to restore the figure, which was discarded by Modern movements. This opinion had a deep impact on Korea in the 80s, from which Woo nevertheless maintained a critical dis-

tance. This also means that he is still under the influence of Space and Kim Soo-Keun. We should note that the fundamental differences between the two masters of Korean Modern architecture, Kim Soo-Keun and Kim Joong-Ub, lies in their contradictory recognition on the issues of representation. Kim Joong-Ub was inarguably affected by Le Corbusier, who was fascinated by the forms of ships and airplanes, and used them in deriving architectural forms. For him, form, or more precisely, figure, gains power through polysemy, referring to some existing thing. From the viewer's point of view, what is important is not the experience of perception itself but the cognitive object comprehended via the experience. On the contrary, for Kim Soo-Keun, who learned of the Western Modernization through the medium of Japan, form should be free from cultural and social connotations of Foreign origin. This is all the more apparent since there were debates on "Japanese aspects" of his works. Going through these unproductive controversies, it is quite imaginable that he became to prefer forms of self-regulation to those which are heavily soaked in cultural backgrounds. Many architects from Space has then came up with architectural languages of their own, but it could be said that this basic thought on form remains intact among them. What distinguishes Woo from these other architects is the coherence with which he revalues the works of Space and himself.

His works, including the Culture Center, however, has the risk of being deemed, by those who are opposed to the Modern Movement, a retro product of functionalism. The way functional features become linked directly to form of the volume may act as a proof that a principle of achieving wholeness from the overall composition is relatively weak. The green H-beams and lines of the window frames are more secondary additions than indispensable elements, which was also the case with the horizontal lines that go through the volume of Kwangmyung City Hall. The unfortunate fact that the open lobbies of the first, second and third floor are not connected vertically was due to the layout of the entrance to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room. This is all the

more regrettable since it clearly shows that the principle of indoor composition, like that of the exterior, has been altered by partial logics of function. The curtain walls that cover the second and third floors, irrespective of its unlinked indoor spaces, has a striking effect on its outside viewers, but diminishes its logical, visual power of mass composition. Also, in an age when architects start to ask ontological meanings of materials, could his constant preference for red bricks be something more than an obstinate obsession since his days at Space?

The Culture Center, a sort of hybrid between public cultural spaces for the citizens of Seoul and a space of education for the University's students, has once been called General Lecture Hall, discarding its function of cultural activities, and is now renamed as Hall of Natural Science, emphasizing its role as research center for professors and students. While the first alternation faced no resistance from its arbitrary users, i.e. the Seoul citizens, the latter change of name has met a strong protest from the students, who considered this a denial of their rights for active usage of this building. The Culture Center, now called the Hall of Natural Science, has now left the hands of its creator, and entered the domain of self-generation. The exhibition hall is now used as a cafeteria for faculty members, and the museum space for the citizens is occupied by hallways and rooms. Large devices for experiments fill the hallways of the fifth floor. It may be the dynamical functions of the spaces, not the cognitive issues of representation or unrepresentation forms, that characterize Woo's architecture. The belief of the architect that a work of architecture concerns not its creator or abstract viewers but its users, is more a sign of his humanistic approach to this field than a negation of formal logics. The fact that we can trace his path spanning a quarter century sufficiently proves his importance in Korean architecture. Among the out-of-control trials and experiments, ruling the field of architecture since the 90s, his stance and role seems all the more meaningful, and necess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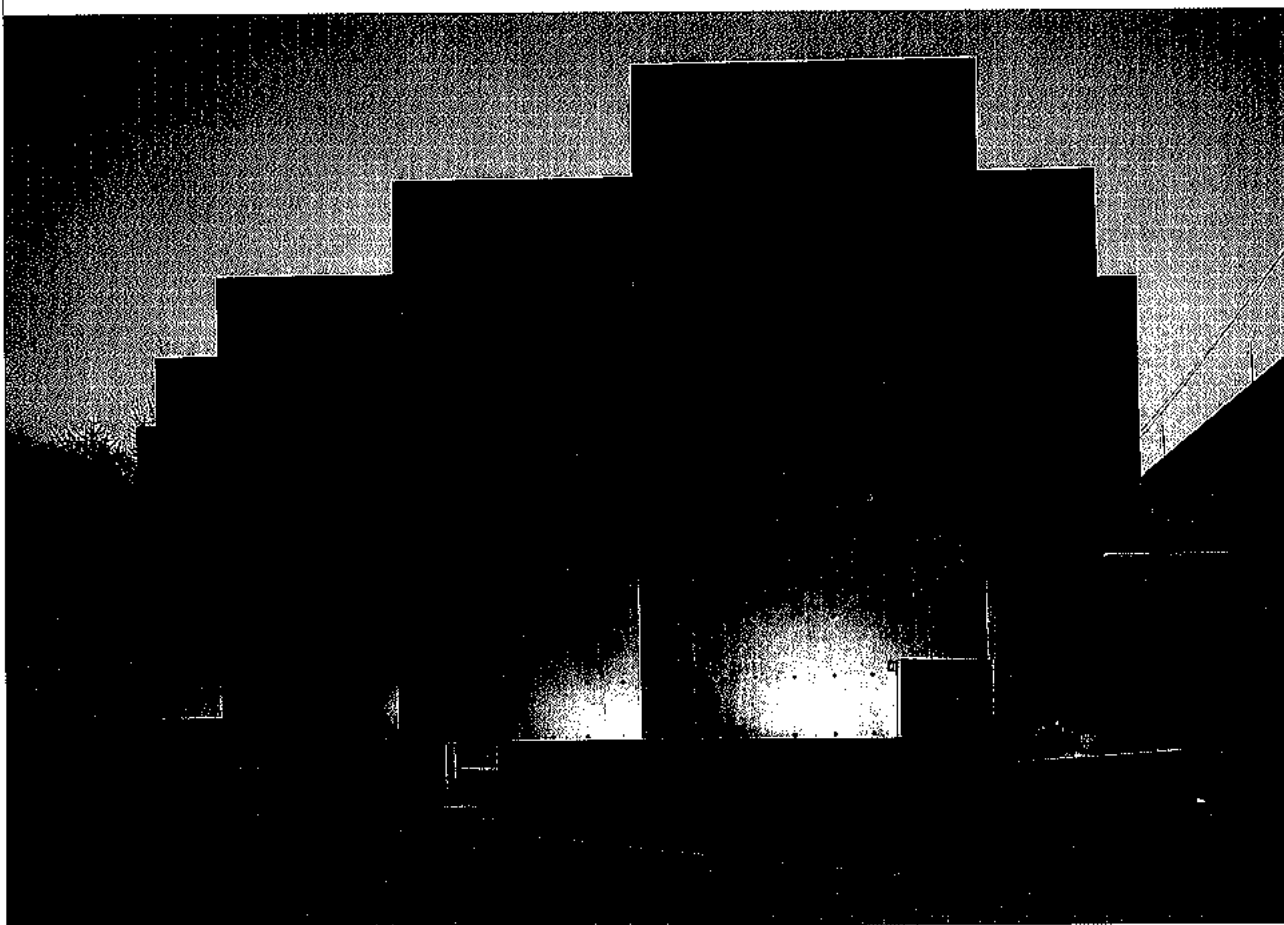
시립대 종합문화관 단면개념도

김옥길기념관

Kim Ok-Gil Memorial Hall

김인철/ 아르키움 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In-Che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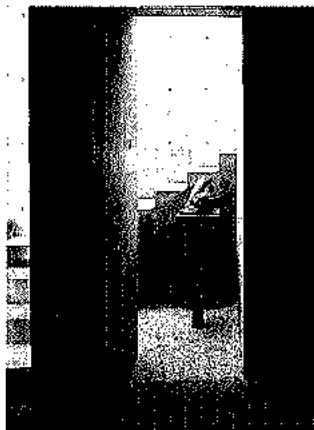


남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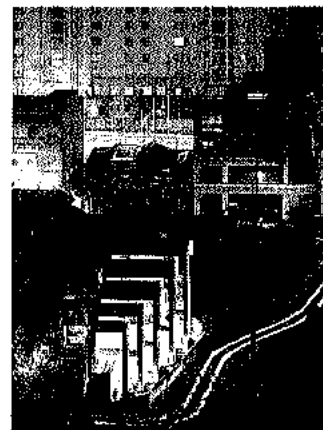
건축개요

위치	서울시 서대문구 대신동 92번지		
주요용도	문화시설		
대지면적	371.9㎡	연면적	212.69㎡
건축면적	62.64㎡	용적률	109.65%
건폐율	59.81%		
조경면적	19.48㎡		
규모	지하1층, 지상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설비방식	패널하팅		
내부마감	바닥 - 글라스 콘크리트 물갈기		

벽	노출콘크리트, 천장 - 노출콘크리트		
외부마감	벽 - 노출콘크리트, 지붕 - 물탈누름		
설계담당	허진성, 차기팔		
설계기간	1996. 5~1997. 2		
공사기간	1997. 2~1998. 3		
구조	민성건축		
기계	성진설비		
전기	우림전기		
시공	세진주택 조영희		
건축주	김동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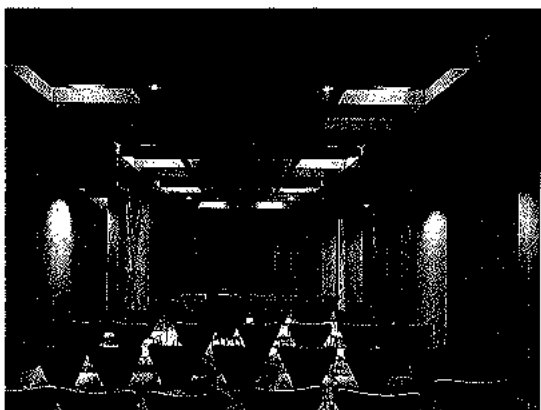
지하층 계단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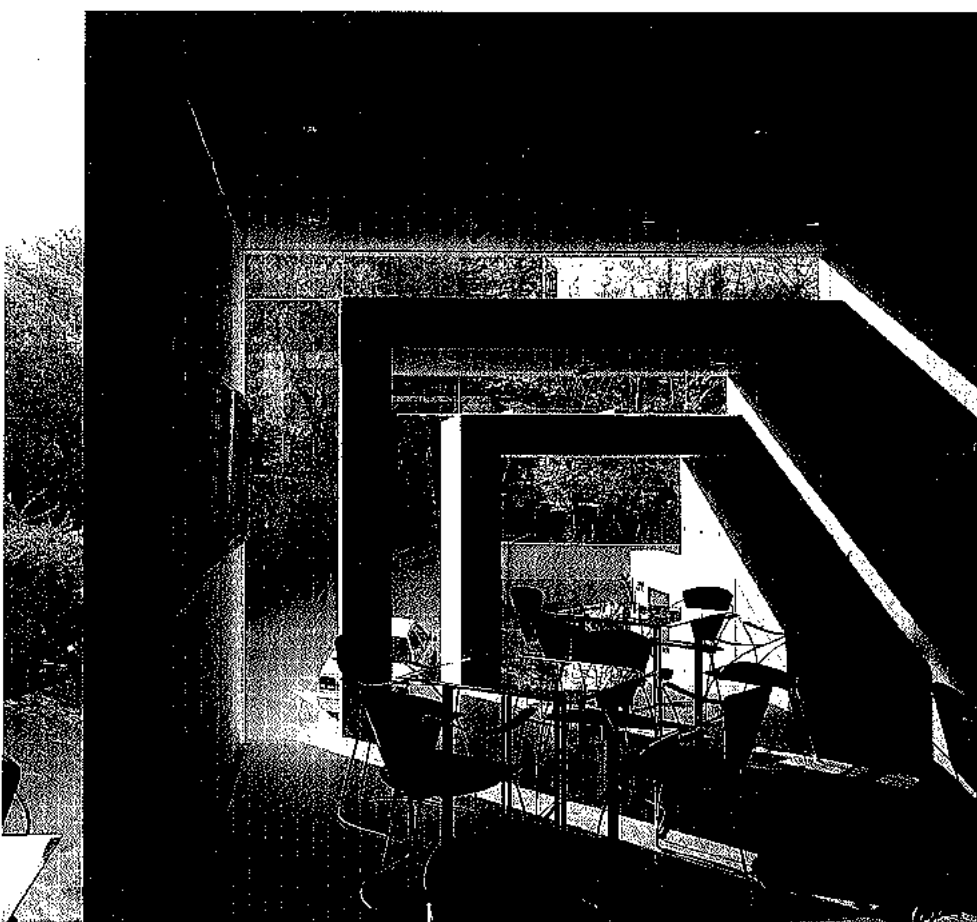
서쪽 원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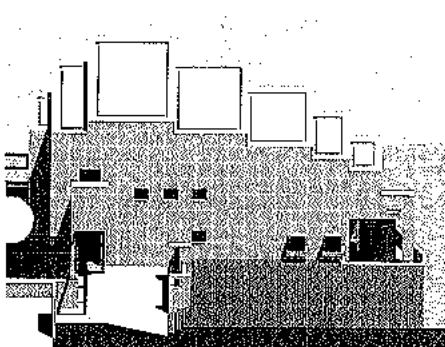
1층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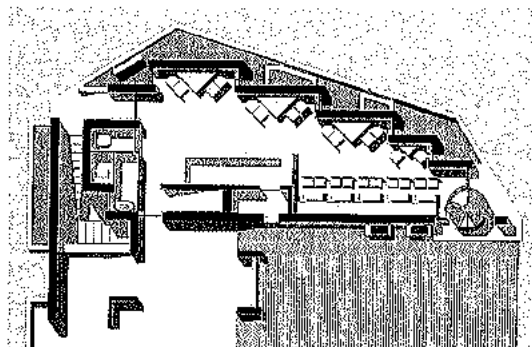
지하층 문화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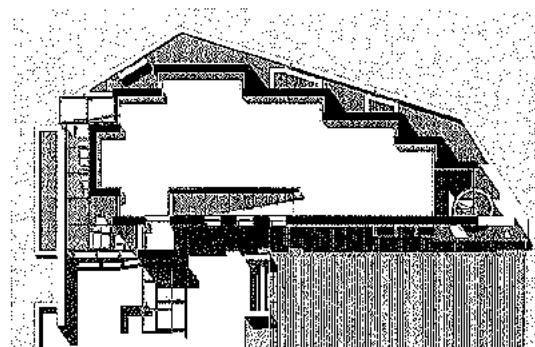
2층 내부



배면 투상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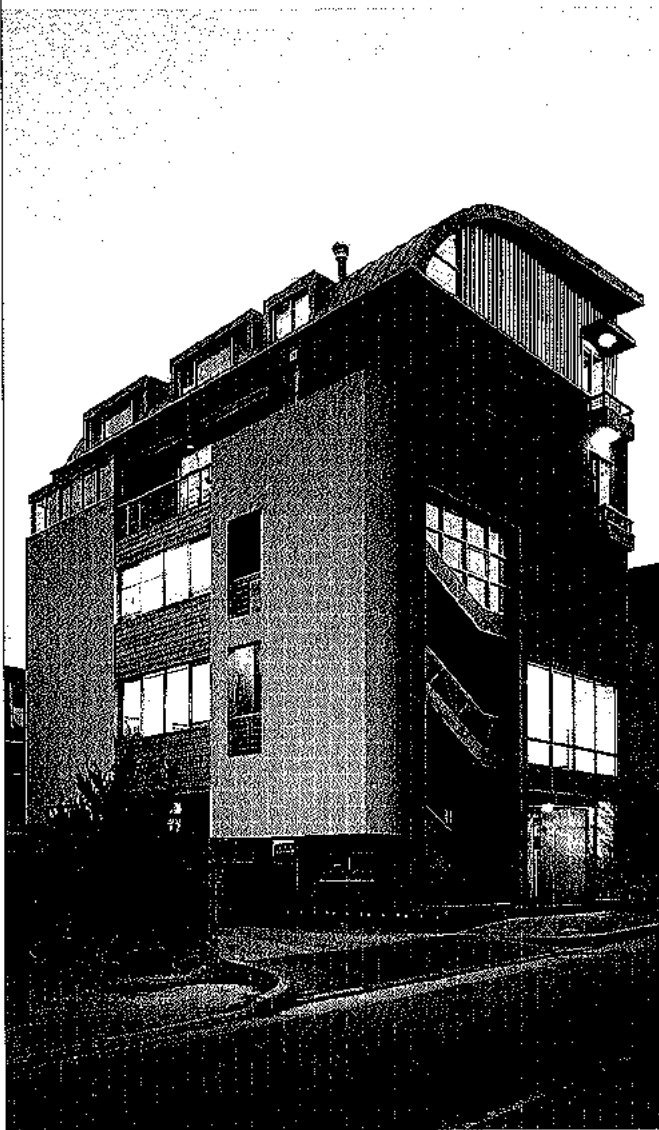


2층 평면도

청규현

Jace-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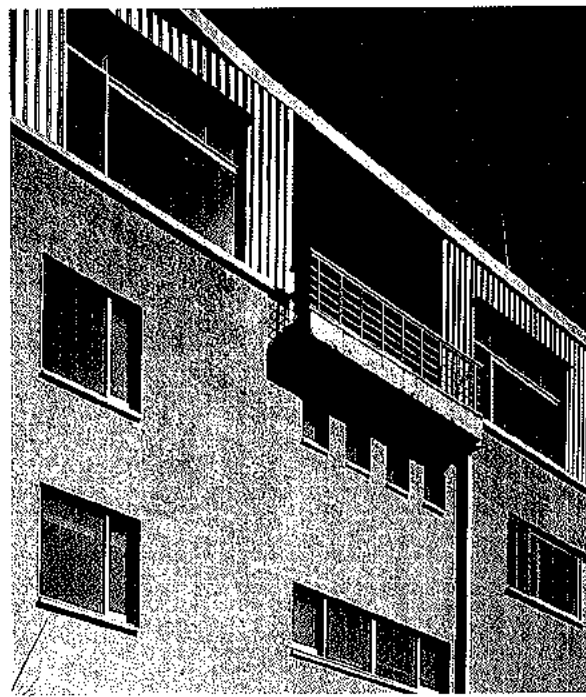
김낙중/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중원건축
Designed by Kim Nak-J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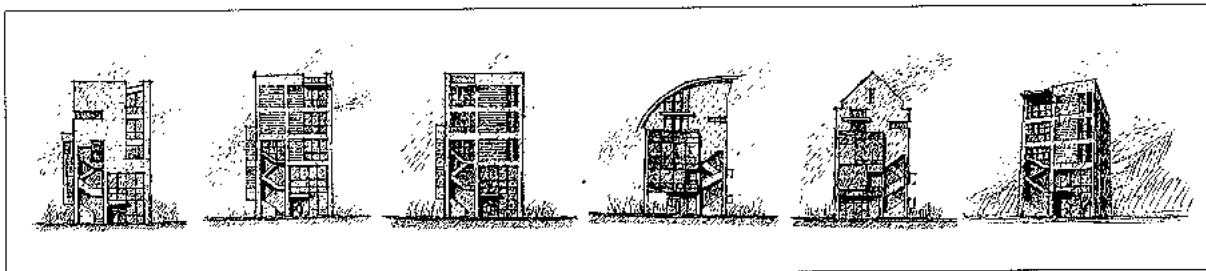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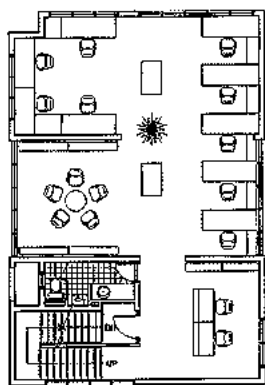
5층 소장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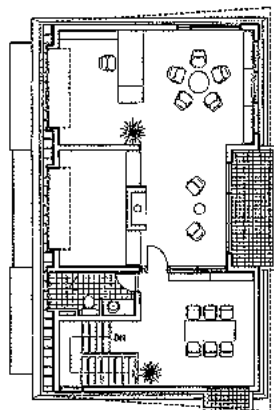
남서쪽 벽면 상세



초기 스케치



3층 평면도



5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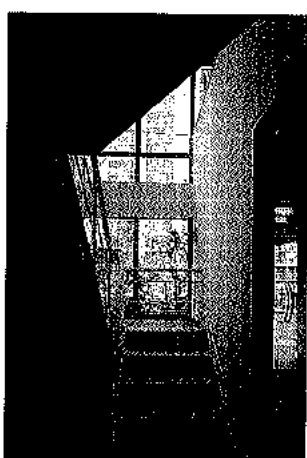
4층 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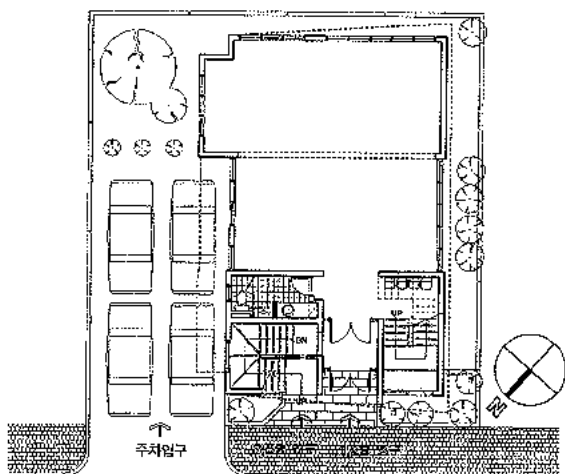
3층 계단실



3, 5층 외부계단실



1, 2층 전용계단실



.배치 및 1층 평면도

자신들에 대해, 자신들의 가치에 따라 자신들을 위해 말해 달라고 하는 사물의 무언의 간청들...

- 프란시스 풍슈 -

창 밖으로 봄의 풍경이 보인다. 산 능선을 따라 흐르는 신록의 물결이 봄빛으로 반짝인다. 그러나 사실 그 풍경 속에 '봄'은 없다. 있는 것은 연두빛 잎새들과, 부드러운 바람, 그리고 새의 소리들이다. 자연은 관대해서 그 풍경 속에 새로운 것들 뿐 아니라, 오래전부터 있었을 산 자락의 바위와 흙, 그리고 지난 가을의 흔적인 낙엽도 담고 있다. 봄은 그렇게 생생한 사물들과, 시간과 공간의 여백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건축가 김낙중의 스튜디오, 청규현에서 바라보이는 우면산 자락의 모습이다.

봄이 스스로를 드러내는 방식처럼 김낙중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은 은근하다. 청규현의 내·외부를 읽어보면 형태의 논리와 공간의 질서로 발현되는 건축가의 의지가 먼저 보이지 않는다. 건축가의 의지를 감지하는 대신, 대지의 조건에서 비롯되는 볼륨의 한계와 임대영역과 설계스튜디오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적 해결에 설득된다. 우면산의 풍경이 그렇듯이 그 당위의 설정 속에서 만나게 되는 것은 '건축'이 아니라, 사물들과 공간의 여백들이다.

공자같이 깔린 주차장에서 시작하여, 마천석으로 된 입구의 스텝, 홍송의 난간대, 미송합판 그대로의 마감 등 건축의 요소로 치환된 재료가 아니라, 건축의 요소이면서도 동시에 스스로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사물들이 당위의 세계 속에 놓여 있는 것이다. 리처드 마이어가 건축적인 표현을 위해 재료를 백색으로 질식시켜 살해했다면 청규현의 건축가는 물질을 건축적 설정 속에 놓았을 뿐 물질, 그 고유한 삶을 살게 한다. 노출 콘크리트 면에 결벽증을 갖고 완벽한 마감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거푸집의 먹줄 튀긴 자국, 테이핑 자국까지도 그대로 두어, 작업의 행위와 시간의 간격까지도 캐스팅하는 여유를 보여준다. 그 여유 한편으로 공간의 분할에서 보여지는 치열한 계산과 아연도 동판 지붕과 갈바륨 외벽크래딩의 처리에서 발견되는 장인적인 탐구가 엄연히 존재한다. 그러한 탐구와 계산이 관용의 그릇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건축가가 짜 놓은 판에 공간과 재료들이 스스로없이 놓이면서 투박함이 주는 편안함을 누리게 해준다. 관용의 미덕은 재료의 배치뿐 아니라 공간의 관계 속에서도 보인다. 건축가의 스튜디오로 오르는 계단은 지붕 아래 있지만 외부로 열려있다. 오르는 경험 속에서 도시와 자연의 풍경을 번갈아 만나게 된다. 스튜디오라는 목적지로 안내하는 계단이 아니라 오르는 방향이 몇 번 바뀌면서 건축과 도시와 자연을 누리게 하는 너그러운 장치인 것이다. 그러한 설정은 내부에서도 계속된다. 작업실의 곡면 천장은 자연을 향해 완결되지 않은 지붕의 곡률을 투사하고, 그 아래 창 프레임으로는 산자락의 풍경이 터질 듯 잡혀온다. 그리고 그 내부는 테라스와 발코니로 이어져 외부와 다시금 대면하게 되는 것이다. 청규현의 스튜디오는 건축가의 자폐적인 소유주가 아니라 도시와 자연과 함께 하는 너그러운 마당이다. (글: 경영위치 김승희)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2-4

대지면적 230㎡

건축면적 120㎡

연면적 530㎡

건폐율 52%

용적률 216%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구조 R.C. 조

외부마감 노출콘크리트, 콘크리트블럭

한국교회 이기풍선교기념 훈련센터

Lee Kee-Pyung Missionary Training Center

정림건축

Designed by Junglim Architecture

한국교회 이기풍 선교기념 훈련센터는 한국기독교 100주년을 맞아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에서 이기풍 목사의 선교정신과 우국충정의 숭고한 뜻을 후세에 널리 전하고자 그분의 사역지로 유서깊은 제주도에 건립하기로 기획되었다. 설계는 적당한 대지를 찾는데서 시작되었다.

남제주군에서 북제주군까지 여러번의 기능부지선정과 계획안 검증 과정을 거쳐 북제주군 조천읍 외홀리 산자락에 자리잡게 되었다. 제주 환경보전을 위한 제주개발특별법상 상대보전지역인 계획부지는 대지면적은 1만㎡, 최고높이 8m이하로 규제되어 계획되었던 외부무대시설이 취소되거나 축소되었으며 도시 상하수도 시설이 미비되어 대지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설계는 각동의 용도에 따라 자유롭고 특징적인 Mass를 찾는데서 시작되었다. 중앙광장을 타원형의 대예배당과 사각과 원형조합의 기도원 사무동, 사각형 Mass의 연속인 기도원동이 감싸고 반원형의 외부 연결 복도로 연결하였다. 산자락에 위치하고 주변자연환경이 양호하여 각동에는 커튼월과 천창이 많이 사용되었고 주된 외장재료는 제주 화산석과 송이를 사용하였다.

전국교회의 헌금과 하나님의 은총으로 무사히 준공하였고 건립기획의도에 맞게 활용되었으면 한다.

건축개요

대지위치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읍 외홀리 산14번지
지역	상대보전지역, 준농림지역
주용도	종교시설(기도원)
대지면적	9,797.00㎡
건축면적	3,499.35㎡
연면적	6,412.27㎡
지하면적	500.05㎡
건폐율	34.50%
용적률	59.14%
층수	지하1층, 지상2층
기계설비	한국설비
전기설계	세진기연
감리	제주우신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시공	제주 일동종합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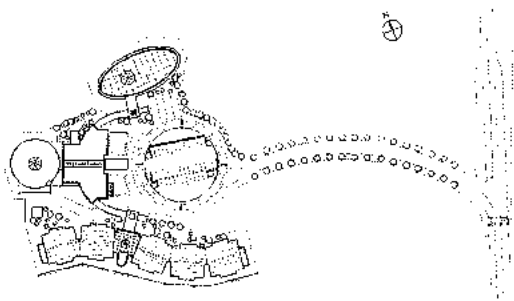
대예배당



기도원사무동 북동측 부분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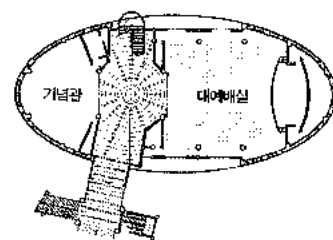
대예배당에서 본 사무동과 기도원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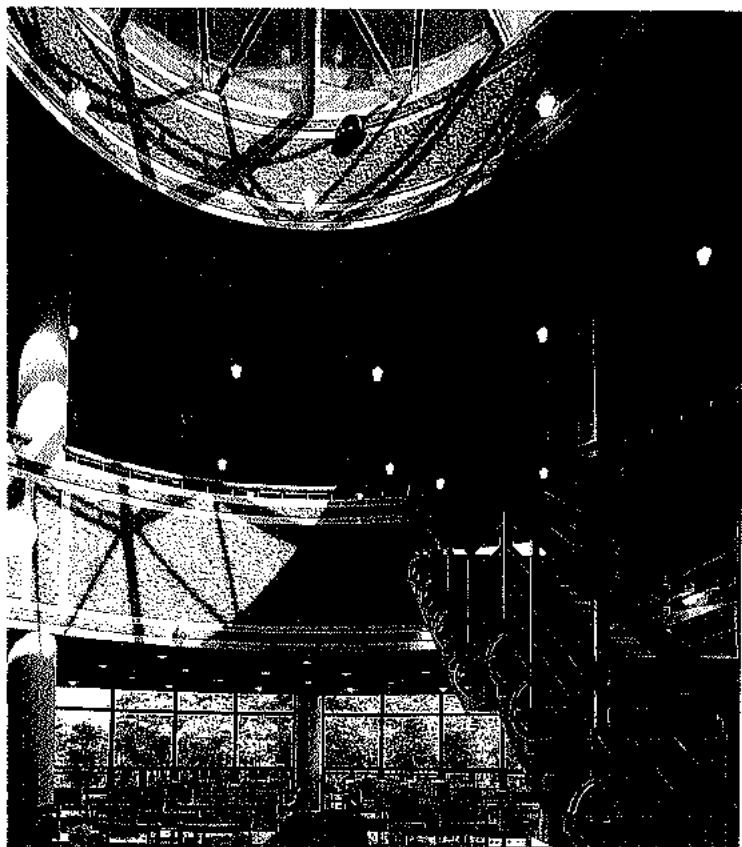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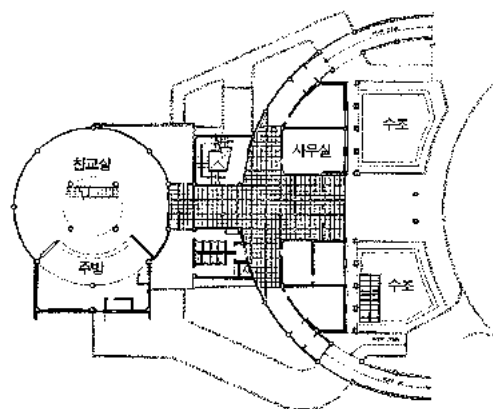
기도원사무동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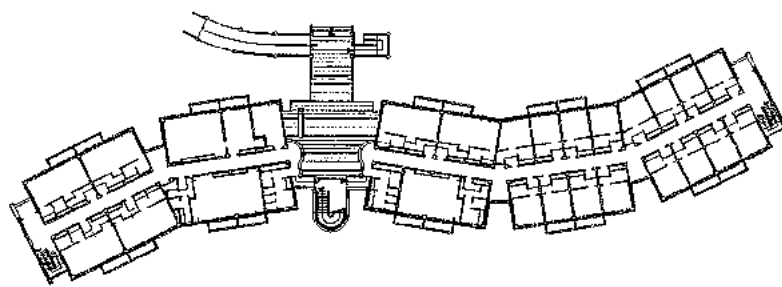
대예배동 1층 평면도



기도원사무동 전교실



기도원사무동 1층 평면도



0 5 10m

기도원동 1층 평면도



전경

이태원다가구주택

Etaewon Residence

조주환 · 황한구/삼우설계

Designed by Cho Chu-Hwan & Hwang Han-G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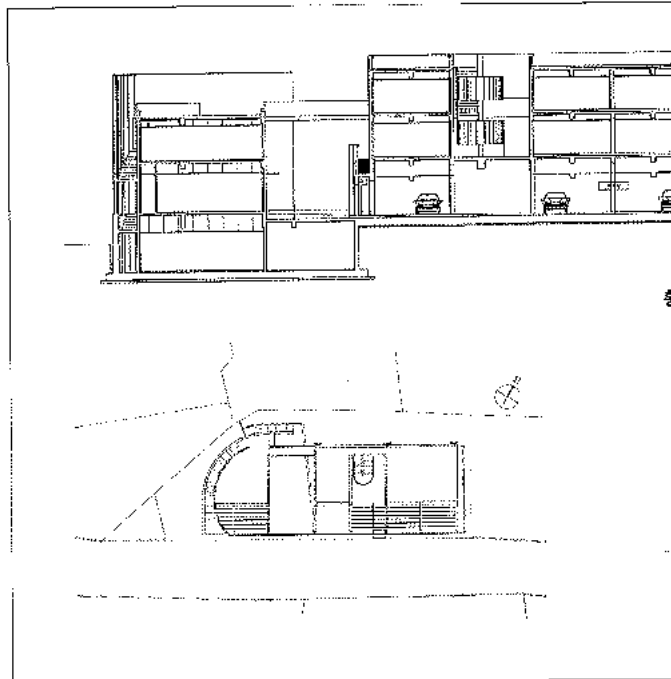
남산 하얏트호텔 근처, 전망이 좋은 산등성이에 위치한 대지는 외국 대사관들이 곳곳에 밀집한 고급주택가이다. 이곳에 그다지 크지 않은 다가구를 위치시킨다는 것이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 어려운 요소이자 핵심이었다. 자칫 어울리지 않을 작은 평수의 다가구주택을 주변의 높은 담장들 사이에 계획하고 까다로운 법규를 해결해나가는 것이 주된 테마가 되었다.

One Room System의 9가구와 넉넉한 주차시설을 수용하기 위해 대지의 단차를 이용하여 동선을 처리했고, 그 형태에 따라 단순화된 격자와 원형을 사용한 군더더기 없는 입면과 평면을 계획하여 비록 작은 평수지만 최대한의 기능을 갖춘 집약된 시설로써 안락함을 주려 노력하였다. 건물 입면부분은 외부에서 바라볼 때의 시각을 고려하여 가로에 신경을 썼고, 거주자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 완충공간인 정원의 공간감을 살리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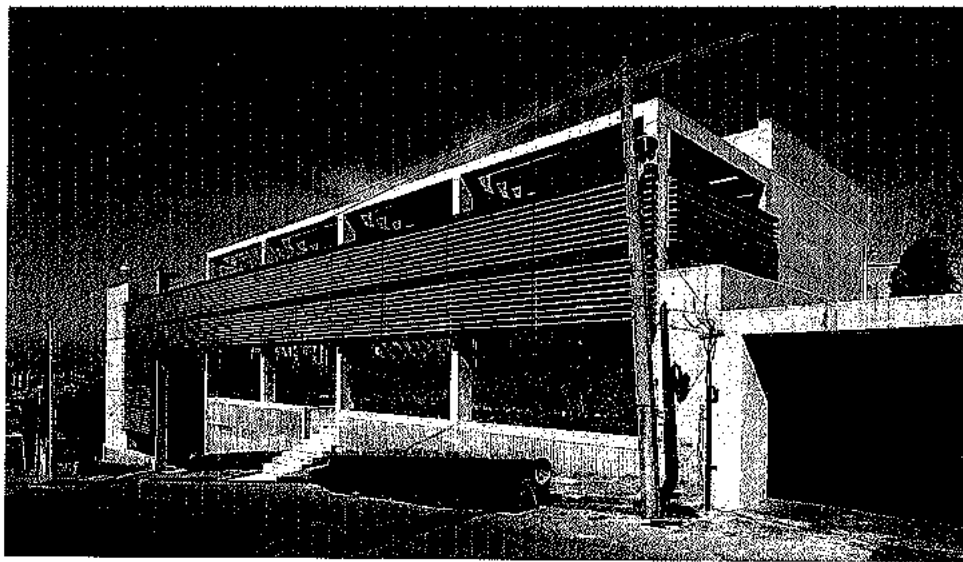
거주형태가 지역적으로는 생소하고 마감재 등의 처리가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그속에서 수용할 수 있는 공간대를 만들어 노력하였다. 건물 사용자보다 오히려 가로환경에 대한 고려를 중요시하는 건축주의 요구로 인해 그간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이 프로젝트의 소중한 부분이다. 건축의 접근에서 가로환경에 대한 욕심을 경제성과 주변의 무시로 인해 한없이 움츠려야 했던 우리 건축현실에서 새로운 입면이나 계획의 시도가 가능했던 좋은 기회였으나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게으름과 환경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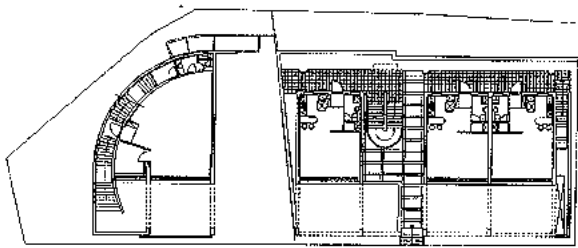
위치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135-20, 21		
대지면적	873㎡		
지역지구	전용주거지역, 풍치지구		
건축면적	224.8㎡	연면적	913.1㎡
건폐율	25.7%	용적률	42.6%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층수	지하1층, 지상2층
외부마감	벽 - 노출콘크리트, 적삼목		
	지붕 - 쉬트방수위 누름 콘크리트		
	스크린 - THK1.2 STL Plate 접기위 소부도장		
설비	바닥패널히팅+개별냉방 방식		
설계담당	김유한, 심세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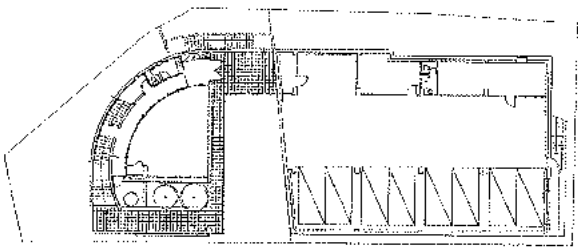
남서측 외벽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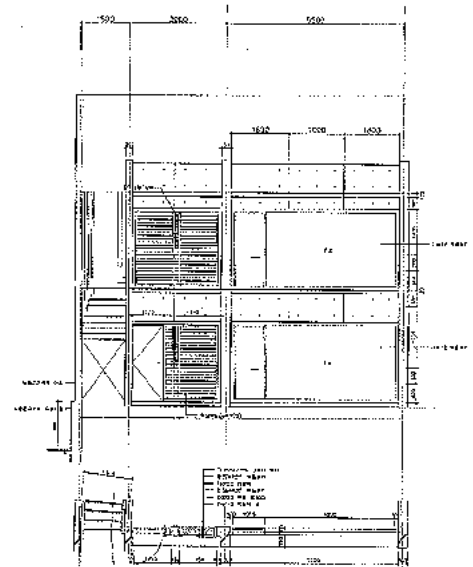
남동측 전경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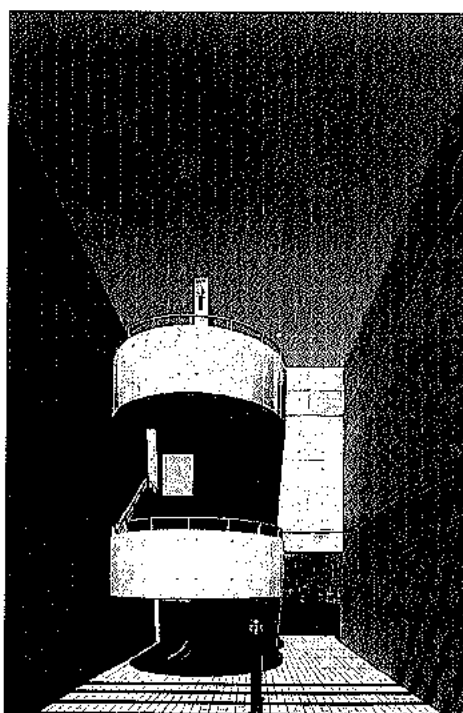
지하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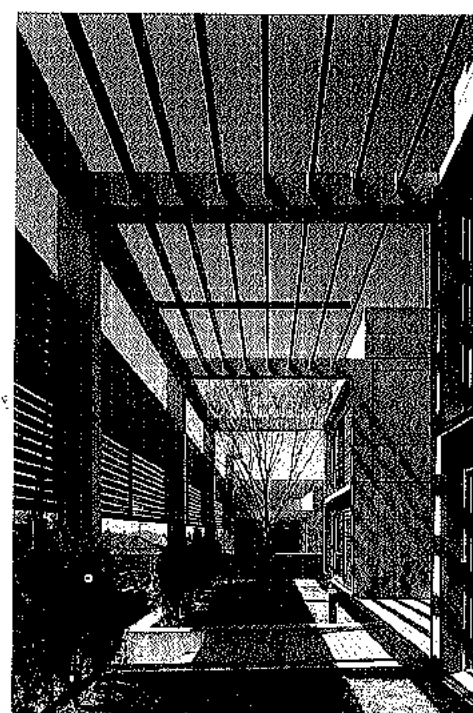
외벽입면, 평면 상세도



전면 주차장입구



외부 계단실



1층 정원

프로시스(주) 본사 및 공장

Prosys Inc. Building

김상길/ (주)에이텍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Sang-Gil

천안의 외국인 전용사업단지 길목에 들어서면 멀리 우뚝선 건물의 캐노피가 보인다. 탁트인 주변이 시원하기만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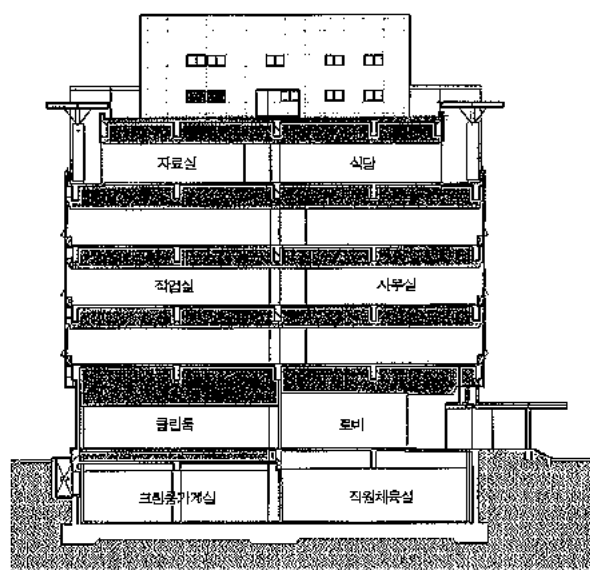
회사의 이미지를 나타내며 사무기능이 들어가야 하는 사옥, 기능이 우선되어야 하는 생산공장, 이 2가지 이중성을 하나의 건물에 접목시키기가 주된 테마였다.

1층은 반입과 반출기능이 출입로비부분과 구성되었고, Clean Room은 Prosys의 가장 주요한 실로 1F에 위치하고 시창을 두어 관리가 가능케 하였다. 기준층은 사무실기능과 생산기능이 반복되고 지나친 화장실의 감시(?)기능 때문에 어두워진 EL Hall에 반향하듯 코너창의 시원한 커튼월로 이루어진 계단실은 시각적 개방감을 마음껏 즐기게 한다. 5층 식당과 숙소에는 발코니를 두어 자칫 지루해지기 쉬운 부분에 변화를 주었고 발코니아에서의 트인 시야는 즐거운 시사시간을 제공해 줄 것이다.

56m 길이를 5개층으로 이루어진 입면은 양끝 코아로 균형을 잡고 중앙의 커튼월을 중심으로 양단을 면처리하여 대청으로 정리하였다. 생산라인의 성격상 요구되는 15m의 Span구조해결이 쉽지 않았고, Clean Room이 들어감으로써 요구되는 설비 System과 구조관계가 관심거리였다.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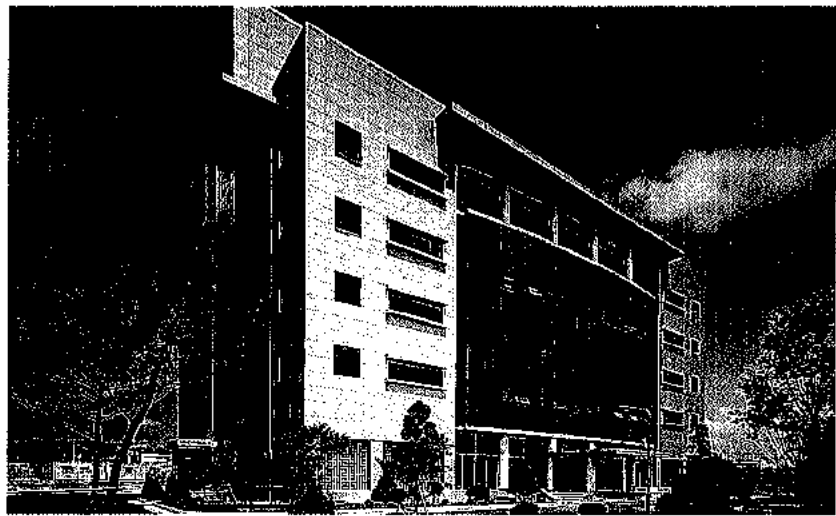
위치	충남 천안시 백석동(외국인 전용산업단지 2-나-101)
지역지구	일반공업지역
대지면적	11,060.0㎡
건축면적	1,879.34㎡
연면적	10,198.57㎡
건폐율	16.99%
용적률	77.46%
규모	지하1층, 지상5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일부철골조
외장재	알미늄 복합패널
설계·감리	김희옥, 박보원, 이광기, 여용구
건축주	PROSYS(주)
시공	삼성중공업
기계설비	(주)태양 엔지니어링
전기설비	태협엔지니어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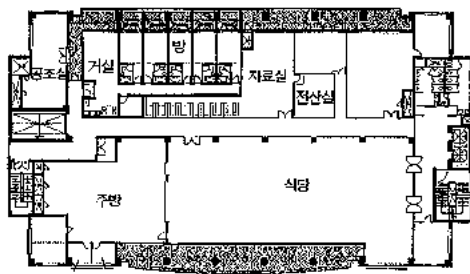
중단면도



복도에서 바라본 회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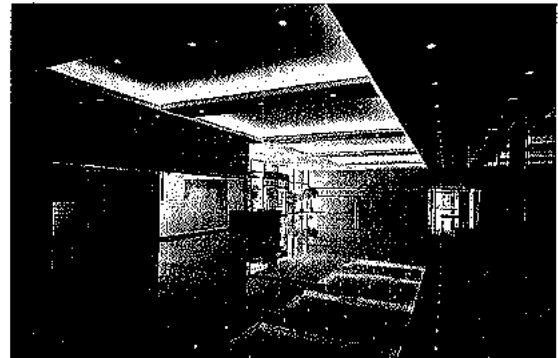
남측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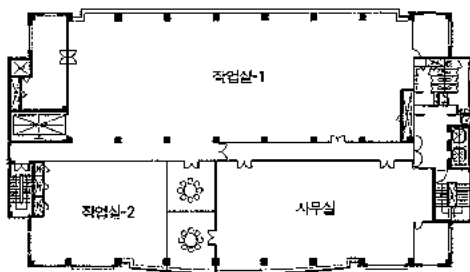
5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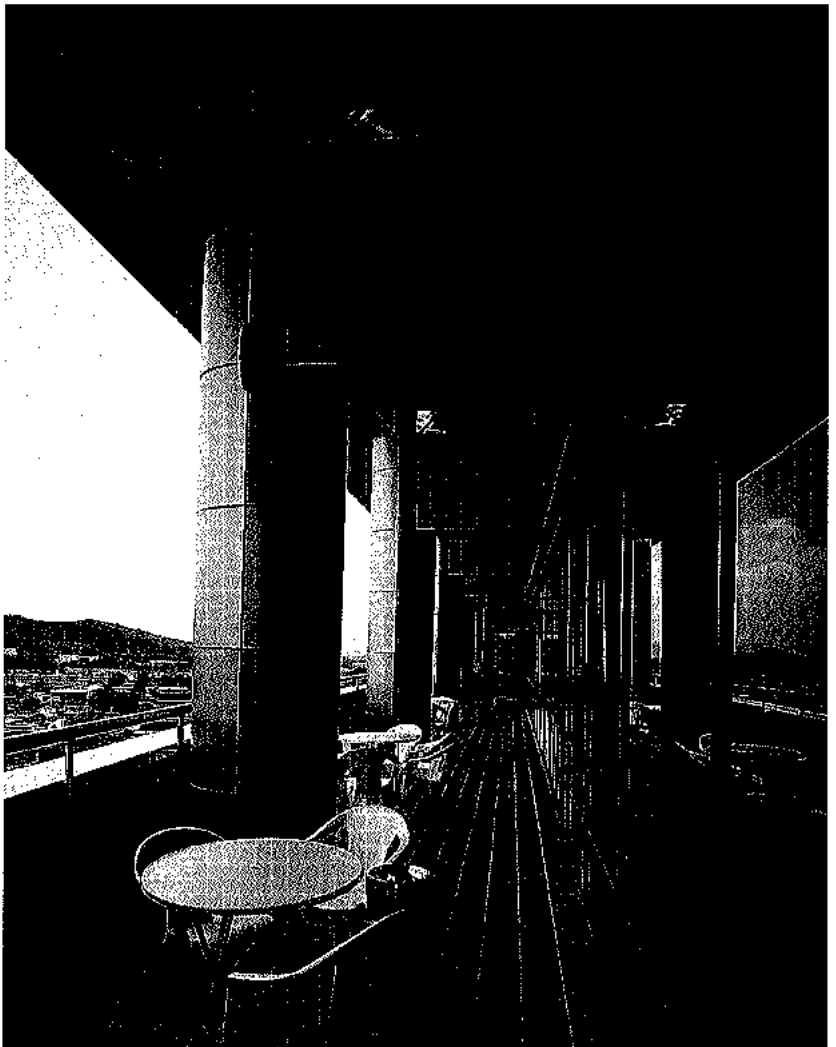
계단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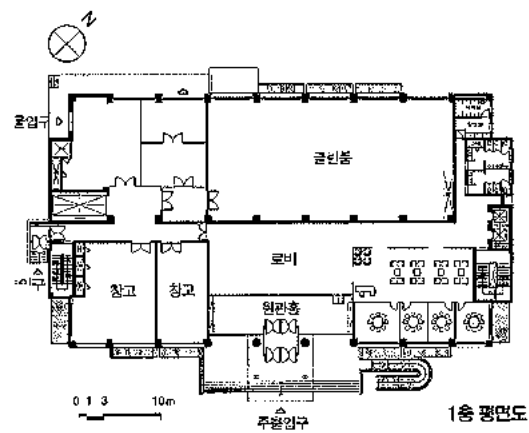
로비



3,4층 평면도



5층 발코니



1층 평면도

부산시립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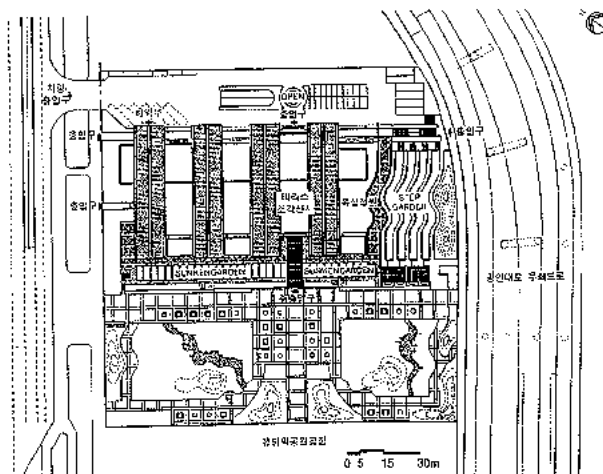
Pusan Metropolitan Art Museum

이용흠/ (주)알신설계 종합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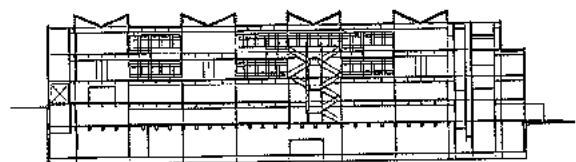
Designed by Lee Yong-Heum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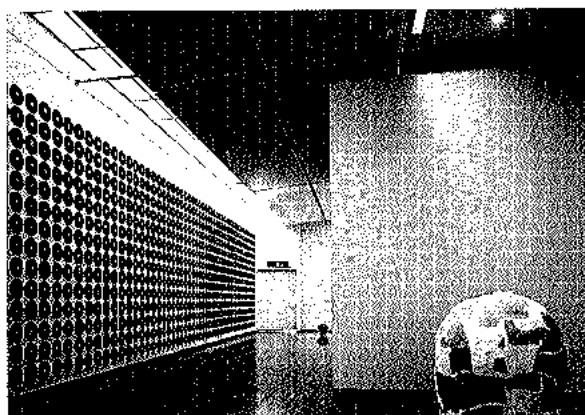
대지위치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413번지 알원(올림픽공원내)
대지면적	21,560㎡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공원지구
용도	전시시설(미술관)
구조	철골조, 일부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주차장)
규모	지하2층, 지상3층
건축면적	4,777.14㎡
연면적	21,425.70㎡
건폐율	4.12%
용적률	9.83%
조경면적	8,652.2㎡
외부미감	외벽 - 2.2mm알루미늄패널, 불소수지코팅, 지하1층 외벽 - 화강석버너미감(포천석) 창호 - 24mm자외선차단 복층유리, 18mm컬러복층유리(그린색) 지붕 - ①91샌드위치패널, 0.5mm동마감(Standing Roof)
주차대수	승용차 - 153대, 버스 - 5대
설계담당	이길주, 이봉두, 이승엽
감리	알신설계감리단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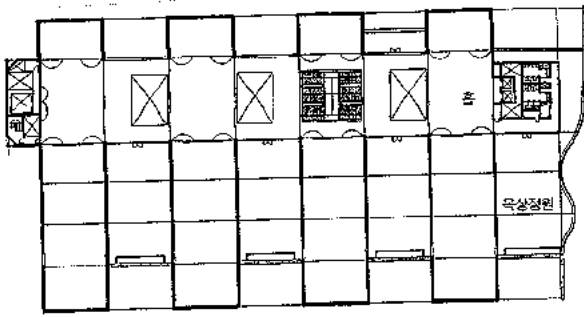
주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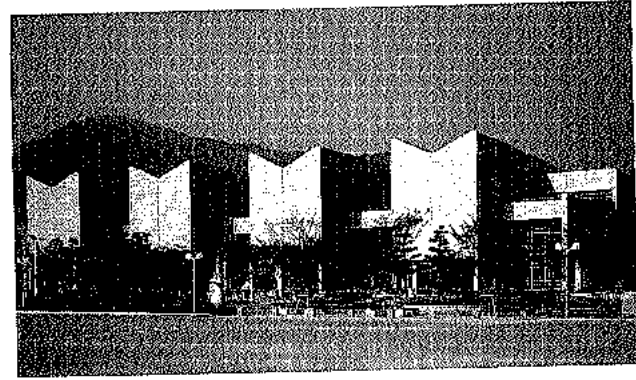
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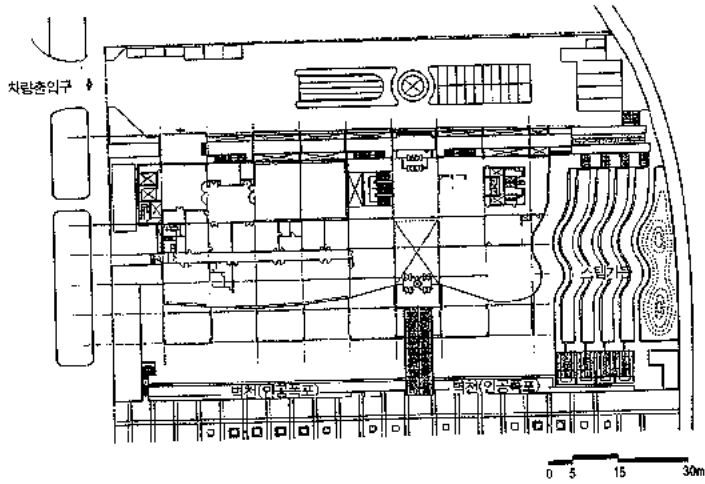
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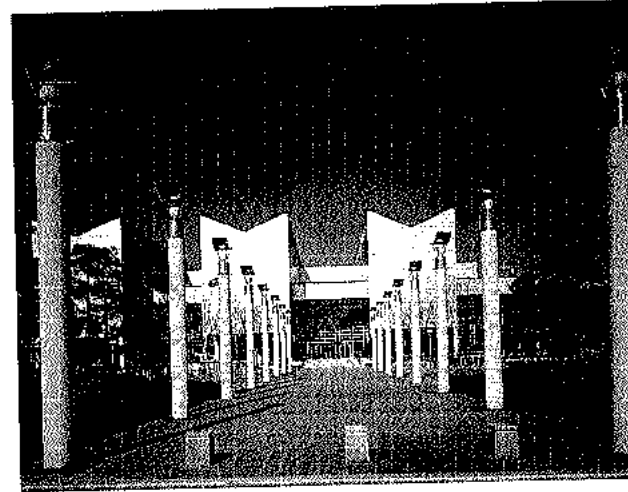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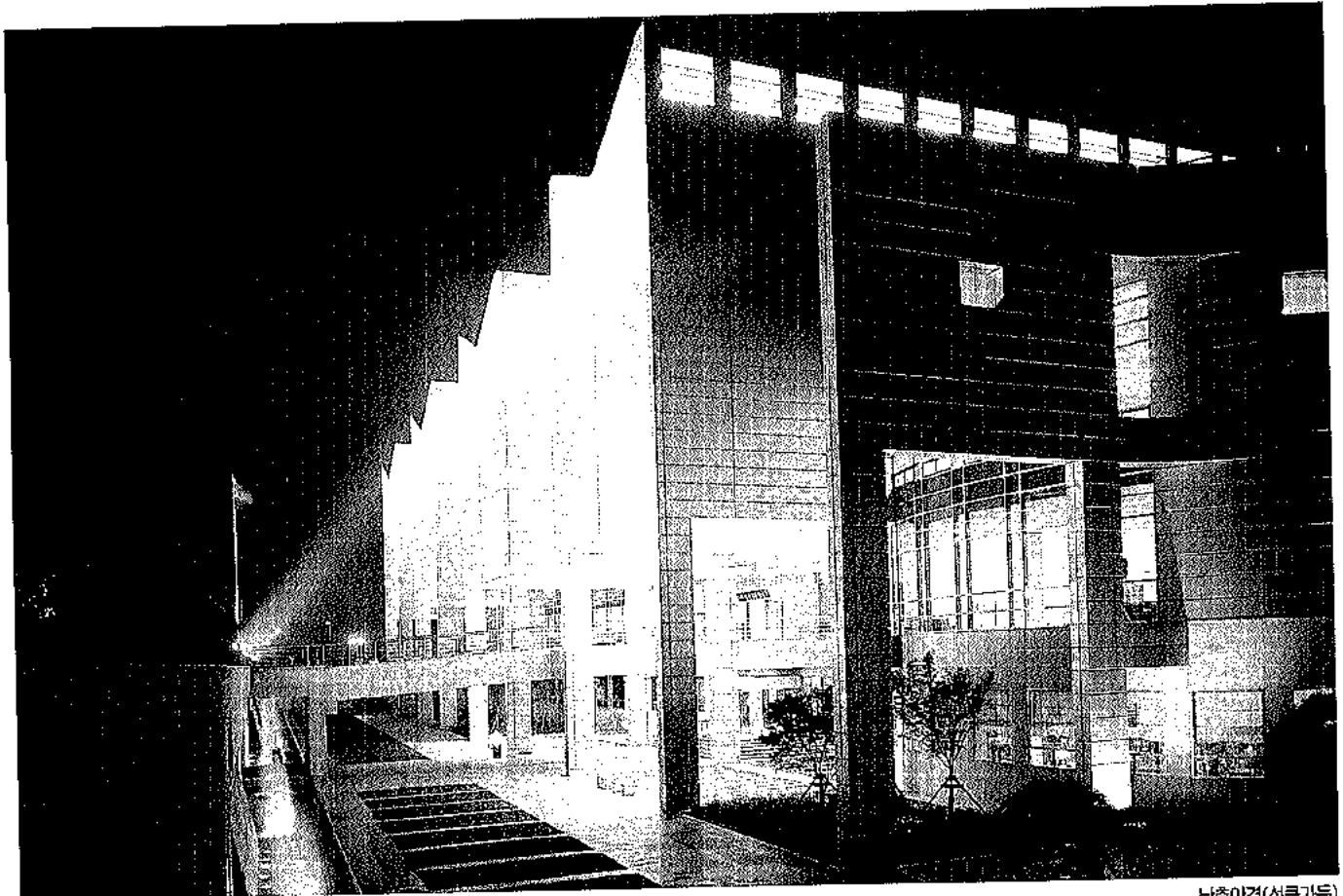
남서쪽 전경



1층 평면도



주진입로 전경



남쪽야경(선문가든)

목산정형외과

Moksan Orthopedic Surge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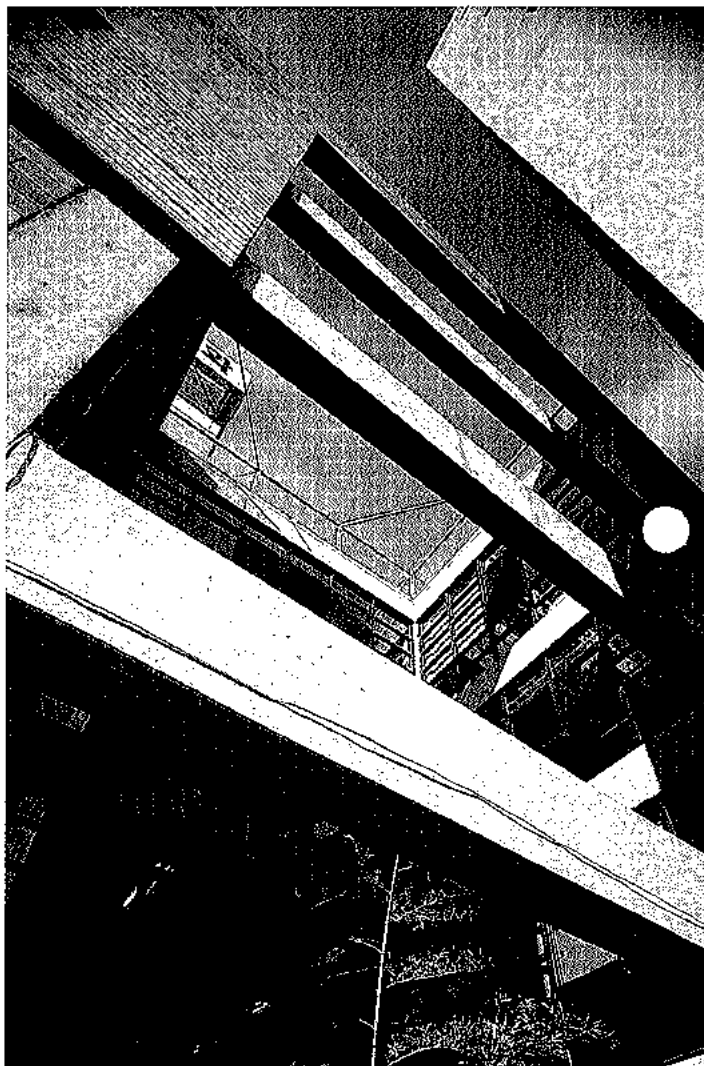
문철수/두양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Moon Chul-Su

구획정리 사업으로 인해 일렬로 똑같이 나열된 대지들 속에서 이 부지가 가지는 특징, 즉 T자로 교차되는 골목길을 가진 위치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였다.

이 부지만 관통하면 바로 큰 도로(30m)로 나갈 수 있는 위치인데 보행인들은 한참을 돌아가야만 큰 도로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부지의 전·후면에 있는 30m와 8m 도로를 이 대지 안에서 이어 보았다. 그리고 그 이름 속에 푸른 녹음이 있는 장소(선크가든)로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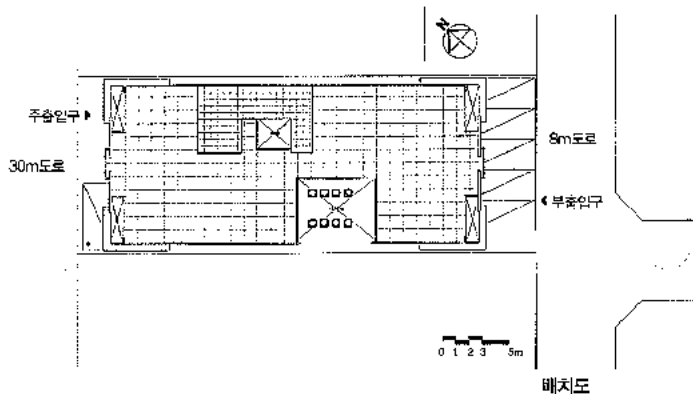
보행인들은 건물의 전·후면에 뚫린 계단을 통해 지하 외부 공간으로 진입하여 반대편 도로로 관통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건물 내부로 진입할 수도 있게 하였다. 이는 어쩌면 더 많은 진입이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8m도로에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해결해 주기도 하였고, 또한 막힌 남쪽 건물을 피해 햇빛이 건물 내부 깊숙이 들어오게 해주는 아트리움과도 같은 역할을 해 주었다. 건물 주 기능인 정형외과는 김스와 목발로 상징되는 그런 병원이다. 그 곳은 뼈(골조)를 다시 잇고, 쇠붙이로 보철해주는 무시무시한 곳이라고 알고 있다. 신안동 새동네 단조로운 거리를 김스와 보철의 의미를 지닌 정형외과 건물로 조금은 익살스러운 모습으로 바꾸고 싶었다. 뼈는 노출 콘크리트로, 보철금속은 스테인레스스틸로, 부러짐의 형태는 분절된 노출 콘크리트벽으로 표현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래서 부러진 뼈들을 여러가지 이음쇠로 이어놓은 그런 전형적인 정형외과의 모습으로 재구성해 보았다. 이러한 분절된 벽들의 구성은 건축물의 형태를 더욱 입체적으로 만들었다. 즉, 하나의 벽으로 만이 아니라 두 개의 커를 가진 벽체는 깊은 공간감을 느끼게 하리라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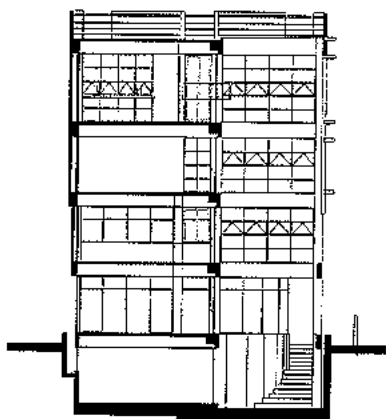
주출입구에서 올려다 본 모습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남 진주시 신안동 447-3		
대지면적	460.70㎡	건축면적	258.54㎡
건폐율	56.12%	연면적	1,181.72㎡
용적률	206.43%	건축규모	지하1층, 지상4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내부마감	천정 - 파라이트 플레이트, 벽 - 졸라톤, 바닥 - 우드라인		
외부마감	노출콘크리트 + 4인치시멘트 불럭치장쌓기		
주차대수	6대	조경면적	5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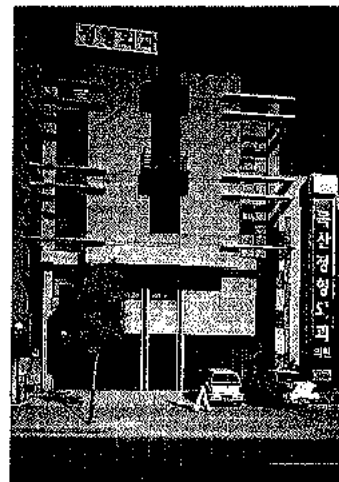
배치도



종단면도



지하 1층 선큰정원 입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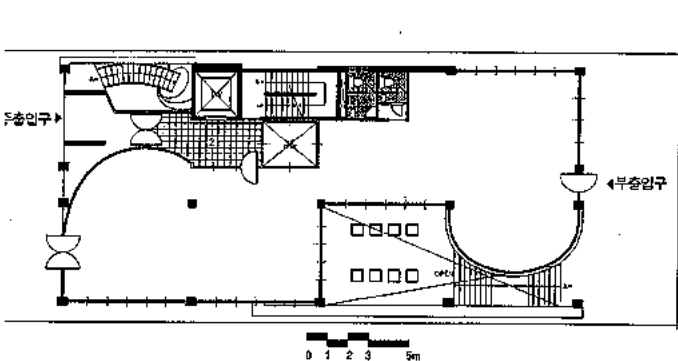
1층 레벨에서 11층 중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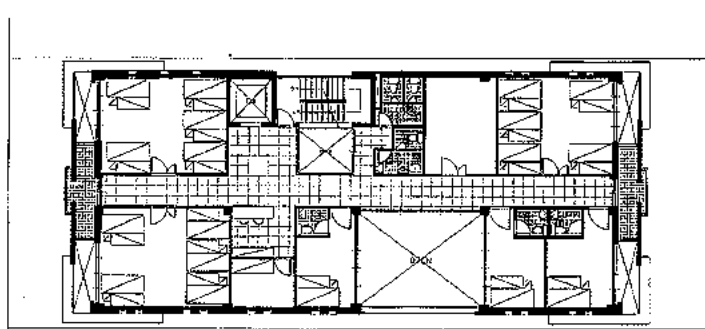
4층 복도



1층 홀 및 주출입구



1층 평면도



3층 평면도

수원 인계동 빌딩

Suwon Ingyedong Office

이종철/ 건축사사무소 (주)원우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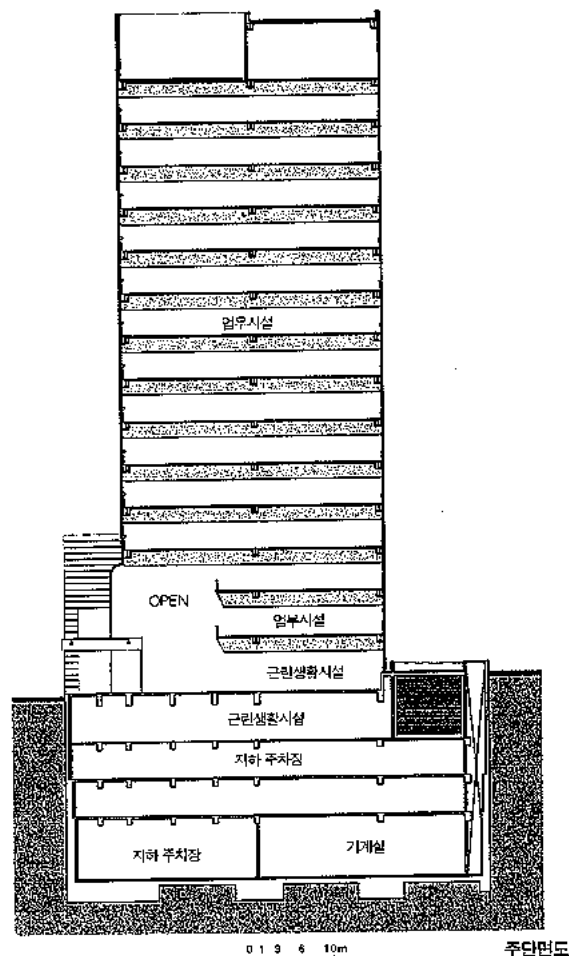
Designed by Lee Jong-Chul

수원시 인계동 삼성생명빌딩은 수원시 신시가지의 주요 부도심지로서의 발전 잠재력이 예상되는 동수원 사거리와 수원 시청 사거리간의 중간선도로인 산업도로변에 위치함으로써 장래의 도시 개발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도로 축을 따라 건물 배치의 축을 설정함으로써 도시 축과 대지형상에 순응하여 전체 건물은 대체적으로 장방형의 모양을 갖추게 되어 전체 건물의 방향성 및 정면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지역 주민인 보행자 이용을 고려한 필로티, 공개공지 및 휴게 공간을 상호간에 유기적으로 배치하여 보행자가 쾌적한 공간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주차량 동선은 배면 도로에서 주보행 동선과 분리 처리하여 중간선도로의 보행자 동선이 단절되지 않고 주휴게공간과 필로티 이용자 및 장애인 동선의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지하 1층 근린생활 시설의 별도 진입 체계로 선큰가든에서의 직접적인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1, 2, 3층의 공용기능을 통합하는 3개층이 개방된 중앙 로비를 계획하여 주출입구를 이용하는 건물 사용자에게 편리성과 도시적 공간감을 느끼게 함과 아울러 건물이 지역 주민에게 좀더 개방적인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코어 부분의 각종 설비를 효율적으로 집약화하여 높은 전용률을 확보함은 물론 주차 사무기능의 발전에 따른 설비의 첨단화에도 적응 가능하도록 모듈화, 단순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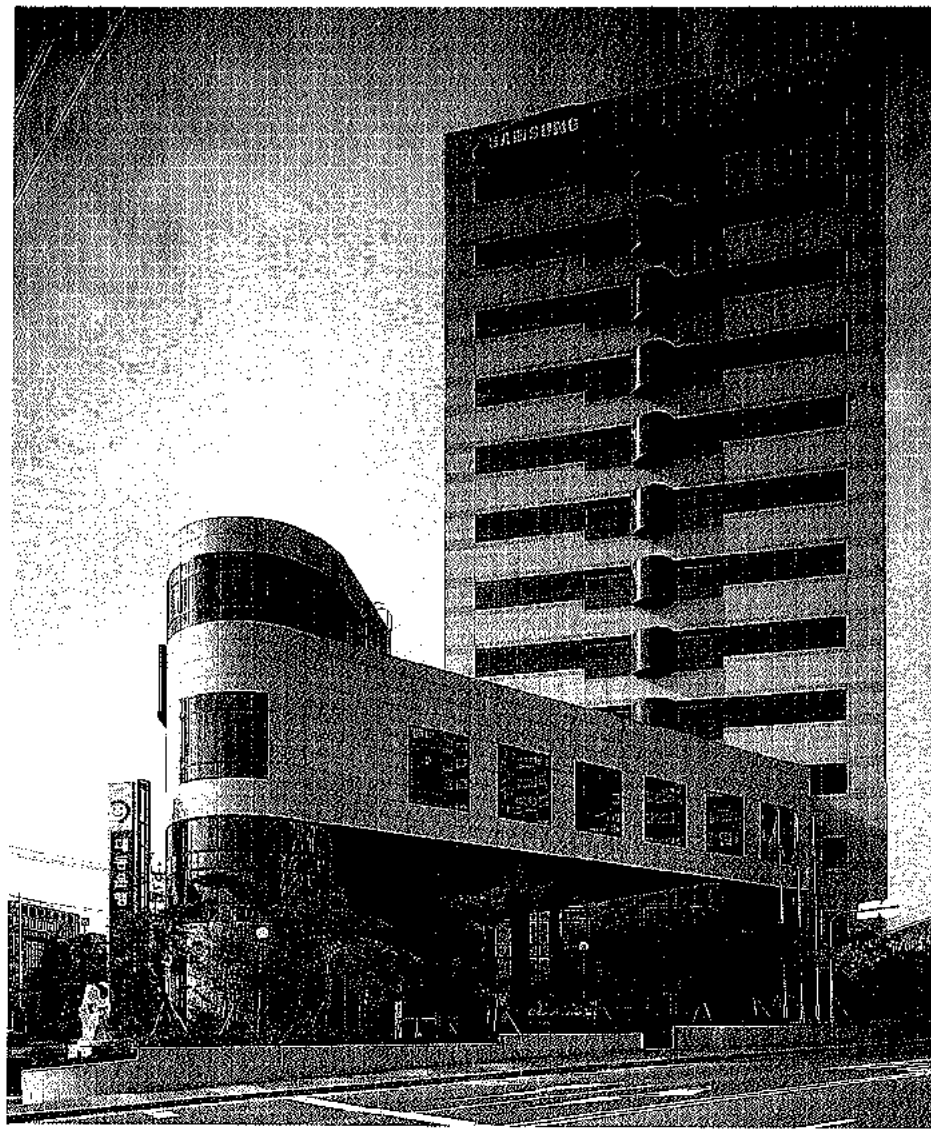
건축개요

위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42-2		
지역지구	일반주거, 일반상업지역, 2종미관지구		
대지면적	3,528.00㎡	건축면적	2,005.74㎡
연면적	27,747.38㎡	건폐율	56.85%
용적률	479.08%		
설계담당	성영주, 장순웅, 김웅식, 김학희		
규모	지하4층, 지상14층	구조	철근 콘크리트조
주요설비방식	중앙 냉·난방 방식(공조)		
외부마감	두께 30 화강석 물갈기, 버너구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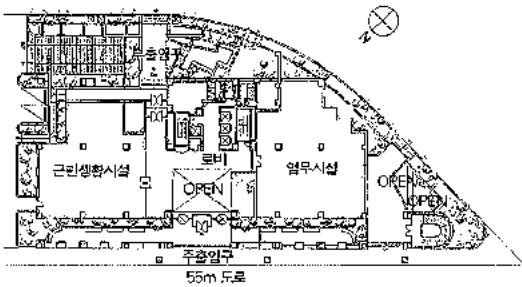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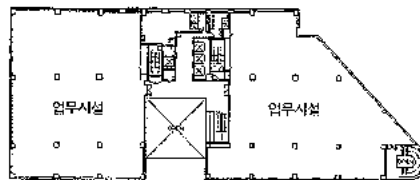
서측 전경



동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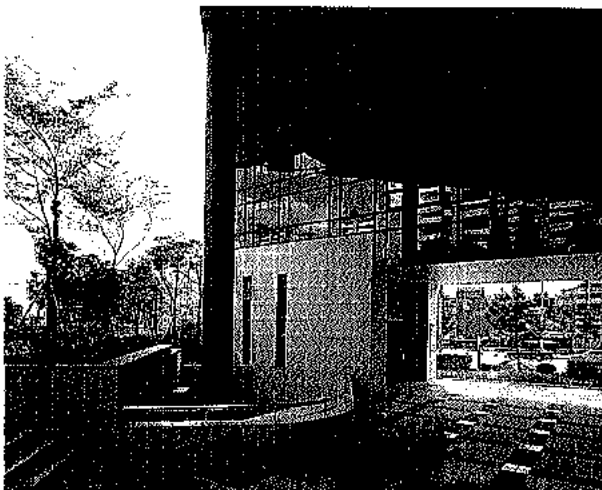
배치도 및 1층 평면도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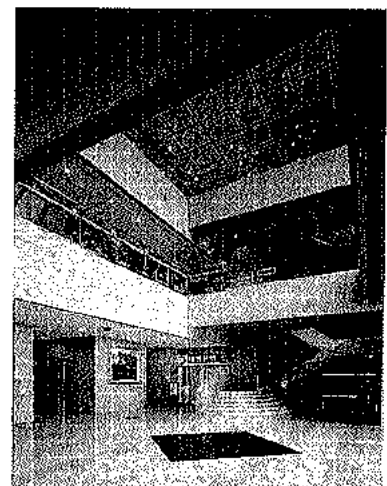
4층 평면도



선문가든



선문가든



로비

한솔사옥

Hansol Corporate Office

이상국 · 박문기 / (주)일송건축+H.O.K+Ove Ar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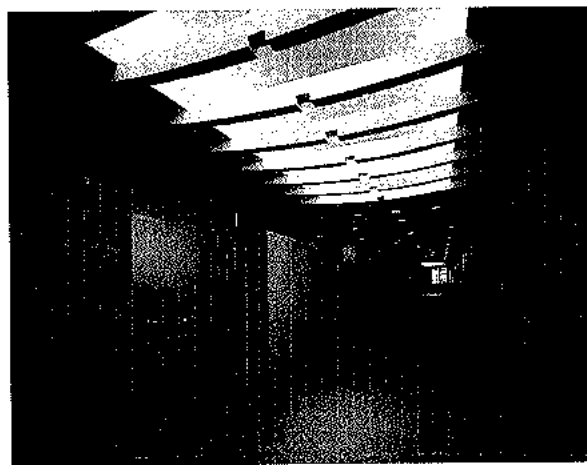
Designed by Lee Sang-Kook, Park Moon-Kie, H.O.K & OveArup

이 프로젝트는 부지여건을 고려하여 동서측에 양단코아 Type으로 계획하였고, 코아의 강성을 이용하여 이를 지점으로 한 Arch의 구조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지하주차장부, 저층부의 로비, 상부기존층으로 대별되는 Office빌딩의 각 부분을 서로 상이한 기동 모듈로 계획하였다. 20개층 이상의 상부기존층 기둥은 높이 12m의 외부 및 내부 Arch 4개에 의해 지지되고, 지하주차장 부분은 상부와 전혀 다른 구조 모듈로 계획하여 최대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면서 굴토 깊이를 최소화하였다. 저층부의 로비 부분은 Arch와 함께 약 40m×25m 너비의 웅장하고 독특한 무주공간을 형성하여 각 부분마다 제한된 면적에서 최대의 공간을 창출할 수 있었다. 저층부 Arch에 의한 지상부와 지하부의 기동모듈 분리는 양 코아의 지하부만 선공사한 후 지하부 주차장과 지상부 구조공사를 동시에 진행될 수 있게 하여 공기단축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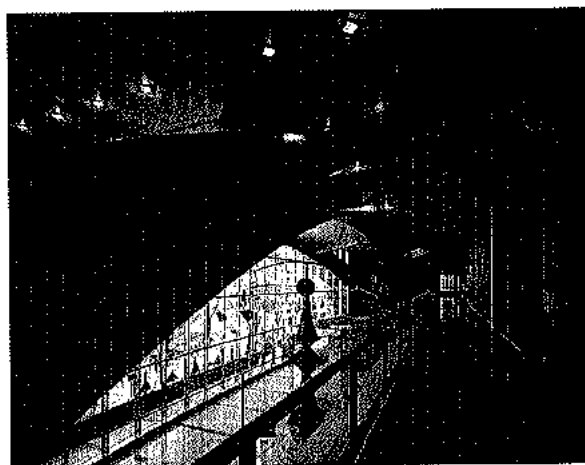
넓은 장방형 부지를 활용하여 전면성을 강조한 배치를 하였고 약 6% 가까운 도로경사를 이용하여 주출입구 보행자 동선과 차량 진출입 동선을 Level 차에 의해 효과적으로 분리하였다. 또한 좌우측에 항상 푸르름을 제공하는 소나무 숲 공개공지를 계획하였고 로비후면 테라스에 Water Fall을 구성하여 정리되지 않은 후면 배경을 가리면서 아늑하고 적극적인 외부공간을 제공하였다. 코아 Type으로 양단코아를 채택하여 인접대지 양측에 빌딩이 있어 View 및 채광이 불리한 곳에 코아를 계획하고 그 사이 환경이 좋은 넓은 부분에 사무공간을 두어 중앙코아 Type에서 평면이 양분되는 단점을 해소하여 지상 기준층에서 전후면 넓은 View가 모두 관통될 수 있게 하였고, 1개층 전체를 Open Space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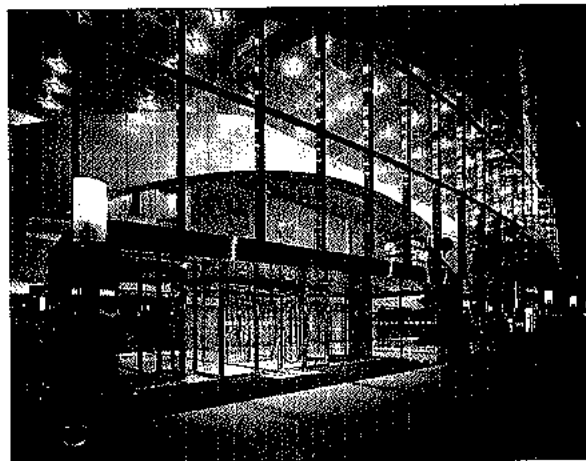
위치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6-1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1종미관지구, 주차장 정비지구, 도시설계지구		
용도	일반 업무시설	대지면적	4,176.6㎡
건축면적	2,193.0㎡	연면적	62,747.7㎡
건폐율	52.6%	용적률	981.1%
규모	지하6층, 지상24층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
외부마감	T24 파스텔 북층유리(W/AL, 커튼월) T30 화강석 물갈기		
설계 P.M	황건순 / 담당 - 최용준, 엄익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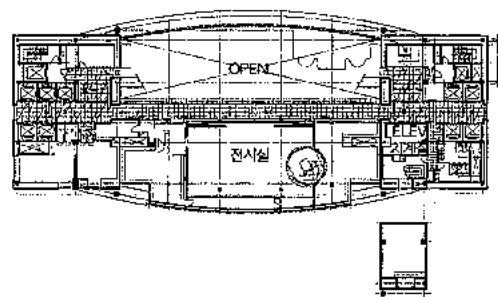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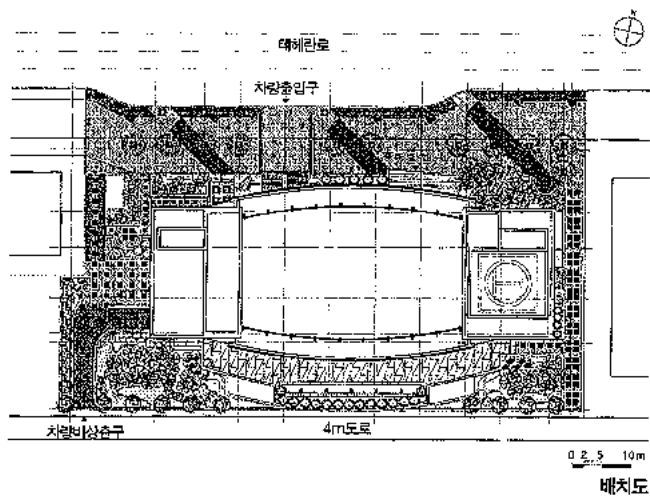
강당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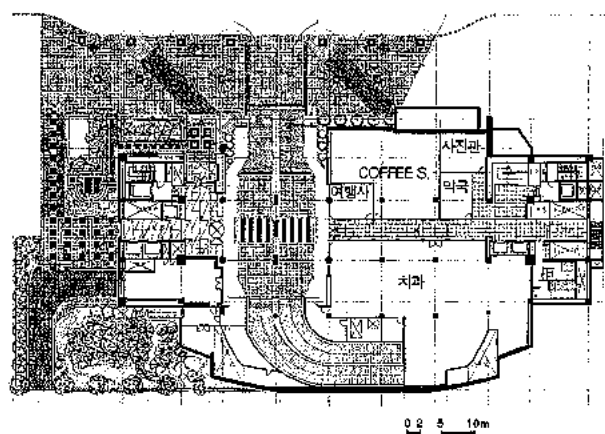
3층 오픈복도에서 본 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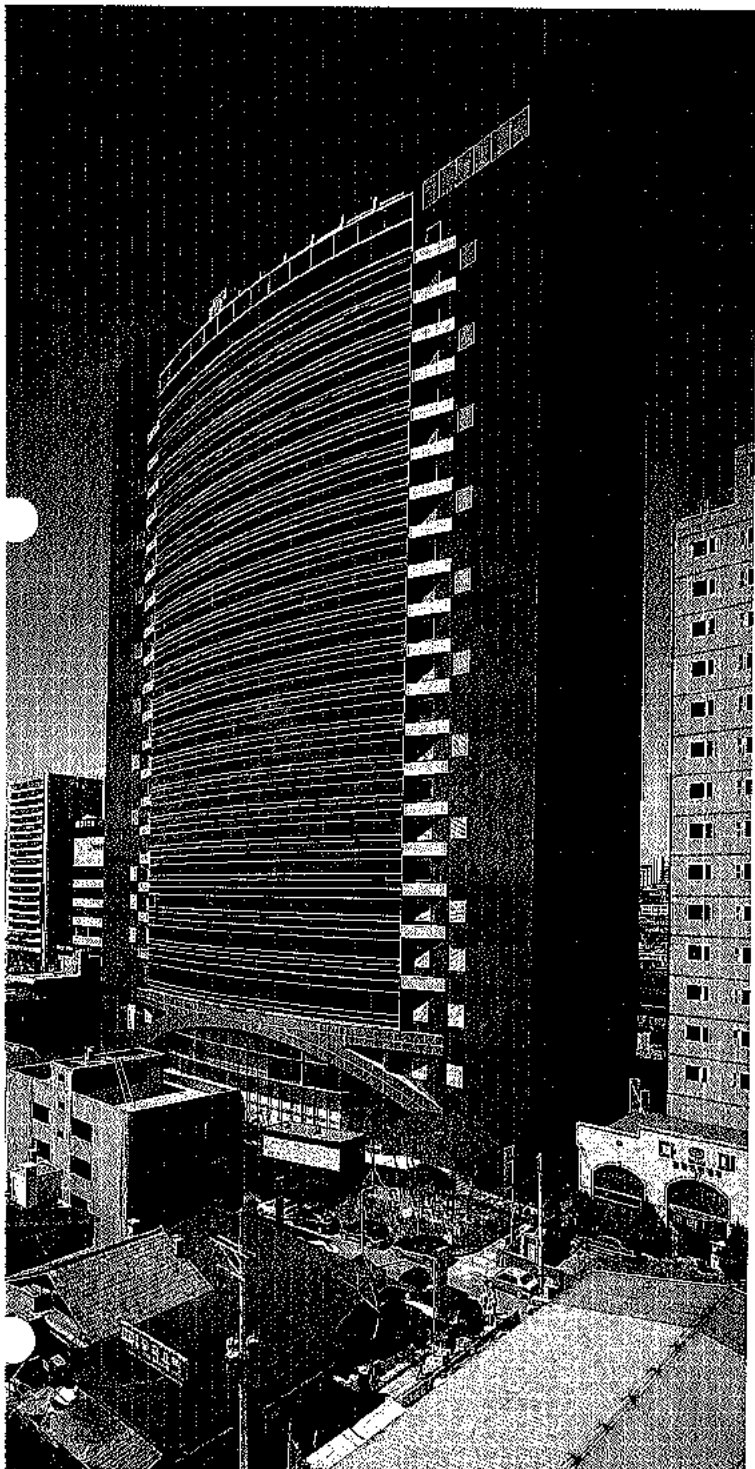
주출입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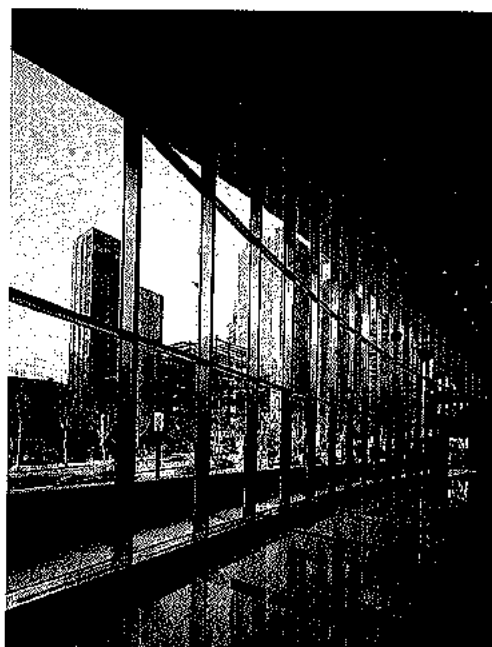
3층 평면도



1층 평면도



남동쪽 전경



로비 전면 SST. 커튼월

한국의 건축가 13 - 홍순인(2)

Korean Architect, Hong Soon-In

사무소 개설과 건축 활동

최완호 / 건축사사무소 예소

by Choi Wan-Ho

◇ 연재 목차 ◇

(계재월)

1. 이회태 (9503~9505)
2. 김정수 (9506~9508)
3. 김수근 (9509~9512)
4. 정인국 (9601~9605)
5. 박길룡 (9607~9608)
6. 박동진 (9609)
7. 강 윤 (9610~9612)
8. 이천승 (9701~9702)
9. 김중업 (9703~9707)
10. 배기형 (9710~9801)
11. 김순하 (9802~9803)
12. 김인호 (9804~9806)
13. 홍순인 (9807~9809)

1. 사무소 개설

가. 제동사무소(1974년 - 1977년)

결혼 후 마음의 안정을 얻은 홍순인은 공간연구소에서 서울대학교 환경예술관, 서울교육대학교 본관, 롯데호텔 등 큰 프로젝트를 맡아 진행할 정도로 의욕적인 작품활동을 한다. 이러한 대학교 일들은 후에 홍순인 건축의 후기를 아름답게 장식해 준 충북대학교 프로젝트를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큰 밑거름이 되었다.

1974년은 홍순인에게 있어서 의미있는 한해였다. 독립해 보고 싶은 생각이 점점 강하게 생기기 시작했으며 주위환경도 그런 방향으로 조성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공간연구소의 표면적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던 홍순인에게는 사무소의 방대한 조직운영과 경영의 어려움이 큰 부담이 되었다. 그리고 그전부터 알고 지내던 여러 건축주들로부터 규모있는 프로젝트의 설계의뢰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의 데뷔작이라 할 수 있는 출판문화회관도 이 시기에 얘기가 있었는데 홍순인은 이러한 일을 하나의 아르바이트가 아닌 자신의 작품으로 진행하고 싶었다. 결국 홍순인은 1974년 10월 17일 김수근씨를 만나서 자신의 독립 의사를 밝히게 되며 김수근씨도 젊고 유능한 후배 건축가가 자신의 길을 떠나는 것을 아쉬워했으나 아끼는 후배의 발전을 위해 그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홍순인은 공간연구소 인근에 위치한 제동주유소 2층에 사무소를 개소하였다. 제동사무소 4층에는 그의 대학과 공간연구소 선배였던 김원석(테크노 사장)이 이미 실내건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평소에도 늘 형처럼 홍순인을 이끌어

1. 탄생배경 및 성장과정과 건축수업
2. 사무소 개설과 건축 활동
3. 작품과 건축철학



대우건축연구소 내부 전경

주고 조언해 주었던 선배였기에 홍순인은 그와 가까이 있으면서 건축활동을 하고 싶었던 것이다.

홍순인은 사무소의 이름을 '대우건축연구소'라 하였는데 이 이름도 김원석의 장남 대원이와 홍순인의 장남 우석의 첫자를 따서 만들었을 정도로 두 사람의 사이는 막역하였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초창기에는 빈 사무실이 없어 4층에서 사무실을 함께 사용했으나 얼마 안돼 아래층이 비게 되자 2층으로 내려와 독립적인 사무소 대우건축연구소를 운영하게 되었다. 이곳에서 홍순인은 그의 첫 작품이라 할 수 있는 출판문화회관을 시작하였는데 이 일은 1972년 설계했던 연희동주택의 건축주인 한림출판사 임인수 사장의 노력과 협조로 이루어진 프로젝트이다. 출판문화회관은 공공건축의 성격을 가진 건물로 처음에는 공모하거나 유명한 건축가에 맡기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당시 출판문화회관 상무로 건축을 담당했던 임사장은 자신의 주택을 성실히 설계해 주었던 홍순인을 추천했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반대했다. 그래서 임사장은 제일 먼저 반대한 임원 한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홍순인을 만나게 해 주었고 이 자리에서 홍순인은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다. 그날 이후로 그 사람도 홍순인을 적극 호응하게 되었고 끝내 그 일은 홍순인이 맡게 되었다.

출판문화회관은 적지 않은 규모로 대지와 주위환경, 그리고 건축주의 폭넓은 배려가 있었던 흔치 않은 좋은 조건의 프로젝트였다. 따라서 홍순인은 신명을 다해 그 일에 임하게 되었으며 스케치에서부터 건축 및 구조도에 이르기까지 많은 도면을 본인이 직접 그렸다. 많은 애착을 갖고 1974년 후반부터 1975년 회관이 준공되기까지 다른 일보다 이 일을 우선시하여 전념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출판문화회관은 1975년 대한건축사협회를 수상하게 되었다. 따라서 출판문화회관은 홍순인에게 있어 여러가지 의미가 있는 작품이었다. 첫째는 그의 설계사무소 시작을 성공으로 이끌어준 것이었고, 둘째는 출판문화회관을 계기로 그를 도와주는 많은 후원자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다. 종로코아빌딩, 온양민속박물관계획, 관철동빌딩 등도 이러한 후원자에 의해서 연결되어진 일이었다. 출판문화회관의 성공후 홍순인은 계속하여 적지 않은 규모의 일들을 하게 되었다. 조달청 중앙보급소

(74년)와 조달청 부산사무소(75년)를 비롯하여 종로코아빌딩(75년)을 연이어 설계하였는데, 코아빌딩은 한림출판사의 임인수 사장이 계속하여 후원자가 되어 준 일이었다.

임사장은 건물을 짓기 전부터 어떤 건물을 어떻게 지어야 할 것인가를 홍순인과 협의하여 진행하였으며, 홍순인은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시켜 대지 주위를 오가는 인구동태와 직업, 연령별로 일주일을 조사한 끝에 전체를 오피스로 짓지 말고 3층까지를 학생들을 위한 백화점으로 하고 그 위를 오피스로 할 것을 제안하여 진행한 결과 예상대로 적중하여 많은 젊은이가 모이는 건물이 되었던 것이다. 이 일은 우리에게 건축주의 건축가에 대한 신뢰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준 예라 할 수 있다.

당시의 직원으로는 실장역할을 했던 성창평(내외종합건축 소장: 후에 홍순인의 손아래 동서가 됨)과 염태주, 윤덕찬(윤건축 소장), 오석창(당시 출판문화회관 감리) 등과 졸업반 학생이었던 안찬영(예반건축 소장), 방승대(간을건축 소장) 등이 함께 일하고 있었다.

홍순인은 사무소 분위기를 처음부터 아프리카적으로 운영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다. 여건이 되는 한 중요한 현상공모에 참여하여 사무소의 신선함을 잃지 않으려 했고, 직원들에게도 건축교육을 하거나 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출판문화회관과 다른 일들로 인해 분주했었고 사무실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못했어도 1975년 중순에는 '한국은행 본점 계획안' 현상공모에 참여함으로써 사무소의 분위기를 고취시키고 직원들에게는 건축자세를 일깨워 주었다. 필자가 1976년 초에 대우건축에 입사했을 때에는 온양민속박물관을 시작하고 있을 때었는데, 큰 기대를 갖고 모형을 만들고 자료를 준비하고는 있었지만 용도 이해의 부족에서 오는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홍순인은 직원들에게 박물관의 기능 및 동선과 수장계획을 이해시켜 주기 위해 인접한 경복궁내의 민속박물관을 관람시키기도 했으며 어느 날은 전직원이 이른 아침부터 하루종일 부여박물관과 공주박물관을 관람했다. 그 일은 필자에게 아직도 즐거운 추억이다.

1976년은 대우건축의 직원교체가 많았던 한해



출판문화회관 투시도



종로코아빌딩 스케치



종로코아빌딩

였다. 기존의 직원들은 다른 사무소로 옮기거나 군복무로 휴직하면서 새로운 직원들이 들어오게 되었다. 권혁조, 홍영표, 홍봉식(예형건축 소장)이 들어오고 그해 11월에 송광섭(한건축 소장)이 입사했다. 홍순인은 설계경험이 많은 송광섭을 실장으로 임명하고 사무소를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이전까지는 홍순인이 소장겸 실장으로 사무소를 운영했다고 본다면 송광섭의 입사를 계기로 사무소 체제가 새로워졌다. 송광섭은 홍순인 소장의 기대에 부응하여 일련의 주택들과 다른 일들을 작품화하는데 많은 노력과 경주를 아끼지 않았다. 사무소의 일들이 다양해지는 가운데서도 홍순인은 각각의 프로젝트에 최선을 다하는 건축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1970년대 중반은 중동건설붐에 따라 국내건설회사가 중동에 많이 진출해 있었고 국내건축가들이 건설회사와 토탈베이스로 해외일을 간혹하고 있을 때였다. 홍순인도 K.O.C.C(한국해외개발공사)에 있었던 유종성씨의 협조속에 몇 개의 해외 작품을 시도하게 되었다.

그의 해외작품은 주메이라 비치모텔 및 레크레이션시설계획안(77년), 두바이 복합주거빌딩(77년), Public Housing(78년), Enany Commercial Building(79년)으로 큰 규모의 작품들이었다. 4개의 계획안 모두가 현지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시설공사비가 엄청나다는 이유로 실현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 일은 사무소에 활기를 넣어주었고 직원들에게는 보람과 의미가 있었던 일들이었다. 당시 이 일에 참여했던 윤병완(예일건축 소장)은 “두바이 프로젝트를 할 때만 하더라도 K.O.C.C 회의실에서 비닐을 깔고 한 달동안 살았습니다. 아마 해외작품이 처음이어서 열심히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라고 그때의 감회를 전하고 있다. 그 당시 근무했던 직원들 모두가 야근이나 철야근무를 불평하지 않고 일의 재미를 갖고 근무했다는 사실은 홍순인이 사무실의 분위기를 계속 아프리카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실장으로 일했던 송광섭도 “제동사무소에서 근무했을 때는 아프리카적 분위기에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소장님도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섬세하고 온유한 분이셨지요. 남에게(특히 건축주에게) 싫은 얘기를 못했기 때문에 설계비 수금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무실운영에 많은 어

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설계비도 받아오고 건축주에게도 강하게 어필하는 등 홍선생님이 못하는 일을 대신 많이 했었죠. 그 분의 일에 대한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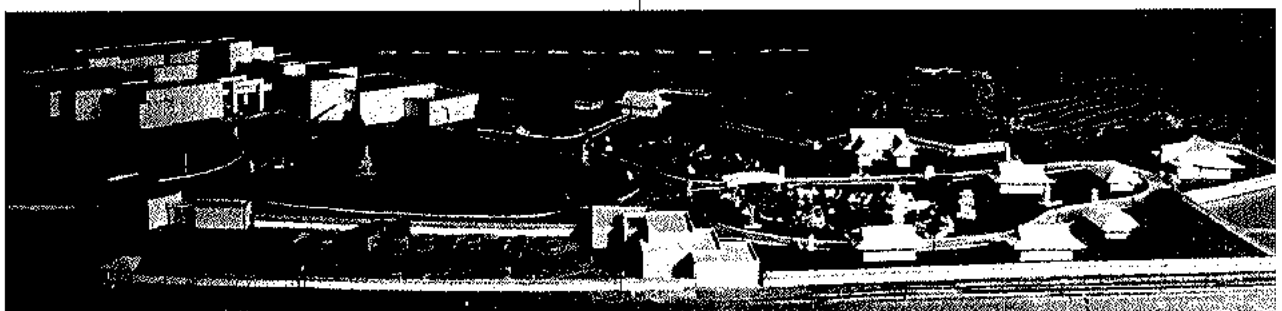
사무소가 해외작품일로 한창 분주하였을 때에 홍익대 건축과 동문인 문신규(토탈디자인 회장)씨는 사공중인 자신의 동승동사옥으로 이전해 올 것을 홍순인에게 제안하였다. 그 당시의 동승동은 마로니에 공원이 조성되어지고 김수근의 샘터사옥과 문예진흥원 전시관 및 공연장이 들어서기 직전이었다. 홍순인은 이러한 문화적 거리에 사무소가 있는 것이 괜찮았는지 1977년 6월에 제동사무소를 정리하고 사무소를 동승동 토탈사옥 2층으로 옮겼다.

나. 동승동사무소(1977년 - 1982년)

동승동은 문화의 거리로 분위기가 있는 지역이다. 지금은 많이 변했지만 그때는 아늑하고 분위기가 있어 설계사무소 위치로는 적당하였다. 또한 건물전체를 설계와 인테리어사무소 및 전시관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디자인하는 사무실로 이미지 효과가 컸다고 생각한다. 홍순인은 이곳에 와서도 주택과 해외작품 일을 계속하게 되었다.

제동사무소에서 진행했던 주택들이 좋은 평가를 받아 새로운 주택 설계의뢰가 있었고 두바이 프로젝트도 계속하여 이어졌기 때문이다. 사실 해외작품들은 사무소 규모에 비해 벅찬 일이었지만 직원들 모두가 홍순인과 함께 일하는 즐거움을 갖고 수많은 야근과 철야로 이루어냈던 일들이었다. 1978년 중반부터 1979년 초를 전후하여 사무소의 인원교체가 많이 이루어졌다. 2년 가까이 작품만들기에 골몰했던 송광섭과 권혁조, 홍영표가 나가고 홍순인의 대학후배인 김영길과 서기(열린건축 소장)가 들어오고 중대에서 가르쳤던 김상범(해림개발 사장)과 김영철(자영업), 이자(전주소재 미건사건축 소장)를 비롯하여 한철화(원화건축 소장), 김기형(경성건축 소장), 이상용(예형건축 이사), 필자들이 들어왔다.

1978년 후반부터는 대학의 프로젝트들이 들어



운양민속박물관 모형사진

오기 시작했다. 춘천교육대학교 본관 개축 및 도서관 신축설계와 홍순인 건축의 후기를 빛나게 해 준 충북대학교 마스터플랜의 일들이었다. 당시 이 대학의 마스터플랜을 여러 곳에서 하고 있었지만 정범모(전 충북대학교 총장)씨는 홍순인을 선택했다. 정범모씨는 “어떻게, 누구에게 소개받았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대학의 마스터플랜과 대학건축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동안 나는 이 분에게 일을 맡겨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우선 그 분의 성취정열에 반했다. 어떤 사업을 맡는다기보다는 걸작을 만드는 것, 만들어 내려는 정열, 그래서 스스로의 능력의 상한을 테스트해 보려는 정열에 감탄했다. 어쩌면 걸작을 바라는 나의 마음과 그 분의 마음이 서로 이어졌는지도 모르지요.” 라고 그 때를 회상하였다.¹⁾

충북대학교 마스터플랜의 결정으로 홍순인은 1979년 초부터 1982년 9월 자신이 타계하기 전까지 충북대 프로젝트에 혼신을 다해 힘을 쏟았으며, 그 결과 1981년과 1982년에 걸쳐 한국건축가협회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이 일은 건축가를 믿고 결정한 충북대학교 정총장을 비롯하여 관련 교수들과 건축관계자들에게도 큰 기쁨과 자긍심이 되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홍순인은 일을 할 때마다 최선의 작품과 최고의 도면이 되기를 노력했다. 그는 많은 나날을 직원이 다 퇴근한 빈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작품의 산고를 겪었으며 최종적인 납품도면을 위해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마다 직원들을 모아놓고 몇 번이고 청사진을 빨간 플러스 펜으로 수정했다. 이것이 그의 건축에 대한 철저함이고, 정신이요, 자세였던 것이다. 홍순인은 충북대학교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도 5개의 주택과 2개의 오피스빌딩을 설계하였다. 주택의 설계는 이전에 설계했던 주택들의 좋은 반응으로 이어진 일들이었고, 오피스빌딩은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건축주들로부터 의뢰받은 일들이었다. 주택프로젝트는 홍순인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작품화하려고 노력했던 일들이었다. 특히 주택현장에는 전담직원을 보내 일반적인 감리를 하게 했지만 본인도 별도로 현장을 자주 나가서 중요한 결정사항 등을 체크하여 주었다. 이시기의 홍순인 주택건축의 변화라면 80년 초까지의 주택은 거의 박스형 평면과 수평선을 강조한 평지붕처리로 일관되었지만, 8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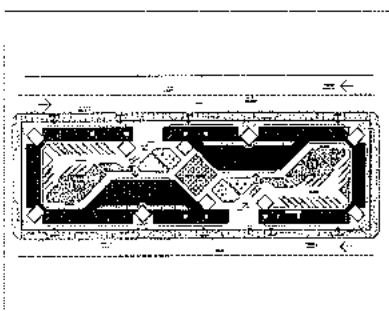
중반부터의 주택은 박스형 평면보다 정원을 감싼 ‘ㄱ’자형 평면형태가 나타나고 입면에서도 평지붕이 아닌 외벽보다 처마를 많이 내밀은 모임지붕으로 변하였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그의 석사논문에서 밝히고자 했던 민가건축에 전해 내려오는 전통의 계승적 요소의 하나를 지붕과 처마로 생각하지 않았나 싶다. 1982년 초의 부산문화회관 현상공모 계획안에서도 그는 전통의 요소를 지붕과 처마로 더욱 발전시켜 나갔다.

오피스빌딩의 경우는 영동사거리에 세워진 논현빌딩(1979년)과 수송동에 세워진 이마빌딩(1981년)이 있다. 두 건물 모두 최고의 수익성을 목적하는 상업용 빌딩이지만, 일의 수행과정에서는 차이가 많았다. 논현빌딩의 경우는 건축주가 건축가를 적극적으로 신뢰해 준 경우라면 이마빌딩은 건축가에 대한 배려보다 건축주의 무리한 요구와 인허가의 어려움이 많았던 일이었다.

홍순인은 일을 진행하면서 모든 직원에게 건축가의 정신과 자세를 가르치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 첫째는 일의 수행을 통한 능력개발과 책임감 부여다. 홍순인은 일을 하면서 직원들에게 건축설계뿐만 아니라 구조, 견적, 설비, 감리 등 건축가가 구비해야 할 여러가지 능력을 경험하게 해 주었다. 설계내용이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달라지게 시공되었는가를 경험하기 위해 시공중이던 충북대의 초기 작품인 공학관, 교육관, 농학관을 방문한 것이나, 동송동 주택현장 등을 자주 나가서 도면과의 차이점을 확인할 기회를 가졌다. 또한 맡은 일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도록 자긍심을 주거나 격려를 하기도 했다. 설계도면을 그리는데 직원 옆에 오거나 도면을 갖고 전체적으로 체크하는 장소에서는 “본인이 그린 도면은 본인이 세상에서 제일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본인이 금지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최고의 도면을 그리도록 하자” 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둘째는 직원에 대한 건축교육이다. 홍순인은 직원들의 전체적인 실력향상을 위해 종종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강의하게 했다. 한 번은 정림건축의 최태웅(이방건축 소장)씨를 초

1) 1998년 발간된 홍순인 작품집 pp11~12.



두바이 복합주거빌딩 계획안 배치도



주메이라비치 호텔 및 레크레이션시설 계획안 모형



동송동사무소앞에서 직원들이 함께
좌로부터 홍봉식, 김기형, 이상봉, 최완호, 서 기,
윤병완

청해 이대 도서관건축에 대해 듣게 했고, 삼신설비의 부소장도 설비에 관해 강의한 적이 있다. 또 본인 스스로도 강사가 되어 건축설계의 방법론을 직원들에게 가르쳐 주거나 전술했듯이 현장학인을 통한 문제점 지적이나 도면을 그린 직원과 함께 하는 도면검토를 통해서도 직원에 대한 교육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홍순인은 건축활동에 대해서는 몸을 아끼지 않고 일을 계속 했다. 그 결과 그는 1982년에 들어서면서 급격히 몸이 나빠지기 시작했고 결국 몸의 이상을 느낀 그는 1982년 3월에 A형 급성간염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의 일에 대한 고집과 철저함은 병원까지 이어졌으니 직원들을 병원으로 자주 불러 일의 진행을 협의하거나 작업지시를 할 때가 많았다. 한편 시공중인 이마빌딩의 어려움은 계속 홍순인을 힘들게 하였다. 병원에 있어서도 “내가 빨리 일어나 학교수업을 해야 하는데...” 라고 학교강의를 걱정했던 홍순인은 끝내 일어나지 못하고 1982년 9월 8일 조용히 우리의 곁을 떠났다.

2. 건축활동

홍순인의 삶은 건축의 삶이었다. 남들과 같이 운동을 한다거나 취미활동을 하는 경우도 별로 없었다. 오직 건축하는 것을 천직으로 여기며 즐거워하며 살았던 사람이다. 필자는 홍순인을 건축에찬론자라 부른다. 건축의 문외한도 그를 만나면 건축이 이해되어지고 그의 얘기를 듣고나면 건축이 좋아지게 된다. 그의 강의를 들었던 제자들이 그랬고, 그를 후원하게 된 많은 건축주들도 그랬으며, 그리고 그의 아내까지도 그랬다. 그에게 건축활동이 아닌 것이 없을 정도이나 순수작품활동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활동을 든다면 크게 건축연구와 건축관련단체활동을 들 수가 있을 것이다.

가. 건축연구

1) 건축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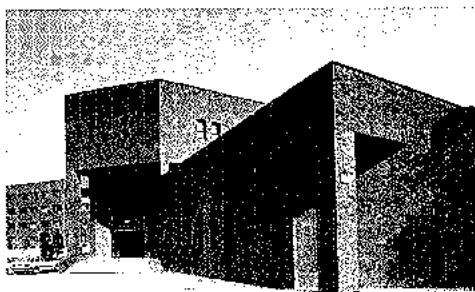
홍순인은 건축교육의 목표를 전체적 건축으로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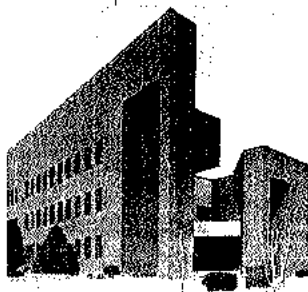
충북대캠퍼스 마스터 플랜

합할 수 있는, 즉 어떤 의미로는 콘택터 같은 능력을 가르치는 것으로 생각했으며, 또한 그는 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홍순인이 짧은 시간을 내서 학교에 나가는 것도 후배를 지도하며 보람을 얻는 것과 스스로의 교육연장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즉 나태되기 쉬운 건축풍토에서 자신을 경계하고 정도의 건축자세를 잃지 않으려는 일련의 노력이라고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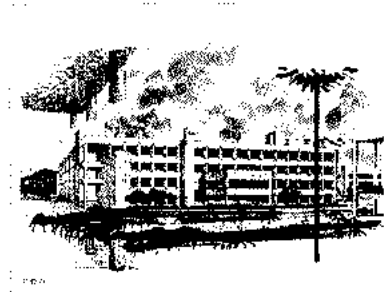
홍순인이 맨 처음 강의를 시작한 곳은 홍대 캠퍼스내에 있던 5년제 홍익공업고등전문학교 건축과(1973년 ~ 1975년)였다. 당시의 교수로는 이회욱(은퇴), 전명현(홍익대 교수), 서상우(국민대 교수), 김희구(홍익대 교수), 추영수(홍익대 교수) 등이 있었으며, 외부 강사로는 홍순인을 비롯하여 김남기, 오기수, 유승룡, 김기철, 이관영 등 많은 홍익대동문들이 출강하고 있었다. 건축설계 과목으로 시작한 그의 첫 강의는 학생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충북대 인문관



충북대 사회과학관



충북대 인문관 스케치

그것은 이전까지의 많은 강의가 이론과 교재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홍순인의 강의는 보다 실제적이고 현실적이었다. 그 때 강의를 받았던 김성호(자산건축 소장)는 “조용한 분이 설계강의를 하면서 왼손으로 칠판에 투시도를 그리는데 무척이나 잘 그렸습니다. 참으로 인상적이었고, 솔직히 기가 죽었습니다.”라고 회상하고 있다. 당시의 국전(현재의 건축대전)에 학교 학생들 상당수가 입상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는데 이는 홍순인의 지도 및 격려가 큰 힘이 되었다. 그는 바쁜 가운데서도 학생들의 국전 준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시간내어 그들을 지도해 주고 격려해 주었다. 설계시간에도 홍순인은 과제를 해온 학생들을 일대일로 에스키스를 해 주었으며, 이런 기회를 통해 건축의 본질이나 설계의 합리적인 접근방법 등을 가르쳐 주고 하였다. 그는 학생들의 부족한 면보다는 가능성을 발견하고 격려해 주었으며 이에 고무된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설계시간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때의 학생들은 홍순인을 자신들에게 건축의 혼을 심어주고 건축의 시야를 넓혀 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그들 중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건축설계와 실내건축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음은 홍순인의 영향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홍순인의 두번째의 건축교육은 중앙대학교 건축미술학과(1976년~1981년)에서 이루어졌다. 홍대의 은사였던 강명구 교수가 1973년부터 중앙대로 옮겨 가르치고 있었으며 강명구 교수는 홍순인에게 많은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 1976년부터 3~4학년을 가르쳤으며 교수과목은 설계뿐 아니라 현대건축론, 건축의장론, 공간론, 양식론, 계획각론 등으로 이전의 학교보다 과목이 다양해지고 많아졌다.

설계시간에는 건축의 철학적인 깊이보다 설계방법론을 많이 강의하였는데 주로 설계테마를 주고 풀어나가는 방법을 강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홍순인은 학생들에게 “설계라는 것이 스케치에 너무 치우치면 현실성이 없고 그림에 그치기 쉽다. 예를 들어 법규에는 작업을 해야 한다. 요즘의 설계가 옛날의 방법에 비해 상당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므로 프로세스 과정에서도 스케치에 의한 막연한 것보다는 합리적인 접근방법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그가 자신의 사무소직원들에게 교육한 건축설계과정의 방법론이란 녹음테이프의 내용과도 같은 것이다. 즉 그는 예비건축가들에게도 막연한 설계방법이 아니라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설계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 때 강의를 받았던 오원근은 “저는 홍선생님에게서 건축의 철학적인 깊이 보다는 설계방법론이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강의받기 전에 선배님들이 강의를 받으며 무릎을 친다”라고 했는데 정말 열의있는 강의로 설계방법을 분명하게 풀어 주시더군요. 보통 설계강의는 과제를 내주고 소극적으로 수정, 발전시키기 마련인데 홍선생님께서서는 그것을 180°완전히 바꾸어 버리셨어요, 생각 못했던 것을 꼬집어내는 거죠.”라고 말했다. 홍순인의 강의는 특색이 있다. 말이 빠르고 칠판에 써 내려가는 글씨의 속도도 빠르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건축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실무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며 또한 제한된 시간에 더 많은 지식을 후진들에게 가르쳐 주려는 생각에서이다. 또한 그의 강의는 힘이 있고 핵심이 있었다. 들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강의가 아니라 들으면 수긍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재미있다는 것이 특색이다.

사실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설계나 양식론 및 현대건축론 등의 과목은 지루하게 느껴지는 과목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앞서 두 학교의 학생들은 설계시간이 재미있고 기다려지는 시간이라 말했다. 홍순인은 즐겁게 가르치는 방법을 알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것을 즐거워했으며 이 즐거움을 위해 성실히 강의준비를 하였다. 홍순인은 병원에 입원해서도 “내가 빨리 일어나서 학교수업을 계속해야 할텐데”라고 말했다는 정도로 건축교육에 대한 희망과 책임감을 갖고 있었다. 사무소 직원들에게도 몸이 늦게 되면 사무소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자신은 학교에서 후진양성에 힘쓰고 싶다고 말했으나 아쉽게도 그의 이러한 소망은 실현되지 못했다.

2) 대학원진학과 해외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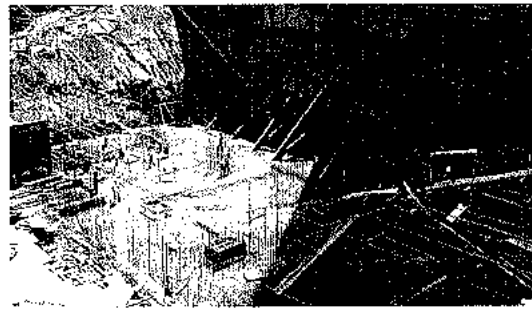
대학을 졸업하고 10년의 실무를 겪고나면 많은 사람은 정체되어지거나 매너리즘화되는 경우가 많다. 홍순인은 이러한 나태를 경계했고 늘 새로움속에서 정진하기를 소망했다. 그



역삼동 임 씨 주택



이미빌딩



이미빌딩 기초 콘크리트 타설 작업 풍경

래서 대학졸업한 지 10년만인 1975년에 홍익대학원 건축과에 입학하였다. 그의 석사논문의 제목은 『전통마을의 형성과 민가형식에 관한 연구』이다. 그는 전통사상이 강한 안동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전통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평소에도 전통의 의미와 해석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으며 그의 작품에도 간혹 전통적 건축어휘를 실험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1982년 초에 부산문화회관 현상공모에서 지붕의 처마처리와 완충공간의 적용은 그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그의 논문의 주요 목적은 첫째, 농촌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변천해 가면서 민가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계승되고, 어떤 부분이 소멸 또는 변화하는가를 발견하는 것이고 둘째는, 민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양식주거형식이 아닌 우리의 의식구조에 밀착된 전통적인 주거형식의 근거를 얻고자 하였다. 또한 그는 결론으로 도시주변과 국도주변과 같이 주택건축 활동이 산업화될 수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통민가마을에서 양식주거형식이 보편화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전통적 농촌지방이 건축 기술적인 문제 외에도 민가건축에는 전통적 건축사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홍순인은 3번의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이러한 여행은 다른 건축가들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그에게도 건축의 산경험을 통해 감동을 받고 도전감을 느끼기 위함이었다. 그는 해외여행을 다녀오면 늘 슬라이드를 만들어 직원들에게 보여 주곤 하였다. 대우건축연구소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한결같이 사무소 근무를 보람있게 생각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홍순인의 재교육이 본인에게 끝나지 않고 사무소 직원들과 가르치고 있던 학생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 건축관련 단체활동

1) 대한건축사협회

홍순인은 그의 데뷔작인 출판문화회관으로 1975년에 대한건축사협회상을 수상한다. 이후로 그는 자신의 작품을 「건축사」지에 종종 발표하였으며, 1979년(동송동 박서택),

1981년(역삼동 임씨택)에도 협회상을 수상하였다. 특히 1980년 1월부터 1981년까지 2년동안은 「건축사」지 편집위원으로 활동하였다.

2) 한국건축가협회

1974년에 가입한후 자신의 작품을 간혹 「건축가」지에 발표하였고, 1979년 12월에는 건축가협회 주관으로 이루어진 대담에서 "1970년의 건축사회"를 주제로 건축교육과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타내었으며, 1981년과 1982년에는 연이어 충북대학교 교육관, 사회관, 농학관으로 건축가협회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3) 건축문화

1981년부터 1982년 9월 홍순인이 타계하기 전까지 「공간」지를 빼면 당시로는 유일한 건축월간지인 「건축문화」의 상임편집자문역을 맡아 건축가들의 작품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

4) 금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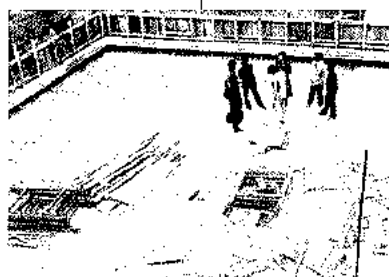
매월 한번 금요일에 만나는 홍익대 건축과 동문들의 모임으로 홍순인의 생존당시에는 금우회가 특별한 활동없이 친목위주로만 모였으나 홍순인은 꾸밈지(1977년 11월~12월)와의 대담에서 금우회나 서울대의 목구회가 건축을 모르는 일반인에게 건축을 홍보하고 이해시키는 단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역할론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5) KOSID - 한국인테리어협회(현 한국실내건축가협회)

창립회원으로 참여했던 KOSID 활동은 그가 생존 시에는 초기였기 때문에 큰 활동은 없었다. 그러나 실내건축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던 그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으나 건축가로 대상하라는 홍대동문들의 만류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유럽여행중의 모습(파르테논 신전 앞)



시공중인 충북대 공학관, 교육관 현장 건축



중앙대 건축미술학과 졸업반 수학여행에서의 홍순인 선생의 모습(오른쪽 맨 앞 세번째)

지역건축탐방 7 - 수원

Visiting Regional Architecture / Suwon

오늘날의 수원은 도청소재지로서, 서울의 인접도시로서, 수도권의 주요도시로서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존재하고 있다.

이 땅의 어느 곳이나 먼 옛날부터 여러 가지 사연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왔겠지만, 수원은 200년전 어떠한 사연으로 여기에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었고, 도시의 구조는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오늘까지 어떻게 지내왔는가 하는 것이 다른 도시보다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드문 도시로서 그 탄생과 성장의 역사를 후손들이 들추어 볼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 왔다. 더구나 1997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으로 수원화성이 등록되면서 다시 성곽이라는 물리적 요소와 200년이라는 세월 속에 이루어진 공간과 역사는 이 도시의 존재가치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진지하게 모색하도록 하였다.

조선조말에 접어들면서 이 땅에서 우리 나름대로 근대의 색이 돌아 나오던 시절, 새로운 바람이 지식인들과 통치자들 사이에 일어, 수원에 계획도시를 건설하였다. 새로운 사회와 체제를 시도하고 이에 대한 도전을 찬찬히 진행하면서 이 도시의 형상을 갖추어 갔다. 중앙으로부터 시작된 개혁과 변화는 큰 힘을 얻지 못하였고 정조 이후의 수원은 서울과 지방을 잇는 통과도시로서만 역할을 하였다. 근대화하는 과정에서 농업기술개발의 중심지로서, 산업화 과정에서는 섬유·전자산업의 본산으로서 도시의 세를 넓혀 나갔다.

최근 들어 우리들의 삶이 문화에 눈을 돌릴 정도로 성숙해져서 이 고장의 정체성에 대해 논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일상생활과 상관없던 시민들이 생각하고, 새로 맞는 또 한 세기에는 화성과 맞먹는 이 시대의 수원다움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과제일 것이다.

솔한 과제가 건축사들에게 주어져 있지만 언제나 힘겨운 것이었고 시원한 답을 만들지 못하였다. 그 만큼 우리는 눈을 늦게 뒀고, 그러는 사이에 도시는 풀어내기 어려운 상태로 변화되어 갔다.

『건축사』의 기획 시리즈 수원편을 통하여 지나온 과거를 정리하고 현재의 모습을 살펴보고,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윤인석(성균관대 교수) / 편집디렉터〉

성곽도시 화성에서 수원 현대도시로의 발전 / 임태웅(경일건축사사무소) 58

역사도시의 방향: 화성 / 한동수(목원대학교 강사) 62

오늘의 수원모습 / 윤인석(성균관대학교 교수+건축공학과 토요답사단) 66

좌담: 수원 - 도시와 건축의 미래에 대하여 73

- 일시: 1998년 7월 20일 17:00~

- 장소: 성균관대 건축공학과 세미나실 II

성곽도시 화성에서 수원 현대도시로의 발전

- 도시구조 변천을 중심으로 -

From the Ancient to Today:

The Rise and Development of Suwon

임태웅 / 경일건축 대표, 수원과학대학 건축과 겸임교수
by Aum Tai-Woong

- UNESCO가 시행한 세계문화재 지정으로 그
품격과 가치가 고양된 수원성은 연장 5,520m로, 북원전에는
남문은 남아있고 북문은 부서지고 서문은 서서있고 동문은 도망
갔다고 비유되다가 2차에 걸친 (75~78년: 5,157.6m,
96~98년: 58.6m 북원, 362.4m 미북원) 북원으로 완벽하게
보존된 성곽도시로 더 큰 각광을 받고 있다 -

수원이 도시로서 기능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한
성곽도시로부터 다핵(多核)이 요구되는 현대도시로 발달하여
도시구조변천을 하는 과정과 배경을 짚어 체계적인 정주환경의
도시로서 미래를 살펴본다.

동향이나 서양이나 산업혁명이전의 주요도시
들은 성곽을 가진 폐쇄도시(Walled Cities)로 만들어졌고 당시
에 계획적으로 조직화되었던 도시구성의 제반요소들은 현재에
와서 도시의 기능지역의 형성과 분화 공간구조와 형태변화에
있어서 지리적 역사적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다.

성곽도시로서 현재까지 남아있는 형태를 대상
으로 도시변천 과정을 基幹으로 시대별 내부구조를 이해하고
도시기능의 공간구성과 역사적 배경을 비교검토하여 수도권의
남부중심도시로서의 손색없는 수원도시를 이야기 하고자 한다.

1. 구수원과 수원성곽의 축성에서부터 1944년까지

가. 수원의 일반개황 및 구수원

위치-수원은 경기도 중앙에 위치한 수부도시
로 서울에서 38km, 인천에서 60km 거리에 있으며 남으로는
오산시와 평택시를 거쳐 1번 국도에 고속도로 부산에 다다르고
서로는 옛 남양호부가 있었던 남양만에 닿고 서남간으로는
발안 조암으로 뻗어나간다. 동으로 용인시와 이천시를 거쳐 원
주 강릉으로 연결되고 북으로는 서울을 지나 의정부 양주 포천
가평으로 육연되어 내륙교통의 중심부 요충지인 수원을 거치지
않는 육로가 없다.

연혁-수원은 고구려때 賁忽郡으로 지칭되
면서 신라 경덕왕(742-764년)때는 氷原郡이라 불리고 고려
태조(918-943년)때는 氷州, 조선조 태조 13년(1413년)엔
'氷原都護府'(구수원-태안면 송산리), 정조13년(1789년)엔
'氷原府'(現수원-성곽축성), 일제치하에서는(1931년) '氷原
郡'으로 불리우다 정부수립 다음해인 1949년부터 '氷原市'가
되었다. 또 1967년 경기도청 이전으로 도청소재지가 되었다.

舊水原-수원지방은 한강유역을 둘러싸고 백
제의 복진과 고구려의 남진의 거점으로 입지성이 높게 평가되
고 통일신라와 고려를 거쳐서 조선조에 이르게 된다. 제22대
정조때까지의 水原邑治(도호부 청사 소재지)는 현재의 위치에
서 남으로 약 8km 떨어진 현 화성군 태안면 송산리에 위치하
고 있었으며 이곳이 이른바 구수원이다. 서울에서 서해의 남양
만으로 가려면 과천과 수원을 거쳐야 하므로 당시에는 중요한
요지였다.

당시 읍내의 뒷산이 화산(火山)이었는데 이 산
은 옛부터 풍수지리설에 의하여 명산으로 지칭되어 오고 있었
으며 왕릉의 후보지로 책정되어 국능후보지(國陵候補地)라는
표식비가 세워져 있었다고 한다.(윤선도 문집中 山陵儀)

나. 성곽의 축성부터 1944년

성곽설계-세계 최고의 계획신도시 화성은
(현수원) 수도인 한양을 모도시로 하여 계획적으로 조성된 하나
의 형성적 도시였고 화성의 번영을 위해 수도가 지녀야 할 기능
의 일부까지 이전한 것 등으로 보면 이념이나 수법이 오늘날과
비슷하다.

화성의 성제(城制)와 시가지의 배치, 가로망등
마스터플랜이 누구의 손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축성계획은 다음과 같이 전해온다.

첫째, 실록 정조 17년 5월 丙辰조에 의하면
70노구에 초대 화성유수로 재임했던 채제공(蔡濟恭)을 다시
영의정으로 불러 "경의 축성계획을 보니 노재상의 정력소모가
대단" 운운한 것으로 보아 채제공도 축성계획을 제출하였고 들
째, 실록 정조 17년 12월 乙丑조 채제공이 성역(城役)의 감동
당상(監董堂上)으로 조심태(趙心泰)를 결정하는 자리에서 조
심태가 "성벽의 남북면은 石城으로 東西邊은 土城으로 하는 것
이 좋으며 城制도 雉集(성가퀴)과 樓(루터)가 망루)는 새나 수
레바퀴 모양이 좋고 산세가 험하지 않아 平野이나 曲城이나 譙
樓는 더 필요한" 등으로 말했다고 기록된 것으로 보면 조심태
도 축성계획을 했고 셋째, 실록 17년 12월 丁卯조에 의하면 왕
이 조심태에게 축성에는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하고, 雉城과 甕城
도 필요하고, 미관에만 치중하고 치밀함을 등한하면 안되고, 보
기에 아름다우면 적을 방어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것이니 병법
에 이르기를 먼저 사람의 기(氣)를 뺏는 것도 귀한 일이라는 漢

나라 故事를 들어 “장려함이 없으면 중후한 위엄도 없을 것이니 성루가 웅장 미려하고 보는 이로 하여금 낮을 잃게 하는 것도 守城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고, 동시에 銃眼을 만들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아 정조 또한 축성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하여 일기견을 가졌던 것이다.

넷째, 실록정조 18년 정월 乙未조에 수원성 쌓는데 참고하고자 팔도에 명해서 각 지방에 쌓여있는 성지(城地)에 제도를 그려 바치라고 했으니 각 지방의 성제도 참조했으며 다섯째, 丁茶山의 興猶堂全書 詩文集에 실려있는 「城設」에 의하면 華城城役에 비공과 일로 왕이 염려하시는 바 커서 신이 옛날에 듣고 배운 지식을 모아 城役의 分數, 材料 濔塹 築基 伐石 治道 造車 城制의 의견을 바쳤음과 왕이 다시 甕城 砲臺 懸眼 漏槽의 제도와 기중기에 관해서 연구해 보라고 기기도설(奇器圖說) 한 권을 주시어 연구해 바쳤으며 웅성도설 현안도설 루조도설 기중도설을 차례로 소개하고 있다.

이상으로 미루어 수원성은 체제공, 조심태 정약용으로 구성된 설계단에 의해 수정 도안되었고 실행되면서 都手들의 의견으로 약간씩 수정되었다.

가로계획 설계도에서 설계한 것은 성곽만이 아니었음은 물론이다. 산업화되기 이전의 도시에서 성벽이 갖는 기능은 방위적 측면이나 권위의 상징 이외에 자칫하면 사가(市街)와 여음이 엉성하게 흩어져 큰 농촌취락의 모습과 별로 다를 바가 없게 되기 쉬운 대취락 상태에다가 일정한 규모와 질서를 부여하여 도시를 하나의 형태있는 것으로 만드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다.

그런데 화성의 경우 성벽을 쌓기전에 이미 초라하기는 하나 시가가 형성되고 수백호에 달하는 민가가 들어 서서 여음이 형성되어 있었다.

성벽에 걸리는 가옥이 헐리는 것은 어쩔수 없지만 성벽을 원형으로 모양나게 쌓으려고 하니 동북쪽에 위치

하는 많은 민가가 성벽밖으로 나가는 것이 문제였다.

이때 화성에 내려온 왕이 읍기(邑誌)를 살펴보고 팔달산에 올라 화성터를 두루 살핀 다음 북리(北里)의 인가(人家)를 철거한다는 것은 옳은 계획(計策)이 아닌 것 같다. “...이 고을의 속창은 류천(柳川)이니— 류천의 성이 남북으로 길쭉해져 흙사 버들잎과 같은데 북쪽 인가가 있는 곳이 세번 굽어져 내 ‘川’자를 형상하게 되니 이 어찌 류천이란 이름에 더욱 근사하지 않느냐”라고 단을 내림으로 철거하지 않고 성을 밖으로 내어 쌓게 되었다.

이렇게 성 둘레가 결정되니 우선 남문과 관아 중심으로 이미 조성되었던 십자로와 북문을 일직선되게 도로의 선을 그었다.

역시 몇 채는 헐어야 했고 문루가 성벽공사 때문에 큰 우마차를 통행시키다보니 보다 넓고 편리하게 몇 개의 간선도로를 새로 내야 했고 성벽의 배수, 특히 광교천의 배수를 따라 도로망이 달라져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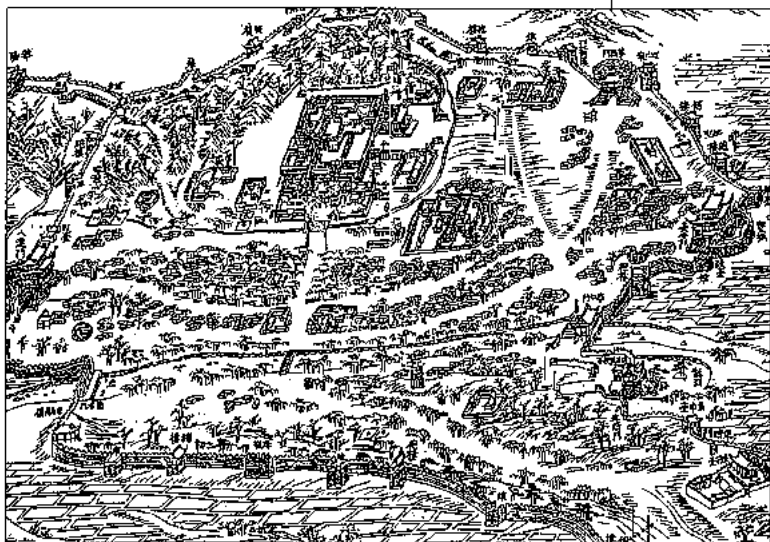
간선도로망이 결정되면서 동문과 서문자리가 고정되었다.

이렇게 해서 형성된 간선도로망은 우선 남문(팔달문)에서 십자로(現 종로네거리)를 거쳐 북문(장안문)으로 빠지는 주대로를 중심으로 십자로에서 직교하고 수로를 건너 동문으로 뻗어 광주로 가는 길이 생겼으며 종전 십자로 북쪽에 또 하나의 네거리를 내어(장안 네거리) 이것을 화홍문(북수문) 訪花隨柳亭(북송시대 시인 정명도의 사귀에서)과 연결되는 수로에 기점을 두고 남북주간선과 직교하여 서문으로 빠지도록 하였으니 당시로 따서는 국내 어느 곳에서도 그 예가 없는 특색 있는 가로망이었다.

수원번영책—왕명으로 연구된 번영책은 많으나 결정된 내용은

- ① 한성부 내의 재력이 풍부한 시전도매(市廩都賣), 기타 부호들과 개성 평양 의주 동래의 거상(巨商)들을 대상으로 화성이주의 신청을 받고 이중에서 상매(商賣)에 능하고 근면 성실한 자 20인을 선정, 계(契)를 조성케 하고 이 계원들에게 관모(官帽)와 가삼(家蓆)의 국내매매 및 대중국 무역에 관한 독점권을 주었다. 이 독점권은 서울의 육의전이 가졌던 특권과 그 내용이 동일하다.

이 독점권을 행사하는 조건으로 즉시 화성으로 가서 성내에 지정된 구획내에 서로 상대하여 자손대대로 상매에 종사한다. (지정된 구획은 경로네거리와 장안을 잇는 대로변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계원마다 3~5인의 차인(差人)이 필요할 것이



화성전도

니 차인과 수종들의 가택도 이웃에 마련하여 호구수를 늘리도록 한다.

② 20호 계원들은 부유하지만 가업을 새로 마련하고 상매를 크게 벌리려면 돈이 필요할 것이니 10만량의 관금을 대여한다. 유수부에서는 그 이자를 성곽 수축의 비용으로 충당한다.

③ 계원들은 성실 근면 정직하게 업에 종사하고 남을 속이거나 행패를 부리거나 죄를 범하면 엄벌에 처했다. 또 매년 이윤 다과에 불구하고 都中(Guild)에서 금 천량을 거두어 유수부 교리방(敎理方)에 납부케 하여 그 비용만큼 타주민들의 부담을 줄인다.

이와 같은 안은 도시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는 核(Core)을 마련하고 이 핵이 미치는 파급효과를 기대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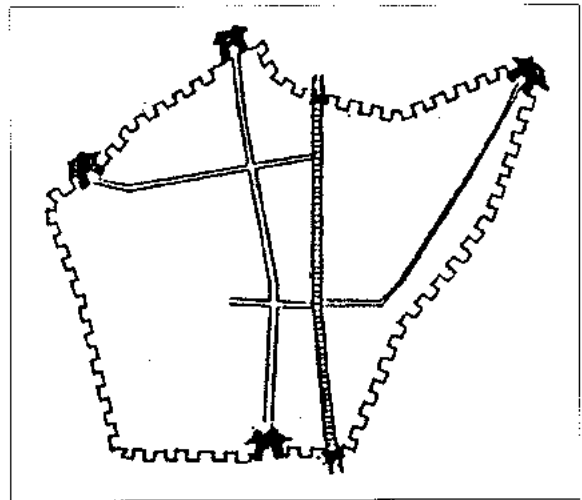
도로형태—우리나라는 자연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방위형태를 갖추게 되었고 도시구조도 결정되었다.

그러나 중국대륙과의 문화교류에 따라 도시계획의 원리와 기법을 받아들여가는 하였으나 오히려 형식적이고 실제로는 독자적인 도시구조를 창안하였으며 성의 구조와 설비에 있어서도 중국의 도성과는 달리 실제적인 방위능력(산성은 다르지만) 보다는 적에 대한 주민의 안도감과 용기에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성의 중첩량(重疊量)도 작고 성벽의 높이와 폭도 작게 만들어졌으며 왕궁을 제외한 나머지 성역(城域)들의 계획은 중국에 비해 소홀하였다. 경국대전은 대로56척 중로56척 소로11척으로 노폭(路幅)을 규정하였다. 대로56척의 근거는 제후의 경도(經途) 토궐(土軌)을 따른 것이고 중로16척은 야도(野途) 이궐(二軌)을 따른 것이다. 당시는 일궐을 8척으로 보았다. 궐(軌)은 차량의 양쪽바퀴 사이의 폭인데 차체의 폭으로 생각할 수 있다. 조선의 국왕은 천자(天子)가 아니니 구궐의 도로 폭을 규정할 수 없어 대로56척(7궐) 중로16척(2궐) 소로는 1궐이 통과하도록 양쪽에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11척으로 정한 것이다.

1궐의 차로폭이 8척인데 영조척(營造尺) 8척의 길이는 249.68cm로 이것은 오늘날 자동차 차로폭의 최소 기준인 2.5m와 같아서 우연이라기 보기에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다.

지방도시의 경우 읍내의 규모가 적은데다가 서울과 같은 대로는 둘 수 없었고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간선도로의 폭은 서울의 중로에 해당하는 16척이 기준이었고 가로망도 단순하였다.

지방도시의 읍성은 거의가 동서남북 4개의 문을 갖는 것이 통례였고 4개문을 연결하는 십자로의 도로망(주오)을 간선으로 하고 이 가로들에 평행 또는 직교하여 일정 간격을 두고 소로들이 그어져 있었다. 읍성이 없는 경우에도 이에



화성의 간선도로망

준하여 관아 앞길과 직교하는 길 하나가 간선도로망을 형성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모델에 불과하였고 사문을 가졌다고 이러한 가로형태를 꼭 갖추었던 것은 아니다.

4문밖에 없었던 화성의 간선도로망은 남북을 연결하는 중로에 동서방향으로 2개의 중로를 간격을 두고 교류시킴으로써 지형에 알맞게 그리고 도로의 기능면에서는 편리한 독특한 도로망을 조성하였다.

이와같은 가로망이 생긴 것은 화성의 지형상 동문과 서문이 정동(正東)과 정서(正西)에 위치하지 못하는데도 기인하지만 동서문을 이러한 위치에 놓아 남북 주간선 도로와 연결시킨 것은 동문으로 나가는 길은 광주산성(남한산성)과의 연결보다 직접 광주에 있는 왕승호벽소(旺僉互壁所)에서 성역 공사에 필요한 기와와 벽돌 운반에 필요에 의한 것이고 서문을 통해 서쪽으로 연결된 길은 속지산(熱知山), 여기산(如岐山) 채석장에서 돌을 옮겨오기 위한 실질적인 필요성 때문이었다.

팔달문, 장안문, 방화수류정, 동장대, 서장대 등의 주요건물은 그 공사의 진행이 빨라 거의 기공후 1년내에 완성되었으며 이에 따라 시가(市街)와 여염도 제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정조 19년 정조가 모후를 모시고 화성에서 화갑연을 벌였던 대행차에 정조는 장안문에 올라 성역공사를 순시하고 방화수류정에서 용연을 보았을때 이를 수행했던 선비 이회평은 「시흥 숲막에 점심하고 오후에 화성북문을 드니 북문 이름은 장안문인데 밖에 웅성을 쌓고 홍예를 곱돌로 틀고 그 안에 성문이 있는데 그 문루가 반공(半空)에 솟았는지라 문루의 크기는 한양 남대문과 같으나 표묘하고 홍예의 높이는 더하더라.

“...종루(鐘樓)에 나가 거닐어 보니 시정이 번화함에 비할데 없고 길위 큰 개천을 쳐 정제하였으니 광통교(廣通橋)와 다름이 없더라. 문을 들매 가로좌우에 여염이 撲地하였

는데 경화재상(京華宰相)의 집이 많고 주대문(朱大門)에 분장이 조요하니 한양과 다름이 없고 경루 십자로는 시정(市井)이 문을 열고 앉은 것 선전 서울 종로와 같더라" 라고 하였다.

화려한 성에 제 모습을 갖춘 읍치(邑治)는 종로 네거리를 중심으로 남부와 북부의 2개의 방(坊)으로 구분되고 남부는 20개동 북부는 14개동으로 모두 34개동이였다.

2. 1944년 이후부터 2000년까지

1944년-1976년 축성 이후 1944년까지의 수원은 계획되어 자유방임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조선총독부가 1944년에 계획구상 29,390㎢를 설정하여 30년후의 장기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고상적인 임시조치에 불과하였으나 현대식 도시계획의 시초로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1965년-서울의 위성도시인 동시에 지방중심도시인 수원역은 역사적 배경과 지리적인 조건과는 달리 농업위주의 생활권의 중심도시였지 현대과학 생활권의 기쁨이 미비하여 침체하였었다. 그러나 속망이던 경기도청 이전이 결정되어 명실상부한 도청소재지로서 등장하는 바 이는 22대 정조대왕이 천도할 계획으로 성곽의 4대문, 방축수류정을 구축해 놓고 뜻을 이루지 못하였던 과거를 회상하면 인과관계는 뒤에 하고 정부와 지방관청과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수원시민의 쾌사(快事)이다.

수원시의 기성시가지는 총면적의 20% 미만의 협소한 지역에 L형의 장안문에서 수원역에 이르는 세장(細長)한 대상형(帶狀型)으로 되어 있어 가로로 형태도 이에 준하여 매산로와 팔달로가 L형으로 중심가로를 이루고 이로부터 남양 인천 서울 광주 용인 부산방면으로 통하는 6개의 방사가도가 있으며 새로 편입되는 지역에도 앞에 쓴 방사선들이 통과되었을 뿐 보조간선이나 상호연결 가로는 없고 국부적으로 농로와 소로가 있을 뿐이었다.

지리적으로 교통요충지에 위치한 수원은 가로망 구성이 불완전한 형태로 인하여 교통의 혼잡은 물론 소통이 부진하였다. 가장 큰 원인은 방사선을 상호 연결하는 순환선이 없기 때문에 1개 방사선에서 유입된 교통은 도심부를 거치지 않고는 다른 방사선 도로로 갈 수 없기 때문이었다.

6개 방사선은 수원이 교통의 요충지로서 클로즈업한 기본요소이므로 이들의 방향을 변동하지 않으며 이들은 국부적 위치 및 선형만 변경하여 이를 간선으로 삼고 방사선을 상호 연결하는 순환도로망 도심부에서 제1환을, 중심부에서 제2환을, 주변부에서 제3환을 배치하여 기본망을 형성하는 것이 시급해졌다.

이 기본망에 보조도로를 첨가하여 도심과 부심 또는 각 커뮤니티(Community) 중심 상호간의 연결을 하여 시

가지를 균등 발전시키면서 토지이용을 극대화시켜야 했다.

1976년-수원이 자체적 성장과 제한여건 변화에 동화됨은 물론이지만 국토종합개발계획과 그린벨트 설정 및 이미 개통된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의 개통 등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교통량의 집중현상을 가져오는 업무상업 및 기타 지구에 대한 도로망 구성은 각 존(Zone)에서 신속 안전하게 집중과 확산이 가능하도록 계획했고 도로망은 기본형태를 보존하면서 건전한 주거환경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모도시인 수도 서울과 관문인 인천을 연결하는 통과 간선 및 양 고속도로와 경부철도를 중심으로 시가지 내의 가로망을 구축하였다.

1980년대-경기도의 중추관리기능을 담당하는 행정중심도시, 고유한 사적지료를 소유한 고전문화도시, 농업연구의 산업기반을 가진 훈련·기술·대학교육시설이 집합된 교육연구도시, 현대과학 생산도시로의 도시미래상에 부응하고 장래 계획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주거·상업·위탁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기본계획상의 도시기본 구조골격은 기존 시가지인 서부중심에 중심상가 기능을, 신시가지인 동부중심에는 업무의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2개 핵을 구성하고 교통망은 상위(上位)계획에 따른 지역간 광역교통망을 형성해 인접 시군지역과 도시내 기존도로망을 연계화시켰다.

그리고 지역간 가로망은 방사형으로, 시가지내 가로망은 격자형으로 배치하여 순환산업 도로를 우회 통과시켜 교통의 시가지 진입을 90년대 달성하게 했다. 장래 계획인구에 대한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정규모의 주거공간을 공급하고 상업기능을 지구별 적정규모로 배치될 수 있도록 하여 신시가지 중심은 집단상업 업무지역으로 유도함으로써 신시가지와 구시가지의 연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1990년대-수원시는 수도 서울의 대도시권에 속하며 중심대도시와 기능적 일체성을 갖는 일상생활권으로 광역교통망인 전철로 서울과 연결되고 있으며 대도시 특화기능중 주거와 교육 및 연구의 특화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주거도 백만인구 수용을 목표로 영통지구 등 6개지구 주거집단지역이 개발된다.

장래도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며 경기도의 중추관리도시, 교육 및 농업연구도시, 교통요충도시, 사적문화재의 관광도시, 수도권 주말 위락도시 등의 부여된 조건을 수용하는 도시구조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용도지역의 확실성 없는 계획의 수립과 견인력 없는 도심부제로 위계성이 결여되고 중심시가지의 대상적 발달로 혼잡이 발생되고 있으며 개발제한 구역의 과다설정, 주요국가시설의 입지, 농업연구진흥시험소의 입지, 문화재보호 구역의 지정, 군사보호시설 등으로 인한 토지이용의 제약성 등이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역사도시의 방황(彷徨): 화성(華城)

Suwon, The Historical City

한동수 / 공학박사, 목원대 강사

by Han Dong-Soo

『...수원갈비, 화춘옥, 푸른지대 딸기밭, 노송지대, 경남카트, 꽃피, 밤밭, 수여선, 수안선, 신갈인터체인지, 전철, 수인산업도로, 경수산업도로, 역전, 통근, 통학, 경기도청, 경기도 교육위원회, 농촌진흥청, 새마을연수원, 수원시민회관, 서호, 장안공원, 효원공원, 문화예술회관, 서울농대, 이주대, 성균관대, 대학분교, 광교산, 팔달산, 수원성, 팔달문, 장안문, 화서문, 창녕문, 연무대, 화홍문, 방화수류정, 용건릉, 용주사, 홍난파, 고향의 봄, 화홍문화제, 백일장, 학도체육대회, 정조대왕 능행차 시연, 지지대 고개, 연초제조창, 신경합섬, 삼성전자, 민속촌, 경기도립 박물관, 성빈센트병원, 도립병원, 10전투비행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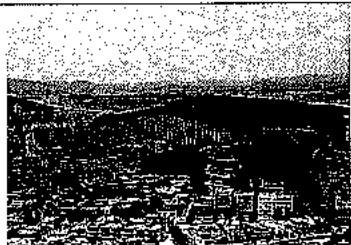
대략 이러한 것들이 필자가 수원에서 살면서 접했고 수원하면 떠오르는 낯익은 단어들이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1학기말인 1970년 6월 아버지의 근무처를 따라 수원으로 이사온 뒤 1996년 6월 부모님으로부터 분가하여 서울로 이주를 할 때까지 26년간 나는 줄곧 이 도시에 발을 붙이고 살았다. 그러나 필자와 수원과의 인연은 이보다 몇 년 더 앞선 초등학교 1학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접한 소도시였던 용인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수원로의 이주전까지 9년여를 살았던 필자는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가끔 수원에 들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며 화홍문화제의 백일장에 참가하기 위해 온 적도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필자에게 있어 수원은 서울에 버금가는 호기심 가득찬 도시였으며 남문 근처로 기억되는 오복회관이라는 맛있는 음식점과 단골양행이라는 예쁜 옷가게 등이 자리잡은 즐거움의 도시였다. 어머니의 손에 끌려 당시 유명했던 국산영화 '미워도 다시 한 번'을 본 것도 수원에서의 일이었다.



〈그림 1〉 대동여지도에 기록된 서울·수원 사이의 산수와 도로체계

그후 수원에서 초, 중, 고를 마치고 대학을 서울로 진학하면서도 필자는 수원을 떠날 기회가 별로 없었다. 하지만 수원과 이처럼 오랜 생활의 인연 속에서도 수원성, 즉 화성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그다지 크지 못했다. 정작 화성을 의식하고 새삼스러운 눈으로 보게 된 것은 건축과에 들어가 4년을 마치고 한국건축사를 전공으로 택하게 된 대학원 시절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대만으로 유학을 떠나 그곳에서 공부를 계속할 때 화성의 가치를 더욱 느끼게 되었고 각별한 마음을 가지고 화성을 한 번 자세히 훑어볼 수 있었다.

이같은 나의 화성에 대한 인식의 정도와 비례하여 우리 사회는 물론 세계문화계 역시 화성을 대하는 태도에 많은 변화를 보여왔고 급기야 최근에는 세계문화유산의 반열에 들어섰다. 이제 화성은 수원이라고 하는 지역사회와 한국이라



화성 축조에 사용된 석재를 채취했던 속지산



이미 일부 복구가 진행된 수원현의 원래모습



역사도시의 경관을 상실한 수원 (화서문 안쪽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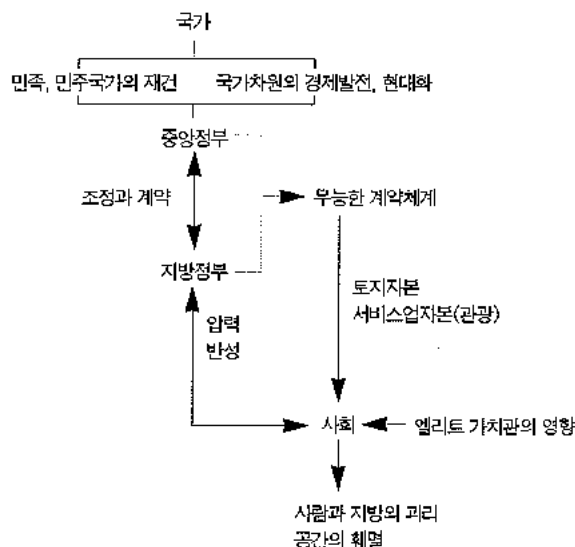
고 하는 국가범주의 관심대상에서 벗어나 자연스럽게 세계인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세태의 변화에 편승하여 필자는 여기서 역사도시로의 수원과 세계문화유산으로써의 화성에 대한 몇가지 감상적인 생각의 편란을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단절과 연속

일찌기 일제강점기인 1931년 12월 1일에는 수원선이, 1937년 8월 6일에는 수인선 철도가 각각 개통됨으로써 수원 동으로는 여주, 서로는 인천, 남으로는 부산, 북으로는 서울을 잇는 명실상부한 철도교통의 요충지가 되었으며 수원 근대화의 지렛대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요건에 힘입어 수원은 1949년 시로 승격되었고 1963년 12월 10일에는 안양, 인천과의 치열한 경쟁 끝에 경기도의 도청소재지라고 하는 중요한 거점 도시로 변모한다. 그러나 7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고속도로와 산업도로 같은 도로교통망의 발달은 1972년 7월 수여선의 폐선을 가져왔고 수인선 역시 종전의 논란 속에 명맥만을 유지하게 되었다. 게다가 서울이라고 하는 거인이 드리운 그림자 밑에서 수원은 명색이 도청소재지였을 뿐 줄곧 중소도시의 면모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철저히 베드타운의 기능만을 강화해 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그나마 수원의 명맥을 이어준 것은 화성이라는 성곽의 이미지 내지는 농촌진흥청과 서울농대를 근간으로 하는 농업의 중심지라고 하는 역할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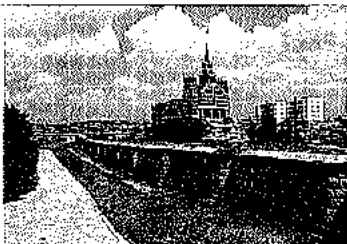
그후 선경SKC와 삼성전자단지 등과 같은 산업 시설이 들어서면서 수원의 경제적인 지위가 일정한 폭으로 상승되었고 대학캠퍼스의 수도권 분산정책에 힘입어 주변 곳곳에 대학분교지는 전문대학들이 세워져 수원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두드러지게 되었다. 또한 인접지역인 용인의 자연농원, 신갈의 민속촌 등이 세워져 각광받는 관광지가 되면서 수원은 머무는 도시가 아니라 거처가는 도시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역사도시로서의 수원과 어떤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정부차원의 무능한 국토계획체계는 수원의 무분별한 확장과 역사도시의 이미지를 감소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했고 사람과 지역성의 괴리내지는 모호한 도시의 공간형성을 촉진시켰을 뿐이다.

〈그림2〉 공간분열의 패카니즘



※ 사회: 시민단체, 커뮤니티 주민, 기초단체 등의 행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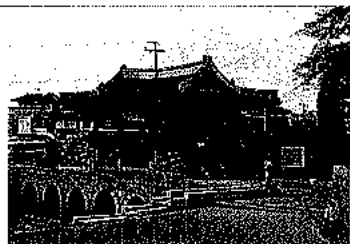
이같은 변화 속에서 수원을 그래도 수원답게 유지시켜주었던 화성은 수원의 시승경보다 몇년 앞서 1935년에 고적 제14호로, 1963년에는 사적 제3호로 각각 지정되었다. 또한 1968년에는 성내의 각 20미터 거리구간(총 65,493평)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수원시가 관리단체의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러나 1950년에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화성은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수원과의 괴리감은 증대되었고 그 면모는 점차 해멸되어갔다. 나의 기억 속에 있는 북원 직전의 화성은 그야말로 폐허 그 자체였다. 온전한 것은 팔달문과 화서문, 공심돈, 방화수류정, 화홍문 등과 같은 몇 동의 건축물, 그리고 등성등성 허물어진 성벽뿐이었다. 현재 말끔히 단장된 장안공원도 시멘트 블록을 찍어대던 간재상들로 어수선했다. 이후 화성이 현대사의 무대에서 주목을 받아 제모습 찾기에 나서게 된 것은 70년대의 경제성장과 통치 이데올로기의 영향 때문이었다. 당시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목표는 결과적으로 진보, 현대화의 이데올로기 상황에서 정권의 합법성을 공고히 하였고 자본의 부단한 축적은 국가경관의 해멸을 초래하였으며 전통적인 커뮤니티와 인간관계를 와해시켰다. 이에 당황한 정부는 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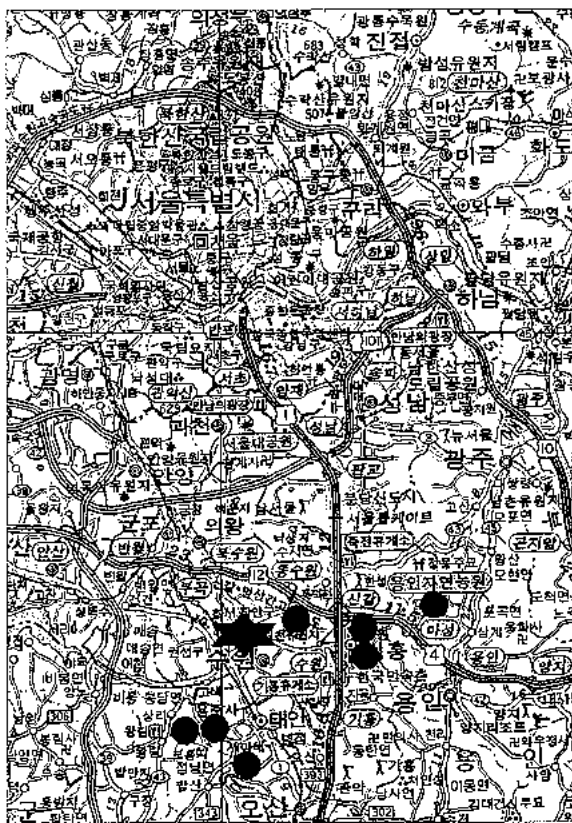


봉화대 부근의 거대한 교회건축 (사실 우리나라의 교회건축은 역사문화과의 부조화를 낳는 원흉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는 매우 적다)



화홍문 부근의 어제와 오늘(좌: 대정 10년의 전경, 우: 1990년 여름의 모습)





〈그림3〉 1990년대의 교통지도(원으로 표시된 곳은 화성 주변의 주요 명승·관광지이다)

죽문화의 창달이라는 구호 아래 한국적 문화전통의 재건에 나서게 된다. 그러나 이것 역시 정권의 이데올로기를 합리화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이용되었다. 다음의 내용은 화성복원의 맥락이 어땠는가를 잘 보여주는 단적인 귀절이다.

『찬란한 국방문화유산의 정화와 지극한 효성의 정신문화를 계승하기 위하여 1974년 7월 대통령 각하께서 말씀하신 뜻을 따라 문화재관리국장, 경기도지사는 전문가, 전문위원 및 관계직원에게 수원성의 복원, 보수, 정화사업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하였다.』¹⁾

이처럼 화성은 '각하의 의지'에 의해 제2의 봄을 맞게 된 것이다. 화성의 복원과 함께 전후로 진행된 국방문화유산의 정화사업으로는 강화도 일대의 유적지라든지 각 지역의 유엔군 참전기념비 건립 등과 같은 사업들이 있었다. 어쨌든 1974년을 기준으로 하여 14억 7천 9백만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정비계획으로 화성은 그 면모를 일신하게 되었고 새로운 활력을 얻는 것처럼 보였다.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유적에 비해서 완벽한 기록물이 남아있어 원형에 가까운 복원도 가능한 상황이었다. 당시의 작업지침²⁾과 이를 요약한 사업방침을 잠시 살펴보자.

• 기존성곽 및 시설물이 잘 보존된 것은 이를 보수하고 유구 및 유적이 확실한 것은 이를 모두 복원한다.

• 기존성곽에 접근되어 문화재의 보호,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거나 미관 및 복원보수사업에 지장을 주는 가옥

기타 시설물은 보상하고 철거한다.

• 성곽 보호 유지관리에 필요한 토지는 이를 매수하고 문화재보호구역을 확정하여 정비한다.

• 기존성곽 문루 기타 시설물로 보존상태가 양호한 것은 그대로 두고 환경정리를 하되 붕괴, 일실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이를 해체복원하며 파손되지 아니한 부재는 그대로 재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붕괴 일실된 부분의 복원은 고증에 따라 실시하되 주변의 응재 및 공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복원하는 건물 및 기타 시설물은 기저부의 발굴조사자료 및 고증자료에 따라 복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문헌 및 기타의 고증자료와 비교하여 현황이 크게 변모된 것은 문화재관리국의 전문위원 지시에 따른다.

• 이 사업과 관련되는 환경정화에 따르는 조경공사 및 관광시설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이 사업에 발맞추어 시행한다.

• 본 사업의 추진은 연차별로 구간을 정하여 시행³⁾하되 이에 소요되는 예산 및 일정은 문화재관리국,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잔존 유구와 유적을 중심으로 하여 시기지화한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에 걸쳐 복원이 가능한 중요시설은 전면 복원하고 퇴락한 성벽을 완전히 보수하여 원래의 면모를 재현하고 도시의 중심부 또는 전채 유구를 찾을 수 있는 길이 없는 행궁 등은 제외한다. 아울러 성곽 보호구역 내의 사유지를 매수하고 민가를 단계별로 철거, 이주시켜 주변을 정화한다는 방침하에 4개년 계획의 5단계로 실시한다.』⁴⁾

이상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일정한 수준의 잔존유적상태, 완벽한 문헌자료, 발굴을 통한 유구확인이라고 하는 3가지 측면의 상호인증을 통한 원형복원을 시도하려고 하였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유적 그 자체의 복원, 보수 뿐만 아니라 보호구역에 대한 정화계획을 수립한 점이었다. 그러나 실제적인 작업의 진행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온전히 충족되지 못했고 부분적인 역사왜곡의 현상이 나타나고 말았다. 더구나 사업 전반의 중점은 성곽시설과 그 인접지역의 정화에 그쳤을 뿐 수원이라고 하는 도시의 역사성을 화성과 결부짓는 통합적인 작업이 누락됨으로써 보다 역동적인 역사도시의 면모는 방황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다. 다시 말해서 당시만 해도 어느 정도 복원이 가능했던 역사도시의 내부구조에 대한 문제를 소홀히 한 점은 또다른 역사의 단절을 가져왔다. 이러한 인식은 결국

1) 《수원성 복원 성화지》, 경기도, 34쪽, 1980년 12월 31일.

2) 《수원성 복원 성화지》, 경기도, 35쪽, 1980년 12월 31일.

3) 이러한 연차별 시행시기는 다음과 같다.

1975년 제1단계 1차 장안문-서장대, 2차 서장대-팔달문

1976년 제2단계 화홍문-장흥문

1977년 제3단계 장안문-화홍문

1978년 제4단계 향문-동남각루

4) 《수원성 복원 성화지》, 경기도, 33-34쪽, 1980년 12월 31일.

최근들어 행궁을 비롯한 일부 내부시설에 대한 발굴과 복원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역사도시의 복원과 보존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고 화성이라고 하는 역사문물 자체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선에 그치고만 썩이다.

방향의 종착역은?

문명의 사회-경제구조 및 그 문화 사이의 관계는 모든 문제 가운데 가장 복잡한 것 중 하나이다. 19세기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을 받은 전통관념은 사회구조의 변혁이 사람들의 상상력 범위를 결정한다고 여겼으며 변혁의 개념은 이와 동시에 현대경제와 현대기술을 주재하고 있다. 경제기술영역 속의 변혁은 이용할 수 있는 자본과 자원의 제한을 받는다. 정치영역 속의 상황도 유사하다. 현존하는 메카니즘의 구조, 대립경쟁하는 집단의 부결권, 모종의 전통적인 영향은 모두 그 속의 창조 활동을 제한한다. 그리고 표현부호와 표현형식의 변혁은 오히려 문화영역 내에서 장애없이 통행하지만 민중이 이러한 변혁을 흡수하고 소화하는 것은 여전히 곤란하지 않은 것이 없다⁵⁾. 공간의 유동성이 지방성을 대치하였고 자본의 논리하에서 사회의 분업을 심화시켜왔다. 우리 사회는 문화현상의 제반문제를 논할 때면 늘 제도와 자본의 논리를 들먹인다. 그러나 정작 문화의 주체는 사람이다. 잘 짜여진 제도도, 충족한 자본도 문화의 제반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역부족이다. 결국 사람만이 유일한 희망이고 살길이라는 것을 간파하고 있다.

화성을 조선시대와 똑같이 완벽하게 정비를 하고 수원시내가 한옥으로 뿔뿔한 전통적인 풍경으로 바꾸어 놓아봐야 그 삶의 주체인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한 아무 소용이 없다. 지역사회의 구성원 의식이 화성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면 수원시내가 현대식 도시로 바뀔수록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기본적인 역사의 흔적들이 훼손되지 않고 소위 말하는 맥락과 타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면 변화는 인정해야만 한다.

또하나 최고, 최대, 최초로 집착하여 화성에 대한 정확한 역사인식이나 객관적 연구를 그르치는 학문계의 풍토 역시 사람의 범주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앞서 제시한 공간분열의 메카니즘이라는 도식에서와 같이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의 엘리트적 가치관에도 개혁이 필요하다. 추상적인 논리와 외국경험의 무분별한 적용 등이 사라져야만 한다.

화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도 당시 이 성곽의 축조와 관련된 사람들의 가치관과 그 역사(役事)에 대한 기록이라고 하는 건축문물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서이지 화성의 규모나 건축술은 그다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을만한 끼리가 되지 못한다. 규모와 보존의 상황이 월등한 중국의 서안성이 세계문화유산이 되지 못하고 우리나라의 화성이 그 반열에 들어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으며 문화유산의 경중을 판단하는 기준 또한 그렇다. 그러므로 화성의 건축유

산을 가지고 국내외의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생각은 유치한 발상이다. 우리 주변에 팽배된 「문화유산=관광=화폐수익」이라고 하는 등식은 잘못된 사고의 출발이다. 관광상품으로써의 문화유산은 부수적인 것일 뿐이다.

우리는 세계 도처에서 수원과 같은 역사도시들이 걸어가는 다양한 모습들을 보아왔다. 굳이 먼 곳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의 서울은 우리에게 이미 너무나도 많은 교훈을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이라고 하는 역사도시가 또다시 그 전철을 밟아가고 있음은 안타까움을 떠나 화성에게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잔인한 일이다. 반복되는 말이지만 변화의 길을 사람에게서 찾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어떨까. 화성의 지위와 역할, 관심을 지금 이만큼 올려놓은 것은 자본과 제도가 아니라 바로 그것을 자기 자식처럼 끔찍이 생각했던 몇몇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중국이 1982년 처음으로 역사문화명성을 지정하면서도 간과했던 점들이 바로 사람에 관한 문제였다. 문물의 보존, 환경과의 조화, 관광개발 등과 같은 획일적이고 틀에 박힌 계획이론을 적용했던 대다수 중국의 역사도시들은 원래의 면모를 손쉽게 떨쳐버리고 무표정한 도시의 형태로 변화되어 가는 상황을 보여주고 말았다. 그리고 문화대혁명 이후 개혁개방이라고 하는 급격한 사회의 변화로 인해서 충분한 계획의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채 졸속, 또는 도면의 유희로 끝나버린 것이 많았다.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에 만연된 관료주의와 권위주의 역시 역사도시가 가야 할 올바른 길을 왜곡하는데 일조를 가했다. 이러한 제반현상은 시간의 궤적이 달랐을 뿐 우리에게도 예외적인 것은 아니었다. 반면 서양의 여러 역사도시들이 성공적인 사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면의 상황에는 근본적으로 문화의 주체인 사람의 자세와 역할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끝으로 화성이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이후 최근에 관리국에서 간행된 팸플릿의 내용을 인용하여 재음미(?)해 보며 글을 마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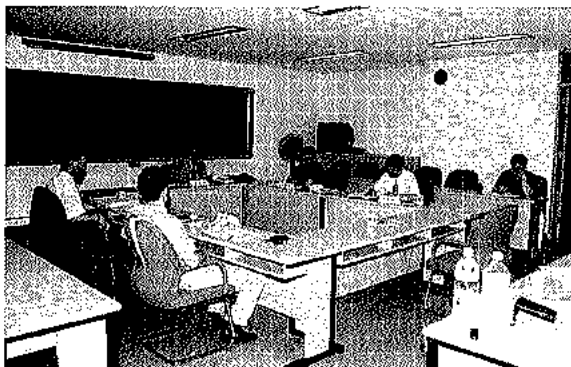
『화성(사적3호)은 정조가 효심의 발로에서 생부 사도세자능을 수원 화산으로 옮기면서 기존 주인을 새로운 고을에 이주시켜 1794~1796년 사이에 축성한 도성이다. 평시에 거주하는 읍성기능과 방어적인 산성의 기능을 함께 갖추었으며 건축물마다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꾀해 성곽 전체를 하나의 예술적 작품으로 만들었다. 화성은 조선 후기 실용성을 추구한 실학사상을 바탕으로 국내외의 축성술을 연구하여 조성되었으며 축성의 동기인 효사상, 근대지향적인 건축기술, 그리고 독특한 시설 등으로 동서양의 과학기술을 통합하여 발전시킨 18세기 동양 성곽을 대표하는 한국전통건축의 완성품이다.』⁶⁾

5) 《資本主義文化矛盾》, Daniel Bell 著, 趙一凡 譯, 三聯書店(北京), 79쪽, 1992년.
6) 문화재 관리국이 발행한 세계문화유산등록 팸플릿에서 인용함.

좌담: 도시와 건축의 미래에 대하여

The Present and Future of the Urban Architecture

일 시 / 1998. 7. 20. 오후5시~7시30분
 장 소 / 성균관대학교 건축공학과 세미나실 II
 참석자 / 허영록(강남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김동훈(진우 건축사사무소 소장)
 민병호(아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이상윤(수원시 주택과장)
 최동호(예전 건축사사무소 소장)



좌담회 광경(좌담진행 / 허영록 교수)

허영록 _____ 이런 기회를 원래는 지역내에 있는 우리가 먼저 마련했어야 하는데 건축사협회에서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여하간 지역내에서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이 "수원 - 도시와 건축의 미래"인데 이것은 도시인이나 건축인들에게 있어서 큰 컴플렉스입니다.

그렇다면 수원의 경우 도시와 건축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때 화성이 떠오르는 것이 현실인데 그러면 화성이 왜 우리에게 죽어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는 전통건축, 전통도시설계가 현재의 삶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즉 눈에 보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것이고, 전통과 현대의 삶속에서 고민되고 갈등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화성은 과연 무엇이고 무엇을 제공해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합시다(전통과 현대의 갈등사이에서 저희는 어디에서 있고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며 어디로 가야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화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민병호 _____ 제가 갖는 시각은 상당히 좁습니다. 개인적으로 왜 도시가 전통성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슈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흔히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도시마다, 국가마다 전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잠재의식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전통성을 주장하는 목적은 전통성에 들어있는 정신과 역사를 통해 정체성과 뿌리를 찾는 데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단계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왜 정체성을 논하느냐는 결국 문화적이거나 정신적인 면 이외에도 시민들이 도시의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나의 문제라고 봅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대한 주인의식이 있을 때 시는게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주인의식이 있으면 관리의식이 생기고 관리의식은 도시를 관리하게끔 만듭니다. 관리의식이 생기면 참여의식이 생깁니다. 참여의식이 형성되면 전문가들에게 도시형성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실제로 참여하여 도시를 형성하여 나가는데 일조하게끔 만듭니다. 참여의식이 형성되면 행정이나 정치적인 의식까지도 연결이 되어서 도시를 꾸미고 가꾸고 만들어가고 보존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집단, 행정집단과 시민의 집단이 하나로 뭉쳐지는데 이러한 것이 정체성

을 이루어내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도시의 스케일에서 전통을 이야기하는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원이라는 도시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성립되고 발전되는지 고대사(11세기부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의 물리적인 모양, 변천과정, 현대에 어떤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고 이와 병행하여 도시계획의 역사, 도시행정의 역사를 짚어보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반성적 시각을 통하여 도시가 어떻게 변할 수 있었는데 도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짚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왜 우리가 전통을 논의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목적의식, 두 번째는 역사적인 시각으로 도시형태가 어떻게 변하였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전통성의 시각이 어떻게 변질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허영록 _____ 전통이 우리에게 정체성(identity)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토대로 지역의 특성, 지방자치와도 연결된다고 민교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어떻게 전통을 받아들였는지 그 과정에 관해서 좀더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호 _____ 역사도시 수원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즉 수원은 역사도시로 많은 문화재를 지닌 도시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실무를 하는데 있어서 십자가가 되어 작가를 괴롭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작가의 뛰어난 작품을 고전과 미래에 접목시켜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역사도시 수원이라는 틀에서 생각해 본다면 화성은 고전이라는 텍스트의 문제에 있어서 뿌리가 됩니다. 또한 화성은 건축적으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의 미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화성을 성 자체만 보고서 아름답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화성과 관련하여 역사적인 배경을 개괄적으로 파악한 후에야 화성의 아름다움을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단지 수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전체의 문제로 보고 한국의 전통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성에서 성의 미학을 살펴보면 어떤 큰 틀 속에서 세부적인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운 _____ 화성이 좋은 문화유산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기존도시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볼 때 별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성곽내 도시 규제는 지금까지 단지 고도제한만을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고도제한(24m) 뿐만 아니라 기존도시와의 연관성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해 디자인 측면에 대해서도 연구되어야 하고 그렇게 될 때 과거, 현재, 미래가 연결된 수원다움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김동훈 _____ 저는 UNESCO에서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60년대에서 70년대까지는 우리나라 실정은 배고픔으로부터의 해방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물질적인 것이 아닌 정신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70년대 말부터 80년대에 들어오면서 물질적인 단계에서 정신적인 것을 추

구하는 분위기가 학자, 향토 사학자 등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상류층이나 선각자들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80년대에서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이의 단계(과거에는 물질적인 세계를 추구하였지만 이후 정신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분위기가 일어남)에 들어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는 자신을 낮추려는 분위기에서 자존심을 찾으려는 분위기와 전통을 지키려는 의식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세계에서 정신적인 세계로 들어서면서 문화라는 것을 토대로 더욱 발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만이 그 문화를 볼 것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보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는 관점에서 지각있는 행정과 선각자들에 의해서 화성이 UNESCO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습니다.

허영록 _____ 수원이 새로 계획될 당시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목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건축적인 면에 있어서는 성역의례에 기초하여 역사성, 건축성, 전통성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민병호 _____ 도시의 전통적 유구를 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에 있어서 무형의 것은 문화적, 문학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형의 것은 보존학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적으로 볼 때 실용적인 것은 유형적이고 시각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범주가 다양하므로 우리가 어느 시각에서 접근을 하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적인 시각에서 어떻게 성을 볼 수 있으며 어떻

게 이러한 것이 현대와 과거를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지에 대해 이론적인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고학은 물질을 가지고 당시상황을 해석합니
 다. 하지만 인류학은 보이지 않는 것, 무형의 것, 정신을 가지고
 서 해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화
 성을 들여다보면 많은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화성이 유형의
 것이라 보지 말고 당시 화성을 축성하는데 있어서 주체가 되었
 던 사람들의 사상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거기에는 많은 상징
 적인 부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조의 개혁정신,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하는
 상징적 의미로써 화성이 만들어졌고, 이러한 총체적인 사회의
 개혁정신, 새로운 시대로의 도약과 같은 정신의 물질적인 구현
 이 화성입니다. 결국 당시의 정신적인 것을 이해하고 정신적인
 것을 어떻게 현대에 적용하는가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
 다. 인류학에서 정신적인 부분은 핵심적인 정신과 부수적인 정
 신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화성에 있어서 핵심적인 정
 신은 개혁정신, 실학정신, 과학주의 등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이 건축적, 도시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실현되고 있는지 살
 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화성을 도시계획적으로 보면 유형의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정신을 살피고 이것을 연관시킬지는 어려운 문
 제입니다. 도시계획적으로 볼 때 화성은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연계성에 대해 앞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형태적으로
 전체적인 맥락과 도시의 맥락, 토지이용과의 연계, 시민들의 마
 음의 창과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통과와 창으로써 존재하고,
 랜드마크도 아니며,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결국 도시계획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화유구
 에 대해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다양성을 파악한 후
 현재의 위치를 파악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영록 _____ 지금 우리는 화성과 관련한 문
 제제기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는데 50~60년대에 지어진 건축
 물들과 화성을 비교해 볼 때 무엇이 다른가를 생각해 보면 성곽
 전체가 자연환경과 접목되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오래
 전부터 존재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마친가지로 화성의 전체성을 바라보고 연계를
 생각할 때 바람직한 것이 나올 수 있는데 현재 지어지는 건물들
 은 전체성을 바라보지 않고 단편적이고 기능적인 부분만을 고
 려하여 건축활동을 하기 때문에 연계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
 가 생각해봅니다. 전체성과 부분성을 고려하고 이러한 것을 화
 성과 연관시켜 생각할 때 수원다움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윤 _____ 화성의 고전적인 부분과 현대

건축을 접목시키는 의식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영록 _____ 전통과 현대의 연결고리를 찾
 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화성은 우리의 자긍심을



고취시켜줄 수 있는 매개체입니다.
 수원다움이라는 것은 효원의 도시,
 성곽도시에서 찾아 볼 수 있지만 수
 원의 실정이 서울의 건축행위를 배끼
 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이 아닌가 싶
 습니다. 유형적인 부분에서 뿐만 아
 니라 무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인사
 동 거리와 같은 분위기를 만들고자
 성내 차량진입을 막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어떤 방
 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야기 나누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민병호 _____ 정조 당시 수원을 만들 때 탈
 서울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원은 그 자체로 탈서울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윤 _____ 수원이 서울 건축의 틀을 벗
 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수원은 팽창을 원하지
 않지만 수도권이 확장되면서 수원이 서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병호 _____ 대전 옆 대덕은 대전과 다르
 고, 서울 옆 과천의 이미지는 분명히 서울과 다릅니다. 수원은
 규모가 크긴 하지만 수원다움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도 성곽이 있고 고궁이 있는 대도시이고 수원도 성곽이 있
 는 도시이고 규모가 큰데 거기서 어떻게 수원다움을 찾을 것인
 가가 탈서울의 이미지로 나타난다고 봅니다.

김동훈 _____ 수원이 양적인 면에서 서울보
 다 우위에 설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서울이 갖고 있지 않
 은 장점을 수원은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유형의 가치
 도 있겠지만 무형의 가치가 더 많고 그러한 강점은 서울이 지니
 지 못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강점을
 막연하게 강조하게 되면 수원의 강점은 그것만으로 결정지어
 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성곽도시와 효원의 도시가 어떻게
 연관지를 수 있는지, 수원갈비가 유명하데 왜 유명한지 근본
 적인 원인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없는데, 이런 식으로 수원하
 면 화성으로 생각하는 것은 너무 막연한 생각입니다. 그렇다
 면 수원이 지니고 있는 강점은 무엇인지 두 가지로 말씀드리

졌습니다.

화성이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나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자면 화성이 지금까지 보존되어왔고 보기에 좋고 아름답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과연 화성이 우리만 보기에 좋은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외국인에게도 과연 화성이 아름답게 보이는가?라는 문제는 짚어보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해진 미적관점 때문에 화성을 아름답게 볼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간과되어서는 안됩니다.

화성이 튼튼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자연을 존중하는 사상, 자연 숭배사상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튼튼하게 만들 수 있었으며 신봉할 정도의 정성을 쏟았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계획자의 의도를 그대로 충실히 실현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방식의 절대권한이 오늘날의 도시계획에 적용될 수 있다면 오늘날에도 화성과 같은 도시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인정신이 화성에 깃들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화성이 지어질 수 있었다고 봅니다.

현재에 와서는 화성을 지키는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존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건축적,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중요한 점은 화성이 기록문화의 결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고증없이 기록에 의해 보존시킬 수 있었던 것은 당시의 모든 건축 상황을 기록한 것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허영록 우리가 어느새 극복해야 할 것에 대해 들어와 있는데 수원이 갖고 있는 강점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없고 수원에만 있는 것을 찾아보니 효, 화성, 갈비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인 화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화성의 강건함이 오늘날까지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밖에도 성이라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안주성, 정주성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수원이 살만한 곳인가? 서울이라는 곳은 살만한 곳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문화적,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수원이 서울보다 강점을 가지게 될 때 수원은 정주성, 살만한 곳으로서 강점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넘어가야 할 것이 건축과 도시의 미래 부분인데 정주하고 싶은 곳, 안주하고 싶은 곳이 수원의 미래이고 수원의 강점, 특수성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도심권, 신도심권의 연계성을 생각하며 이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호 화성은 보면 볼수록 멋있습니다.

다. 보기에도 멋있는 건물은 많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으로 볼 때 화성은 매우 독특합니다. 정조라는 왕도 매우 독특합니다. 우리는 화성에 있어서 핵심적인 정신이 어떤 것이라든가는 대충 알고 있지만 깊이있게 파헤치기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핵심적인 정신을 파헤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로컬리즘(Localism)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서울이 작았을 때는 종묘나 비원이 일상적으로 사용되었지만 도시가 커지면서 종묘, 비원, 고궁은 큰 맘을 먹고 가야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원의 경우에는 스케일이 충분히 로컬리즘(Localism)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지만 코즈모폴리타니즘(Cosmopolitanism)으로 가려는 경향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로컬리즘(Localism)으로 가려면 정신이 표현되는 여러 가지 화성의 유구들이 길기 때문에 접근을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유구들간의 연결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모든 것의 완전한 복원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각 요소요소간의 연결이 필요한데 이것이 도시의 획을 그어 만들고 이곳을 통과하면서 접하게 되는 화성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각 유구들을 연결하는데 필요한 요소는 녹지와 보도입니다. 일상적으로 도시를 느끼려면 보행이 필요한데 보행의 기능이 성곽의 잔해들을 연결시켜주는 것입니다. 보행의 기능이 꼭 전통건축이 보행이라든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도시의 기능이 들어가는데 기존 도시의 기능이 보행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녹지는 보통 연결의 기능으로 이용되는데 녹지가 보행로로 이용되기도 합니다만 수원에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녹지가 매우 적은 실정입니다.

허영록 걸을 수 있는 거리, 쉴 수 있는 거리가 되기 힘든 상황이 된 이유는 교통입니다. 지나친 교통이 걸을 수 있는 곳을 사라지게 하고 있습니다. 화성이 가지는 관광의 목적 때문에 도시를 망가뜨리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테네나 외국의 고도(古都)를 가보더라도 자동차의 도시 내 진입을 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럽이나 외국의 경우 50년대 이후 도시의 형태는 보전적 형태로 도시를 발전시켜 가거나 완전히 새로운 도시로 발전시키는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보전적 형태로 도시를 발전시키는 방식은 과거의 것을 그대로 재현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조물을 보전하고 도로를 보전함으로써 과거의 기분이 그대로 남아있도록 도시를 발전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화성에서 통과교통을 막고 목적교통만 허용시키는 것이 도시내에서 걸을 수 있는 거리, 쉴 수 있는 거리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상윤 _____ 화성내에 보행로를 만들거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단기간에 완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성과 연계된 도심권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입니다. 성곽안의 기존 건축물은 자연적으로 도태되어 새로 건축되어질 것인데 여기에서 건축인의 지혜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행정적으로 어떤 규제가 있을 것인데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신도시에도 공간이 없을 정도로 가득 차 있는데 기능적인 면에서는 많은 향상이 있어왔지만 디자인 측면에서는 아직 많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신도시에서는 심의위원들에 의해 많은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구도심의 경우에는 성곽과 조화를 이루고 연계를 이룰 수 있는 다른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동호 _____ 성곽내에 있는 문제는 1~2년 이내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윤 _____ 매항동, 지동 등의 지역에는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데 작년에 재개발 측면에서 용역을 준 경우가 있는데 그런 방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계기를 통해 새로운 동기부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동호 _____ 그러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법들이 있습니다. 성안의 연계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해 보면 현재 장안문과 팔달문의 문이 항상 닫혀 있는데 왜 닫아놓아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가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팔달문에 걸어 들어가서 실제로 문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며 화성이라는 우리 것을 꺼내는 방법을 찾는 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통의 신시가지에 대한 문제는 너무 좋게 할 수 있는 계획을 실패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의 일부를 남겨두었다면 더 좋은 계획이 나올 수 있었는데 왜 그러지 못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신도시에서도 옛 것을 끌어 들일 수 있는데 화성이 있는 수원에서 그러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한 성안의 문제가 심각한 것은 80년대까지는 원형을 찾아보아 합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상윤 _____ 수원은 문화예술적 측면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수원지역 건축가의 활동영역이 상대적으로 좁지 않나 싶습니다. 신도시 영통도 훨씬 좋은 안이 나올 수 있었지만 지역건축가의 참여가 떨어졌기 때문에 더 좋은 안이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활동영역은 스스로 넓혀가는 것입니다.

허영록 _____ 보존의 문제로 박제된 박물관 형태가 나오는 것은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 그것이 갈 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주거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초등학교가 문을 닫을 일까지 발생했는데 주거지역에서 인구가 빠져나가는 것은 매우 큰 문제입니다.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가까운 곳에 걸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 부각되고 이러한 것이 재해석될 때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고 사람들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안문에 접근할 수 있도록 철교를 놓은 것은 어떤 측면에서 바람직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미적으로 논란의 여지를 남겼지만 성곽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남겼습니다. 만약 그 철교를 옛날성벽의 모양과 똑같이 복원시켜 놓았다면 그것은 가짜이고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철교는 사람들이 장안문에 접근 가능하도록 만들었고 이야기 거리를 만들었기에 하나의 예술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민병호 _____ 도시계획차원에서 구도심내에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도시설계를 다시 하는 것은 힘든 일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커다란 테마를 설정하여 그 테마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토지이용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테마가 될 수 있는 것은 일상적인 접근성, 정주성, 미학적인 해석, 녹지와 보행공간의 조성 등이 테마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고도심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허영록 _____ 교육적, 문화적, 역사적, 경제적인 테마 전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역사적이고 복합적인 테마가 수완다움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민병호 _____ 한꺼번에 생각하려면 정신이 없고 사실적인 문제도 매우 많아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되는 테마가 중요합니다. 서울에 대해서 건축가들을 예를 들어 보면 김석철씨 같은 분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테마를 찾으려고, 탈식민주의이다 역사성이다를 찾으려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강연회에서 테마를 찾는 구체적인 방법들이나 어떻게 디자인이 나 도시 계획 측면에서 확을 그으려고 여러 이야기들을 합니다. 외국 건축가들도 서울에 와서 몇몇을 보고는 딱 잡아냅니다.

최근에 안도 다다오가 와서는 그런 얘기를 하

더군요. 굉장히 감각적이고 조형적인 미학적인 시각에서 봤는데, 종로의 바닥 돌 열기설기 만들어 놓은 보행길에서 미학적인 면을 발견하고는 서울에 배어 있는 전통상이 아닌가라고 이야기 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우리 수원 지역의 건축가 및 전문가들도 그런 테마들을 찾아 다양한 시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요는 그것을 도시계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현실화하느냐에 있습니다. 교통은 어떻게 내고, 건축가 입장에서 어떤 기능의 건물을 어떤 형태로 놓느냐 등 구체적 방안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허영록 _____ 행궁을 복원하는데 용도를 무엇으로 쓸 것이냐 문제가 됩니다. 이전처럼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므로 전시관·박물관 또는 수원의 예술활동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금난새씨 같은 분이 이끄는 예술단체의 연주장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복합적인 장소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훈 _____ 건축과 도시 미래 라는 작은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점점 '화성' 쪽으로 이야기가 모아져서 수원의 전반적이고 지리적인 여건과 군동 발전면에서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은 인위적이든 자연적이든 간에 분명히 세 토막이 나 있습니다. 서부(서수원), 중부(화성 포함된 중심부), 동부(새로 발전하고 있는 동수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부권은 예전에는 굉장히 우수한 시설물들이 잔존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농촌진흥청, 성균관대학교,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금강슬레이트 공장, 선경, 철보산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중부권은 화성과 팔달산이 잔존하고 있고 또한 몇몇 유적물들이 있었습니다. 동부권은 최근에 대학이라든가 문화시설, 청소년 복지센터 등이 많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부 종적으로 모든 것들이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부나 중부나 동부를 연결해서 군동·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거의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통이라든가 동선 체계는 서부나 중부나 동부를 연결할 수 있는 횡적 요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96년도에 장안문에서 남문까지 연결하는 고전적 의미에서의 차량 통행을 제한할 것을 제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무조건 제한한 것이 대중교통수단은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간을 정해서 관리용 차량은 들어가도록 하는 등 적절히 함으로써 사람들은 자연히 많이 모이게 되고 그에 따라 고급 상가들이나 전통성을 지닌 상가들을 유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는 중부권에서 연계성 및 녹지화 보도의 확보를 실현할 수 있

는 하나의 방안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동부권의 경우 경기도 문화예술회관 뒤쪽 공원을 보면 입구가 한 곳에 집중되어 있어 접근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항상 들어가고 싶도록 접근성을 좋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역시 녹지·보도의 연계성과 관련된 것으로 실현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영통 지역은 지대가 매우 낮은 지역이라 장마때의 우수에 대해 매우 취약한 지역이므로 자연을 훼손하지 않은채 유지한다는 것은 곧 물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가능성을 확보하다 보니까 자연이 많이 훼손되게 되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철저히 현대화되고 기계화되어서 고전과 현대의 만남을 분명히 하는 강점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곧 인위적으로 하려면 철저히 현대화하는 편이 나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몇 가지를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해서 화성의 문제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볼 때, 동수원·서수원·중부권이 균등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횡적인 요소의 동선 체계가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원에 새로 짓게 될 민자 역사 역시도 그것이 매개체가 되어 동서로 횡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동선 체계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원성을 기점으로 한 문화 엑스포를 열어서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도록 하는 것도 좋으리라고 봅니다.

관광 경제적·지역적인 측면에서 볼 때 당장 실현 가능성이 있으리라 생각되는 것은 장안문에서 팔달문까지의 교통량을 종류를 구분해서 Free Bus가 다니도록 한다면 자전거,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어디서든지 수원성이나 공원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수원 건축의 미래는 밝아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허영록 _____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께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돌아가면서 각자의 의견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호 _____ 관광과 관련해서 아이디어를 하나 제시한다면, 이미지를 개발하여 화성을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쟁력을 갖추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무기를 만들어내야 되느냐의 문제에서 출발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윤 _____ 수원의 건축수준을 한단계 높으려면 다른 분야에 있는 분들도 인식을 같이 해야 합니다.

민병호 _____ 언젠가 수원에 관한 지도를 구해서 지도를 바라보다가 막연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지도를 가만히 놓고 보니까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고 해야 될 일들이 많은 것 같고 참 재미있었습니다.

부석사에 가거나 또는 그리 색 잘 계획된 것 같지 않은 분당에 가더라도 재미있고 기분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고 잘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은 통과 도시이기 때문에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수원은 정조 때문에 재미있으며, 여러 정신과 화성이라는 유구가 어우러져 멋있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종적으로 곧 역사적으로 수원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는지를 알아야 하며, 횡적으로는 전체적인 맥락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 도시 계획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의 문제는 종적·횡적 맥락을 알고 각각 나름의 지켜야 할 정신에 따라 해석 적용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술가대로 문학가대로 건축가대로 테마를 잡아 실행해 나가다보면 결국 하나로 보이라 봅니다.

최동호 _____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화성이 지닌 전통의 의미나 개념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한국의 전통건축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통건축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만이 가지고 있는 공간 개념, 그것을 쉽게 접근하자면 한옥에서 마당을 들 수 있습니다. 마당이라는 개념은 많이 이야기되고 있지만 세부적인 디테일은 잘 모릅니다.



마당이 좋다는 것은 마당과 대청마루, 정원과 후원이 연결되는 부분이 터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화성에도 과연 이런 부분이 있느냐는 것인데, 화성에도 이러한 아기자기한 공간들이 유난히 많습니다. 디테일에 대해 접근을 하면 그러한 공간성에 대한 것을 찾아서 그것을 현대적으로 계승하는 방법은 형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내용을 현대 건축이 지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화성이라는 고전의 텍스트 자체는 우리에게 커다란 힘을 줍니다.

민병호 _____ 건축가들은 건축가의 시각으로 화성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이냐 대해 많은 노력을 해야겠고 마당도 그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김동훈 _____ 저는 수원 건축가들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화성과 주변 유구들을 연계한 테마 기행을 만들거나, 수원의 유산이나 풍물 등을 지키는데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되겠고, 효도 가르치기에 대한 것 등에 대한 제안을 통해 수원을 발전·계승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수원이라는 무언가가 배어나오는 향토 건축가로서 성장하고 싶습니다.

화성이 가진 유형의 디자인 언어라든가 화성이 가지고 있는 무형의 체현, 감성적인 부분을 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가로서의 역할은 스스로 노력해서 남들에게 인정받도록 실력키우고 잘못된 것은 반성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윤 _____ 제도적인 보완을 하면서 수원 건축이 향후에 전국 타지역보다 월등하다든지 감각있다는 것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허영록 _____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 같은요. 이것은 사실 시작이라고 봅니다. 지금 배우고 있는 학생들은 우리의 아주 가까운 미래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타대학과도 연계해서 학생들과 밖에서 공동으로 수업을 하는 등 학교, 교수 및 학생들이 어우러질 수 있는 공동의 장을 만들어, 수원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데 또 하나의 방법으로 실행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테마(Theme)”를 중심으로 한 헐리웃의 오락건축산업

Entertainment Architecture Industry of Hollywood with Specialized Themes

박태형 / 재미건축가, First Enterprise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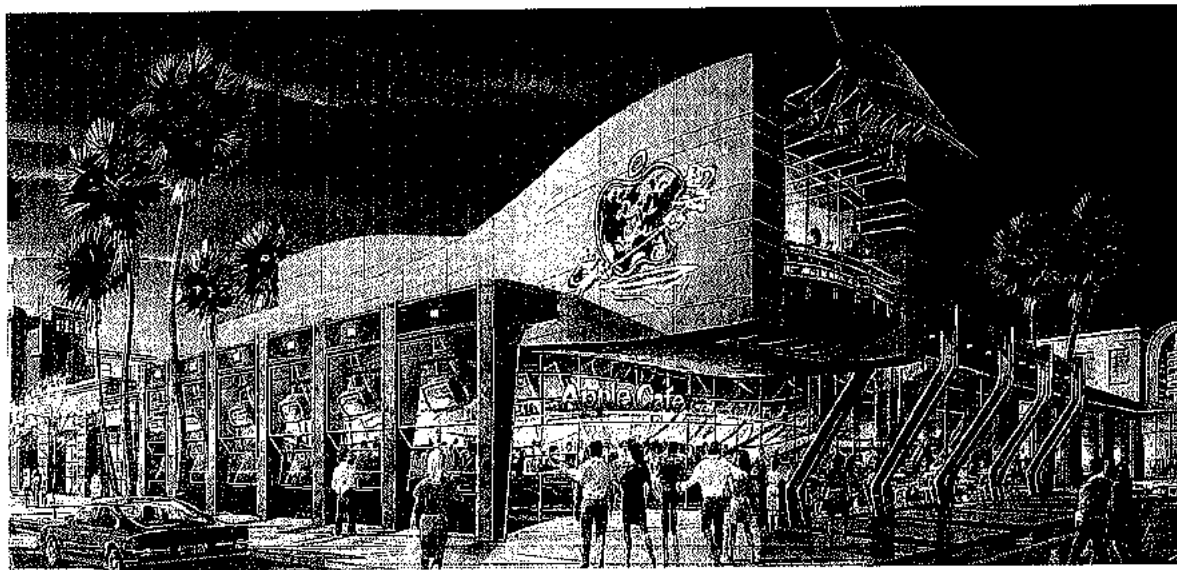
by Arthur T. Park

21세기의 신종 건축설계 및 건축업분야로서 헐리웃에서 새로이 각광을 받으면서 등장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테마를 중심으로 한 오락건축산업이다. 매년 각종 영화, 텔레비전방송, 만화, 비디오 게임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헐리웃에서는 새로운 영화, 방송, 만화 주인공들 뿐만 아니라 각종의 아이디어들이 동원된 영화세트들이 양산되고 있다. 헐리웃은 단지 1회성 제작에 이들 아이디어들을 사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 히트친 아이디어들을 그대로 오락사업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 즉 테마공원, 테마식당 등을 만들어 두고두고 히트친 영화, 만화의 아이디어들을 일반 대중들이 즐길 수 있게 만들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 오락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해준 것이 바로 헐리웃의 오락건축분야이다.

이를 바탕으로 헐리웃의 건축업계는 지금까지 미전역뿐 아니라, 전세계에 걸쳐 전문적으로 “테마공원”들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디자인 컨설팅부터 설계, 실제 건축 및 관리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패키지 서비스를 해주고 있다.

테마공원

미국의 경우, 1950년대전까지만 해도 서커스를 비롯하여 마을 카니발형태의 오락공원(Amusement Park)이 주종을 이루었지만, 50년대부터 디즈니랜드의 등장으로 새로운 테마공원의 수가 급속한 증가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 테마공원은 오락, 관광, 대중유희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추고 입장수입과 더불어, 각종 판매수입을 극대화시키도록 오락시설물과 기념품 및 음식 판매대를 갖추고 있으며, 공원내의 모든 시설물들이 특정의 테마를 연상시킬 수 있도록 이미지 구성을 하고 있다는 특징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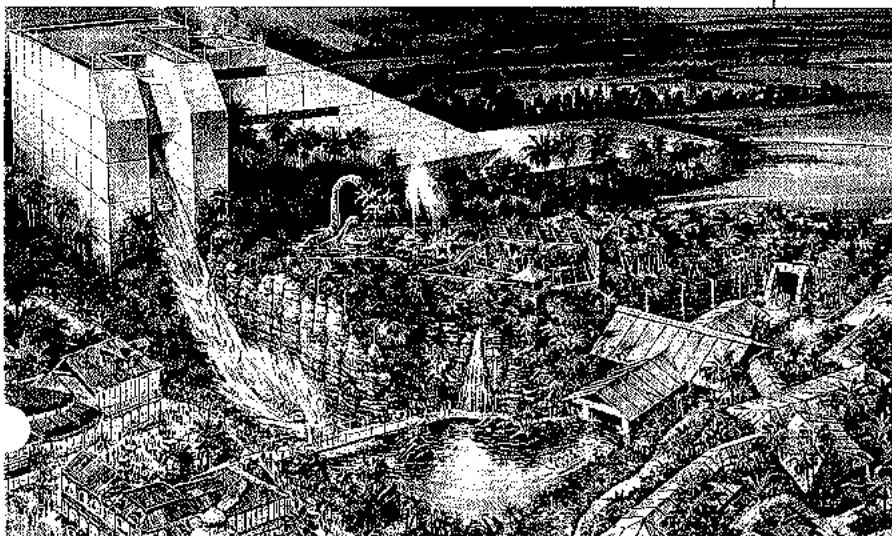
테마 레스토랑「Apple Cafe」

갖고 있다. 미국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테마공원은 언제든지 방문하여 즐길 수 있는 마을 오락공원이 아니라 가족들이 휴가를 즐기 위하여 일년 내내 준비를 하고서 며칠 동안 내려오는 그런 휴가 놀이 장소로 인식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테마공원은 휴가철 관광객들이 머물 수 있는 각종 부대시설들이 같이 위치하게 된다. 호텔, 쇼핑몰, 음식점, 파킹장, 카지노, 골프코스 등이 같이 위치하게 되므로 점점 더 대형화되고, 도시전체의 취업자들의 구성을 바꾸고, 도시전체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테마공원의 디자이너들은 한정된 공간에서 각종 오락 시설물들을 배치하여야 하는데 특히 오락시설들간의 이동거리 마다 이용객들이 쇼핑을 하고 음식을 사먹을 수 있도록 공간배치 구성을 합리화함으로써 공원측에 판매수입 극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대의 관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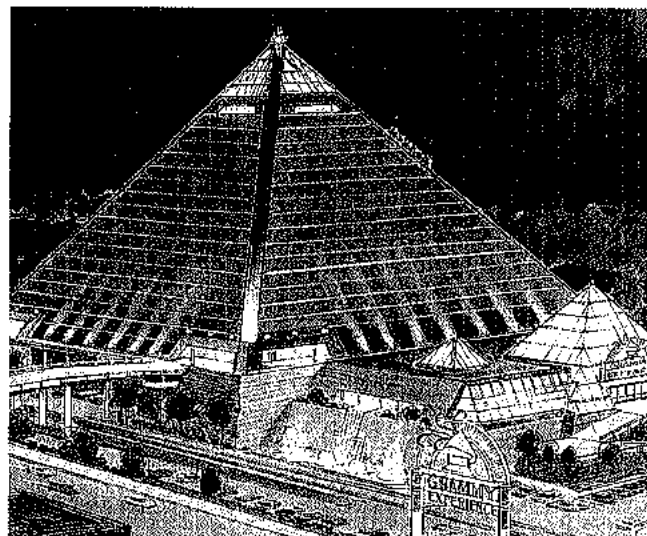
한 통계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에는 약 7백 개 이상의 테마공원이 있으며 매년 2억5천만명 이상의 입장객들이 찾아들어 60억달러의 돈을 쓰고 있다. 체인화된 대형 테마공원들은 디즈니랜드, 엔호이저부쉬, 타임워너사, 파라마운트사(비아콤), MCA사와 같은 5개의 주요 대기업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 5개사는 북미에 총 24개의 테마공원을 갖고 있는데, 한 통계에 따르면 이들 5개사가 매년 동원하는 입장객 수는 1억2백만 이상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어 총 테마공원 방문객 수의 거의 40% 정도를 주요 대형 테마공원사들이 차지하고 있다. 디즈니사의 경우 4천2백만 이상의 입장객들을 동원하고 있고, 엔호이저부쉬사의 경우 미국내 10개의 테마공원에서 매년 2천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여 두 번째로 가장 큰 테마공원사업을 하고 있다.

과거의 미국의 오락공원들이 도시의 하층계층을 겨냥하였다면 이 테마공원들은 도시 중산계층의 증가한 소득을 타겟으로 하여 이들의 소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상품이다. 테마공원은 미국식 상업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최고의 상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테마공원의 대형화와 첨단화는 이제 21세기를 맞아 더욱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특히 멀티미디어 기술의 보편화로 테마공원이 방문객들에게 전달하여 줄 수 있는 오락적인 소재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으며, 그 전달 기술 역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지켜지고 있는 테마공원의 주요 디자인 요소는 공간내에 방문객들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테마공원내의 각종 이벤트, 공연, 타고 노는 놀이시설을 배치하는데 있으며, 이들 시설의 배치들이 특정의 테마를 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미국의 테마공원은 현재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다. 전 세계의 공원중에서 2백만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는 오락공원은 모두 50개 정도가 있는데 이중에 24개가 미국, 캐나다에 위치하고 있고, 15개가 아시아에, 9개가 유럽, 2개가 중남미에 위치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미국 및 외국자본과 합작하여 미국식 테마공원의 수출에 전력하고 있다. 2001년까지 MCA는 오사카에 10억~20억달러 규모의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건립할 예정이다. 10년내로 7개의 썬사미 스트리트 플레이스가 일본내에 건축될 예정이며, 캘리포니아의 아이웍사의 경우 일본의 이토구사와 "시내트ropolis"라는 영화 테마공원을 일본에 5곳, 다른 아시아국가에 25곳 건립할 예정이다. 비디오 게임사인 세가의 경우 요코하마와 오사카 동지에 "인터



테마공원(모든 시설물들이 특정의 테마를 연상시킬 수 있도록 이미지 구성을 하고 있다.)



Grammy Expo

액티브 테마공원"을 세우고 50개 지역에 이 테마공원을 추가 건축한다는 계획을 추진중이다.

이와 같은 전 세계적인 테마공원 조성붐은 아시아에 있어서 일본에 국한되고 있지 않다. 씬씨내티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테마공원사의 경우 일본 건축회사를 도와 북경오락공원과 나인 드래곤공원의 건축에 참여하였다. 또한 유니버살스튜디오의 경우 중국 북경의 헨더슨 센터내에 미 로스엔젤레스의 유니버살스튜디오를 본뜬 2만 스퀘어피트의 2층상가를 홍콩의 헨더슨사와 함께 조성할 계획을 98년 3월 발표하였다.

중국광저우의 경우 5개 대륙의 특징을 담은 "지구" 테마의 공원을 조성하려는 계획을 추진중이다. 60만 스퀘어미터 규모의 이 공원에서는 아마존 정글, 온천, 에베레스트산, 일본식 정원, 미국의 사막을 함께 볼 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다.

방콕에서는 7천5백만달러 규모의 "지중해" 테마공원이 미국과 유럽의 투자사에 의해 진행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에서는 2억달러 규모의 사마월드 리조트가 건축되고 있다.

필리핀에서는 마닐라 인근 50마일지역의 1천 8백만인구를 끌어들이 수 있는 테마공원이 미국회사에 의해 건축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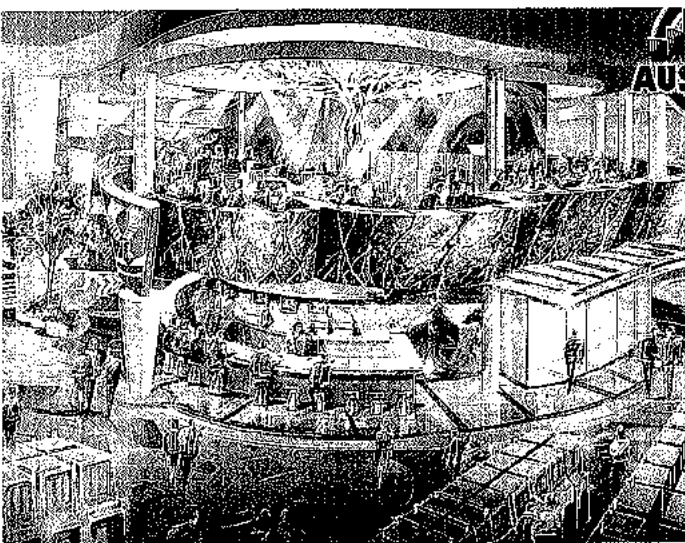
이와 같은 테마공원 조성붐은 빙산의 일각이다. 비록 IMF로 인하여 타격을 받기는 하였지만 아시아에 있어서 미국이 주도하는 테마공원 조성붐은 계속될 것이며 이는 어쩌면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서유럽의 경우, 프랑스에 이미 유로 디즈니랜드가 설립되었고, 타임워너사는 1996년에 영화제작사와 테마공원을 결합한 형태의 "무비월드"를 독일의 뒤셀도르프에 개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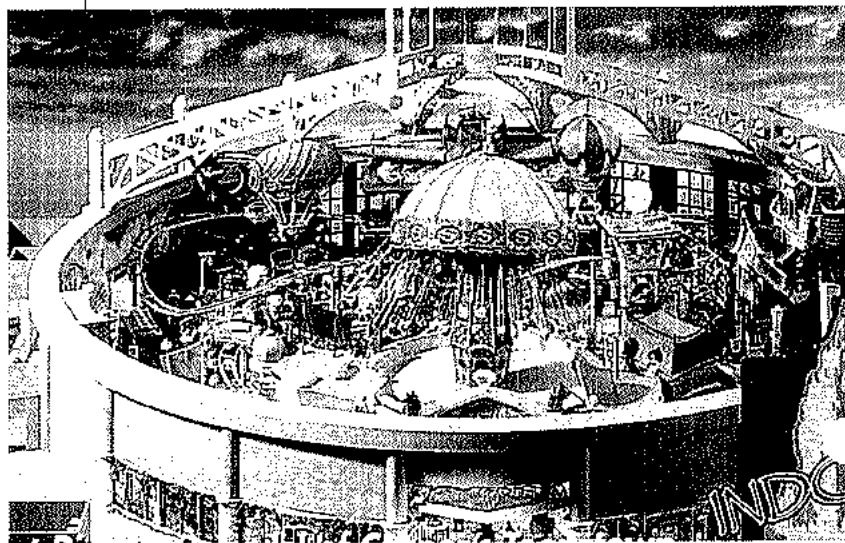
타임워너사가 이 곳에 부지를 선택한 이유는 약 100마일 인근 지역에 2천3백만이라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이다. 유럽의 여러 지역에서는 문화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헐리웃 영화가 이미 길을 닦아 놓은 자리위에 미국식의 테마공원이 손쉽게 더욱 자리를 잡아 나가고 있다.

이미 한국에도 진출한 헐리웃의 랜드마크사의 경우, 대전 엑스포에 스타퀘스트 파빌리온을 선보였고, 경주의 오락단지 조성사업에도 이미 1단계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지만 IMF로 인하여 현재 추가사업진행이 보류된 상태이다. 랜드마크사의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미국내의 경우, 유니버살스튜디오의 주리식파, 라스베가스 시저스 호텔, 캔사스시티의 오즈 마법사공원, 플로리다 유니버살스튜디오의 터미네이터, 고스트버스트 등이 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태국,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그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테마공원 설계 및 건축회사들이 취급하는 업무들은 실로 복잡 다양하다. 이 회사들이 제공하는 첫 번째 서비스는 건축사, 디자이너, 조경사들이 함께 참여하여 만든 마스터플랜의 제공이다. 동원 관중의 규모, 설치시설들의 규모, 타고 노는 시설들의 수용능력, 매점 및 기념품점 등의 규모에 대한 종합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마스터플랜을 마련한다. 이 작업이 끝난 후 일러스트레이터들에 의한 모형이 제



Sydney Harbour Casino's
Lightning Ridge Bar and Cafe(호주)



Casper's Toontown(인도네시아)

공되며, 각 테마공원의 시설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주요 테마의 설정과 이에 따른 외장공사의 이미지 구성이 다르다. 이와 같은 회사들은 테마공원의 설계에만 그치지 않고 소구성, 로고선정 등과 같은 건축의적인 요소들에 대한 자문을 해주고, 특수 효과 등과 같은 헐리웃 영화제작기술의 활용지원도 해주고 있다. 따라서 다가올 21세기에 미국회사들은 그 동안 미국내에서 쌓아온 테마공원 건축 노하우와 전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헐리웃 대중문화를 바탕으로 세계시장에서 오락건축산업을 더욱더 주도하여 나갈 것이다. 이 고부가가치의 테마공원 건축 붐은 아직까지 헐리웃식 자본주의의 대중소비문화에 깊이 접하지 못하였던, 중국, 동구권 등과 아프리카, 중남미 등의 소비자층을 대상으로 더욱 확대되어 나갈 전망이다.

테마 레스토랑

새로이 각광을 받으며 등장하고 있는 테마 레스토랑은 흔히 알려진 '영화배우'를 주요 테마로 한 플래닛 헐리우드, '하드 록'을 주제로 한 하드록 카페외에도 '환경'을 주제로 하여 97년 문을 연 레인포리스트 카페가 있는 가하면 미프로농구협회와 미식축구협회가 건축 계획중인 '스포츠'를 주요 테마로 한 전문체인 레스토랑들이 있다. 이 레스토랑에서는 식사를 하면서 기념품도 사고 직접 농구 및 미식축구를 즐길 수 있게 내부장식을 만들 계획이다. 단순히 미식축구나 프로농구를 식당의 대형화면을 통하여 지켜보면서 식사를 즐기던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레스토랑과 경기장을 직접 연결시켜 놓으려 하고 있다. 또한 김슨 유적사가 네슈빌에 처음으로 세운 음악박물관식 카페 역시 미 음악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 '음악'을 주요 테마로 한 것이다. 김슨사는 이를 체인점화하는 것을 구상중이다. 이와 같은 테마 오락식당들은 건축설계, 내외장 디자인, 조경 등이 하나의 정해진 주제를 최대로 표현하도록 이루어져 있으며, 단순히 음식을 먹는 식당의 개념을 떠나, 쇼핑을 하고 오락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다.

이와 같은 테마식당들은 관광객들이 크게 몰리는 라스베이거스를 비롯하여 올란드 플로리다에서는 오래전서부터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지만, 관광명소뿐 아니라 미전역의 소비자층을 상대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새로운 추세인 것이다. 일면에서는 테마 식당들의 확대가 성공 여부가 불분명해 위협스럽다고 진단하고 있다. 그 이유는 테마 레스토랑은 한 번 가서 불만한 장소로 그치고 다시 찾아가게 만드는 유인 요소가 없다는 점이다. 레스토랑의 속성상 계속적으로 손님들이 식사를 하러 오게 만들어야 하는데 한 번 테마레스토랑을

찾은 손님들이 또다시 이 테마레스토랑을 찾게 만들만큼 강력한 유인요소가 테마 레스토랑에 있는지에 대하여 회의적으로 보는 견해다.

테마 레스토랑들의 영업결과는 가까운 미래에 결론이 나겠지만 현재 미국에서는 체인점으로 운영되는 테마 레스토랑을 건립하려는 여건 및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테마 레스토랑은 건축비 자체도 기존의 레스토랑 건축에 드는 비용을 훨씬 상회한다. 예를 들어 레인포리스트 카페의 경우 6백만달러 이상을 투자하였으며, 오그덴 엔터테인먼트사가 건축준비 중인 라이브 오락과 더불어 영화 클립을 동시에 보여주는 디너극장은 약 1천5백만달러의 건축비가 예상되고 있다. 하드록 카페는 26년동안 한 테마를 주제로 한 레스토랑을 성공적으로 운영한데 기반을 두고 작년 라스베이거스에 호텔을 새로 여는 등 팔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하였다. 특히 9천만달러를 투자하여 현재 미프로농구협회를 위한 음식체인점을 올란도와 로스앤젤레스 등의 미국내뿐 아니라 10여개 이상의 해외 체인점을 열 계획이다.

미식축구협회 역시 4만 스퀘어피트의 테마 음식점을 뉴욕, 로스앤젤레스 등지에 개장하려 하고 있다. 스포츠 테마 레스토랑은 미식축구협회와 미프로농구협회가 갖고 있는 유명선수들의 경기모습뿐 아니라 인터뷰를 늘 방영하므로 스포츠팬들을 즐겁게 하여 주게 만들어 질 계획이다. 미프로농구협회의 경우 대체로 레스토랑에 추가로 오락 및 쇼핑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더하는 사업으로써 신규투자를 내다보고 있는데 반하여 미식축구협회의 경우는 레스토랑개념을 파괴하고 미식축구경기장처럼 느껴지도록 내외의 디자인을 만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테마공원, 테마 레스토랑의 성공은 보편화되고 있는 미국 대중문화의 힘을 바탕으로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고 미국식 테마공원, 식당이 전세계적인 세계문화의 일환이 되고 미국 건축설계 기업들만이 이 과정에서 이득을 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단견이다. 오히려 이와 같은 새로운 건설분야의 등장과 함께 한국의 건축계가 할 일은 이에 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과 준비를 하는데 있다. 왜냐하면 각 국가들이 모두 각기 다른 문화유산울 갖고, 자기 나라 나름대로의 테마를 갖고 있어 이와 같은 테마를 개발하고 그간 쌓아온 건축기술을 잘 응용할 수만 있다면 해당국가의 오락산업과 문화에 어필할 수 있고 아이디어 경쟁에서 얼마든지 승산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 <http://www.1stent-const.com>, e-mail: park @ 1stent-const.com

건축의 개방형시스템을 위한 표준화(2)

The Standardization for Open System Building

국제화에 대응한 표준화의 개념 및 역할

박준영 /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 표준화팀장, 건축사
by Park Joon-Young

이번 글은 총 4회에 걸쳐 연재될 「건축의 개방형시스템을 위한 표준화」 가운데서 제2회에 해당한다. 특히 ISO 및 국내외 표준화 추진현황의 종합결과를 바탕으로 「국제화에 대응한 표준화의 개념 및 역할」을 제시함으로써 표준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힘과 동시에 향후 건축사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코자 하였다. <편집자 주>

1. 개요

국내 건설시장 개방과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표준화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를 통한 실질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추진되고 있으나 표준화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체계 정립이나 대중화(홍보 및 교육 등)작업 등이 미흡하여 그 추진상에 많은 부조화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제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써 ISO의 표준화 추진현황 - 일반현황 및 조직구성, 건축관련 현황, 모듈치수정합 관련 현황, 기타 현황 등 - 과 각국의 표준화 관련 추진현황을 종합하여 소개하였으며, 국내 표준화의 추진현황은 관련법, 제도, 규격(KS) 등을 중심으로 종합하였다. 또한 ISO 및 국내외 표준화 추진현황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상호 연계시켰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제화에 대응한 표준화의 개념 및 역할을 제시함으로써 표준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힘과 동시에 향후 표준화의 효율적 추진을 적극적으로 도모코자 하였다.

2. ISO 및 해외의 표준화 추진현황

가. ISO(국제표준화기구)

1) 일반현황 및 조직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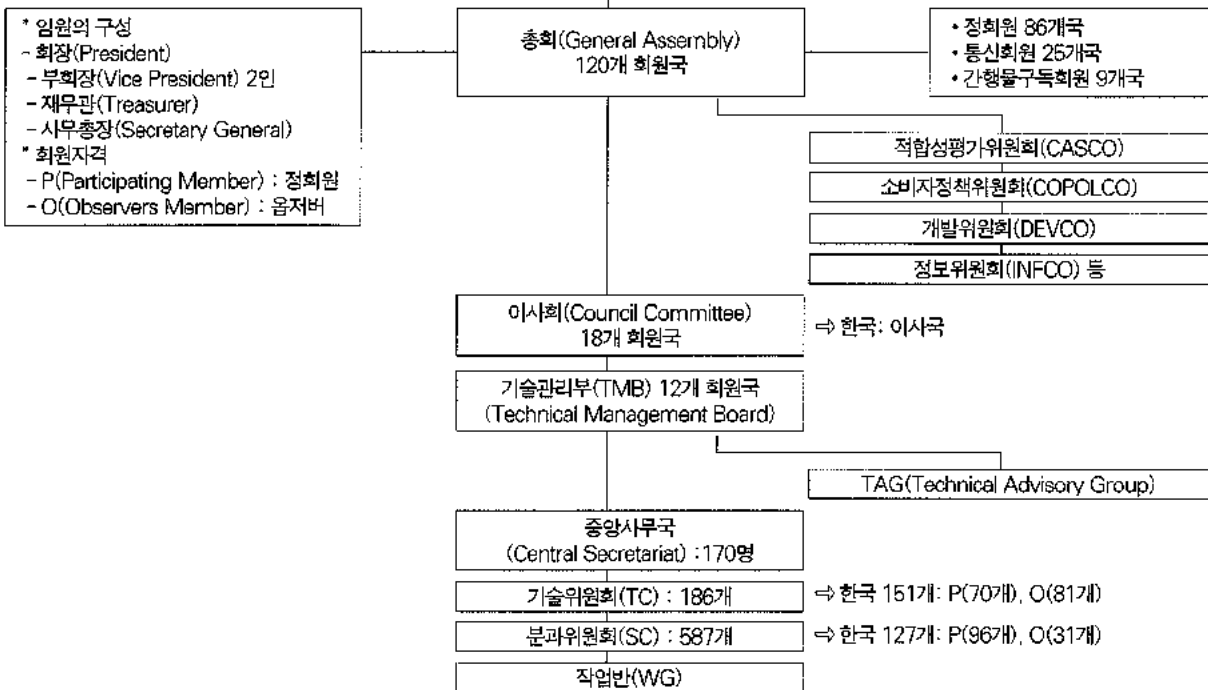
1906년에 전기분야의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창설된 이후 이 분야를 제외한 전 산업분야에 대한 국제규격의 제정·보급, 국제적 표준화 협력과 이해 촉진을 통한 세계무역의 조화 등을 목적으로 1926년 만국규격통일협회(ISA, International Federation of the National Standardizing Associations)가 창설되었다. 그러나 1942년 ISA의 공식적인 활동 중단으로 1946년 유엔규격조정위원회(UNSCC)에서는 공업규격의 국제적 통일과 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를 창설 1947년 2월 23일 정식 발족하였다. <표1>은 ISO의 전체 조직구성 현황(98년 4월 기준)을 간략하게 종합하여 정리한 것이다.

2) 건축 관련 ISO 현황

ISO는 기술관리부(TMB) 산하에 기술자문그룹(TAG: Technical Advisory Group)을 4개 운영하고 있다. 이들 중 건축분야의 기술자문그룹은 TAG 8(건축분야)로 총 25개의 건축관련 기술위원회(TC)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들 기술위원회 중에서 건축 표준화를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기술위원회는 TC59(Building Construction)이다. 현재 TC59는 건축물의 모듈치수정합과 부품화를 바탕으로 한 공업화건축(Open System) 개발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TC59는 1949년 1차 회의(파리), 1957년 2차 회의(파리), 1961년 3차 회의(헬싱키), 1963년 4차 회의(파리) 등을 기반으로 하여 건축물의 모듈정합과 부품화에 관한 개

1) 본 내용을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 「건축의 개방형시스템 구축을 위한 표준화의 종합구성체계의 모듈정합 설계방법에 관한 연구, 단국대, 1997」에서 부분적으로 발췌하여 재구성하였다

〈표1〉 ISO의 전체 조직구성 현황(98년 4월 기준)



발 노력을 추진하였다. 또한 초기에는 4개의 분과위원회²⁾를 구성 운영하였으나, 98년을 기준으로 할 때 〈표2〉와 같이 10개의 분과위원회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였다. 특히 53년 5월 유럽경제협력기구(OEEC) 산하 유럽생 산성본부(EPA)에서 모듈정합에 관한 연구활동을 추진하던 전 문가와 60년 국제모듈그룹(IMG, International Modular

〈표2〉 ISO의 건축관련 분과위원회 현황(98년 기준)

구 분	위 원 회 명	주 요 업 무	한국
TC59	건 축	건축용어, 건축공정상 정보조직, 모듈정합 건축부품의 성능요건, 건축 일반규칙 등에 관한 국제규격 제정	P
SC 1	치수정합	모듈치수의 국제규격 제정	P
SC 2	용어 및 언어의 조화	용어 및 언어조화에 관한 국제규격 제정	P
SC 3	건축물의 기능, 사용자 요건과 성능	건물설계시 기능·기후·성능 및 바닥재 관련 국제규격 제정	O
SC 4	치수의 허용오차 및 측정	건축물 측정절차, 정밀도 조정, 변형에 관한 국제규격 제정	P
SC 6	구조, 외장, 내부분할 - 접합부 -	구조, 외장, 내부 등의 접합부에 관한 국제규격 제정	non
SC 8	접합용품	운동량·내구성·물 저장 측정에 관한 국제규격 제정	O
SC11	주방기기	주방기기 관련 국제규격 제정	O
SC13	설계·제작 및 건축공정상의 정보조직	건축산업에 관한 정보분류·용어관련 국제규격 제정	P
SC14	설계수명	"Design Life"에 관한 국제규격 제정	P
SC15	병합 분리형 단위세대 주거의 성능표준	병합분리형 단위세대 주거의 성능 표준에 관한 국제규격 제정	P

* TC59(Building Construction): 建築構造, 建築構造物, 建設이라고도 함.

3) 모듈치수정합 관련 SC 1 추진현황

TC59 산하 분과위원회(SC) 가운데서 치수 표준화를 담당하고 있는 SC 1(Dimensional Coordination) 은 TC59 1차 회의(1949년)때 신설되었다. 57년에는 1차 회의(파리)를 개최하여 "모듈정합(MC)에 관한 일반정의, 목적, 기본모듈(1M=100mm)" 등을 채택함과 동시에 작업반 (WG)으로 WG 1(MC용어), WG 2(MC의 한계와 문제점), WG 3(건축요소의 치수선택 방법) 등을 신설하였다. 60년 2 차 회의(브뤼셀)에서는 WG 4(MC의 이론적 연구)를 신설하

Group)에서 활동하던 전문가 대부분이 WG 4의 구성원으로 참여함으로써 건축물의 모듈치수체계 및 모듈정합설계 등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활동은 유럽을 중심으로 한 ISO/TC59/ SC 1과 국제모듈그룹(IMG) 상호간의 유기적인 공조하에 주 도적으로 추진되었다. 또한 국제모듈그룹(IMG)은 그 후 CIB W24³⁾로 계승되어 현재까지 활발한 연구활동을 추진하고 있

2)4개 분과위원회(SC) : SC 1(Modular Coordination), SC 2(건축 구성요소와 설계), SC 3(건축의 기술적 제도법), SC 4(건축의 허용차 및 정밀도)등을 의미함(1961년 기준)
3) CIB W24 : Conseil International du bâtiment Working Commission24 "Open Industrialization in Building"

〈표3〉 ISO의 기술위원회중 건축관련 위원회(TC)

TC		TC		TC	
10	기술도면, 제품 정의 및 문서작성(건축제도)	92	화재안전	167	철강 및 알루미늄 구조물
17	강(철근 및 PS콘크리트)	98	건축구조설계기준	176	품질경영 및 품질보증(ISO 9000시리즈)
21	방재 및 소화설비	99	목재 반제품	178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승객운송기
43	음향	116	난방기구	179	석조
55	제재 및 제재용 목재	135	비파괴검사	189	세라믹타일
71	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PS콘크리트	136	가구	195	건축기계류 및 장비
74	시멘트 및 석회	160	건물용 유리	205	건물환경설계
77	섬유보강 시멘트 제품	162	문 및 창	207	환경경영(ISO 14000시리즈)
89	목재판	163	단열재		

다. 연구개발 방향에 있어서는 50~70년대 주류를 이룬 대량 생산방식의 공업화건축(일명 Closed System)에서 90년대 부터 세계 건설시장이 확대됨과 동시에 다품종 소량생산 시대가 도래됨에 따라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공업화건축(일명 Open System)으로 전환하여 심층적인 연구·개발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4) 기타 현황

ISO의 기술위원회(TC) 가운데서 TC59(Building Construction) 이외에 건축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기술위원회(TC)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위 〈표3〉과 같다.

나. 각국의 표준화 관련 추진현황

현재 표준화는 민간주도형, 정부주도형, 민간 혼합형 등의 3가지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러시아 및 동유럽과 같이 공간권 영향을 받은 나라는 주로 정부주도형의 방법을 보이며, 그 밖의 나라들은 민간주도형 또는 민간혼합형이 대부분이다. 특히 미국은 자율경제제형이라는 특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율경제시장에 따른 결과라고 판단된다. 네덜란드는 SAR(Stichting Architekten Research, 1968)의 개념을 기본요소로 한 건축물의 오픈부품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86년에 표준화 관련 국가규격인 NEN 6000 (Modular Coordination for Building)을 ISO와의 유기적인 연계성 확보를 근간으로 재정립하였으며, 현재 실질적인 활용을 적극 도모하고 있는 단계이다. 영국은 86년에 ISO와의 연계성 확보를 바탕으로 표준화 관련 ISO규격 9종과 영국규격 5종을 BS 6750(Modular Coordination in Building)으로 재구성하여 적극적인 활용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표준화에 대한 축적된 이론적 배경과 다양한 연구·기술력 등을 바탕으로 치수표준화를 포함하여 성능표준화 분야에서도 점차 그 영향력을 증대하고 있는 단계이다. 프랑스는 42년 NF P 01-001에서 기본모듈로서 1M을 10cm로 규정함으로써 유럽에서 최초로 MC에 대하여 규정한 나라이다. 또한 GERIA⁴⁾와 "ACC (Association Composants pour la Construction) Dimensional Rules", 그리고 "G5 시스템"이라는 PC제품을 주 대상으로 한 설계프로그램 등을 개발·적용하고 있다. 따라

서 프랑스의 표준화는 건축구성재의 부품화와 공업화로 축약할 수 있다. 미국은 현재 미터와 인치단위가 혼용되는 이원화된 치수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A 62.1에서는 기본모듈을 4인치로 규정하고 있어서 치수표준화보다는 성능표준화 분야에서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은 미국과 유사하게 치수표준화 분야에서는 국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성능표준화 분야에서 미국, 호주, 영국과의 유기적인 공조하에 적극적인 참여를 추진하고 있는 단계이다.

3. 국내 표준화 추진현황

가. 표준화 관련법 및 제도현황

표준화 관련법은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건축사법, 건설기술관리법, 산업표준화법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표준화와 관련하여 관련법에서 직·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건축법 제21조에서는 규격자재의 사용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다. 주택건설촉진법에서는 치수 및 기준척도, 마감재료, 자재품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건축사법에서는 표준설계도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두어 표준화설계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을 유도하고 있다. 건설기술관리법에서는 건설표준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건설교통부에서는 MC(안목치수)설계기법을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에 반영(97년 1월 건설교통부고시 제1997-9호)하여 97년 6월부터 범국가적 차원에서 벽식공동주택의 설계시 MC(안목치수)설계기법을 활용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라엔조 및 철골조 공동주택에 관한 MC설계기법 개발과 실용화도 추진될 예정이다. 공공건축물 - 우체국·전화국·학교·경찰서(파출소)·지자체청사 등 - 의 경우에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이 제정·고시(97년 12월)됨에 따라 98년 9월부터 범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설계방법이 범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현재 대규모 산업시설물의

4) GERIA : Group d'Etudes et de Recherches Industrie et Architecture로서 건축가들 중심으로 표준화를 추진한 단체

MC설계기법에 관한 개발도 추진되고 있다. 또한 MC(안목치수)설계기법에 따라 설계되는 벽식공동주택의 시공표준화를 위하여 범국가적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표준화 시공지침서”가 개발되고 있으며, 공공건축물의 “표준화 시공지침서”도 향후 개발될 예정이다. 국립기술품질원(구 공업진흥청)에서는 표준화 대상자재를 단계별로 선정하여 KS로 정비하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 의무화 품목’과 연계 시킴으로써 표준화된 자재의 사용 의무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표준화된 자재생산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자재를 생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국민주택기금 및 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금을 보조하는 등 자재생산업체에 대한 지원도 점진적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국립기술품질원에서는 “신수요 건자재의 연차별 KS 제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이를 바탕으로 신수요 건자재를 발굴하여 규격화하는 작업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

나. 표준화 관련 KS 구성체계 및 보유현황

한국산업규격(KS)의 구성체계는 일반적으로 관련분야에 따라 15개부문(건축·토목의 경우에는 KS F로 분류하고 있음)으로 구분되며, 규격특성에 따라 제품규격, 전달규격, 방법규격 등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97년말을 기준으로 할 때, 전체 KS 보유현황은 9,867종이다. 그 중 건설관련 KS는 933종이며 제품규격 584종과 전달·방법규격 349종으로 구분된다. 특히 건설관련 KS 933종 가운데서 모듈치수정합(Modular Dimensional Coordination)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KS는 147종으로 기본규격 6종, 표준모듈호칭치수규격 6종, 제품규격 135종으로 구분된다. 제품규격은 벽재(4종), 지류(4종), 바닥재(13종), 지붕재(11종), 창호재(22종), 패널류(12종), 공간재(8종), 보드류(29종), 조적재(21종), 단열보온재(11종) 등으로 구분된다. 표준모듈호칭치수규격은 기본규격과 제품규격 사이에서 모듈치수를 바탕으로 설계와 건축구성재를 상호 유기적으로 정합시킴과 동시에 건축의 부품화 및 표준화를 유도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이론적인 모듈치수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적극적인 활용이 미흡한 실정이다. 제품규격은 건축 관련 신소재, 신기술 등이 개발됨에 따라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 예상되며, 건축의 부품화, 표준화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규격이다. 기본규격은 표준모듈호칭치수규격, 제품규격 등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듈치수정합체계, 모듈정합원칙·기준·기법 등에 관한 규정으로 건축의 부품화, 표준화 추진시 기준이 되는 규격이다. 특히 표준화설계에 관한 국가기준으로 현재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 공공건축물의 표준화 설계방법은 KS 기본규격(6종)을 바탕으로 정비된 것이며, 향후 KS 기본규격은 일반건축물의 표준화설

계방법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4. 표준화의 개념 및 역할

가. 표준화의 개념

1) 광의적 의미의 개념

표준화란 관계자 상호간의 이익 또는 편리가 공정하게 얻어질 수 있도록 관련된 물체, 성능, 능력, 배치, 상태, 동작, 순서, 방법, 절차, 책임, 의무, 권한, 사고방식, 개념 등에 대하여 통일화나 단순화를 기본으로 한 표준(Standards)을 설정하고 이것을 활용하는 조직적 행위를 말한다.

2) 협의적 의미의 개념

건축분야를 중심으로 하여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야를 포함하는 것으로 건축분야의 표준화가 대표적이다. 따라서 건축분야의 표준화는 모듈정합(Modular Coordination)을 바탕으로 건축구성재가 공간이나 구성재 상호간에 치수·성능·접합부 등의 호환성(Changeability)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재규격화(치수 및 성능표준화), 설계표준화, 시공표준화 분야에서 각각 활용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나. 표준화의 기본구성체계 및 역할

건축에 있어서 표준화는 적용범위에 따라 치수·성능·접합부 등의 표준화로 구분되며, 관련분야별 상관성을 바탕으로 재구성하면 자재규격화(치수 및 성능표준화 포함), 설계표준화, 시공표준화 등의 3가지 분야로 각각 구분할 수 있다.

1) 적용범위에 따른 표준화

① 치수표준화: 건축구성재(Support와 Infill)⁶⁾를 일정한 모듈치수정합(Modular Dimensional Coordination)을 바탕으로 생산·적용함으로써 건축물의 호환성(Changeability) - 다양성(多様性), 적응성(適應性), 정합성(整合性) - 을 확보하는데 기본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건축구성재가 일정한 모듈치수계열을 벗어나지 말아야 하며, 시공현장에서 전혀 절단되지 않아야 한다는 등의 개념은 치수표준화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② 성능표준화: 성능이라는 것은 계량화될 수 준을 평가하는 정량적인 부분과 비계량적인 부분에 대한 수준을 평가하는 정성적인 부분으로 구분된다. 특히 성능표준화는 정량적이고 정성적인 부분 모두가 상호 유기적인 연계성을 유지할 때 그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치수표준화를 보완하는 개념이 아닌, 상호 공존하며 건축물 또는 건축구성재(Support와 Infill)

5) 호환성(互換性): 다양성(多様性), 적응성(適應性), 정합성(整合性) 등을 총체적인 관점에서 종합한 개념이며, 건축물, 건축구성재를 대상으로 하여 치수, 접합부, 성능(質) 등의 확보를 추구한다.

6) 건축구성재 (Support와 Infill): 건축물의 고정적 부분을 담당하는 '구조체(Support)부분 - 구조체, 살비벽트류 등 -'과 비고정적 부분을 담당하는 '비구조체(Infill)부분 - Support를 제외한 내장재, 외장재, 창호, 마감재 등 -'으로 구분한다.

의 질적 향상을 제고하는데 기본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③ 접합부표준화: 접합부표준화는 치수 및 성능표준화를 실질적으로 활용하여 건축물의 오픈부품화⁷⁾를 이루는데 기본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접합부의 표준화는 동일한 형태와 치수를 지닌 건축구성재를 반복적으로 조합하여 동일한 형태의 공간이나 건축물을 만드는 것은 아니며, 접합부를 일정한 형태나 치수로 제약하는 것도 아니다. 즉 접합부표준화는 생산·설계·시공분야에서 상호 유기적인 연계성 확보를 바탕으로 건축구성재(Support와 Infill)의 조합에 관한 공통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동일한 형태, 치수 등을 제한하는 기준이 아닌 규격화된 건축구성재가 제반 요구성능을 충족하며 건축물의 호환성(Changeability)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활용방법에 대한 기준으로써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2) 분야별 상관성에 따른 표준화

① 자재규격화: 건축물을 구성하는 건축구성재 생산시 품질관리(Quality Control)를 바탕으로 하여 건축구성재의 치수표준(Dimensional Standards)과 성능표준(Performance Standards) 등에 관한 기준체계를 정립하는 것으로서, 설계표준화와 시공표준화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자재규격화는 적용범위에 따라 국가와 민간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국가차원에서는 ISO와의 연계성 확보를 바탕으로 국가기준체계 - 규격(KS), 법, 제도 등 - 을 정립하는 것이며, 민간차원에서는 국가기준체계와의 연계성 확보를 바탕으로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구성재 관련 단체표준, 지침, 카다로그 등을 개발하는 것이다.

② 설계표준화: 건축구성재의 생산과 건축시공과의 유기적인 연계성 및 호환성 확보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설계분야에서 주로 활용한다. 따라서 설계표준화는 모듈정합(MC)을 바탕으로 한 설계원칙·기준·기법 등에 관한 기준체계와 각종 건축물에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별 MC설계(모듈정합설계 또는 표준화설계 등의 용어로도 사용)방법 등을 정립하는 것으로 건축가가 일정한 모듈치수체계로써 계열화된 건축구성재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호환성(Changeability)을 지닌 다양한 건축물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③ 시공표준화: 설계표준화와 자재규격화와 유기적인 연계성 확보를 바탕으로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시공표준화는 시공정합(Job Coordination)을 바탕으로 모듈치수계열로써 규격화된 건축구성재를 건축공간이나 건축구성재 상호간의 호환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건축시공의 질적 향상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 - 조합원칙(Interface Rule), 표준화 시방기준 및 지침 등 - 을 개발하는 것이다.

5. 종합제언

표준화는 목적이 아닌 21세기 건축산업의 합리화를 위한 수단(手段)이다. 또한 건축물의 단순화(單純化)·획일화(劃一化)와는 별개의 개념이며, 호환성(互換性) 확보를 바탕으로 한 건축물의 오픈부품화(Open Component System)와 건축의 개방형시스템(OSB, Open System Building) 구축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도구라는 점을 재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표준화는 정부의 제한적 추진이나 관련분야의 개별적 추진만으로는 안되며, 자체규격화(치수 및 성능)·설계표준화·시공표준화를 중심으로 치수 성능 접합부표준화를 범국가적 차원에서 관·산·학·연·공조하에 동시에 병행, 추진해야 한다.

특히 ISO와의 연계성 확보를 바탕으로 표준화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선진각국은 다양한 시험시공(Pilot-Projects)과 실질적 활용을 바탕으로 이미 상당한 수준의 'Know-How'를 축적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는 여전히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도 ISO와의 유기적인 연계성 확보를 바탕으로 표준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ISO 및 선진각국의 기준체계에 시스템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닌, 국내 제반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기준체계와 시스템을 국제규격화(ISO)시키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 특히 건축물의 오픈부품화는 '호환성(互換性)' 확보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과 전체 산업이 '고객주도형 체제'로 전환되고 있는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건축도 공급자 측면에서의 논리만으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현재 선진각국에서도 수요라는 측면을 적극 고려하여 계획 초기단계부터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적 발전과 공존이 그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한국이 추진해야 할 건축의 표준화는 ISO를 중심으로 선진각국에서 현재 활발하게 개발, 적용하고 있는 "Support와 Infill" 방법을 적극 고려함과 동시에 한국의 실정에 맞는 모듈치수정합체계, 모듈정합(MC)설계 방법, 건축구성재의 조합방법, 성능관련 요소기술, 건축 시스템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표준화를 바탕으로 건축물의 오픈부품화와 건축의 개방형시스템(OSB)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급과 수요의 유기적인 연계체제 구축이 중요한 전제적 요소로 작용하므로 공급과 수요를 상호 연계시키는 다양한 기법도 표준화 추진과 병행하여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7) 오픈부품화(Open Component System): 건축물을 구성하는 건축구성재(Support와 Infill)가 하나의 유기적인 개방형시스템(Open System)하에서 모듈정합(MC)을 바탕으로 일정한 원칙하에 조합되어 새로운 역할 - 건축물, 건축구성재 상호간의 호환성 확보 등 - 을 담당할 수 있도록 추진력과 방향성을 지닌 과정(Process)을 의미한다.

OECD 가입 29개 국가의 건축사제도 분석

Analysis of Registered Architects System of 29 OECD Members

본협회 건축연구소 제공

1. 서론

1)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변화의 세기라고 정의되고 있는 20C 후반에서 21C를 맞이하기 위한 사회의 구조적 변화라는 시대적 영향 아래에서 건축계가 받고 있는 압력을 구체화해나가는 기초작업의 하나로 정의된다. 국제경제는 세계의 무역질서의 개편을 위해 발족한 World Trade Organization(이하: WTO) 체제하에 세계적 차원에서 경제단위를 통합해나가는 과정에 있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건축사 상호인정"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취지는 전문인력 자원의 공유를 내세우고, 실익으로는 후진국가의 시장을 잠식해 들어오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맞이하는 우리의 입장도 이제는 방어만을 생각하는 소극적인 방식으로선 더 이상 실효를 거둘 수 없고, 또 이를 이유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게 되면 존립의 기반마저 잃게 될 것이다. 게다가 국내의 여건이 국제적 표준과는 매우 다른 형태로 정착되어 있어 상당한 부분에서 대폭적인 전환작업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 이는 우리가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선례를 참고로 하여 서구의 제도를 받아들임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으로 최근 일본도 우리와 같은 문제를 안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WTO 체제하에 주요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이하: OECD) 가입 29개 국가를 중심으로 개략적인 건축사제도를 종합 정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서구의 건축사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것이며, 후속 연구에 대한 방향을 잡아나가기 위한 기초적 개념의 설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내용 및 범위

이 연구에서 다루는 주된 내용은 건축사제도 중에서 자격에 관한 사항과 면허 및 등록의 제도운영 현황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으로 하였다. 즉 건축사면허를 최초로 부여받기 위해서 갖추어야 하는 교육 및 실무에 관한 요구사항에 관한 내용과 건축설계업의 수행과 건축사 직함의 사용에 따른 면허 취득 및 등록상의 요구에 대한 조건을 정리하여 볼 것이다.

연구의 범위는 간접 조사된 각종 자료의 내용에 한정하며, 막연하게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종합 정리하여 윤곽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건축사제도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기 위한 대상 국가는 위의 NCARB 자료에서 발췌한 OECD 가입 29개 국가로 한정하였다. 대상 국가의 목록과 OECD 가입 연도를 다음의 <표 1>에 정리하였다.

3) 연구방법

자료의 수집은 1990년 이후, 즉 90년대 '건축사' 지를 대상으로 하여 건축사제도와 관련이 있는 내용을 모두 발췌하여 검토하였다. 그리고 협회 내부의 기존 보고서 중 관련이 있는 성과물의 내용도 종합적으로 참고하는 등 이 연구의 자료조사는 모두 문헌을 통한 간접조사를 통해 확보한 내용을 중심으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이 과제의 중심이 되는 미국 NCARB¹⁾의 건축사 해외 실무지침서(Architect Overseas Practice Standards)는 협회 소장자료로 조사된 총 57개 국가들 중에서 OECD에 가입하고 있는 29개 국가만을 대상으로 하여 그 내용을 발췌 번역한 것이다. 번역한 내용에서 이 연구의 주제인 건축사제도 및 조세제도에 관한 부분을 분석하고 유형을 정리하여, 외국의 사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하고, 그 흐름을 파악하였다.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자료 조사 및 분석이 모두 문헌에 의한 간접연구로 이루어져 이 연구의 성과는 한계를 가질

1) 미국 건축사등록협회: National Council of Architects Registration Board

수밖에 없다. 그러나 참고적으로 연구진행의 방향설정 등에 있어서는 협회활동중인 임원 및 연구심의위원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였다. 그리고 추가적인 자료의 보충이 필요한 내용은 인터넷을 통하여 수집 가능한 자료를 입수²⁾ 활용하였다.

2. OECD 가입 29개 국가의 건축사제도

1) 자격(경력)제도

이 연구에서는 자격제도는 최초 면허를 부여하기 위해 해당하는 사람의 교육 및 경험이 적합한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정의한다. 자격제도는 이러한 개념에서 교육제도와 대단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나 여기서는 교육에 대한 내용까지를 다루는 것은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며, 또 전문적으로 다루어야 할 학제의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분석자료인 NCARB 설문 내용에 나타난 사항을 정리하는 수준에서 다룰 것이다. 그리고 교육과 연계되는 실무 또는 견습과정 및 면허부여를 위한 시험제도의 시행에 대한 사항을 각각의 국가별로 정리하여 그 유형을 밝히는 것으로서 29개 국가의 현황을 파악할 것이다. 29개 국가의 자격제도에 대한 유형을 검토한 결과 다음의 1~Ⅴ인 5가지 유형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들 각 유형별 해당 국가를 <표 2>에 정리하였다.

I 공인 교육기관의 건축학위 취득 후 건축 설계사무소 실무경력 또는 견습기간을 거쳐 면허시험 실시

II 공인 교육기관의 건축학위(실무가 교육과정 중에 포함) 취득 후 면허시험 없음

III 공인 교육기관의 건축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또는 견습기간에 대한 인정을 통하여 시험은 없음

IV 자격제한 없음(교육 및 실무상의 요구사항 없음)

V 공인 교육기관의 수료 후(반드시는 아님) 교육기관의 등급에 따른 일정 기간의 실무경력을 거쳐 면허시험 실시

위에서 정리한 5가지의 유형을 보다 실용화하

기 위해 3가지로 요약해 보면 첫째 교육과 경력에 대한 평가를 통해 기준에 따르는 자격을 인정, 둘째 교육 이수만으로 자격을 인정, 셋째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조건없이 능력을 평가하여 (또는 아무 조건없이) 인정하는 제도로 구분된다. 이 세 가지의 제도 중에서 세 번째의 제도가 다양성을 포함할 수 있도록 약간의 보완을 거쳐 국제적인 기준으로 정립될 것으로 판단되며, 대부분의 국가들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2>의 내용을 바탕으로 앞서 요약한 내용에 따른 특성을 정리하여 보면, Model 1은 교육의 정도에 따라 실무 연수기간의 요구에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이고, Model 2는 교육의 성과를 모두 인정하거나 또는 실무의 경험에 보다 중요성을 두고서 반드시 정해진 일정기간의 실무연수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제도이다.

두 제도 모두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는 두 가지를 복합한 형태³⁾로 운영을 하고 있다. 즉 해당인이 받은 교육의 정도와 내용의 평가에 따라 실무 연수기간에 차등을 두어 자격을 인정하거나, 견습과정 - Intern Development Program(이하: IDP) - 을 두어 운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Model 3은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영국, 독일, 그리고 프랑스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즉 학교교육을 이수하는 과정에 실무연수를 병행하고, 그 성과를 연수담당자로부터의 인정 여부로 학업성취를 평가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실무연수를 교육과정과 통합하므로 인한 장점은 면허의 부여를 위한 자격심사를 별도로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2) 주로 검색한 Home Page는 AIA, NCARB, WTO, OECD 등의 인터넷 Site임.

3) NCARB의 Position Paper(해설서-본 내용을 후후 번역할 예정임)에 따르면 Architect Registration Examination(A.R.E.)의 지원자는 최소한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갖거나, IDP의 기준에 적합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되며, 실무 경험과 IDP 모두 700 단위 이상의 경험을 요구하고 있다. 참고로 여기서 요구하는 한 단위는 8시간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항목별 업무 시간을 말한다.

<표 1> OECD 가입 29개 국가

국명	가입	국명	가입	국명	가입
Australia	1971	Hungary	1996	Norway	1961
Austria	1961	Iceland	1961	Poland	1996
Belgium	1961	Ireland	1961	Portugal	1961
Canada	1961	Italy	1961	Spain	1961
Czech Republic	1995	Japan	1964	Sweden	1961
Denmark	1961	Korea	1996	Switzerland	1961
Finland	1969	Luxemburg	1961	Turkey	1961
France	1961	Mexico	1994	United Kingdom	1961
Germany	1961	Netherlands	1961	United States	1961
Greece	1961	New Zealand	1973		

〈표 2〉 제도 유형별 해당국가

유형	해 당 국 가	비고
I	호주*(2), 오스트리아*(3), 캐나다(3), 체코슬로바키아(3), 이탈리아(0.5), 뉴질랜드*(2), 폴란드*(3/1), 미국(3)	
II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III	벨기에(2), 아이슬란드(2), 룩셈부르크(1),	
IV	덴마크,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V	헝가리(3-5), 일본(2-), 한국(5-14), 스위스	

- ※ ()안의 숫자는 경력 요구 기간: 단위는 년
 ● 경력에 대한 인증을 위해 구술시험만 실시함.
 ※ 프랑스는 교육기간이 최소 5년임.
 ※ 독일은 교육과정 중에 견습근무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고, 건축사가 된 후에 등록을 위해 2년간의 실무경력을 증명하여야 함.
 ※ 멕시코와 터키는 질문에 대한 응답 내용이 분류에 부적절하여 제외함.
 ※ 네덜란드는 공인된 교육의 수료 후 면허를 바로 부여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자격시험을 통하여 면허를 취득할 수 있음.
 ※ 폴란드는 경력에 대한 요구가 설계사무소에서 3년과 건설현장에서의 1년으로 구분되어 있음. 즉 최소 4년간의 실무경력을 요구함.
 ※ 사실상 면허시험제도가 있으나 자체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종합대학이 있음.

2) 면허 및 등록제도

면허 및 등록제도에 대한 내용의 분석은 다음에 제시되는 다이어그램인 〈그림 1〉과 기본 관계를 구조화시킨 〈표 3〉~〈표 5〉를 기준으로 하여 29개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를 정리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격제도는 교육과정을 마친 뒤 건축사로서 면허를 부여받거나 등록을 통해 공식적인 건축설계업 수행단계로 나가는 과정에 있는 관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건축사제도

면허 및 등록은 '건축사(Architect)' 직함의 사용 및 건축설계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격 부여로 이해할 수 있다. 건축설계업의 수행과 건축사 직함 사용과의 관계 하에 면허 취득 및 등록 여부에 대한 요구 사항의 내용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건축설계업의 수행을 위해 면허 요구 ② 건축설계업의 수행을 위해 면허를 요구하지 않음 ③ 건축설계업의 수행을 위해 등록 요구 ④ 건축설계업의 수행을 위해 등록을 요구하지 않음 ⑤ 건축사 직함의 사용을 위해 면허 요구 ⑥ 건축사 직함의 사용을 위해 면허를 요구하지 않음 ⑦ 건축사 직함의 사용을 위해 등록을 요구 ⑧ 건축사 직함의 사용을 위해 등록을 요구하지 않음

이상 ①~④와 ⑤~⑧은 건축설계업의 수행과 건축사 직함의 사용에 관계된 면허 및 등록에 대한 요구조건을 조합을 각 요소별로 정리한 것이며, 이를 도표로 나타낸 것이 〈표 5〉이다. 즉 이 표에서 건축사자격제도의 유형을 정리해 내는 방법은 건축설계업의 수행에서 (1), (2)와 (3), (4)에 해당하는 요소의 조합과 건축사 직함에서 동일하게 해당하는 요소

의 조합을 하나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추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건축설계업의 수행과 건축사 직함의 사용을 위해 면허와 등록을 모두 요구하는 경우는 (①③+⑤⑦)로 나타낼 수 있으며, 가능성이 있는 제도 유형의 모든 조합 경우 수는 16가지가 된다. 한번 더 정리하면 아무런 요구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전술된 유럽의 6개국은 (②④+⑥⑧)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의 건축사자격제도 유형을 해당 국가별로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리고 일부 국가의 경우 분석을 위한 설문지의 내용상의 미완결성으로 인해 47지 조합 요소 중 37지 이상 나타나면 해당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①③+⑤⑦) 캐나다, 체코슬로바키아, 그리스,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스페인, 미국(9개 국가)

(①③+⑤⑧) - NA⁴⁾ -

(①③+⑥⑦)/(①③+⑥⑧) 터키

(①④+⑤⑦) 호주, 아이슬란드, 폴란드

(①④+⑤⑧) - NA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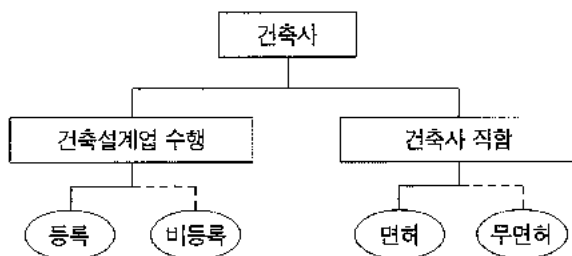
(①④+⑥⑦)

(①④+⑥⑧) - NA -

(②③+⑤⑦)/(②③+⑤⑧) 네덜란드

(②③+⑥⑦) 프랑스, 뉴질랜드

〈그림 1〉 건축사제도 구성도



〈표 3〉 건축설계업의 수행

	등 록	비 등 록
면 허	(1)	(2)
무면허	(3)	(4)

〈표 4〉 건축사 직함의 사용

	등 록	비 등 록
면 허	(1)	(2)
무면허	(3)	(4)

〈표 5〉 건축사제도 유형 요수

	(1)	(2)	(3)	(4)
건축설계업 수행	①	②	③	④
건축사 직함	⑤	⑥	⑦	⑧

※ 유형의 조합 예는 ①③+⑤⑦, ②④+⑥⑧ 등으로 구성된다.

4) NA : Not Applicable(자료가 유의하지 않음)

(2③)+(2④) - NA -

(2④)+(2⑤) 영국

(2④)+(2⑥) - NA -

(2④)+(2⑦)/(2④)+(2⑧)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포르투갈(6개 국가)

참고로 면허 및 등록을 모두 요구하는 유형에 속하는 미국의 경우는 NCARB라는 민간기구가 건축사면허의 부여 및 등록을 위한 시험을 관할하고 있으며, 면허의 부여와 등록이 하나의 과정으로 묶여 있다. 즉 "면허 = 직함(건축사) = 등록"의 관계가 성립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제도에 근거를 두고서 각 주별로 해당 NCARB 지부에서 운영하는 Architect Registration Examination(이하 : ARE)에 합격하게 되면, 면허의 부여와 동시에 건축사로 등록되는 형식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건축설계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업인가⁵⁾를 받아야 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건축설계 도서가 법적으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 건축허가 등의 공식 절차 - 정당한 면허를 소지하거나 자격을 인정받은 건축사의 등록을 요구하고 있다. 즉 자격에도 유형 중 요소로써 ①을 포함하는 항목에 해당하는 국가들로는 총 13개 국가가 여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우리나라의 자격(경력)제도

2단계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 실무경력 또는 견습기간은 1단계인 교육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는 건축사면허를 부여하기 위한 자격의 평가에 관계된다. 앞서 언급한대로 우리나라 교육의 통합적 운용과 마찬가지로 자격 평가를 위한 실무 또는 견습의 평가 기준 또한 업역의 명확한 구분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다음 과제에서 살펴보게 될 NCARB의 기준에 비하면 너무나 많은 운영상의 융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참고적으로 1998년 건축사예비시험 응시 안내서 상에 나타난 응시자격 및 경력평가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

- 대학 졸업자 : 졸업후 바로
- 전문대 졸업자 : 졸업후 2년 실무경력
- 고등학교 졸업자 : 졸업후 4년 실무경력
- 기타 : 9년 실무경력

위의 사항은 예비시험에 대한 것으로 예비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응시자의 조건에 따라 바로 자격시험을 통하여 면허를 취득하거나, 일정 기간의 실무경력을 쌓거나 또는 견습기간을 거쳐 자격시험을 통해 면허를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경력인정기준

- 1등급(100% 인정)

(1) 건축사사무소에 소속하여 건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종전의 규정에 의한 2급 건축사로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경력을 포함한다).

(2) 건설업법 또는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건설업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등록한 감리전문회사, 기술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기술사사무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지정 또는 등록한 시설안전기술공단·안전진단전문기관·유지관리업체에 소속하여 건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3)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소속하여 건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4) 대학원에서 건축분야에 관한 석사 또는 박사학위 과정에 있거나 이수한 경력(이 경우 석사과정은 2년, 박사과정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5) 건축에 관한 교직경력(주 3시간 이상의 시간강사 경력을 포함한다.)

(6) 각종 연구원 등 연구기관에서 건축에 관한 연구경력

(7) 군의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장교로 복무한 경력

• 2등급(80% 인정)

(1) 1등급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업체, 기관, 협회 등에서 건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2) 1등급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곳에서 건축관련분야(도시계획·조경·토목 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음) 업무에 종사한 경력

(3) 대학원에서 건축관련분야에 관한 석사 또는 박사학위과정에 있거나 이수한 경력(이 경우 석사과정은 2년, 박사과정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건축관련 분야 교직경력(주 3시간 이상의 시간강사 경력을 포함한다.)

(5) 각종 연구원 등 연구기관에서 건축관련 분야에 관한 연구경력

(6) 군의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사병으로 복무한 경력

• 3등급(60% 인정)

2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력으로써 건축관련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

이상에서 보아 현행 우리나라의 경력인정에

5) 우리 나라의 사업자 등록과 유사함

대한 기준은 단순히 인정 수준에 대한 등급과 어느 업체 또는 분야에 소속하여 근무하였는가를 판단근거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음 후속 연구에서 검토하게 될 NCARB의 기준이 실제로 수행한 업무에 대한 세분된 항목별 시간단위에 대한 평가와 관련 분야 또는 업무에 종사한 경우 등급 및 그 최대 인정 한계를 1년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건축설계업에 종사한 전문인으로서의 경력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그 인정 범위가 너무 넓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상에서 OECD 가입 28개 국가와 우리나라의 건축사제도를 고찰하여 보았다. 그 결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29개 국가의 제도를 크게 정리하면 다음의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를 다이어그램 형식으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에서 정리한 I~Ⅵ의 6가지 유형은 2장에서 정리된 29개 국가의 자격(경력)제도와 면허 및 등록 제도에 대한 고찰내용을 근거로 하여 도식화한 것이다. 이들 유형 각각에 대하여 내용과 기본적 고려사항에 대하여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자 한다.

유형 I 은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의 구조이다. 즉 면허와 등록의 개념이 이원화되어 있어 등록 건축사와 일반 소속 건축사 사이의 역할에 대한 문제가 분명하게 해결되어 있지 못하다. 즉 소속 건축사가 자신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때는 등록을 위해 개업을 해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유형 II 는 미국의 제도를 나타낸 것인데,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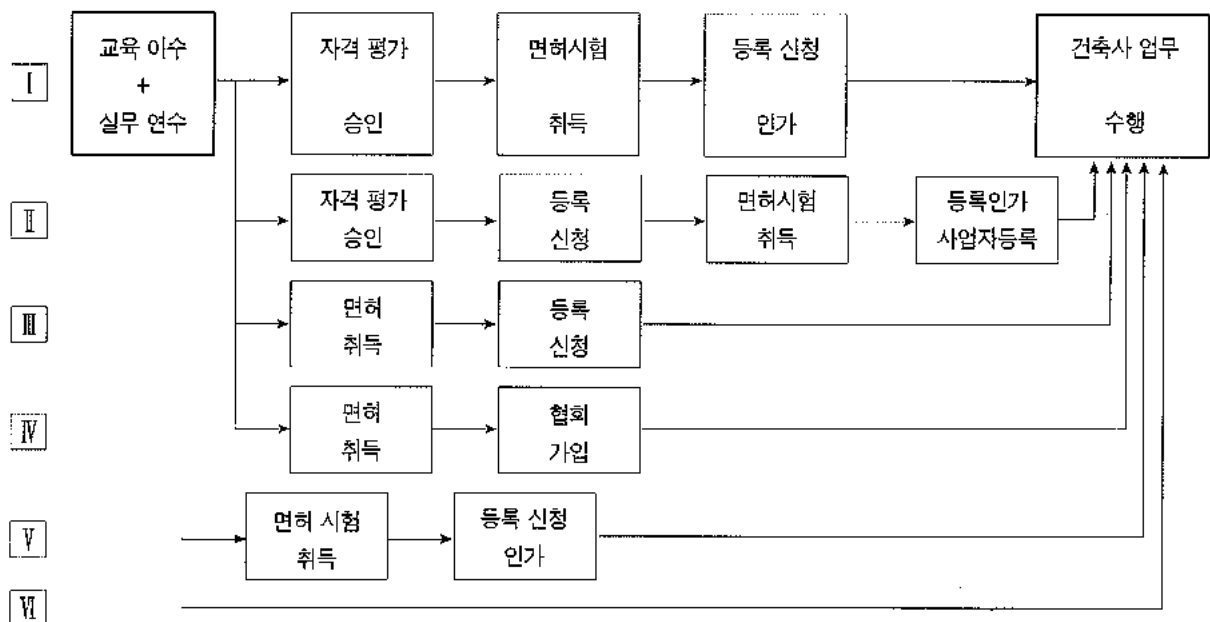
림 2〉에는 표현상의 이유로 등록 신청과 면허시험 및 취득이 나누어져 있으나 사실은 이 과정이 하나로 되어 있어 '등록 = 면허'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아직 건축사로서 자신이 설계한 도면에 대한 권한의 행사를 위해 우리나라와 같이 사업자로 등록을 하여야 하는가는 좀더 조사가 필요하지만, 제도의 단순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안으로 좀더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유형 III 과 IV 는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를 나타낸 것으로 교육제도의 철저한 운영으로 교육을 마친 자는 그것으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건축설계업의 수행을 위해서만 등록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와 아예 협회에 가입을 조건부 또는 임의가입으로 운영하는 국가도 있다.

이 유럽의 국가들에서 운영되는 방식은 I 또는 II 의 유형 보다 좀더 종합화되고 단순한 방식으로 교육에 대한 상호 인정기준과 실무(견습)경력 관리에 대한 상호 인정기준만 마련되면 어렵지 않게 건축사 상호인정을 위한 기준으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건축사 상호인정을 위한 국제적 기준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아마도 1999년 UIA의 북경총회⁶⁾에서 그 향방의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당분간은 우리의 제도가 안고 있는 현안의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의 연구와 국제적 기준 제정의 추이를 관찰하며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 방안의 강구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6) UIA Home Page: 제20차 UIA 대회(북경 1999) 1999년 6월 23일에서 26일 중국 북경에서 개최될 예정. 주요 주제는 21세기의 건축이며, 부제는 건축과 전문직(Architecture and Professionalism); 건축과 환경(Architecture and Environment); 건축과 문화(Architecture and Culture); 건축과 기술(Architecture and Technology); 건축과 도시성(Architecture and Urbanism); 건축교육과 젊은 건축가(Architectural Education and Young Architects)의 6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각각의 부제별 토론의 주요 내용에 대한 사항은 부록의 1999년 북경 UIA 대회 내용을 참조 (<http://www.ui-a-architects.org>)

〈그림 2〉 건축사제도의 유형



협회소식 / 95

건축계소식 / 97

현상설계경기 / 102

통계(설계도서신고현황) / 110

회원현황 / 112

게시판 / 113

협회소식 KIRA news

공정위, “지역감리사무소 설립은 경쟁제한행위”

해당 시·도건축사회와 복지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전윤철)는 지난 6월 25일, 시·도건축사회가 공동감리사무소를 설립하여 소규모 건축을 감리를 순번제로 배정해 온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해당 시·도건축사회와 복지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또한 인천을 제외한 11개 시·도건축사회와 2개 건축사회복지회를 검찰에 고발조치했으며 충남과 제주를 제외한 12개 시·도건축사회와 2개 복지회에 대해 이러한 시정명령 사실을 일간지에 공표하고 60일 이내에 지역감리사무소를 폐쇄하라고 통보해 왔다.

공정위는 설계업무와 감리업무를 분리하기 위해 설계를 담당한 건축사가 자신이 설계한 건축물에 대해 감리를 맡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용역거래를 제한하기로 합의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시·도건축사회 지원방안 주요골자〉

지원내용	...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의한 • 14개 건축사회 사과광고료 • 변호사수임료(이외신청/행정소송): 승소시 성과금포함	—
지원자금	... 본 협회 일반회계 예산 1) 사과광고료 35,000,000 → 사업비중 홍보선전비 ※ 산출근거: 2,500,000(중앙경제일간지) × 14건축사회 2) 변호사비용 200,000,000원 → 예비비사용 (지도사업비 예산증액하여 지출)	일괄광고 가능시 일괄광고
지원방법	... 본협회 일반회계 홍보선전비/지도사업비에서 직접지출	—

이사회 개최

대의원 서면결의 거쳐 시·도건축사회
재정지원 추진

우리협회의 당면 주요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제9회 정기이사회가 지난 7월 14일(화) 협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업무보고에 이어 전회 회의록 승인과 부의안건 처리 순으로 진행된 이번 이사회 의 주요 의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사회 광경

○ 제9회

〈부의사항〉

- 제1호의안: 예산편성위원회규칙중 개정(안) 승인의 건
- 제7조 제2항중 아래의 사항을 수정키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승인함.
- 예산편성지침 통보: 9월말 → 8월말
- 시·도건축사회 예산편성의 자율성 확보(문구조정은 집행부에 위임)
- 제2호의안: 시·도건축사회 지원방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2호의2의안: 시·도건축사회 재정지원방안에 관한 건
- 시·도건축사회 재정지원 방안을 아래와 같이 추진키로 함.

〈주요골자〉

지원자금	… 압화비 임의적립금
지원방식	… 대여금(무담보 신용대여)
지원내용	… 건축사회직원 최소인건비('98. 8~12) … 공정위 처분에 의한 과징금 … 형사고발 제비용
지원기준 및 처리기간	… 회장단에게 위임
지원금총액 대여금이자 상환조건	… 시·도건축사회 사정을 감안하여 조정토록 회장단에 위임 … 국세청고시 1년만기 정기에금 이자율 9% … 2년거치 3년상환(단, 거치기간은 무이자)
지원절차	… 시·도건축사회회장 건의 → 이사회 승인 → 대의원 서면 결의 → 개표결과 승인 → 건축사회 자금지원
서면 결의방법	… 서면결의 봉투를 시·도건축사회회장에게 일괄 위임하여 개별봉인 후 본부에 승부

- 제3호의안: 예산편성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회장단에게 위임함.
- 제4호의안: 임회비관리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조건부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주요골자〉

세 입	• 변동없음
세 출	• 폐업위로금: 300,000,000원 → 810,000,000원(510,000,000원 증액) • 임의적립금: 2,190,000,000원 → 1,680,000,000원(510,000,000원 감액)

- 제5호의안: 건설기술자 재증명 발급수수료 조정(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주요골자〉

구 분	1997년도 수수료	'98. 1. 1부터 수수료	조정 수수료	조정금액
경력증명서	3,500원/부	3,000원/부	1,500원/부	(1,500원/부) 인하
보유증명서	10,000원/부 (10명 초과시 1인당 1,000원 추가)	7,000원/부 (10명 초과시 1인당 500원 추가, 상한금 액 30만원)	3,500원/부 (10명 초과시 1인당 300원 추가, 상한 금액 15만원)	(3,500원/부) 인하 (초과시 200원 및 상한금액 15만원 인하)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P/P, /O) 확인신청서	3,500원/인	3,000원/인	1,500원/인	(1,500원/인) 인하
경력증 재발급	8,000원/건 (최초발급무료)	8,000원/건 (최초발급무료)	8,000원/건 (최초발급무료)	변동없음

- 제6호의안: 해외통신원 계약연장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주요골자〉

성 명	황현주(미국), 정태영(프랑스), 이혜와(일본)	계약연장기간	'98. 8. 1~'99. 7. 31 (당초 '97. 8. 1~'98. 7. 31)
-----	-------------------------------	--------	---

건축설계표준화교육 실시

건축사 및 설계실무자 대상으로
공공건축물 표준화 교육

건축설계표준화교육이 지난 7월 23일 오후 2시부터 협회 대강당에서 실시됐다. 이번 교육에서는 총 300여명의 건축사회원 및 건축사사무소 소속 실무자를 대상으로 표준화의 배경 및 기본이론, 공공건축물의 MC설계 지침 및 사례 등에 관해 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지난 6월 20일에 개정 고사된 “공공건축물의설계도서작성기준”에 의해 오는 9월 1일부터는 학교와 무체국, 경찰서 및 파출소, 전학국 등 건축허가가 신청되는 공공건축물의 설계도서에 대해 MC기법을 적용토록 함에 따라 동기준의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건축사사무소 소속 실무자의 업무수행에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정부는 건설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장개방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설분야의 표준화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는데, 건설분야 표준화 종합추진계획에 의하여 설계분야의 표준화는 2001년까지 실용화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여성건축사회, '살기좋은 아파트' 현장견학

견학후 정기총회 개최

우리협회 여성건축사회(회장 문숙경) 회원들이 지난 7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살기좋은 아파트' 현장을 견학했다. 현장견학에 참가한 여성건축사 회원 40여명은 올해의 살기좋은 아파트 선발대회에서 각각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한 '광주 첨단지구 대우아파트'와 '화순 금호아파트'를 직접 둘러보는 한편 견학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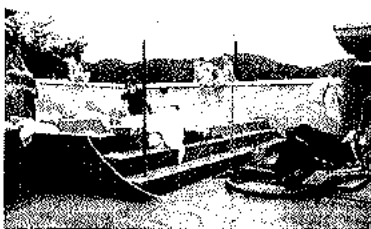
용에 대해 회원들간 토론회도 가졌다. 또한 회원들은 견학이 끝난후 98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튿날인 14일에는 소재원과 식영정, 운주사, 내소사 등 광주 일대의 고건축을 답사했다. 견학을 마친 여성건축사들은 비록 1박2일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회원간 친목을 다지며 전문가적 시각에서 현장경험도 쌓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견학에 참가한 여성건축사들

청주「가람산우회」, 불우이웃 찾아 봉사 활동

산우회원 30여명 장애인시설 「성보나의 집」 일일봉사



「성보나의 집」에서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는 가람산우회회원들

IMF시대를 맞아 사회가 점차 각박해지고 있는 가운데 청주지역건축사회 가람산우회(회장 장현석)가 장애인시설을 찾아 봉사활동을 벌여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이들 가람산우회 회원과 가족 등 30여명은 지난 7월 19일 청원군 가덕면의 정신장애인 수용시설 「성보나의 집」을 찾아 이불빨래와 청소 등 장애인들이 직접하기 어려운 일들을 돕고 일을 끝낸

후 장애인들과 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가람산우회는 청주시내 건축사와 건축사사무소 직원 35명이 모여 지난 95년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등산을 하고 있으며 1년에 한번씩 장애인시설을 찾아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건축계소식 archi-net

건축법개정안 입법예고

용도변경에 대한 규제 완화, 대지와 건물의 이동도 늘어

건축법 개정안이 지난 7월 10일 입법예고됐다. 이번 개정안은 용도변경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종전에는 건축물을 10개 시설군으로 분류하여 시설군간의 변경시 허가를 받도록 했었으나 앞으로는 5개 시설군으로 축소해 신고만 하면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종전에는 용도지역별로 건축 가능한 최소한의 대지규모를 정해 최소 규모에 미달된 대지에는 건축을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이미 발생하였거나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대지에 대해서는 건축을 허용하고 있다. 이밖에 도시설계가 수립된 지역내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한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건축사의 확인이 있는 경우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가 신설돼 건축사의 재량권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우리협회의 의견을 반영해 공사감리에 있어 도시설계지구 건축사확인 건축물의 감리보고서를 확인건축사에 제출토록 했던 규정을 삭제했으며 건설교통

부장관이 「건축허가기준」을 고시토록 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건축허가시 검토를 건교부장관에게 요청토록 했다.

〈건축법 개정안 주요내용〉

- 21층 이상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대형건축물에 대하여 종전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허가를 하였으나,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직접 허가토록 절차간소화함(제8조제1항)
- 도시설계가 수립된 지역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의 일정규모 이하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사의 확인이 있는 경우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제8조 제10항)
-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에는 건축물을 10개 시설군으로 분류하여 시설군간의 변경시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개 시설군으로 축소하고, 신고만 하면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함(제14조 제1항)
- 현재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피난, 방화내화 등을 위한 건축기준중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은 설계기준으로 고시하도록 법령을 단순화하고 신기술을 즉시 수용할 수 있도록 함(제39조 및 제55조 제59조)
- 종전에는 용도지역별로 건축 가능한 최소한의 대지규모를 정하여 최소 규모에 미달된 대지에는 건축을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미 발생하였거나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대지에 대하여는 건축을 허용함(제49조)
- 상업지역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일조기준을 폐지하여 주상복합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함(제53조)

〈입법예고시 신설 및 변경된 내용〉

- 제2조(정의)
- 제3호: 건축설비의 정의에 "정보통신시설" 추가토록 수정됨
- 제4호: 지하층의 정의에서 "바닥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당해층 높이의 2분의 1이상"으로 완화
- 제6호: 주요구조부중 "벽"을 → "내력벽"으로 수정

- 제8조(건축허가)
 - 시장 등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착수기간을 기간 제한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함(제8항 개정) → 12개월 범위 안에서 연장가능토록 수정(입법예고안에서 변경됨)
 - 도시설계수립구역에서 건축사의 확인만으로 건축가능토록 함(제10항 신설) →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로 한정함(입법에고시 범위한정)
 -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축허가기준"을 고시토록 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건축허가시 검토를 건교부장관에게 요청토록 함(제3항/ 입법에고시 신설됨/ 협회의견 반영)
 - 제18조(건축물의 사용승인)
 - 제5항: 건설교통부장관이 "사용승인기준" 고시토록 함(입법에고시 신설됨/ 협회의견 반영)
 - 제19조(건축물의 설계)
 - 건축사협회가 작성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이 승인했던 설계도서작성기준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고시」토록 개정(입법에고시 개정안 제시됨)
 - 제21조(공사감리)
 - 도시설계지구 건축사확인 건축물의 감리보고서를 확인건축사에 제출토록 했던 규정 삭제(입법에고시 현행대로 수정됨/ 협회의견 반영)
 - 제50조의2(합법개발 및 연결복도): 입법에고시 신설
 - 제68조(감독)
 - 제4항 신설: 행정건설화 대책 수립
 - 제68조의2(건축제도위원회): 입법에고시 삭제됨
- 〈건축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내용 요약〉
- 제2조(중앙건축위원회)
 - ... 3인 이상 위원으로 소위원회 구성 조항 삭제.
 - 제2조의2(소위원회) 신설
 - ...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소위원회 구성.
 - ... 분야별(계획/구조/설비/조경 등) 소위 구성.
 - 제6조(건축허가 신청 등)
 - ... 용도변경허가 신청서 양식 변경.
 - 제8조(건축허가서 등)

- ... 용도변경허가 신청서 양식 변경.
- 제12조(건축신고 등)
 - ... 공작물의 축조신고서류를 간소화(제5항 제1호 삭제).
- 제13조(가설건축물)
 - ... 가설건축물대장 건축주 열람 조항 신설.
- 제21조(현장조사·검사업무의 대행)
 - ... 아파트지구 및 도시설계지구안의 건축물 제외(제2항 제2호 제외).
- 제33조의2(비상탈출구 구조기준) 신설
 - ... 화재 등 유사시 지하층의 피난에 필요한 비상탈출구 기준 정함.

「MBC 일산제작센터 설계경기」 추진 보류

건축3단체 설계경기운용위원회, 문제가 된 응모지침 내용에 대해 MBC에 시정 요구

설계경기 응모지침이 문제가 됐던 (주)문화방송의 「MBC 일산제작센터 설계경기」 추진이 보류됐다.

앞서 건축3단체 건축설계경기운용위원회는 (주)문화방송이 지난해말부터 추진해온 일산제작센터 설계경기의 응모지침에 대해 면밀한 검토작업을 벌인 결과 현행 설계경기 규정을 무시한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는 판단하에 문화방송측에 이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설계경기운용위원회는 이번 설계경기의 응모지침 내용중 ▶설계규모에 비해 설계일정이 촉박해 실제 설계기간이 2개월 남짓밖에 되지 않고 제출도서가 지나치게 많은 점 ▶응모지침에서 다룰 필요가 없는 설계용역비 견적서를 제출토록 한 점 ▶건물외부조명, 음향설계, 구조설계 등에 대해 해외 설계협력업체를 지정해 확인을 받도록 한 점 ▶사전에 용역수행 프로젝트팀을 구성토록 강요하고 있는 점 ▶해외자료조사시 발주처 인원 8명의 여행경비를 비롯해 대부분의 경비를 설계자가 부담토록 한 점 ▶심사기준이 모호하고 심사과정에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점 등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위원회는 ▶조감도에 부지전체를 표현하라는 것은 설계범위에서 벗어난 요구이며 이밖에 무제한의 프리젠테이션을 요구하는 것도 불필요한 낭비와 과당경쟁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건축3단체 건축설계경기운용위원회는 앞서 (주)문화방송에 문제가 된 응모지침 내용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문화방송측으로부터 일체의 입장표명이 없자 3단체 명의로 각 회원들에게 공문을 발송해 동경기에 불참토록 촉구하고 또 대표단이 문화방송을 직접 방문해 관계 책임자로부터 직접 경위를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추진위원장인 MBC 장영배 국장은 공고가 나간 지 오래돼 뒤늦게 시정할 수 없음을 설명하고, 동경기에 불참하는 건축설계사무소가 많아 동설계경기 추진에 지장을 받았으며 차후로 이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우리협회 등 건축3단체의 회원들은 이번 문화방송의 설계경기 응모지침이 선진국의 설계경기규정은 물론이고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설계경기운영지침과 크게 상치되는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처사라며 이번 설계경기에 불참해 왔다.

(주)동우건축, ISO 9001 인증 획득

고객만족을 위한 품질경영체제 도입

건축설계 및 종합감리전문회사인 (주)동우건축(대표 감철구)이 영국의 인증기관인 EQA로부터 ISO 9001 인증을 취득했다. (주)동우건축은 지난 7월 1일 오구공방(주)와 동우설비기술사사무소, 동우구조기술사사무소 등 동우건축그룹의 다른 3개사와 함께 ISO 9001 인증을

취득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동우건축 그룹은 (주)동우건축을 비롯해 앞서 지난해 인증을 취득한 (주)오구종합건설 등 건설관련 5개 그룹사 전체가 명실공히 ISO품질경영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또한 (주)동우건축 등 이들 5개사는 한국표준규격인 KSA 9001, 영국표준규격인 BS, 유럽표준규격인 EN을 동시에 취득함으로써 건설분야의 기획 설계단계에서부터 시공 및 감리, 인테리어, 건물 관리, 기술지원 등에 이르기까지 상호 보완할 수 있는 토털시스템을 갖추게 돼 조직간 시너지효과를 기하고 있다.

특히 (주)동우건축은 이번 인증을 계기로 고객만족을 위한 품질경영체제의 정착과 기술증대를 통해 제2창업의 계기로 삼고자 전직원이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있다.



주택건설감리비지급기준 고시

상한선은 총 공사비의 2.5%

건설교통부는 지난 7월 6일 주택건설촉진법과 시행규칙에 의한 주택건설공사감리비지급기준을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에 따라 감리대가의 상한선은 총 공사비의 2.5%로 하며 감리자가 감리원을 배치하기 위한 감리인·월수의 산정은 다음과 같다.

총공사비(원)	20억이하	30억	50억	100억	200억
감리인·월	8.5	12.4	20.2	33.3	76.1
총공사비(원)	300억	500억	1,000억	2,000억	3,000억
감리인·월	113.3	183.0	328.0	559.2	764.2

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 99학년도 특별전형 신입생모집

건축학과 졸업자 및 예정자 대상
시험과목은 영어와 면접

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에서는 99학년도 특별전형 신입생을 모집한다. 이번 특별전형은 건축학과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영어(토필식)시험 및 면접을 통해 선발한다.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은 9월 28일부터 10월 8일까지로 오는 10월 9일에 시험과 면접을 치른 후 같은 달 13일에 합격자를 발표한다. 제출서류는 입학원서,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학사학위등록 사본, 추천서, 주민등록등본(납자는 초본) 각 1부와 사진(5×5.5) 3매이다. 한편 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의 일반전형 신입생 모집은 오는 11월초 실시될 예정이다. 일반전형은 건축관련학과 졸업생 및 예정자를 대상으로한 2년과정과 건축이외 학과 졸업자를 대상으로한 3년과정으로 구분해 작품집 및 면접시험을 통해 선발한다.

문의: 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 (전화 02-390-5245~6)

서울건축학교 98/99년 제1쿼터 신입생 모집

모집인원은 20명, 8월 29일까지
원서교부

김수근문화재단 부설 전문교육기관으로 미래의 건축가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서울건축학교가 98/99년 제1쿼터 신입생을 모집한다. 서울건축학교는 연간 3쿼터의 설계스튜디오를 중심으로 각 스튜디오 튜터에 의해 작성된 자율적 교육 프로그램에 맞춰 금요강좌, 건축가 세미나

나, 건축기행 등 다양한 실험적 교육방식을 도입하고 있으며 총 6쿼터의 소정 스튜디오 과정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다. 신입생 모집요강 및 일정은 다음과 같다.

- 응시자격: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또는 건축설계사무소 경력 3년 이상자, 국내외 대학원 건축관련 학위 취득자 및 취득예정자, 이에 준하는 학력인정자
- 원서교부: '98. 8. 16 ~ 8. 29
- 원서접수: '98. 8. 20 ~ 8. 29
- 전형: '98. 9. 1 ~ 9. 8
 - 1차: 서류, 포트폴리오 심사
 - 2차: 면접(1차심사 합격자에 한함)
- 등록: '98. 9. 9 ~ 9. 12
- 문의: 서울건축학교 (02-763-0471, 747-3046)

'탈식민성' 주제로 대규모 건축비평/답사

현실비평연구, 90년대 주요 건축물 및
건축가 대상으로

양케이트로 선정된 90년대 국내 주요 건축물을 직접 답사해 현장에서 건축가와 의 토론을 통해 한국현대건축에 대한 정의와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우리 건축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보는 대규모 건축비평 행사가 열려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탈식민성-한국현대건축 어떻게 볼 것인가'란 주제를 가지고 현실비평연구소(대표 조권섭)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故김수근·김중업과 현업 건축가중 김낙중, 김석철, 김영섭, 김영웅, 김 원, 김인철, 민현식, 방철린, 송효상, 이성관, 이일훈, 이종상, 조건영, 최동규 등 총 16인의 건축가와 이들의 대표작들을 대상으로 오는 8월부터 99년말까지 매달 둘째주 일요일마다 실시된다.

이번 건축비평/답사에서는 답사대상 건축물의 건축가가 참여해 직접 설계의도를 설명하고 2~3명의 젊은 건축가들로 구성된 패널들과 토론을 벌이는 형식으

로 진행된다. 오는 8월 9일에 있을 첫 번째 답사에서는 건축가 권문성, 김승희씨 등이 패널로 참여해 「씨네플러스」, 「JACE II」, 「청규현」을 찾아 이들 작품의 설계자인 김남중씨와 토론을 벌인다. 한편 주최측은 앞서 지난 7월 18일과 19일 양일간 경기도 일명에서 이번 비평/답사의 오프닝행사를 개최했다. 밤새 진행된 이날 오프닝에서는 김영민(한일대 교수), 우종훈(건축비평연구가), 김병윤(백제예술대 교수), 이정호(대구대 교수) 등 9인 강사의 '탈식민성', '한국현대건축과 비평사' 등을 주제로 한 강연과 비디오상영, 종합토론 등으로 다채롭게 펼쳐졌다. 문의: 현실비평연구소(02-376-7775~6)

미국임산물협회 장애인재단에 목조주택 기증

목조건축학교 교육생들이 2주간에 걸쳐 완성한 40평규모 주택 「말알재단」에 기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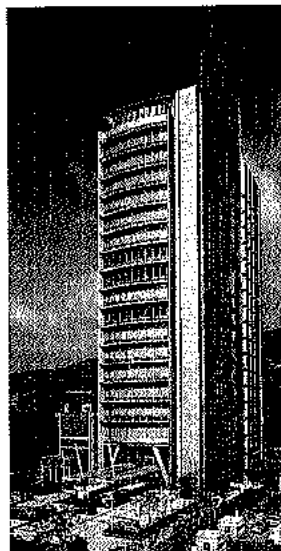
미국임산물협회 한국사무소(대표 안경호)가 장애인시설인 말알재단에 40평규모의 2층구조 목조주택을 기증해 미담이 되고 있다. 기증된 목조주택은 미국 임산물협회가 한국목조건축협회와 공동으로 지난 6월29일부터 개설한 '제3회 목조건축학교'에 참가했던 50여명의 교육생들이 2주간에 걸쳐 만들어 완성한 현장 실습작품이다. 특히 이 목조주택은 국내 목구조기술의 전문가들과 장상식 교수(충남대), 박문재 박사(임업연구원)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매일 14시간씩의 강도높은 실습과 이론교육을 통해 일궈낸 완성도 높은 목조건축물이어서 더욱 관심을 끌었다.

미국임산물협회는 매년 목조건축학교를 통해 완성된 주택들은 불우시설과 학교에 기증해 왔는데 지난해에는 충남 청원군의 「소망의 집」에 기증해 현재 공공모임장소와 숙소로 이용되고 있다.

POSCO 강구조작품상 금상에 '코오롱타워'

간·삼건축 설계작으로 "구조디테일 경쾌"



과천 코오롱타워

한국강구조학회가 주관하고 포스코가 후원한 '제5회 POSCO 강구조작품상' 심사결과 과천 '코오롱타워'가 금상을 차지했다. 총 37개 작품이 응모한 올해 강구조작품상에는 금상 1점과 은상2점 등 총 7개 작품이 상을 받았다. 금상을 차지한 과천 코오롱타워는 메인 오피스 부분을 Preflex Beam을 도입해 무주공간으로 처리하고 아트리움 전면을 유리 및 메탈로 구성되는 SPG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심사위원들로부터 구조디테일의 경쾌성이 돋보인다는 평을 받았다.

한편 ▶은상은 신호대교(서영기술단 조선규)와 청주국제공항(센구조연구소 이창남, 원도시건축 윤승중·변웅)이 ▶동상은 롯데스카이(센구조연구소 이창남, 일건씨앤씨 최관영·정동영), 부산광역시 신청사(C.S구조엔지니어링 김종수, 일신설계 이용홍), 분당 삼성프라자(센구조연구소 이창남·원도시건축 윤승중·변웅) 등 3개작품이 ▶특별상은 광양 백운아트홀 조형육교(POS-A.C 심인보)가 차지했다.

'지구촌시대의 새로운 건축문화' 학술강연

건축학회, 美위스콘신대 아모스 라포포트 교수 초청 강연

대한건축학회 주택분과위원회(위원장: 임창복 성균관대 교수)는 오는 8월 10일 오후 2시 30분부터 학회 대강당에서 미국 위스콘신대 아모스 라포포트(amos Rapoport) 교수 초청 학술강연회를 개최한다. 강연 주제는 '지구촌시대의 새로운 주거문화(New Housing Culture in the Globalization Era)' . 문의: 대한건축학회 사무국(02-525-1841~4)

건축신간 안내

경쟁력 있는 설계사무소 만들기 10 사진에 담긴 세계문화기행-유럽편(상) 「종묘」 사진집 건설계약관리와 클레임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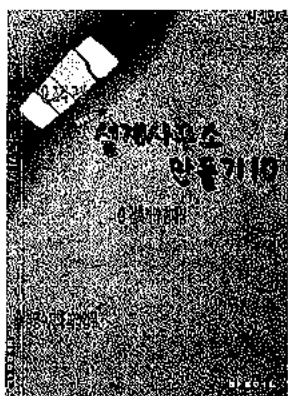
◇ 경쟁력 있는 설계사무소 만들기 10 IMF이후 많은 설계사무소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건축사가 직접 설

계사무소의 경영 및 운영방법에 대한 경영론을 출간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필자인 이윤하(건축사사무소 노뚝돌 대표)씨가 책머리에서 "건축사의 직능과 가치가 사회적으로 올바른 평가를 받고, 건축사가 명실상부한 직업으로서 확립될 수 있기 위한 올바른 경영방법을 밝히는 것"이 이 책의 주된 논지라고 밝혔듯이 이 책 곳곳에는 프로페션의 이념에 기초한 건축사의 이상과 현실의 모순된 상황에 의한 갈등이 잘 나타나 있다.

필자는 또한 이 책을 통해 건축창조예의 정열을 지속시키는 인간적이고 직업적인 뿌리를 해명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이 책의 전반부(1~5장)는 건축설계사무소의 경영과 그것을 둘러싼 사회환경에 관한 총론을 담고 있으며, 후반부(6~10장)는 경영의 제 문제들을 서술하고 있다. 특히 이 책은 건축을 지향하는 학생들의 시야가 일부 천재적 건축사들의 화려한 활약에만 현혹돼 그 엄격한 전문가의 길로 잘못 들어서는 것을 경고하고 있으며 또한 전문가로 성장하기까지의 장기간에 걸친 지도와 노력 그리고 자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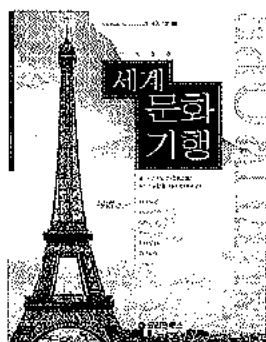
이윤하著 / 도서출판 발언(02-929-3546) 펴냄 / 216쪽 / 1만원



◇ 사진에 담긴 세계문화기행-유럽편(상)
포토저널리스트로 지난 20여년간 도시와 건축물에만 천착해온 임정의씨가 유럽 각지를 발로 누비며 체험한 건축예술의 정수들을 사진과 함께 소개한 책이 출간됐다. 이 책에 수록된 250여 점의 컬러사진과 그림은 마치 독자 자신이 현장에 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한다. 프랑스,

모나코, 그리스, 터키, 이탈리아, 바티칸, 스페인 등 국가별 총 7편으로 구성된 이 책은 그리스·로마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서·남유럽의 전통도시와 빼어난 건축물들을 자세히 살피고 있어 고대 신전에서부터 금세기 최고의 건축가로 불리우는 가우디의 걸작품에 이르기까지 유럽의 건축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부여해 준다. 한편 곧이어 발간될 이 책 하권에서는 독일, 영국, 오스트리아, 핀란드, 벨기에 등 동·북유럽의 도시와 건축물들이 소개될 예정이다.

임정의著 / 코리언북스(02-313-3200) 펴냄 / 변형 4×6배판, 반양장 제본 / 360쪽 / 1만 5천원



◇ 「종묘」 사진집

사진영상의 해를 맞아 삼성문화재단에서 3년여의 준비 끝에 종묘의 예술적, 학술적 가치를 조명한 「종묘」 사진집을 발간했다. 종묘는 장중한 건축미와 신성한 제례의식으로 지난 95년만에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우리의 대표적 문화유산 중 하나이다. 삼성문화재단은 종묘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직후부터 2년여 동안 종묘의 구석구석을 앵글에 담은 한편 사계 권위자와 함께 각종 문헌과 사료를 분석해 종묘연표를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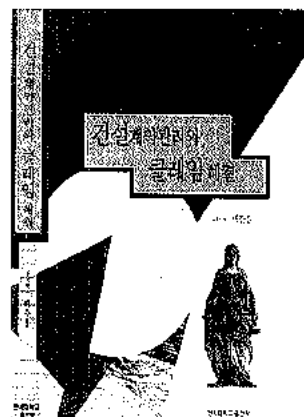
하고 또한 종묘의 건축구조를 한눈에 살필 수 있는 도면을 CAD로 작성해 사진집에 수록해 놓았다. 총 70여 컷의 사진이 수록된 이 사진집에는 특히 종묘의 우수성을 외국에 알리기 위해 종묘의 역사와 건축미, 종묘제례에 대한 영문해설이 첨부돼 있다.

삼성문화재단(02-750-7888) 발행 / 33.5×25cm / 양장 제본 / 162쪽 / 12만원

◇ 건설계약관리와 클레임 해결

건설현장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계약상의 쟁점을 제시한 책이 출간됐다. 이 책은 실제 판례와 기준에 발표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세대 백준홍 교수가 건설현장에서의 경험과 그간의 체계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쓴 책이다. 이 책은 계약일반론, 발주자, 건축가, 시공사, 클레임 해결 등 총 5부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제1부 계약일반론에서는 계약의 정의·성립·위반·소멸 등에 대한 용어정의와 사례 등을, 제3부 건축가에서는 설계용역 계약체결, 전문설계 용역, 전문가 책임, 위험관리 등을, 제5부 클레임 해결에서는 건설계약서 클레임의 해결, 설계변경, 금전전 보상문제, 분규해결, 클레임 방지대책 등으로 세분화해 다루고 있다.

백준홍著 / 연세대학교 출판부 발행



현상설계경기 competition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울산광역시 북구청

전북 교육청사

예천군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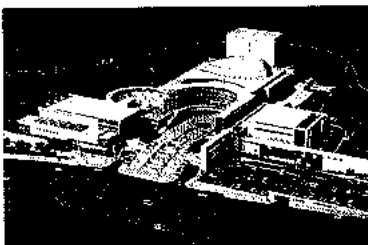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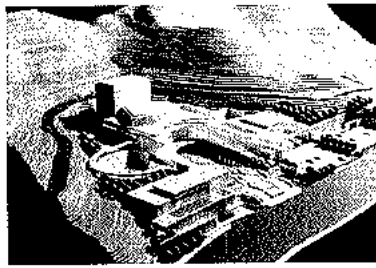
Civic Culture & Sports Center
of Mokpo

목포시는 지방화 시대에 대비한 향토문화예술 행사공간의 확충과 시민 화합의 효과를 창출해 낼 수 있도록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의 현상설계경기를 실시, 총 22개 작품이 접수된 가운데 당선작에 (주)성림종합건축(임장렬)안, 우수작에 토문엔지니어링건축(한남수)+토현엔지니어링건축(오금렬)안, 가작에 정일엔지니어링건축(송기덕)안과 이목건축(강봉원)안을 각각 선정, 지난 7월 7일에 그 결과를 발표했다.

▶ 당선작 / (주)성림종합건축(임장렬)



조감도



모형도

위치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815번지 일대
지역	자연녹지(도시근린공원 일부 포함)
대지면적	56,200㎡
건축면적	7,550㎡
연면적	12,833㎡
건폐율	13.43%
용적률	22.83%
규모	문화시설 - 지하1층, 지상3층 체육시설 - 지하1층, 지상2층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일부 철골조
주차대수	250대(지하 - 152대, 지상 98대)
외장재료	화강석버너구이+24THK 투명복층유리
주요시설	대공연장 - 1,500석, 소공연장 - 500석, 실내수영장, 어린이 체육 교육시설
부대시설	야외공연장, 시민문화광장, 분수대, 산책로
제책	마영준
설계담당	박해욱, 김윤모, 이상현, 박용범, 김예환, 김근용, 임재민, 김이준

배치계획

배치의 기본 방향은 건물이 대지를 점유하기 보다는 경관의 한 일부로 자리하도록 의도하여 부지를 도시근린공원의 핵으로 작동시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각 건물동들이 대지 전면 40m도로 앞에서부터 점차 부주산으로 상승 배치되는 단계적 레벨 수준을 설정하였다. 이는 기존 부지의 형세를 최대한 이용하고, 또한 동시에 절토비용 등 공사비의 감소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합리적 배치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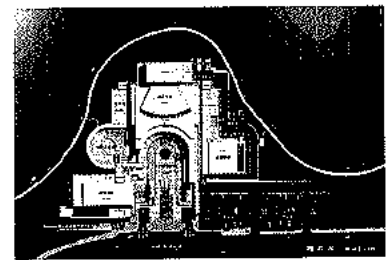
동선계획

보행자의 주진입은 남북중축선의 지형 흐름에 따라 상승된다. 전면 진입부에 계단과 수공간을 설치하여 영역성을 강화하고 자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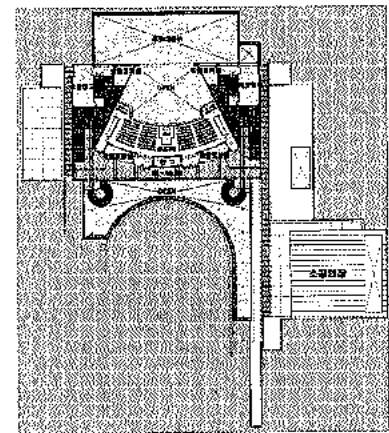
러운 진입 동선체계를 의도하였다. 관객의 등선은 건물의 전면에서, 직원 및 서비스 등선은 건물의 북동측으로 분리하여 동선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였다.

평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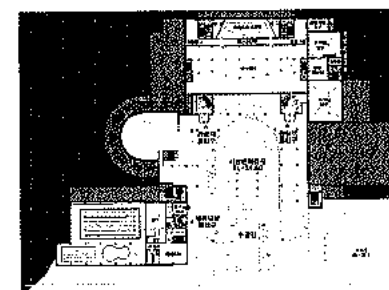
대공연장과 소공연장 사이에 출연자, 관리공간을 설정하여 공연 기능이 효율적으로 충족되도록 계획했다. 두 공연장은 배치상 분리되어 있으나, 다목적 홀로 사실상 묶여있어 일체화되어 있다. 기능상 문화부분과 시민체육(사회체육)시설부분으로 Zoning하였다.



배치도



3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월단면도

▶ 우수작 / 토문엔지니어링건축(한남수)+토향엔지니어링건축(오금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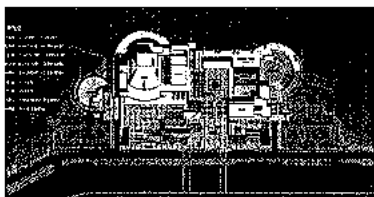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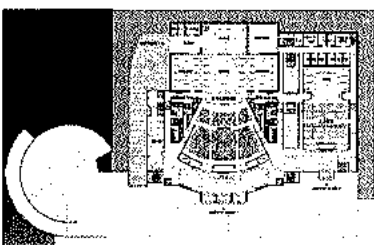


부분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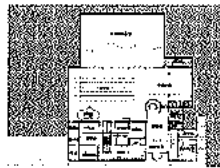
대지위치 목포시 옥암동 815번지 일대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대지면적 56,200㎡
건축면적 문화센터 - 4,970.00㎡
체육센터 - 1,632.95㎡
연면적 문화센터 - 8,716.16㎡
체육센터 - 4,352.97㎡
건폐율 11.75%
용적률 20.61%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
공사규모 문화센터 - 지하1층, 지상3층
체육센터 - 지하1층, 지상3층
외부마감 외장 - 화강석버너구이, 물갈기창호-24THK 파스텔컬러복층유리
주차대수 318대
부대시설 시민광장, 야외전시장, 야외공연장, 분수대, 가로공원, 산책로



배치도



문화센터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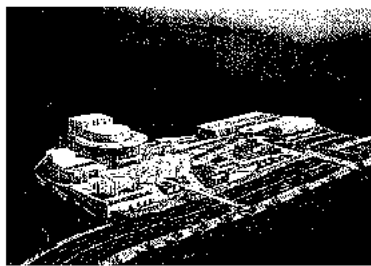


체육센터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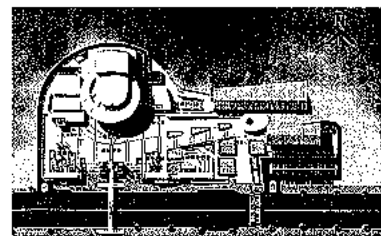
단면도

▶ 가작 / 정일엔지니어링건축(송기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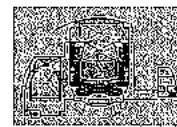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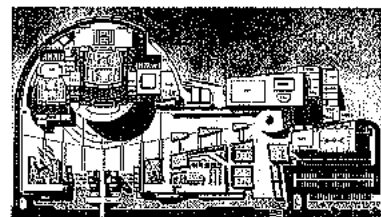
대지위치 목포시 옥암동 815번지 일대
대지면적 56,200㎡
지역지구 자연녹지(도시근린공원 일부)
주용도 관람집회시설, 운동시설
건축면적 9,318.12㎡
연면적 12,305.35㎡
문화시설 - 8,151.11㎡
체육시설 - 4,154.24㎡
건폐율 16.58%
용적률 19.62%
규모 문화시설 - 지하1층, 지상2층
체육시설 - 지상1층
구조 문화시설 - 철근콘크리트조
체육시설 - 철골조(일부 트러스)
주차대수 407대
부대시설 광장, 야외공연장, 야외전시장, 가로공원, 산책로



배치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종단면도

울산광역시 북구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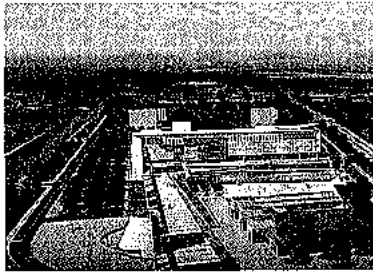
Ulsan Puk-gu Public Office

울산광역시 북구청은 행정업무 수행의 역할과 지역사회의 만남의 장, 시민의 휴게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21세기 울산의 Land Mark 역할을 할 울산광역시 북구청의 현상설계경기를 실시, 총 15개 작품이 접수된 가운데 당선작에 (주)성림엔지니어링종합건축(석효일)안, 우수작에 (주)종합건축 금성(한종업)안, 가작에 (주)업&이종합건축(미각표)안을 각각 선정, 그 결과를 지난 6월 26일에 발표했다.

실사위원은 다음과 같다.

황성환, 강영환, 강인준, 강 혁,
노진달, 박충건, 김흥관, 신재익, 김기열,
유병태, 유병욱, 윤두환, 정양부, 정영수

▶ 당선작 / (주)성림엔지니어링종합건축(석효일)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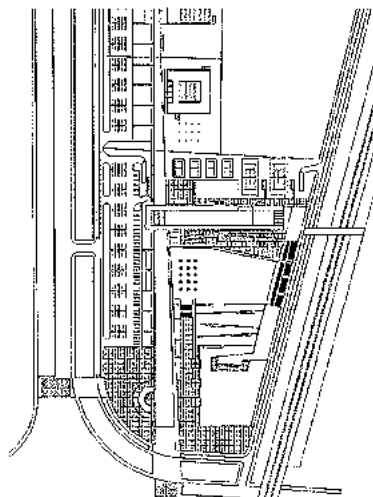
대지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1081-1
번지 일원
지역지구 생산녹지 지역
대지면적 33,050㎡
건축면적 2,675㎡
연면적 18,803㎡
조경면적 10,245㎡
최고높이 33m
건폐율 8.1%
용적률 24%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규모 지하1층, 지상5층
주차대수 지상136대, 지하215대

배치 및 Mass계획

- 장래의 도시 발전축을 고려한 배치 및 외부공간 계획
- 공간분할 - 외부공간 계획은 도로체계를 고려한 도로 - 공공녹지 - 주차 - 진입녹지 - 길 - 광장 - 가로공원의 단위 Layer별로 분리하여 대지의 효율성 및 접근성이 유리하게 계획
- 주진입 관계 - 대지내 출입구는 도시의 발전축 선상에 위치하여 상징적인 출입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이용자들은 도로의 어느 곳에서나 진입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계획
- 장래중축 - 단지내 도로와 건물을 직선형으로 배치하여 장래 중축이 필요시 Block Plan 형태로 중축이 가능하여 구심형 평

면보다는 중축의 효율성을 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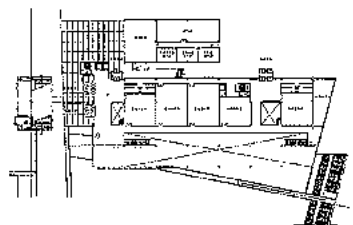
- 주차장의 활용성 - 외부주차장을 조경공간 및 보행자의 단지내 진입공간으로 활용하여 도시의 미관 및 활용성을 높임
- 소음 - 대지의 동측과 서측에 있는 자동차도로와 철도의 소음이 건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건축물을 동서의 길이방향으로 배치하고 양측에 조경공간을 둠



배치도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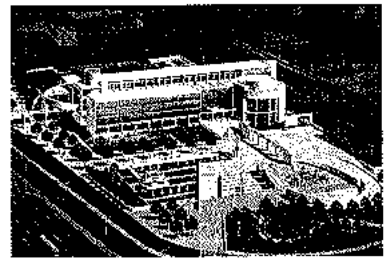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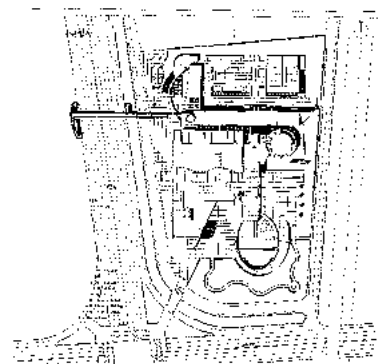
남측 입면도

▶ 우수작 / (주)종합건축 금성(한종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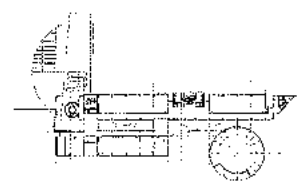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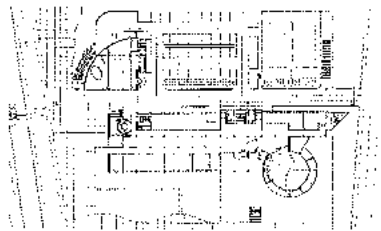
대지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1081-1
번지 일원
지역지구 생산녹지 지역
대지면적 44,288㎡
건축면적 3,679.97㎡
연면적 11,991.50㎡
건폐율 8.3%
용적률 27%
조경면적 9,491.21㎡
주차면적 지상 - 76대, 지하 - 228대
최고높이 29.5m
규모 구청사 - 지하1층, 지상5층
민원 · 의회동 - 지상3층
별관 - 지하1층, 지상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라멘조, 철골트러스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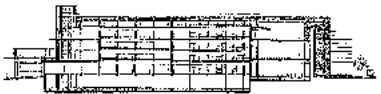
배치도



3층 평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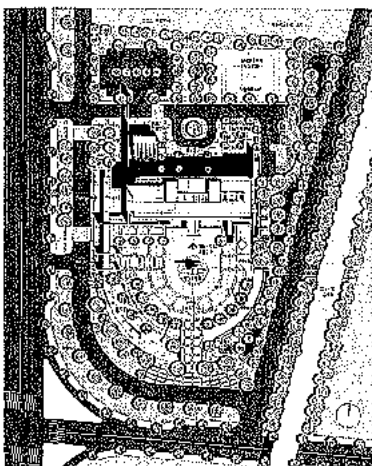
단면도

▶ 가작 / (주)업&이종합건축(이각표)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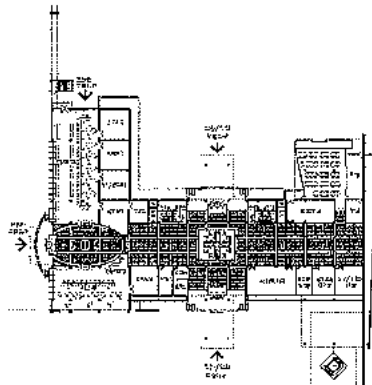
대지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1081-1
 번지 일원
 지역지구 생산녹지지역(공용의 청사결정지)
 대지면적 33,050.0㎡
 건축면적 3,281.6㎡
 연면적 18,941.0㎡
 건폐율 9.9%
 용적률 40.1%
 건축규모 지하1층, 지상5층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멘조
 주차대수 277대(지상-77대, 지하-200대)
 설계담당 정구동, 윤기창, 양승중, 김혜진,
 박민웅



배치도



5층 평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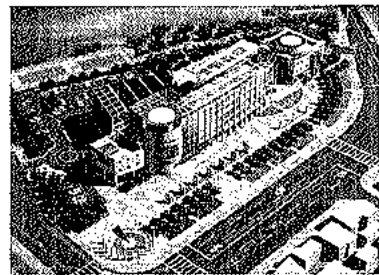
서측면도

전북 교육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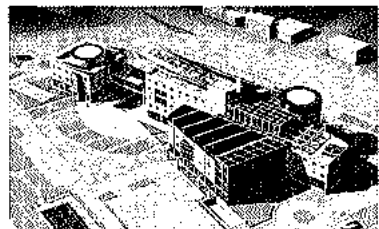
Cheonbuk Educational Office

전라북도 교육청은 21세기 지방 교육자치 시대에 걸맞고 교육행정 서비스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청사와 정보사회 변화에 따른 교육 수요자의 편의 도모를 위한 새로운 교육청사의 현상설계경기를 실시. 총15개 작품이 접수된 가운데 당선작에 단원건축(오종환)+세림건축(이상돈+송경규)안, 우수작에 우림컨설팅(권원하)안, 가작에 (주)그룹한 경종합건축(정병배)안과 (주)삼우종합건축(한상목)안을 각각 선정, 그 결과를 지난 6월 3일에 발표했다.

▶ 당선작 / 단원건축(오종환)+세림건축(이상돈+송경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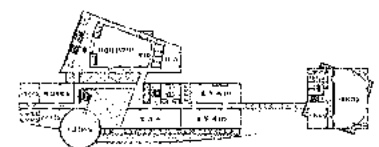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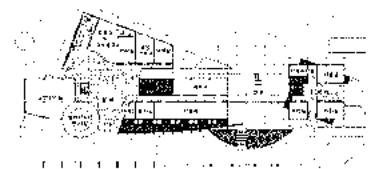


모형도

위치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전주농고
 실습부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5종 미관지구
 대지면적 23,140.00㎡
 건축면적 3,519.98㎡
 연면적 14,430.26㎡(지하-2,702.11㎡,
 지상-11,728.15㎡)
 건폐율 15.21%
 용적률 50.68%
 규모 교육청사-지하1층, 지상5층
 교육위원회-지하1층, 지상3층
 주차대수 255대(지상-129대, 지하-126대)
 외장재료 화강석, 복층유리, 메탈패널
 부대시설 3,763.25㎡
 설계담당 강진수, 박근만, 정미숙, 백창학,
 장정우, 김현중, 장성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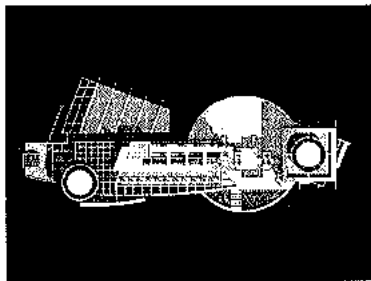
3층 평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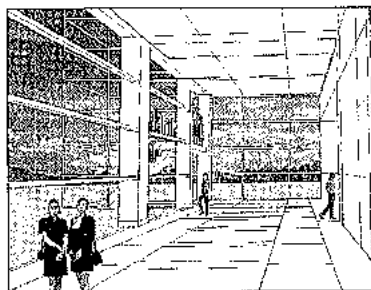
동측입면도



▶ 우수작 / 우림컨설팅(권연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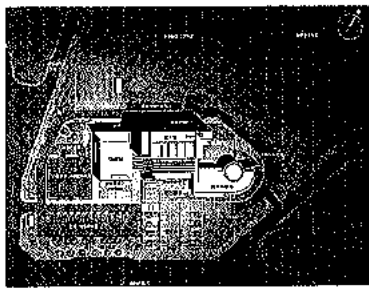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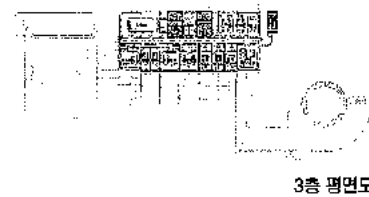


부분투시도(강당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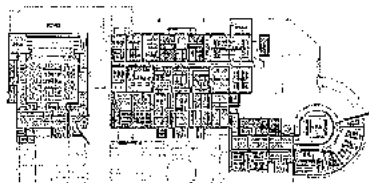
대지위치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2-6번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5종 미관지역
 대지면적 22,631.4㎡
 도로현황 남측 - 40m도로, 동측 - 10m도로, 서측 - 20m신설도로
 건축면적 3,867.3㎡
 연면적 13,389.3㎡
 건폐율 17.1%
 용적률 59.2%
 규모 지하1층, 지상7층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주차대수 284대(지상 145대, 지하139대)



배치도



3층 평면도



1층 평면도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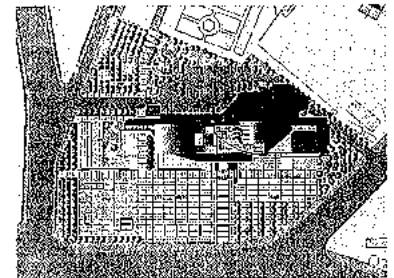
▶ 가작 / (주)그룹환경종합건축(정병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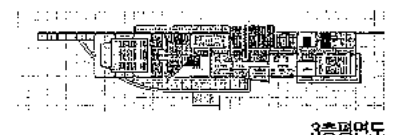
조감도

대지위치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2-6외
 대지면적 22,631.50㎡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건축면적 1,596.28㎡
 연면적 13,661.62㎡(지상 - 11,259.44㎡, 지하 - 2,402.18㎡)
 건폐율 7.05%
 용적률 49.75%
 용도 공공업무시설

규모 지하1층, 지상1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SRC
 주차대수 252대(육내 168대, 육외 84대)
 조경면적 5,719.0㎡
 외장재료 화강석버너구이+메탈패널, 컬러복층유리



배치도



3층평면도



1층 평면도



정면도

예천군청사

Yecheon-gun Public Off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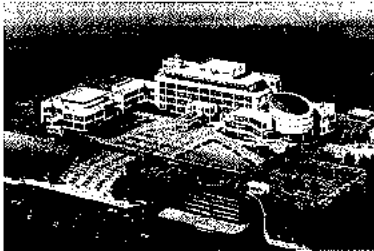
예천군은 군민을 위한 행정공간 및 의회공간 마련을 위해 지난해 예천군청사 현상설계 경기를 실시, 총 21개 작품이 접수된 가운데 당선작에는 세릴건축(허수진)안, 우수작에는 (주)성림중

합건축(임정렬)안, 가작에는 (주)업&이
종합건축(이각표)안과 소백건축(이덕
기)안, 그리고 입선작에 토담종합건축
(최영원)안, 우신건축(정연주) + (주)
SAS건축(심우근)안, (주)한국건축(윤
영도)안, (주)현대연합건축(구성일)안,
(주)환경종합건축(홍성규)안을 각각 선
정하여 발표했다.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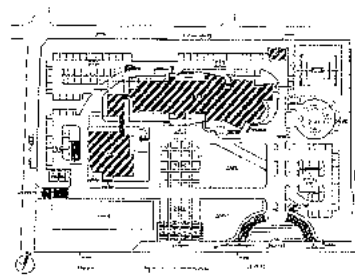
김승제(광운대), 김일진(영남
대), 김종영(계명대), 민창기(평택대),
이호진(건국대), 정진수(영남대), 최무
혁(경북대), 공무원 3명, 군의원 1명

▶ 당선작 / 세림건축(하수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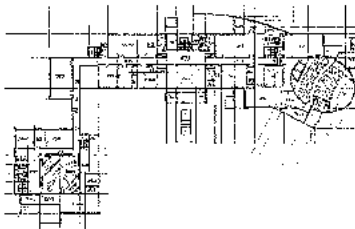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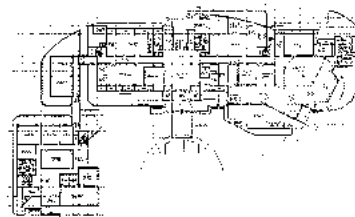
대지위치 경북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 350
-1번지 일원
대지면적 42,605㎡
구조 철근콘크리트라멘조, 일부 철골트
러스트조
층수 청사동 - 지하1층, 지상5층
의회동 - 지하1층, 지상2층
수위실동 - 지상1층
차량정비동 - 지상1층
건축면적 3,284.79㎡
연면적 15,691.49㎡(지상 - 12,179.88
㎡, 지하 - 3,511.61㎡)
건폐율 7.71%
용적률 28.59%
외장재료 화강석버너구이 및 컬러복층유리
내장재료 바닥 - 화강석물갈기, 디렉스타
일, 릅스트롱
벽 - 화강석물갈기, 수성페인트,
본타일
천정 - THK9 솔라톤, THK6 아
스칼텍스, 컬러알루미늄
천정재
주차대수 242대



배치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정면도



청사동 횡단면도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Kwangju Office of
Election Administration Committ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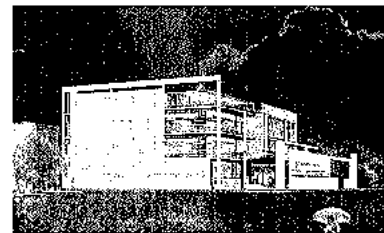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행정 공간 마련을 위해 청사 현상설
계경기를 실시, 총 6개 작품이 접수된 가

운데 당선작에 유지건축(김유지) +
K2ASQ(강장완)안, 우수작에 (주)토형
엔지니어링건축(박형갑)안과 건축사사
무소 휴먼·플랜(양병범)안을 선정, 지
난 5월 13일에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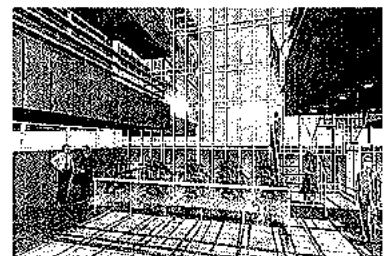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다.

정일환(위원장, 선관위 상임위
원), 이규건(선관위 사무국장), 유동완
(전남 선관위원), 신남수(전남대), 오세
규(전남대), 김수인(조선대), 이철웅(조
선대), 윤재희(광주대), 조학철(광주대),
이세준(호남대), 박익수(호남대)

▶ 당선작 / 유지건축(김유지) + K2A SQ(강장완)



투시도



부분투시도

대지위치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05-2
지역지구 중심상업지역, 상세개발계획지구
대지면적 1,654.1㎡
건축면적 819.56㎡
연면적 2,224.70㎡
건폐율 49.55%
용적률 116.72%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라멘조
건축규모 지하1층, 지상4층
외장재료 알루미늄패널, I-형강, 드라이비
트, 화강석패널, 투명복층유리,
편칭메탈
조경면적 210.8㎡
주차대수 28대(장애인주차 2대 포함 - 법
정 28대)

설계담당 배대경, 오명신, 이화석, 장환성
3D작업 홍주기, 신용호

배치계획

건축자선정과 건축관계선을 존중한 건물배치를 하였으며, 본 건물의 주요질서와 현관 매스의 부질서와의 건축적 조화를 추구하였다. 또한 탈권위주의적이고 선협적인 공간의 배치를 하였으며 병렬축형의 진입공간 구조를 통한 민주적인 청사를 표현하였다. 웅이 한 방문자 접근을 위하여 전면에 진입마당을 배치했으며, 정원벽을 통해 지상 주차장을 차폐하였다.

평면계획

지하층은 1층 로비홀의 오픈을 통해 밝고 쾌적한 공용공간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식당 주변에 선권정원을 마련하여 채광과 환기가 뛰어나도록 하였다. 1층 계획에 있어서는 인간적 스케일의 현관 로비에서 로비홀에 이르는 동선축에 변화를 주어 청사 공간감에 깊이를 더했으며, 코아를 통해 다른 사무공간과의 연결이 용이하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2층과 3층은 위원장실을 코너에 배치하여 조망과 인지도를 높이고, 사무국장실과 상임위원실을 부속실을 중심으로 배치하여 기능성을 고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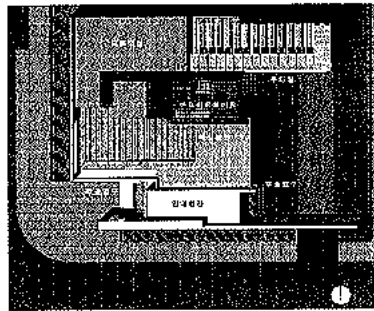
4층의 대회의실은 중축을 고려하여 배치되었고, 대회의실 주변에 옥상정원을 계획하여 실내 공간과 실외공간의 연속성을 추구하였다.

입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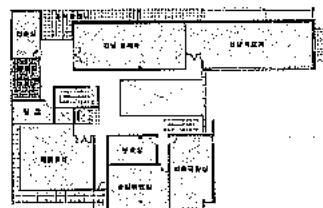
공정하고 투명한 청사의 상징적 이미지를 표현하였으며, 내부공간과 매스의 관계에 충실한 입면계획을 하였다. 또한 균형된 모듈의 정립으로 경제성과 일체감을 구현하였다.

단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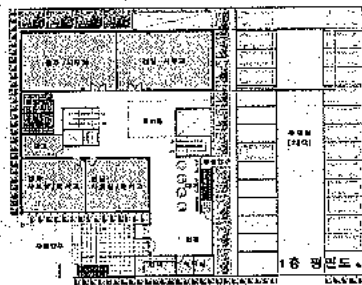
로비홀 상부에 아트리움을 형성함으로써 밝고 쾌적한 청사의 이미지와 효율적인 업무공간을 추구하였고, 아트리움을 중심으로 한 코아계획으로 명쾌한 수직·수평 동선체계를 확립하였다. 또한 인간적 스케일의 진입현관과 아트리움이 있는 로비홀의 대비를 통한 공간적 변화와 인지성을 극대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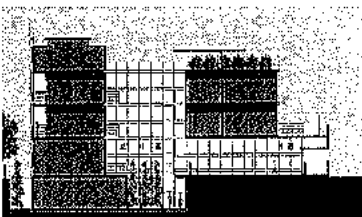
배치도



3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중단면도

▶ 우수작 I / (주)토형엔지니어링건축



조감도

건축면적	573.6㎡
연면적	2,204.2㎡
간폐율	34.68%
용적률	117.01%
용도	공공업무시설
규모	지하1층, 지상4층
최고높이	18.30m
구조	철근콘크리트라멘조, 철골트러스조
주차대수	28대
조경면적	260㎡
미감재료	화강석+AL 복합패널

계획개념

주변도시의 건물 광장과 업무시설군의 가로 모퉁이를 고려한 합리적인 배치로 도시주변과 조화를 추구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엄정중립성을 표시하는 형태를 추구하였다. 또한 효율적인 공간구성 및 기능적 배치로 선거행정을 원활하게 지원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내부공간의 환경요소를 고려하여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배치계획

도시의 축과 건물축을 일치시켜 도시 가로경관의 연속성을 확보하였고, 교통소음 등 조망권 확보를 위해 도로변으로부터 최대한 후퇴시켜 가로변에 공공적 공간을 제공하였다. 또한 보행자의 휴게공간 및 광장과 연계되는 완충적 공개공지를 확보하였으며, 지하 연결동로와 선권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였다.

평면계획

선거행렬 업무의 자연스런 흐름에 의한 효율성과 체계성을 부여하였으며 사무자동화, 전산화 기능에 부합되는 기능적인 평면구성을 하였다. 또한 동선의 명확성, 제반설비의 집약적 이용, 일사조절 및 통풍 등을 고려한 향과 조망을 설정하여 에너지 절약효과를 기대했으며, 전시 및 홍보 가능한 홀 공간 및 각 층에 휴게공간을 설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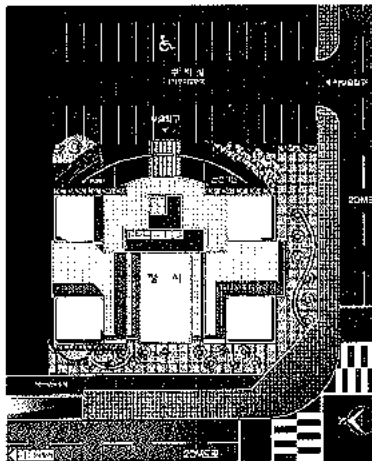
입면계획

효율적인 선거관리의 통제와 관리지원에 적합한 위계성을 부여했으며, 매스의 균형과 조화에 의한 변화감 및 안정감을 도모하였다. 또한 자연환경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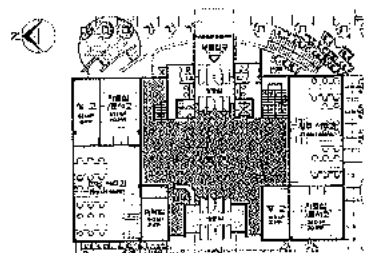
있는 환경 친화적 형태를 표현하였다.

단면계획

이용도에 따른 합리적인 기능구성에 의해 층위차를 설정했으며, 사무전산화에 대비한 층고계획 및 OA용 Access Floor를 설치하였다.



배치도



1층 평면도



정면도

▶ 우수작 II / 건축사무소 휴먼·플랜 (양병범)



모형도

건축면적	580.40㎡
연면적	2,255.50㎡
건폐율	35.09%
용적률	119.94%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층수	지하1층, 지상4층
최고높이	17.4m
마감재료	화강석 버너구이+THK24 컬러 복층유리
주차대수	29대
조경면적	270.00㎡

계획의 전제

이용객의 편리한 이용성, 주위와의 조화, 행정업무전산화 등 정보화에 대비하는 경제적인 건물계획을 하였으며, 권위성, 공정성, 투명성, 엄중성을 창출하여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엄정중립성을 갖춘 계획을 하였다. 또한 기능, 구조, 미가 조화를 이루는 효율적인 건물계획으로 경제성을 살렸다.

평면계획

중앙에 공용 및 휴게공간을 두고 측면에 행정공간을 계획하여 분별성이 예상되는 공간 계획에 있어 효율적인 평면계획을 하였다. 선관 거트와 옥외휴게공간의 도입으로 외부 공간과의 연계성을 확보하였으며 층별 공용 공간 및 휴게공간의 여유있는 계획에 따른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였다.

입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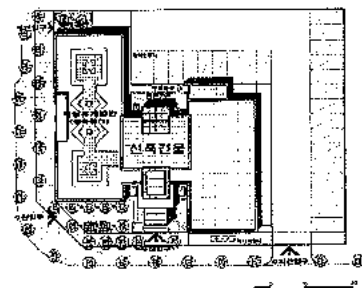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한 재료, 색상계획을 하였으며, 대칭적인 표현에 따른 엄중성, 형평성의 표현을 하였다. 또한 피선거자로 표현되는 두 매스 사이에 상징성을 갖는 Glass Tower를 두어 공정함과 투명함을 표현하였다.

광장측 도로변은 매스의 연계에 따른 점진적 연계성을 고려했으며, 장방형 매스의 분절과 연계로써 중심적이고 상징적인 안정감을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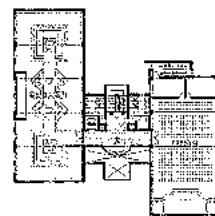
단면계획

층별 홀과 1층 로비에 연계된 Toplight를 설치하여 자연채광을 적극 유도하여 에너지 절약 효과를 주었으며, 주계단 참여에서의 오픈된 부분을 글래스로 처리하여 후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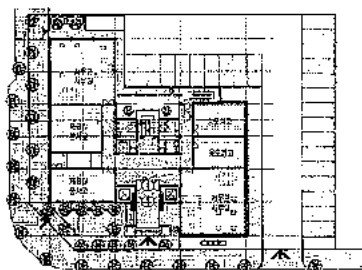
연계된 공용청사로서의 시각적, 공간적 연계성을 고려하였다. 또한 지하층 식당에 접면에서 연계되는 Toplight와 후면에 선관을 계획하며 옥외 공간과의 연계성을 갖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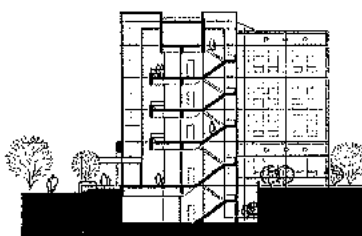
배치도



4층 평면도



1층 평면도



횡단면도

통 계 statistics

설계도서신고현황

98년도 6월분

종합평가

가. 전년동월비

전년도 6월분 1천2십9만1천68㎡ 보다 59.5%(6백1십2만4백90㎡) 감소한 4백1십7만5백78㎡의 실적을 보임.

나. 전년동기비

전년도 6월분 6천3백6십9만3백89㎡ 보다 51.4%(3천2백7십1만3천5백96㎡) 감소한 3천9십7만6천7백93㎡의 실적을 보임.

다. 전월비

전월 5월분 4백2십7만5천8백67㎡보다 2.5%(1십만5천2백89㎡) 감소한 4백1십7만5백78㎡의 실적을 보임.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증감현황

(연면적기준-전년동월비) (단위/㎡)

구 분	1997년도	1998년도	증·감	비율(%)
증가지역	울 산	0	21,509	21,509
감소지역	서 울	4,509,292	2,595,380	(1,913,912) -42.4%
	부 산	615,872	74,829	(541,043) -87.8%
	대 구	382,270	82,794	(299,476) -78.3%
	인 천	432,851	94,958	(337,893) -78.1%
	광 주	635,052	24,515	(610,537) -96.1%
	대 전	330,947	21,377	(309,570) -93.5%
	경 기	1,516,564	674,890	(841,674) -55.5%
	강 원	235,204	123,861	(111,343) -47.3%
	충 북	314,848	118,219	(196,629) -62.5%
	충 남	165,277	85,405	(79,872) -48.3%
	전 북	174,748	46,757	(127,991) -73.2%
	전 남	214,901	37,252	(177,649) -82.7%
	경 북	246,433	60,981	(185,452) -75.3%
	경 남	429,377	82,606	(346,771) -80.8%
	세 주	87,432	25,245	(62,187) -71.1%
합 계	10,291,068	4,170,578	(6,120,490)	-59.5%

용도별 전월대비 증감현황(연면적 기준)

(용도)

단 목 주 택	82,098 (-5.4%)	77,629
다 세 대 주 택	84,938 (-81.5%)	15,740
연 립 주 택	38,807	517,445 (1,240.3%)
아 파 트		1,961,993 (2,054,735 (4.7%))
근린생활시설	337,626 (-18.9%)	273,735
종 교 시 설	58,768 (18.4%)	69,573
의 료 시 설	24,920 (-85.5%)	3,622
교육연구시설	536,316 (-50.7%)	264,636
업 무 시 설	270,256 (-37.0%)	170,208
숙 박 시 설	49,776 (79.1%)	89,146
공 장	233,052 (-11.8%)	205,511
기 타	597,517 (-28.3%)	408,5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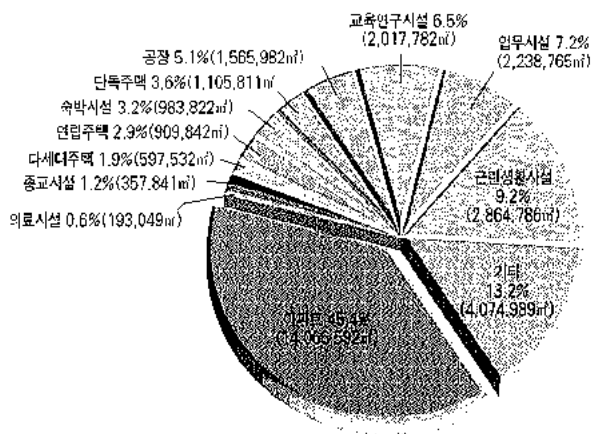
연면적 합계/ 5월: 4,275,867㎡
6월: 4,170,578㎡ (-2.5%)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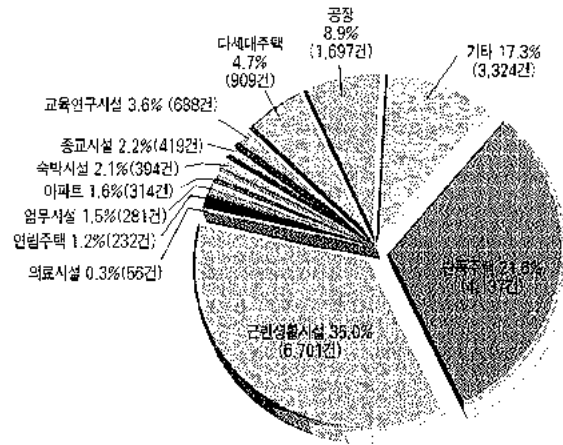
용도별 전년동월대비 현황(6월분)

구 분	1997년			1998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단 목 주 택	2,524	2,631	754,403	351	373	77,629	(2,173)	(2,258)	(676,774)	-89.7	
다 세 대 주 택	501	537	297,550	40	41	15,740	(461)	(496)	(281,810)	-94.7	
연 립 주 택	111	122	211,164	23	22	517,445	(88)	(100)	306,281	145.0	
아 파 트	118	324	4,183,825	37	92	2,054,735	(81)	(232)	(2,129,090)	-50.9	
근린생활시설	3,169	3,246	1,471,304	817	838	273,735	(2,352)	(2,408)	(1,197,569)	-81.4	
종 교 시 설	110	114	86,101	71	75	69,573	(39)	(39)	(16,528)	-19.2	
의 료 시 설	28	30	51,808	5	5	3,622	(23)	(25)	(48,186)	-93.0	
교육연구시설	155	166	419,061	119	126	264,636	(36)	(40)	(154,425)	-36.9	
업 무 시 설	98	103	605,791	38	38	170,208	(60)	(65)	(435,583)	-71.9	
숙 박 시 설	223	237	267,519	33	49	89,146	(190)	(188)	(178,373)	-66.7	
공 장	768	1,011	696,531	227	294	205,511	(541)	(717)	(491,020)	-70.5	
기 타	1,164	1,303	1,248,011	524	603	428,598	(640)	(700)	(817,413)	-65.6	
합 계	8,969	9,824	10,291,068	2,285	2,556	4,170,578	(6,684)	(7,268)	(6,120,490)	-59.5	()=미아니스

용도별 구성비(1998년 6월분 누계)



연면적 (총 30,976,793㎡)



건수 (총 19,152건)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현황(6월분)

구분	1997년			1998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울	1,258	1,259	4,509,292	328	328	2,595,380	(930)	(931)	(1,913,912)	-42.4	
부산	276	474	615,872	52	82	74,829	(224)	(392)	(541,043)	-87.8	
대구	463	463	382,270	115	115	82,794	(348)	(348)	(299,476)	-78.3	
인천	229	230	432,851	76	76	94,958	(153)	(154)	(337,893)	-78.1	
광주	951	1,062	635,052	57	68	24,515	(894)	(994)	(610,537)	-96.1	
대전	593	602	330,947	57	57	21,377	(536)	(545)	(309,570)	-93.5	
울산	0	0	0	39	39	21,509	39	39	21,509	-	
경기	11,775	2,005	1,516,564	513	614	674,890	(1,262)	(1,391)	(841,674)	-55.5	
강원	513	586	235,204	199	222	123,861	(314)	(364)	(111,343)	-47.3	
충북	455	516	314,848	164	196	118,219	(291)	(320)	(196,629)	-62.5	
충남	304	250	165,277	161	131	85,405	(143)	(119)	(79,872)	-48.3	
전북	308	308	174,748	95	95	46,757	(213)	(213)	(127,991)	-73.2	
전남	508	533	214,901	90	107	37,252	(418)	(426)	(177,649)	-82.7	
경북	389	409	246,433	133	150	60,981	(256)	(259)	(185,452)	-75.3	
경남	755	889	429,377	138	181	82,606	(617)	(708)	(346,771)	-80.8	
제주	192	238	87,432	68	95	25,245	(124)	(143)	(62,187)	-71.1	
합계	8,969	9,824	10,291,068	2,285	2,556	4,170,578	(6,684)	(7,268)	(6,120,490)	-59.5	()=미아너스

지역별 전년동기대비 현황(6월 누계)

구분	1997년			1998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울	8,320	8,366	27,122,370	3,417	3,459	17,343,506	(4,903)	(4,907)	(9,778,864)	-36.1	
부산	2,939	4,577	8,342,362	1,082	1,951	1,727,175	(1,857)	(2,626)	(6,615,187)	-79.3	
대구	2,828	2,831	3,807,341	564	564	506,860	(2,264)	(2,267)	(3,300,481)	-86.7	
인천	1,735	1,771	3,380,223	824	834	1,260,626	(911)	(937)	(2,119,597)	-62.7	
광주	2,417	2,752	1,588,464	563	687	374,697	(1,854)	(2,055)	(1,213,767)	-76.4	
대전	1,796	1,822	998,746	528	528	474,045	(1,268)	(1,294)	(524,701)	-52.5	
울산	0	0	0	264	268	180,485	264	268	180,485	-	
경기	9,079	10,194	6,142,521	4,810	5,558	3,982,089	(4,269)	(4,636)	(2,160,432)	-35.2	
강원	2,599	2,833	1,095,920	1,204	1,362	741,013	(1,395)	(1,471)	(354,907)	-32.4	
충북	2,552	3,060	1,930,522	1,154	1,402	1,245,386	(1,398)	(1,658)	(685,136)	-35.5	
충남	1,990	1,562	1,243,574	997	857	571,269	(993)	(705)	(672,305)	-54.1	
전북	1,209	1,209	987,241	470	470	373,371	(739)	(739)	(613,870)	-62.2	
전남	2,056	2,219	1,153,825	599	669	342,208	(1,457)	(1,550)	(811,617)	-70.3	
경북	2,443	2,697	1,201,281	1,043	1,175	601,766	(1,400)	(1,522)	(599,515)	-49.9	
경남	4,829	5,548	4,310,184	1,274	1,592	1,106,874	(3,555)	(3,956)	(3,203,310)	-74.3	
제주	888	1,001	395,815	359	423	145,423	(529)	(578)	(240,392)	-62.3	
합계	47,680	52,442	63,690,389	19,152	21,809	30,976,793	(28,528)	(30,633)	(32,713,596)	-51.4	()=미아너스

회원현황 member

회원변동사항(6월)

구 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월말 회원수	6890	2759		635		517		215		223		224		126		775		156		170		166		186		102		227		328		61		
금 별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회 원 수	6891	29	2753	6	634	1	516	1	214	1	223	0	241	3	125	0	770	5	156	0	168	2	163	3	183	3	100	2	225	2	328	0	61	0
회 원 변 동 사 항	인 회	15	0	6		1		1		1						4										1								
	재 입 회	1	0	1																														
	전 입	11	0			2				1						5		1								2								
	전 출	-14	0	-2			-1			-2	-1		-1	-1	-2							-1				-1			-2					
	폐 업	-36	0	-12		-1	-2				-1			-2	-5					-1		-1				-1		-1		-1				
	사 망	-1	0																							-1								
등록취소	0	0																																
금월말 회원수	6837	29	2746	6	636	1	514	1	215	1	222	0	240	3	123	0	773	5	155	0	167	2	161	3	182	3	101	2	224	2	317	0	61	0
계	6866	2752		637		515		216		222		243		123		778		155		169		164		185		103		226		317		61		

98년도 회원변동사항(6월 누계)

구 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구 분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입 회	401	0	113		19		19		10		32		27		9		66		13		15		15		14		9		21		14		5	
재 입 회	5	0	3												2																			
전 입	85	0	13		4				3		2		3		1		35		3		1		2		2		9		4		3			
소 계	491	0	129	0	23	0	19	0	13	0	34	0	30	0	10	0	103	0	16	0	16	0	17	0	16	0	18	0	25	0	17	0	5	0
계	491		129		23		19		13		34		30		10		103		16		16		17		16		18		25		17		5	
전 출	86	0	29		4		4		9		12		3		1		11		3		1		3				2				4			
폐 업	177	5	82	3	13		14		2		1	1	5		8		23	1	2		3		2		2		2		2		16			
사 망	11	0	2		1		1				1						2		1						1				1			1		
등록취소	2	0	2																															
소 계	276	5	115	3	18	0	19	0	11	0	14	1	8	0	9	0	36	1	6	0	4	0	5	0	3	0	4	0	3	0	20	0	1	0
계	281		118		18		19		11		15		8		9		37		6		4		5		3		4		3		20		1	
누 계	210		11		5		0		2		19		22		1		66		10		12		12		13		14		22		-3		4	

제8회 아시아건축사대회 참가안내

우리 협회가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는 아시아건축협의회(ARCASIA; Architects Regional Council for Asia)에서는 아시아건축사대회와 아카시아토론회를 격년제로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에는 "21세기 도전에 직면한 건축사의 역할 재정립"이라는 주제로 오는 11.10(화)~16(일)까지 스리랑카 콜롬보 타지 사무드라(Taj Samudra) 호텔에서 제8회 아시아건축사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아시아건축사대회 기간 중에는 아카시아이사회, 아카시아교육위원회 개최를 비롯하여, 아시아지역 15개 회원국대표 뿐만 아니라 각국 참관단이 함께 할 수 있는 건축관련 세미나 및 포럼 그리고 다채로운 문화행사들로 진행됩니다.

아카시아 회원국들간의 건축정보교류 및 상호협력증진을 위한 제8회 아시아건축사대회와 스리랑카 건축탐방을 연계한 참관단 모집에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제7회 아카시아 학생잼버리 참가자 모집

- 개최기간: 1998. 11. 10-15
- 개최장소: 스리랑카 콜롬보
- 참가비용: 180달러(현지 교통료, 관광료, 친목행사비, 숙박비 포함)

- 신청기간: 8월 22일(토)까지

- 문의: 대한건축사협회 기획조정실

Tel: 581-5711~4/Fax: 586-8823

취업소개창구개설 안내

서울특별시건축사회에서는 IMF경제체제하에서의 취업난을 해소하고 회원사의 직원채용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절감에 다소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서울 및 수도권 각 학교의 협조를 받아 상설 취업소개창구를 개설, 설계 및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소개해 드리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문의: 전화 02-581-5715~8, 팩스 02-523-2284

서울특별시건축사회

■ 구 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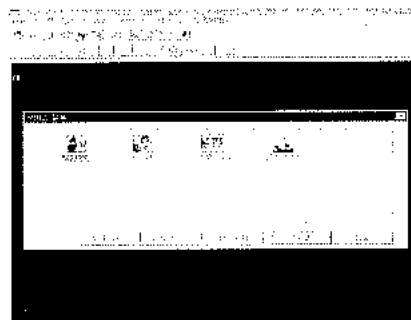
성명	성별	연령	학력	보유자격	실무경력	희망직종
강○○	남	29('70)	전문대졸	건축기사2급	-	CAD
이○○	남	27('72)	대졸	-	-	건축설계
고○○	여	24('75)	"	-	-	건축설계
최○○	남	27('72)	전문대졸	건축제도기능사2급	4년	건축설계
양○○	남	27('72)	대졸	건축기사1,2급	1년 3개월	건축설계
강○○	남	26('73)	"	건축기사1급	-	CAD
조○○	여	26('73)	"	건축기사1,2급	-	CAD
김○○	남	25('74)	전문대졸	건축기사2급	-	건축설계
정○○	남	23('76)	"	건축제도기능사 건축기사2급	-	건축설계
이○○	남	31('68)	"	-	1년 1개월	건축설계
최○○	남	28('71)	대졸	건축기사1급	6개월	건축설계
김○○	남	28('71)	"	건축기사1급	11개월	건축설계
김○○	남	27('72)	"	-	7개월	건축설계
김○○	여	24('75)	전문대졸	-	1년 8개월	건축설계
김○○	남	24('75)	고졸	건축제도기능사2급	9개월	건축설계
송○○	남	28('71)	대졸	토목기사1급, 자동차정비기능사2급	-	건축설계
윤○○	남	26('73)	"	건축기사1급	-	건축설계
황○○	남	28('71)	"	-	-	건축설계
송○○	남	25('74)	"	-	-	건축설계
류○○	남	26('73)	전문대졸	건축제도기능사2급	11개월	건축설계
장○○	남	27('72)	대졸	-	-	건축설계
김○○	남	27('72)	"	-	-	건축설계
신○○	여	22('77)	전문대졸	건축제도기능사	-	건축설계
이○○	남	27('72)	"	-	1년	감리
박○○	남	26('73)	"	건축기사2급	-	건축설계
한○○	남	27('72)	대졸	-	-	건축설계, 감리
김○○	여	33('66)	"	건축사	6년 11개월	건축설계
강○○	남	38('61)	전문대졸	건축사	6년 6개월	설계, 감리
이○○	여	33('66)	대졸	건축사	4년 8개월	건축설계
최○○	여	31('68)	"	건축사	6년	건축설계
정○○	남	35('64)	"	건축사	12년 6개월	설계, 감리

건축사협회 CUG 이용안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 우리 협회에서는 (주)데이콤에서 운영하고 있는 천리안 매직을 서비스에 CUG(Closed Use Group: 폐쇄 이용자 그룹)을 개설하였습니다.
- CUG란 이용이 허락된 회원들이 집단을 형성하여 상호 업무연락, 문서교류 및 정보제공, 전자회의 등을 할 수 있는 PC통신 서비스입니다.
- 우리 협회에서는 CUG를 이용하여 협회현황 알림, 각종 현상공모 알림, 관련법률 제공, 각종자료 제공, 설문조사 등을 할 예정입니다.
- CUG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협회 CUG담당자(정보관리실 정보전산팀)에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이용 신청한 후 우리 협회의 허락을 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 신규가입을 원하는 회원의 경우 천리안 매직콜 가입신청서를 협회 CUG담당자에게 송부하면, (주)데이콤의 천리안 매직콜 이용 권한과 우리 협회의 CUG 이용 허락을 받아 사용.
나. 천리안 매직콜에 이미 가입하고 있는 회원의 경우(별도의 이용요금 없음)
천리안 ID, 성명, 사무소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우리 협회 CUG담당자에게 송부한 후 우리 협회의 허락을 받아 사용.
다. CUG 연결방법: 천리안 매직콜에 접속한 후 "GO KIRA" 입력(우리 협회의 허락을 받아야 연결이 가능함)
-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하여 개설한 우리 협회 CUG를 모든 회원이 유용하게 이용하시기 바라며, 보다 많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각 회원이 가지고 계신 정보를 CUG에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협회의 CUG에 가입하면 (주)데이콤에서 제공하는 천리안 매직콜의 모든 정보를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CUG 이용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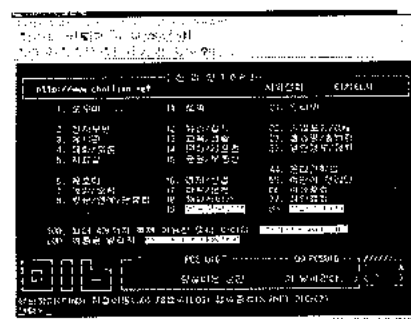
1. 먼저 PC에 모뎀을 설치하고 PC통신용 프로그램을 설치한다(여기에 한글과 컴퓨터의 한네트를 활용했음. 설치되어 있으면 생략). (그림 1, 2)
2. PC통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천리안에 접속을 시도한다(01421 등). (그림 3)
3. 천리안에 ID를 입력하여 접속이 되면 "GO KIRA"라고 입력하거나 초기메뉴에서 기업포럼/CUG를 선택하여 들어간다. 여기서 CUG란 폐쇄 이용자 그룹이라는 뜻으로 접근이 허용된 사람만이 들어올 수 있는 특정한 공간을 의미한다. 즉 대한건축사협회 CUG는 대한건축사협회 CUG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만이 이용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CUG의 가입은 천리안 가입자이고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거나, 건축사협회 회원으로 가입된 사람이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방법은 천리안에서 KIRAHEAD(본협회 CUG관리자 ID)에게 편지를 보내거나 본협회로 사무소명, 전화번호, 주소, 천리안 ID, 신청자 성명을 기록하여 FAX 583-6108로 보내면 이용이 가능하다. (그림 4, 5)
4. 기업 포럼/CUG에서 CUG를 선택하여 들어가면 다음 화면이 나온다. 여기서 "3. 건축/건설/부동산"을 선택한다. (그림 6, 7)
5. CUG중 건축·건설 관련 업체를 모아둔 공간이다. 여기에 대한건축사협회를 찾을 수 있다. 대한건축사협회를 선택하여 들어가면 건축사협회의 Logo와 함께 건축사협회 초기화면이 펼쳐진다. (그림 8,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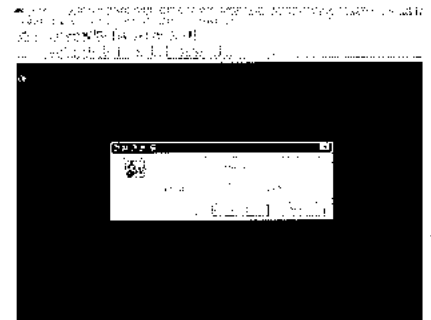
〈그림1〉 통신프로그램에서 전화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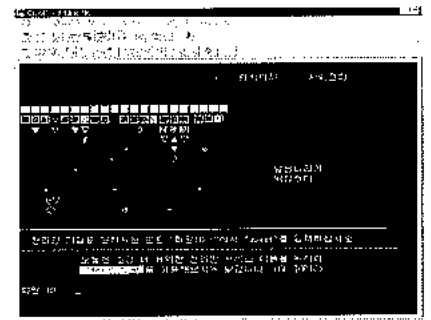
〈그림3〉 천리안 들어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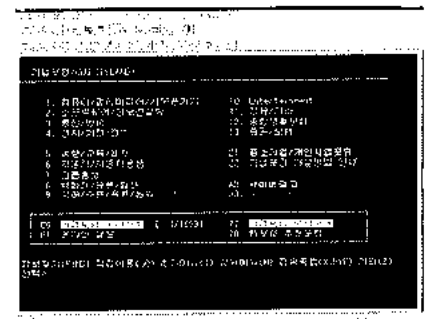
〈그림5〉 천리안 초기화면



〈그림2〉 전화걸기 2



〈그림4〉 ID입력



〈그림6〉 기업포럼/CUG화면